ETHER LIBRARY

0020

프랑켄슈타인

Frankenstein

메리 셸리

Mary Shelley · 1818

문학 · 소설

프랑켄슈타인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

메리 셸리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원제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

부제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지은이 메리 셸리(1797~1851)

옮긴이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1818년, 런던 래킹턴·휴스·하딩·메이버·존스. 세 권으로 나왔고, 지은이 이름 없이 출간되었다.

저본 1831년 개정판, 런던 헨리 콜번·리처드 벤틀리. 지은이가 고치고 새 서문을 붙인 판이다.

일러두기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을 영어 원전에서 옮긴 완역본입니다. 1818년 초판이 아니라, 지은이가 문장을 고치고 새 서문을 붙여 1831년 런던의 헨리 콜번과 리처드 벤틀리가 펴낸 개정판을 저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가장 널리 읽히는 판이며, 이 소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지은이가 직접 밝힌 서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 판을 옮겨 적은 퍼블릭 도메인 전자 텍스트를 썼고, 그 판의 삽화 두 점은 싣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1831년판 서문 끝에서 고친 것은 주로 문체이며 이야기는 바꾸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다만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1818년 초판에서 엘리자베스는 빅터의 고모의 딸, 곧 친사촌이지만, 1831년판에서는 빅터의 어머니가 이탈리아의 가난한 농가에서 데려와 기른 고아입니다. 이 차이는 1장 각주에서도 밝혔습니다.

1818년 초판은 세 권으로 나왔고 권마다 장 번호를 새로 매겼습니다. 1831년판은 한 권으로 묶으면서 장 번호를 1장부터 24장까지 이어 매겼고, 이 책도 그 번호를 따랐습니다.

앞의 두 서문 가운데 「1831년판 서문」은 메리 셸리가, 「1818년판 서문」은 남편 퍼시 비시 셸리가 지은이의 이름으로 썼습니다.

이야기의 짜임에 관하여

이 소설은 세 겹의 이야기입니다. 북극 항로를 찾아 나선 로버트 월턴이 영국의 누님에게 쓰는 편지가 바깥을 감싸고, 그 안에 월턴이 얼음 위에서 건져 낸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으며, 다시 그 안에 빅터가 만든 존재가 빅터에게 들려주는 이야기(11장부터 16장까지)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 들리도록 겹마다 말투를 달리했습니다. 월턴의 편지는 누님께 올리는 「-습니다」 체로, 빅터의 이야기와 피조물의 이야기는 「-었다」 체로 옮겼습니다. 원문은 피조물의 이야기 여섯 장의 모든 문단을 따옴표로 열지만, 이 책에서는 빅터의 이야기와 같이 따옴표 없이 옮기고, 그 안에서 인물들이 나누는 말만 따옴표로 묶었습니다. 원문 24장 끝에서 다시 월턴의 편지로 돌아오는 대목은 「월턴의 편지 (이어서)」 라는 꼭지로 따로 두었습니다.

말투에 관하여

영어에는 높임말이 없지만, 셸리는 빅터와 그가 만든 존재 사이에서 옛 2인칭 thou를 일부러 섞어 씁니다. 빅터는 저주할 때 thou를 쓰고, 피조물은 자기를 만든 이에게 탄원할 때 thou를 씁니다. 이 차이를 우리말에서는 높임과 낮춤으로 옮겼습니다.

빅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조물에게 반말로 말합니다.

피조물은 빅터에게 「-오」「-소」로 말하다가, 20장에서 「너는 나의 창조자다. 그러나 나는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반말로 바뀝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죽은 빅터를 부를 때는 다시 처음의 말투로 돌아옵니다.

월턴과 빅터는 서로 깍듯이 말하고, **빅터와 엘리자베스, 빅터와 클레르발**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사이라 서로 반말을 씁니다.

이름과 낱말에 관하여

인물의 이름은 원문이 영어 꼴로 적은 대로(빅터, 윌리엄, 엘리자베스, 헨리, 어니스트, 저스틴) 읽고, 성은 그 집안의 말로(보포르, 클레르발, 드 라세) 읽었습니다. 원문이 프랑스어 꼴로 적은 알퐁스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원문은 빅터가 만든 존재를 creature, monster, daemon, fiend, wretch, being, devil 같은 여러 낱말로 부릅니다. 누가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지가 그 낱말에 실려 있으므로 한 낱말로 뭉치지 않고 각각 「피조물」, 「괴물」, 「악령」, 「악귀」, 「흉물」, 「존재」, 「악마」로 끝까지 같은 글자로 옮겼습니다. 이 존재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그를 만든 사람의 이름입니다.

빅터는 피조물의 「창조자」로, 세상을 지은 신은 「창조주」로 구별했습니다.

부제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는 신에게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를 가리킵니다. 본문에는 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각주와 그 밖의 것

각주 열여덟 개 가운데 「(원주)」라고 밝힌 세 개는 지은이가 붙인 것이고, 나머지 열다섯 개는 옮긴이가 붙였습니다. 옮긴이 주는 지명과 제도, 문학 인용처럼 모르면 문장이 읽히지 않는 것에만 달았고, 인물의 심리나 상징을 풀이하는 주는 달지 않았습니다.

원문이 연도의 끝 두 자리를 가린 자리는 「17○○년」으로 적었습니다. 날짜와 거리는 「8월 5일」, 「3마일」처럼 아라비아 숫자로, 나이와 시각은 「열일곱 살」, 「새벽 한 시」처럼 한글로 적었습니다.

원문에서 기울여 쓴 강조는 기울임체로 살렸습니다. 원문의 줄표는 쓰지 않고 문장을 나누거나 쉼표로 이었으며, 끊긴 말은 말줄임표로 옮겼습니다. 시는 원문의 행 수를 지켜 옮겼습니다.

차례

1831년판 서문 9

1818년판 서문 17

첫째 편지 20

둘째 편지 25

셋째 편지 30

넷째 편지 32

제1장 42

제2장 48

제3장 55

제4장 64

제5장 72

제6장 80

제7장 89

제8장 102

제9장 113

제10장 120

제11장 128
제12장 137
제13장 144
제14장 151
제15장 157
제16장 167
제17장 177
제18장 184
제19장 194
제20장 203
제21장 214
제22장 226
제23장 237
제24장 246
월턴의 편지 (이어서) 255

1831년판 서문

「스탠더드 노블스」 총서[1]를 펴내는 출판사는 『프랑켄슈타인』을 그 총서의 한 권으로 고르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내력을 적어 달라고 내게 청했다. 나는 그 청에 더욱 기꺼이 응하려 한다. 그렇게 하면 그동안 숱하게 받아 온 물음, 곧 "어린 처녀였던 당신이 어떻게 그토록 흉측한 생각을 떠올리고, 또 그것을 그렇게 길게 풀어낼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물음에 한꺼번에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에서 나 자신을 앞에 내세우기를 내가 몹시 꺼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글은 예전에 낸 작품에 딸린 부록으로만 실릴 것이고, 내가 글을 쓰게 된 일과 이어진 이야기에만 머물 것이므로, 사사로운 일로 독자 앞에 끼어든다고 나 자신을 탓할 까닭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름난 문필가 두 사람의 딸로 태어났으니, 내가 아주 어려서부터 글쓰기를 생각했다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린 나는 무엇이든 끄적거렸고, 놀라고 내준 시간에 가장 즐겨 한 놀이는 "이야기 짓기"였다. 그래도 내게는 이보다 더 소중한 즐거움이 있었다. 공중에 성을 쌓는 일, 깨어 있으면서 꿈에 빠져드는 일, 상상 속의 사건을 줄줄이 지어내며 생각의 실마리를 따라가는 일이었다. 내 꿈은 내가 쓴 글보다 더 기발하면서도 더 즐거웠다. 글을 쓸 때 나는 남을 바싹 따라 하는 흉내쟁이여서, 내 마음이 일러 주는 것을 적어 내기보다는 남들이 해 온 대로 따라 했다. 내가 쓴 글은 적어도 다른 한 사람, 어린 시절의 길동무이자 벗에게는 보여 줄 생각으로 쓴 글이었다. 그러나 꿈은

오롯이 내 것이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그 꿈을 털어놓지 않았다. 꿈은 마음이 상할 때는 내 피난처였고, 마음이 홀가분할 때는 가장 소중한 즐거움이었다.

처녀 시절 나는 주로 시골에서 살았고, 스코틀랜드에서도 꽤 오래 지냈다. 이따금 경치가 빼어난 곳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늘 머문 곳은 던디 가까이, 테이강 북쪽의 훵하고 음산한 기슭이었다. 훵하고 음산하다는 것은 지금 돌이켜 보며 하는 말이고, 그때 내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곳은 자유가 깃든 둥지였고, 아무의 눈길도 받지 않은 채 내 공상이 빚은 인물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고장이었다. 그때도 글을 쓰기는 했다. 다만 더없이 평범한 글이었다. 나의 참된 작품, 하늘을 날아오르는 듯한 내 상상은 우리 집에 딸린 땅의 나무 아래에서, 또는 근처의 나무 한 그루 없는 산들의 황량한 비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나는 내 이야기의 여주인공이 되지 않았다. 나 자신을 두고 보면 삶은 너무나 평범한 일로만 보였다. 낭만적인 슬픔이나 경이로운 사건이 언젠가 내 몫이 되리라고는 그려 볼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나는 나라는 사람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기에, 그 나이의 내게는 나 자신의 느낌보다 훨씬 흥미로운 인물들을 지어내어 시간을 채울 수 있었다.

그 뒤로 내 삶은 더 바빠졌고, 꾸며 낸 이야기가 있던 자리를 현실이 차지했다. 그런데 남편은 처음부터 내가 부모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임을 스스로 보여 주고 명성의 책장에 내 이름을 올리기를 무척 바랐다. 남편은 늘 문필가로 이름을 얻으라고 나를 부추겼다. 그때는 나도 그런 명성을 바랐지만, 그 뒤로 나는 그런 것에 한없이 무심해졌다. 이 무렵 남편이 내게 글을 쓰라고 한 것은, 내가 남의 눈길을 끌 만한 무언가를 써 내리라 여겨서라기보다, 내가 앞으로 더 나은 것을 해낼 싹을 얼마나 지녔는지 직접 가늠해 보고 싶어서였다.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여행과 집안 걱정이 내 시간을 차지했고, 책을

읽거나 나보다 훨씬 교양 있는 남편의 정신과 이야기를 나누며 내 생각을 다듬는 공부가, 내가 마음을 쏟은 문필 활동의 전부였다.

1816년 여름, 우리는 스위스에 갔고 바이런 경의 이웃이 되었다. 처음에는 호수에 배를 띄우거나 호숫가를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차일드 해럴드의 순례』 셋째 편을 쓰고 있던 바이런 경은 우리 가운데 자기 생각을 종이에 옮기는 단 한 사람이었다. 그가 한 대목씩 써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시는 시가 지닐 수 있는 온갖 빛과 조화를 두르고서, 우리가 그와 함께 누리던 하늘과 땅의 영광에 거룩하다는 도장을 찍어 주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해 여름은 비가 잦고 궂었다. 그칠 줄 모르는 비 때문에 우리는 며칠씩 집 안에 갇혀 지내는 일이 많았다. 그러다 독일어에서 프랑스어로 옮긴 유령 이야기책 몇 권이 우리 손에 들어왔다. 그 가운데 「 변심한 연인의 이야기 」 가 있었다. 사랑을 맹세한 신부를 끌어안으려던 남자가, 정신을 차려 보니 자기가 버린 여인의 창백한 유령에게 안겨 있더라는 이야기였다. 한 가문을 세운 죄 많은 조상의 이야기도 있었다. 그 조상은 저주받은 자기 가문의 어린 아들들이 한창 앞날이 기대되는 나이에 이를 때마다 그들 모두에게 죽음의 입맞춤을 해야 하는 비참한 운명을 지고 있었다. 『햄릿』의 유령처럼 온몸에 갑옷을 둘렀으되 투구의 얼굴 가리개만은 올린 채, 거대하고 그림자 같은 그의 모습이 한밤중 깜박이는 달빛 속에서 음침한 가로수 길을 따라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 모습은 성벽의 그늘 아래로 사라졌다. 그러나 곧 대문 하나가 활짝 열리고, 발소리가 들리고, 방문이 열리더니, 그는 건강한 잠에 포근히 안긴 꽃다운 소년들의 잠자리로 다가갔다. 그가 몸을 굽혀 소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출 때 그의 얼굴에는 영원한 슬픔이 서려 있었고, 소년들은 그때부터 줄기째 꺾인 꽃처럼

시들어 갔다. 그 뒤로 나는 이 이야기들을 다시 보지 못했지만, 거기 나오는 사건들은 어제 읽은 것처럼 지금도 내 마음에 생생하다.

"우리 저마다 유령 이야기를 하나씩 써 봅시다." 바이런 경이 말했고, 모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네 사람이었다. 고귀한 시인은 이야기 하나를 쓰기 시작했고, 그 한 토막을 시 『마제파』 끝에 붙여 펴냈다. 퍼시 셸리는 이야기의 얼개를 짜기보다, 찬란한 심상의 광채와 우리 말을 빛내는 더없이 아름다운 운율의 음악 속에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는 데 더 능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도 어린 시절에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가엾은 폴리도리는 열쇠 구멍으로 엿보다가 벌을 받아 해골 머리가 된 어느 귀부인을 두고 무시무시한 착상을 했다. 무엇을 엿보았는지는 잊었지만, 물론 무척 충격적이고 고약한 무언가였을 것이다. 그런데 엿보다 눈이 멀었다는 그 유명한 코번트리의 톰보다도 더 딱한 처지로 몰아넣고 나자 그는 그 여자를 어찌해야 할지 몰랐고, 결국 그 여자에게 어울리는 단 하나의 자리인 캐풀렛가의 무덤으로 보내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름 높은 두 시인도 산문의 밋밋함에 싫증이 나서, 성미에 맞지 않는 그 일을 곧 내던졌다.

나는 *이야기를 생각해 내려고* 애썼다. 우리를 이 일로 몰아넣은 그 이야기들에 견줄 만한 이야기, 우리 본성 깊은 곳의 신비로운 두려움에 말을 걸어 오싹한 공포를 깨워 낼 이야기, 읽는 이가 뒤를 돌아보기를 겁내고 피가 얼어붙고 심장이 쿵쾅거리게 할 이야기여야 했다. 이런 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내 유령 이야기는 그 이름값을 못 할 것이었다. 나는 생각하고 또 궁리했다. 헛일이었다. 애타게 불러도 칙칙한 '무(無)'만이 대답할 때, 지어낼 힘이 하나도 없다는 그 막막함이야말로 글 쓰는 이가 겪는 가장 큰 괴로움인데, 나는 바로 그것을 느꼈다. 아침마다 나는 '이야기는 생각해 냈소?' 하는 물음을 받았고, 아침마다 부끄럽게도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산초 판사의 말투를 빌리자면,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어야 하고, 그 시작은 앞서 있던 무언가에 이어져 있어야 한다. 힌두 사람들은 세상을 떠받치는 코끼리를 하나 두었지만, 그 코끼리는 거북 위에 세워 두었다. 겸손하게 인정해야 할 일이지만, 지어낸다는 것은 텅 빈 데서가 아니라 혼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무엇보다 먼저 재료가 주어져야 한다. 지어내는 힘은 어둡고 형체 없는 물질에 꼴을 줄 수는 있어도 그 물질 자체를 있게 하지는 못한다. 무언가를 찾아내고 지어내는 모든 일에서, 상상에 속하는 일에서조차, 우리는 콜럼버스와 달걀 이야기를 끊임없이 떠올리게 된다. 지어내는 힘이란 어떤 주제가 품은 가능성을 붙잡는 능력, 그리고 그 주제가 일깨워 준 생각들을 빚고 다듬는 힘에 있다.

바이런 경과 셸리는 길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나는 그 곁에서 경건하게, 그러나 거의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그런 대화 가운데 한번은 여러 철학 학설이 오갔는데, 그 가운데에는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언젠가 밝혀내어 남에게 전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도 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다윈 박사[2]의 실험을 이야기했다. (박사가 실제로 한 일이나 했다고 스스로 말한 일이 아니라, 내 이야기에 더 닿아 있는 것, 곧 그 무렵 박사가 했다고들 하던 일을 말하는 것이다.) 박사는 가는 국수 한 토막을 유리 상자에 넣어 두었는데, 어떤 기이한 수단 덕분인지 그것이 마침내 제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생명은 결국 그렇게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었다. 어쩌면 시체를 되살릴 수 있을지도 몰랐다. 갈바니 전기[3]가 그런 일의 조짐을 보여 준 터였다. 어쩌면 생물의 여러 부분을 만들어 짜 맞추고, 거기에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로 밤이 이울었고, 마녀들이 나다닌다는 한밤중마저 지나서야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베개에 머리를 누였지만 나는 잠들지

못했고, 그렇다고 생각에 잠겼다고도 할 수 없었다. 부르지도 않은 상상력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었고, 마음속에 잇달아 떠오르는 장면들에 여느 몽상의 테두리를 훨씬 넘어서는 선명함을 입혔다. 나는 보았다. 눈은 감았으나 날카롭게 깨어 있는 마음의 눈으로, 불경한 기술을 익힌 창백한 학도가 자기가 짜 맞춘 것 곁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길게 누운 사람의 흉측한 허깨비가, 어떤 강력한 기관이 돌아가자 살아 있는 기색을 보이며 반쯤만 살아 있는 불안한 몸짓으로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끔찍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세상을 지은 창조주의 엄청난 솜씨를 사람의 손으로 흉내 내려는 시도라면 무엇이든 그 결과는 더없이 끔찍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성공은 만든 이를 공포에 빠뜨릴 것이고, 그는 겁에 질려 자기가 빚은 혐오스러운 작품을 버려두고 허둥지둥 달아날 것이다. 내버려 두면 자기가 불어넣은 희미한 생명의 불꽃이 저절로 꺼지리라고, 그토록 불완전하게 숨이 붙은 이것이 다시 죽은 물질로 가라앉으리라고 그는 바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생명의 요람으로 여겼던 그 흉측한 시체의 덧없는 존재를 무덤의 침묵이 영원히 꺼 버리리라 믿으며 잠들지도 모른다. 그는 잠든다. 그러나 깨어난다. 눈을 뜬다. 보라, 그 무시무시한 것이 머리맡에 서서 침대 휘장을 젖히고, 누렇고 물기 어린, 그러나 무언가를 헤아리는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눈을 떴다. 그 생각이 마음을 어찌나 단단히 사로잡았던지 두려움의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고, 나는 내 공상이 그려 낸 소름 끼치는 모습을 떨치고 주위의 현실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 현실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바로 그 방, 어두운 쪽마루, 닫힌 덧창과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 애쓰던 달빛, 그리고 그 너머에 유리처럼 잔잔한 호수와 높고 흰 알프스가 있다는 느낌까지. 그러나 흉측한 허깨비는 그리 쉽게 떨쳐지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나를 따라다녔다. 무언가

다른 것을 생각해야 했다. 나는 다시 유령 이야기로 돌아갔다. 지겹고 운도 없는 나의 유령 이야기! 아! 그날 밤 내가 겁에 질렸던 만큼 독자를 겁에 질리게 할 이야기를 하나 지어낼 수만 있다면!

그때 빛처럼 빠르고 빛처럼 반가운 생각 하나가 번쩍 떠올랐다. "찾았다! 나를 겁에 질리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겁에 질리게 할 것이다. 한밤중 내 베갯머리를 떠나지 않던 그 유령을 그대로 그려 내기만 하면 된다." 이튿날 나는 *이야기를 생각해 냈다*고 알렸다. 그리고 그날 '11월의 어느 음산한 밤이었다'라는 말로 글을 시작했는데, 깨어서 꾼 꿈의 섬뜩한 공포를 그저 옮겨 적었을 뿐이었다.

처음에 나는 몇 쪽짜리, 짧은 이야기만 생각했다. 그러나 셸리는 그 착상을 더 길게 펼쳐 보라고 나를 다그쳤다. 사건 하나도 나는 남편에게서 일러 받지 않았고, 느낌의 흐름 하나도 남편에게 빚진 것이 거의 없다. 그래도 남편이 부추기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세상에 나올 때의 그 꼴을 결코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서문만은 이 말에서 빼야 한다. 내가 기억하기로 서문은 모두 남편이 썼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나는 내 흉측한 자식에게 세상으로 나가 잘되라고 이른다. 나는 이 자식이 사랑스럽다. 죽음과 슬픔이 그저 낱말일 뿐 내 마음에 참된 메아리를 울리지 않던 행복한 날들에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여러 쪽은 내가 혼자가 아니던 시절의 숱한 산책과 숱한 마차 나들이와 숱한 대화를 들려준다. 그리고 그때 내 곁의 길동무는 이 세상에서 내가 다시는 보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 혼자의 일이다. 내 독자들은 이런 기억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고친 곳을 두고 한마디만 덧붙이겠다. 고친 것은 주로 문체다. 이야기는 한 군데도 바꾸지 않았고, 새로운 생각이나 상황도 집어넣지 않았다. 말이 너무 밋밋해서 이야기의 흥미를 해치는 곳에서는 문장을 손보았는데, 이렇게 고친 곳은 거의 다 제1권 앞부분에 있다. 어디서든

고친 것은 이야기에 곁들여진 부분에만 그쳤고, 이야기의 핵심과 알맹이에는 손대지 않았다.

M. W. S.

런던에서, 1831년 10월 15일.

---

1. 스탠더드 노블스: 1831년 런던의 콜번 앤드 벤틀리가 펴낸 값싼 소설 총서. 『프랑켄슈타인』이 그 아홉째 권이었다.

2. 다윈 박사: 의사이자 시인·박물학자 이래즈머스 다윈(1731~1802).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

3. 갈바니 전기: 죽은 개구리 다리가 전기에 움찔한다는 루이지 갈바니의 실험(1780년대)에서 비롯한 생체 전기 연구.

1818년판 서문

이 허구의 바탕이 된 사건은 다윈 박사와 독일의 몇몇 생리학 저술가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일만은 아니라고 여긴 것이다.[1] 그렇다고 내가 그런 상상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믿는다고 여기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그것을 상상의 작품을 떠받치는 토대로 삼으면서도, 나는 내가 그저 초자연적인 공포를 줄줄이 엮고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이 이야기의 흥미가 달린 그 사건은 유령이나 마법을 다룬 여느 이야기가 지닌 약점에서 벗어나 있다. 이 사건은 거기서 펼쳐지는 상황들이 새롭다는 점에서 내세울 만하다. 그리고 물리적 사실로는 아무리 불가능하다 해도,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의 평범한 관계가 내줄 수 있는 그 어떤 시각보다 더 넓고 더 우뚝한 시각을 상상력에 내주어, 인간의 정념을 그려 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나는 인간 본성의 기본 원리가 지닌 진실은 지키려고 애쓰면서도, 그 원리들을 새롭게 짜 맞추는 일은 서슴지 않았다. 『일리아스』와 그리스의 비극 시, 『템페스트』와 『한여름 밤의 꿈』의 셰익스피어, 그리고 무엇보다 『실낙원』의 밀턴이 이 규칙을 따른다. 그러니 자기 노고로 남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스스로 즐거움을 얻으려는 더없이 보잘것없는 소설가라도, 주제넘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산문 소설에 이 자유를, 아니 이 규칙을 적용해도 될 것이다. 이 규칙을 받아들인 덕분에 인간 감정의 그토록 절묘한 짜임들이 최고의 시 작품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내 이야기의 바탕이 된 상황은 우연한 대화에서 떠오른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편으로는 아직 써 보지 않은 마음의 힘을 시험해 보려고 시작한 것이었다. 작품이 나아가면서 여기에 다른 동기들도 섞여 들었다. 이 작품에 담긴 감정이나 인물에 어떤 도덕적 경향이 있든, 그것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나는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 그러나 이 점에서 내 관심은 주로, 요즘 소설들이 사람의 기운을 빼놓는 해로움을 피하고 가족 사이의 애정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보편적인 덕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 주는 데에만 머물렀다. 주인공의 성격과 처지에서 자연스레 우러나는 의견들이 언제나 나 자신의 신념이라고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 또 뒤에 이어지는 글에서 어떤 종류의 철학 학설이든 그것을 깎아내리려는 뜻을 끌어내는 것도 옳지 않다.

지은이에게 이 이야기가 더욱 각별한 까닭이 또 하나 있다. 이 이야기는 그 무대가 주로 펼쳐지는 장엄한 고장에서, 그리고 두고두고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는 벗들과 어울리던 가운데 시작되었다. 나는 1816년 여름을 제네바 근교에서 보냈다. 그해 날씨는 춥고 비가 잦아서, 저녁이면 우리는 활활 타는 장작불 둘레에 모여 앉았고, 이따금 마침 손에 들어온 독일 유령 이야기 몇 편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 이야기들은 우리 안에 장난스럽게 흉내 내 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두 벗과 나는 저마다 초자연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나씩 쓰기로 했다(그 두 벗 가운데 한 사람이 쓴 이야기라면, 내가 언젠가 써 내기를 바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훨씬 더 환영받을 것이다).

그러나 날씨가 갑자기 맑게 갰고, 두 벗은 나를 두고 알프스로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알프스가 펼쳐 보이는 장엄한 풍경 속에서 유령에 얽힌 공상은 모조리 잊어버렸다.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때 끝까지 완성된 단 하나의 이야기다.

말로에서, 1817년 9월.

---

1. 이 서문은 남편 퍼시 비시 셸리가 지은이 이름으로 써서 1818년 초판에 실었다.

첫째 편지

영국, 사빌 부인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7○○년 12월 11일.

누님께서 그토록 불길한 예감을 품고 지켜보시던 이 일이 아무 탈 없이 첫발을 내디뎠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 어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맨 먼저 할 일은, 사랑하는 누님께 제가 무사하다는 것과 이 일이 잘되리라는 자신감이 날로 커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는 일입니다.

저는 벌써 런던에서 한참 북쪽에 와 있습니다. 페테르부르크 거리를 걸으면 차가운 북풍이 뺨을 스치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 바람이 신경을 팽팽하게 조이고 마음을 기쁨으로 채웁니다. 이 기분을 누님은 아시겠습니까? 제가 향해 가는 그 땅에서 불어온 이 바람은 얼음에 덮인 그 고장을 미리 맛보게 해 줍니다. 약속처럼 불어오는 이 바람에 힘을 얻어, 낮에 꾸는 제 꿈은 더욱 뜨겁고 생생해집니다. 극지가 서리와 황폐함의 땅이라고 아무리 스스로를 타일러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 상상 속에서 그곳은 언제나 아름다움과 기쁨의 땅으로 떠오릅니다. 누님, 그곳에서는 해가 영영 지지 않습니다. 커다란 해가 지평선을 스칠 듯 맴돌며 끝없는 광채를 뿌립니다. 그곳에서는, 누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앞서 간 항해자들의 말을 조금은 믿어 보렵니다만, 그곳에서는 눈과 서리가 쫓겨나고 없으며, 잔잔한 바다를 미끄러져 가다 보면 사람이 사는 이 땅덩이에서 지금까지 찾아낸 어느 고장보다 경이롭고 아름다운

땅에 닿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가 보지 못한 그 외딴 곳의 천체 현상이 틀림없이 유례가 없듯이, 그 땅의 산물과 생김새도 유례가 없을지 모릅니다. 영원한 빛의 나라에서라면 무엇인들 기대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곳에서 나침반 바늘을 끌어당기는 그 놀라운 힘을 찾아낼지도 모르고, 이번 항해만 하면 겉보기의 어긋남이 영원히 맞아떨어질 수많은 천체 관측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껏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세상의 한 귀퉁이를 보며 타오르는 호기심을 채울 것이고, 사람의 발자국이 한 번도 찍힌 적 없는 땅을 밟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이 저를 끌어당기는 것들이고, 위험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이겨 내고 이 고된 항해를 시작하게 하기에 넉넉합니다. 저는 어린아이가 방학을 맞은 동무들과 작은 배에 올라 고향 강을 거슬러 탐험을 떠날 때 느끼는 그 기쁨으로 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짐작이 모두 틀렸다고 해도, 지금은 몇 달씩 걸려야 닿는 나라들로 가는 뱃길을 극지 근처에서 찾아내거나 자석의 비밀을 밝혀내어 제가 마지막 세대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에게 베풀 헤아릴 수 없는 이익만은 누님도 부정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 비밀은 밝힐 수 있다 해도 오직 저와 같은 모험으로만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의 술렁이던 마음이 가라앉고, 저를 하늘까지 들어 올리는 열정으로 가슴이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집니다. 흔들림 없는 목표, 곧 영혼이 지성의 눈을 붙박아 둘 한 점만큼 마음을 고요하게 해 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탐험은 어린 시절부터 제가 가장 아껴 온 꿈이었습니다. 저는 극지를 둘러싼 바다를 지나 북태평양에 닿으려고 떠났던 여러 항해의 기록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누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착한 토머스 숙부의 서재는 탐험하러 떠난 온갖 항해의 기록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책 읽기를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 책들을

밤낮으로 붙들고 공부했는데, 그 책들에 익숙해질수록 어린 시절에 느낀 서운함은 더 커져 갔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며 남긴 당부 때문에 숙부가 제가 뱃사람의 길로 나서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느낀 서운함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인들의 작품을 읽고 그 시들이 제 영혼을 황홀하게 사로잡아 하늘로 들어 올리자, 이런 꿈은 빛이 바랬습니다. 저도 시인이 되어 한 해 동안 제가 지어낸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호메로스와 셰익스피어의 이름이 모셔진 신전에 저도 한 자리쯤 얻을 수 있으리라 꿈꾸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 실망을 얼마나 무겁게 견뎠는지는 누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저는 사촌의 재산을 물려받았고, 제 생각은 예전에 기울어 있던 물길로 다시 흘러갔습니다.

지금의 이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지 여섯 해가 흘렀습니다. 이 큰 사업에 제 몸을 바치기로 한 그 시각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먼저 몸을 고난에 길들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래잡이배를 따라 북해로 몇 번 나갔고, 추위와 굶주림과 목마름과 잠 못 드는 괴로움을 스스로 견뎠습니다. 낮에는 여느 선원들보다 더 고되게 일할 때가 많았고, 밤에는 수학과 의학 이론, 그리고 바다를 누비는 모험가가 실제로 가장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연과학 분야들을 공부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린란드로 가는 고래잡이배에 하급 항해사로 실제로 두 번이나 일자리를 얻었고, 남들이 감탄할 만큼 일을 잘 해냈습니다. 선장이 배에서 둘째가는 자리를 내주며 남아 달라고 더없이 간곡하게 청했을 때 조금 우쭐했다는 것을 털어놓아야겠습니다. 그만큼 선장은 제 일솜씨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누님, 제게는 무언가 큰 뜻을 이룰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제 삶은 편안하고 호사스럽게 흘러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물이

제 앞길에 늘어놓은 온갖 유혹보다 영광을 택했습니다. 아, 누군가 힘을 북돋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해 준다면! 제 용기와 결심은 굳건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오르내리고, 기운은 자주 가라앉습니다. 저는 길고 험한 항해를 막 떠나려 하고 있으며, 그 항해에서 닥칠 위급한 일들은 제가 지닌 꿋꿋함을 모두 요구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기운이 꺾일 때면 때때로 제 기운까지 스스로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이 러시아를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썰매를 타고 눈 위를 날듯이 달립니다. 썰매가 미끄러지는 느낌은 상쾌해서, 제 생각에는 영국의 역마차보다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털옷으로 몸을 감싸면 추위도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벌써 털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갑판을 거닐 때와, 몸을 움직이지 못해 핏줄 속의 피가 정말로 얼어붙을 것만 같은 채로 몇 시간씩 꼼짝 않고 앉아 있을 때는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아르한겔스크 사이의 역참 길에서 목숨을 잃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2주나 3주 뒤에 아르한겔스크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배를 한 척 빌릴 생각인데, 선주에게 보험료만 내주면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잡이에 익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선원을 뽑을 생각입니다. 6월이 되기 전에는 돛을 올리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아, 누님, 이 물음에 제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한다면 누님과 제가 다시 만나기까지 여러 달, 아주 여러 달이, 어쩌면 여러 해가 흘러야 할 것입니다. 실패한다면 누님께서는 곧 저를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영영 못 보실 것입니다.

잘 계십시오, 사랑하고 훌륭하신 누님. 하늘이 누님께 복을 비처럼 내리고 저를 지켜 주어, 누님께서 베푸신 모든 사랑과 친절에 제가 몇

번이고 거듭 고마움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동생

R. 월턴

둘째 편지

영국, 사빌 부인께

아르한겔스크에서, 17○○년 3월 28일.

서리와 눈에 둘러싸인 이곳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더디게 흐르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제 일은 두 번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배를 한 척 빌렸고, 지금은 선원을 모으느라 바쁩니다. 이미 고용한 사람들은 믿고 기댈 만한 사람들로 보이고, 겁을 모르는 용기를 지녔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아직 한 번도 채우지 못한 갈망이 하나 있고, 그 갈망을 채워 줄 상대가 없다는 것이 지금은 더없이 쓰라린 불행으로 느껴집니다. 누님, 제게는 벗이 없습니다. 성공의 열정으로 달아오를 때 제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 실망이 덮쳐 와도 낙담한 저를 붙들어 주려 애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제 생각을 종이에 적어 두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는 감정을 전하기에는 보잘것없는 수단입니다. 저는 저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 제 눈길에 눈길로 대답해 줄 사람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누님은 저를 공상가라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저는 벗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 곁에는 다정하면서도 용감하고, 교양 있으면서도 너른 마음을 지니고, 저와 취향이 같아서 제 계획을 옳다고 해 주거나 바로잡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벗이라면 누님의 가엾은 동생이 지닌 허물을 얼마나 잘 메워 주겠습니까! 저는 일을 해 나갈 때

너무 성급하고, 어려움 앞에서 너무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더 큰 불행은 혼자 배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열네 살이 될 때까지 마을 공유지를 마구 뛰어다니며 우리 토머스 숙부의 항해기 말고는 아무것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에 우리나라의 이름난 시인들을 알게 되었지만, 모국어 말고 다른 나라 말도 익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 깨달음에서 가장 중요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스물여덟 살인데, 실제로는 열다섯 살 먹은 숱한 학생들보다 더 무식합니다. 물론 저는 생각을 더 많이 했고, 제 백일몽은 더 넓고 장대합니다. 그러나 그 꿈에는 화가들이 말하는 '조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공상가라고 업신여기지 않을 만큼 분별이 있고, 제 마음을 다잡아 주려 애쓸 만큼 저를 아끼는 벗이 몹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쓸데없는 푸념입니다. 넓은 대양에서는 물론이고, 상인과 뱃사람들 틈에 있는 이곳 아르한겔스크에서도 저는 벗을 찾지 못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이 거친 가슴들 속에서도 인간 본성의 찌꺼기와는 거리가 먼 감정들이 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 부선장은 놀라운 용기와 진취성을 지닌 사람이고, 영광을, 아니 그 사람에게 더 어울리는 말로 하자면 자기 직업에서 출세하기를 미친 듯이 바랍니다. 그는 영국 사람인데, 교양으로 누그러지지 않은 나라와 직업의 편견 한가운데에서도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자질 몇 가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래잡이배에서 그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 도시에서 그가 일자리 없이 지내는 것을 알고 손쉽게 그를 고용해 제 일을 돕게 했습니다.

항해장은 성품이 훌륭한 사람으로, 온화하고 규율을 부드럽게 다스리기로 배 안에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여기에 널리 알려진 정직함과 겁 없는 용기까지 더해지니, 저는 그 사람을 꼭 고용하고 싶었습니다. 홀로 보낸 젊은 시절, 누님의 다정하고 여성다운 보살핌

아래 지낸 제 가장 좋은 시절이 제 성격의 바탕을 어찌나 섬세하게 다듬어 놓았던지, 저는 배에서 흔히 벌어지는 난폭한 짓에 대한 깊은 혐오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짓이 필요하다고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씨가 따뜻하기로도, 선원들에게 존경과 복종을 받기로도 똑같이 이름난 뱃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을 데려올 수 있게 된 것이 남달리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 이야기를 처음에 꽤 낭만적인 경로로 들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평생의 행복을 얻은 어느 부인에게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몇 해 전 그는 재산이 넉넉지 않은 러시아의 젊은 아가씨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나포 상금으로 꽤 큰돈을 모으자 처녀의 아버지는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정해진 혼례를 앞두고 약혼녀를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처녀는 눈물에 젖은 채 그의 발치에 몸을 던져, 자기를 놓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가난해서 아버지가 결코 혼인을 허락하지 않으리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너그러운 제 벗은 애원하는 처녀를 안심시키고, 그 연인의 이름을 듣자 그 자리에서 구혼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 돈으로 남은 생을 보낼 작정으로 농장을 하나 사 두었는데, 그 농장을 통째로 연적에게 주고, 남은 상금까지 가축을 사라고 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몸소 처녀의 아버지를 찾아가 딸을 그 연인과 혼인시켜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제 벗에게 명예를 걸고 약속했다고 여겨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안 제 벗은 고국을 떠났고, 예전의 약혼녀가 바라던 사람과 혼인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고결한 사람이구나!" 누님은 이렇게 외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배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튀르크 사람처럼 말이 없고, 무지에서 오는 무심함 같은 것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 무심함 때문에 그의 행동은 더욱

놀랍게 보이지만, 그것만 아니었다면 그가 받았을 관심과 공감은 줄어들고 맙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푸념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또 어쩌면 끝내 맛보지 못할 위안을 제 수고 끝에 그려 본다고 해서, 제 결심이 흔들린다고 여기지는 마십시오. 제 결심은 운명처럼 굳건합니다. 항해가 늦어지는 것은 다만 날씨가 배를 띄우도록 허락할 때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무섭도록 혹독했지만 봄은 좋을 것 같고, 올해는 봄이 유난히 이르다고들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생각보다 일찍 돛을 올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무엇 하나 무모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안전이 제게 맡겨질 때면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사려 깊은지, 누님께서는 믿고 맡기실 만큼 저를 잘 아십니다.

이 일을 눈앞에 두고 제가 느끼는 감정을 누님께 다 그려 보일 수가 없습니다. 반은 즐겁고 반은 두려워 떨리는, 떠날 채비를 하는 지금의 이 느낌을 누님께 전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무도 가 보지 못한 고장으로, '안개와 눈의 땅'[1]으로 갑니다. 그러나 저는 앨버트로스를 죽이지 않을 테니 제 안전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제가 「노수부의 노래」의 늙은 뱃사람처럼 지치고 처량한 몰골로 누님께 돌아올까 봐 걱정하십니까? 누님은 제 빗댐에 웃으시겠지만, 비밀 하나를 털어놓겠습니다. 저는 바다의 위험한 신비에 끌리는 마음, 그 신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근대 시인 가운데 상상력이 가장 풍부한 그 시인의 작품 덕분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제 영혼 속에서는 저 자신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는 부지런하고 공을 들이는 사람, 끈기 있게 애써서 일을 해내는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제 모든 계획에는 경이로운 것을 향한 사랑과 경이로운 것에 대한 믿음이 얽혀 있어서, 그것이 저를 사람들이 다니는 평범한 길에서

끌어내어, 이제 탐험하려는 거친 바다와 아무도 찾지 않은 고장으로까지 내몹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끝없는 바다를 건너고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의 가장 남쪽 곶을 돌아서 돌아온 뒤에, 저는 누님을 다시 만나게 되겠습니까? 그런 성공을 감히 바랄 수는 없지만, 그 반대의 그림을 바라보는 것도 견딜 수 없습니다. 당분간은 기회가 닿는 대로 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누님의 편지가 제 기운을 북돋는 데 가장 필요할 때에 받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누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다시는 제 소식을 듣지 못하시게 되더라도 저를 사랑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동생

로버트 월턴

---

1. 「안개와 눈의 땅」·앨버트로스: 콜리지의 「노수부의 노래」(1798). 앨버트로스를 쏘아 죽인 뱃사람이 저주를 받는 시.

셋째 편지

영국, 사빌 부인께

누님께, 17○○년 7월 7일.

제가 무사하고 항해도 꽤 많이 나아갔다는 것을 알려 드리려고 서둘러 몇 줄 적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 아르한겔스크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상선 편에 영국에 닿을 텐데, 그 배는 어쩌면 여러 해 동안 고국 땅을 보지 못할지도 모르는 저보다 운이 좋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운이 넘칩니다. 선원들은 대담하고 뜻도 굳어 보이며, 우리가 나아가는 고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 주듯 쉴 새 없이 곁을 스쳐 가는 얼음 조각들도 그들을 겁먹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벌써 아주 높은 위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여름이어서, 영국만큼 따뜻하지는 않아도, 제가 그토록 닿고 싶어 하는 그 기슭으로 우리를 빠르게 밀어 주는 남풍이 뜻밖에도 몸을 되살리는 온기를 실어 옵니다.

지금까지 편지에 적을 만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거센 바람이 불고 배에 물이 새기도 했지만 그 정도는 노련한 뱃사람이라면 굳이 기록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고이니, 항해하는 동안 이보다 더 나쁜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누님. 누님을 위해서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함부로 위험에 뛰어들지는 않겠습니다. 이 점은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침착하고 끈기 있고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반드시* 제 노력에 영광의 관을 씌워 줄 것입니다.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길 없는 바다 위로 안전한 길을 그려 가며 여기까지 왔고, 하늘의 별들조차 제 승리를 지켜보는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길들지 않았으나 순순히 따르는 이 바다 위를 어찌 계속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굳게 마음먹은 사람의 가슴과 굳게 다진 뜻을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벅차오르는 가슴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이만 마쳐야겠습니다. 하늘이 사랑하는 누님께 복을 내리기를!

R. W.

넷째 편지

영국, 사빌 부인께

17○○년 8월 5일.

너무나 기이한 일이 일어나서, 이 글이 누님 손에 들어가기 전에 누님께서 저를 먼저 보시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큰데도 기록해 두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7월 31일), 우리 배는 사방에서 죄어 오는 얼음에 거의 둘러싸여, 배가 떠 있을 만한 물길조차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무척 짙은 안개까지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으므로 꽤 위험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기와 날씨에 무슨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며 배를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두 시쯤 안개가 걷히자, 끝이 없어 보이는 울퉁불퉁한 얼음 벌판이 사방으로 아득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동료 몇 사람은 신음했고 저 자신도 근심에 차서 마음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기이한 광경 하나가 갑자기 우리의 눈길을 끌어 우리 처지에 대한 걱정을 잊게 했습니다. 개들이 끄는 썰매 위에 나지막한 수레를 얹은 것이 반 마일쯤 떨어진 곳에서 북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키가 거인처럼 커 보이는 존재가 그 썰매에 앉아 개들을 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손이 먼 얼음 둔덕들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망원경으로 그가 빠르게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광경에 우리는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어느 땅에서든 수백 마일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이 환영 같은 모습은 땅이 실제로는 우리가 짐작한 만큼 멀지 않다는 것을 알려 주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얼음에 갇혀 있었으므로, 우리가 그토록 눈여겨 지켜본 그의 자취를 뒤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두 시간쯤 지나 바다 밑에서 너울이 이는 소리가 들렸고, 밤이 되기 전에 얼음이 깨져 우리 배는 풀려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얼음이 깨진 뒤 이리저리 떠다니는 커다란 얼음덩이들과 어둠 속에서 부딪칠까 두려워 아침까지 배를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 틈을 타 몇 시간 쉬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갑판에 올라가 보니, 선원들이 모두 배 한쪽에 몰려 바다에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느라 분주해 보였습니다. 바로 썰매였습니다. 전에 본 것과 같은 썰매가 커다란 얼음 조각에 실려 밤사이 우리 쪽으로 떠내려왔던 것입니다. 살아남은 개는 한 마리뿐이었지만 썰매 안에는 사람 하나가 타고 있었고, 선원들은 그에게 배에 오르라고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서 본 길손처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느 섬에 사는 미개한 사람이 아니라 유럽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갑판에 나타나자 항해장이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선장님이 오셨소. 선장님은 당신이 망망대해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오."

낯선 사람은 저를 보더니, 외국 억양이 섞이긴 했으나 영어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배에 오르기 전에," 그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인지 친절히 알려 주겠소?"

파멸의 문턱에 선 사람이, 제 배라면 이 땅이 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재물과도 바꾸지 않을 구원이리라 여겼던 사람이 제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을지 누님은 짐작하실 겁니다. 그래도 저는 북극을 향해 탐험 항해를 하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는 만족한 듯 배에 오르겠다고 했습니다. 맙소사! 누님, 이렇게 조건을 따져 가며 자기 목숨을 건지는 데 응한 그 사람을 보셨더라면 누님도 한없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의 팔다리는 거의 얼어 있었고, 몸은 피로와 고통으로 무섭도록 여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토록 비참한 몰골의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선실로 옮기려 했지만 바깥 공기를 벗어나자마자 그가 정신을 잃었으므로, 다시 갑판으로 데려와 브랜디로 몸을 문지르고 조금 억지로 삼키게 하여 정신이 들게 했습니다. 살아 있는 기색이 보이자마자 우리는 그를 담요로 감싸 부엌 난로의 굴뚝 가까이에 눕혔습니다. 그는 아주 조금씩 회복했고, 수프를 조금 먹더니 놀랍도록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틀을 보내고 나서야 말을 할 수 있었고, 저는 그가 겪은 고통 때문에 정신을 놓아 버린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저는 그를 제 선실로 옮기고 제 직무가 허락하는 한 곁에서 돌보았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마음을 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대개 거칠고 미친 듯한 기색마저 서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아무리 하찮은 도움이라도 건네면, 그 순간 그의 얼굴 전체가 제가 본 적 없는 선의와 다정함의 빛으로 환히 밝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대개 우울하고 절망에 차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짓누르는 비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이를 갈기도 합니다.

손님이 조금 회복되자 그에게 온갖 질문을 퍼붓고 싶어 하는 선원들을 막느라 저는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쉬어야만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상태인데, 그들의 쓸데없는 호기심에 그가 시달리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부선장이, 어째서 그토록

기이한 탈것을 타고 얼음 위로 그렇게 멀리까지 왔느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금세 더없이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게서 달아난 자를 찾으려고 왔소."

"당신이 뒤쫓는 그 사람도 같은 탈것을 타고 다녔소?"

"그렇소."

"그렇다면 우리가 그자를 본 것 같소. 당신을 건져 올리기 전날, 개들이 사람 하나를 태운 썰매를 끌고 얼음을 건너가는 것을 보았으니 말이오."

이 말에 낯선 사람은 귀를 곤두세웠고, 그가 악령이라고 부르는 그자가 어느 길로 갔는지 이것저것 캐물었습니다. 얼마 뒤 저와 단둘이 있게 되자 그가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나는 이 선량한 사람들의 호기심뿐 아니라 당신의 호기심도 불러일으켰을 것이오. 그런데도 당신은 사려가 깊어서 아무것도 묻지 않는구려."

"물론입니다. 제 궁금증으로 선생을 괴롭힌다면 정말 무례하고 몰인정한 짓일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기이하고 위태로운 처지에서 나를 구해 주었소. 친절하게도 나를 다시 살려 주었소."

얼마 뒤 그는 얼음이 깨지면서 다른 썰매도 부서졌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는 대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얼음은 자정 가까이 되어서야 깨졌으니 그 길손은 그 전에 안전한 곳에 닿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생기가 낯선 사람의 쇠약한 몸에 깃들었습니다. 그는 앞서 나타났던 썰매를 지켜보려고 갑판에 나가 있기를 몹시 바랐지만, 저는 그를 설득해 선실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는 바깥의 매서운 공기를 견디기에는 아직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그를 대신해

망을 보게 하고, 무엇이든 새로운 것이 눈에 띄면 곧바로 알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기이한 일에 관한 제 일지는 오늘까지 이러합니다. 낯선 사람은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있지만 말이 아주 없고, 저 말고 누가 선실에 들어오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의 태도가 워낙 상냥하고 부드러워서, 선원들은 그와 말을 거의 나눠 보지 못했는데도 모두 그에게 마음이 끌려 있습니다. 저로 말하자면 그를 형제처럼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칠 줄 모르는 그의 깊은 슬픔은 저를 공감과 연민으로 가득 채웁니다. 무너진 지금도 이토록 마음을 끌고 다정하니, 좋았던 시절에는 참으로 고귀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님, 저는 지난번 어느 편지에서 넓은 대양에서는 벗을 찾지 못하리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의 정신이 불행에 꺾이기 전이었다면 기꺼이 마음의 형제로 삼았을 사람입니다.

새로 기록할 일이 생기면 낯선 사람에 관한 일지를 틈틈이 이어 가겠습니다.

17○○년 8월 13일.

손님을 아끼는 제 마음은 날마다 커 갑니다. 그는 놀라울 만큼 제 감탄과 연민을 한꺼번에 불러일으킵니다. 그토록 고귀한 사람이 불행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사무치는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무척 온화하면서도 무척 지혜롭고, 교양이 깊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할 때면, 낱말 하나하나를 더없이 정교한 솜씨로 고르는데도 말이 거침없이, 비길 데 없는 웅변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는 이제 병에서 많이 회복되어 늘 갑판에 나와 있는데, 자기보다 앞서 간 썰매를 찾아 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면서도 그는 자기 불행에만 온통 빠져 있지 않고, 남의 계획에도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는 제 계획을 두고 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가 끝내 성공하리라는 근거로 내세운 모든 논리에, 그리고 성공을 위해 제가 마련해 둔 대책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까지 귀 기울이며 함께 따져 보았습니다. 그가 보여 준 공감에 이끌려 저는 쉽사리 마음속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제 영혼의 타오르는 열망을 털어놓고, 저를 달구는 열기를 다 실어, 이 일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된다면 제 재산과 목숨과 모든 희망을 얼마나 기꺼이 바치겠는지 말했습니다. 제가 찾는 지식을 얻고, 인류의 타고난 적인 자연의 힘을 다스릴 힘을 얻어 후대에 물려줄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의 삶이나 죽음쯤은 하찮은 값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듣고 있던 그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번졌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가 감정을 누르려 애쓰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보자 제 목소리는 떨리다 끊어졌고, 들썩이는 그의 가슴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띄엄띄엄 말했습니다. "불행한 사람! 당신도 나의 광기를 나누어 지고 있소? 당신도 그 취하게 하는 잔을 마셨단 말이오? 내 말을 들으시오. 내 이야기를 털어놓게 해 주시오. 그러면 당신은 입술에서 그 잔을 내던질 것이오!"

누님도 짐작하시겠지만 그런 말에 제 호기심은 몹시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을 사로잡은 격렬한 슬픔이 그의 약해진 기력을 이겨 버려서, 그가 평정을 되찾기까지는 여러 시간의 휴식과 조용한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격한 감정을 다스리고 나자 그는 정념의 노예가 되었던 자신을 경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어두운 폭정을 누르고, 다시 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제 어린 시절의 내력을 물었습니다. 이야기는 금방 끝났지만, 그 이야기가 여러 갈래의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벗을 찾고 싶은 소망과, 지금까지 한 번도 누려 보지 못한 만큼 마음 맞는 정신과 깊이 공감하고 싶은 목마름을 이야기했고,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을 내세울 것이 거의 없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옳소." 낯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착하고 더 소중한 누군가가, 벗이란 마땅히 그래야 하는 법이니, 약하고 흠 많은 우리 본성을 완성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덜 빚어진, 반쯤만 만들어진 사람에 지나지 않소. 내게도 한때 벗이 있었소. 사람 가운데 가장 고귀한 사람이었소. 그러니 나는 우정을 두고 판단할 자격이 있소.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고, 온 세상이 앞에 펼쳐져 있으니 절망할 까닭이 없소. 그러나 나는,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없소."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조용히 가라앉은 슬픔을 얼굴에 드러냈고, 그 슬픔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을 다물었고, 곧 자기 선실로 물러갔습니다.

정신이 그토록 꺾였는데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보다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과 바다, 그리고 이 경이로운 고장이 보여 주는 모든 광경이 아직도 그의 영혼을 땅에서 들어 올리는 힘을 지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두 겹의 삶을 삽니다. 불행을 겪고 실망에 짓눌릴 수도 있지만, 자기 안으로 물러나 있을 때면 그는 둘레에 후광을 두른 천상의 영과 같아서, 그 테두리 안으로는 어떤 슬픔도 어리석음도 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신성한 방랑자를 두고 제가 늘어놓는 열띤 찬사에 누님은 웃으시겠습니까? 그를 보신다면 웃지 않으실 겁니다. 누님은 책과 세상에서 물러난 생활로 가르침을 받고 다듬어진 분이라 조금 까다로우신 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이 놀라운 사람의 남다른 장점을

알아보기에 더욱 알맞은 분입니다. 저는 그가 지닌 어떤 자질이 그를 제가 아는 다른 누구보다 헤아릴 수 없이 높이 올려놓는지 알아내려고 애써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직관적인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빠르면서도 결코 빗나가지 않는 판단력, 사물의 원인을 꿰뚫어 보는 비길 데 없이 명료하고 정확한 통찰력 말입니다. 여기에 막힘없는 언변과, 갖가지로 바뀌는 억양이 영혼을 사로잡는 음악과도 같은 목소리를 더해 보십시오.

17○○년 8월 19일.

어제 낯선 사람이 제게 말했습니다. "월턴 선장, 내가 크고 유례없는 불행을 겪었다는 것을 당신도 쉽게 알아챘을 것이오. 한때 나는 이 불행의 기억이 나와 함께 죽어 없어지게 하리라 마음먹었소. 그러나 당신이 내 마음을 돌려놓았소. 당신은 예전의 나처럼 지식과 지혜를 찾고 있소. 나는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일이 나의 경우처럼 당신을 무는 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오. 내 재앙을 들려주는 것이 당신에게 쓸모가 있을지는 모르겠소. 그러나 당신이 나와 같은 길을 가며 나를 지금의 꼴로 만든 바로 그 위험에 몸을 내맡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신이 내 이야기에서 알맞은 교훈을 끌어낼 수 있으리라 여겨지오. 당신이 일에 성공하면 길잡이가 되고, 실패하면 위로가 될 교훈 말이오. 흔히 믿기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들을 각오를 하시오. 우리가 좀 더 온순한 자연 속에 있다면 당신이 믿어 주지 않거나 어쩌면 비웃지나 않을까 두려울 것이오. 그러나 늘 갖가지로 모습을 바꾸는 자연의 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웃음을 터뜨릴 많은 일들도, 이 거칠고 신비로운 고장에서는 있을 법한 일로 보일 것이오. 그리고 내 이야기는 차례차례 이어지면서, 그 이야기를 이루는 사건들이 참이라는 증거를 스스로 품고 있소. 나는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소."

그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반가웠을지는 누님도 쉽게 짐작하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가 자기 불행을 되짚어 이야기하느라 슬픔을 새로 겪는 것만은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약속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은 무척 간절했는데, 호기심 때문이기도 했고, 제 힘이 닿는다면 그의 운명을 조금이라도 덜 가혹하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면서 이런 마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마음 써 주어 고맙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오. 내 운명은 거의 다 이루어졌소. 나는 단 한 가지 일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 일이 끝나면 편히 쉴 것이오." 제가 말을 가로막으려는 것을 알아채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마음은 알겠소. 하지만 벗이여, 이렇게 불러도 된다면 말이오,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소. 그 무엇도 내 운명을 바꿀 수는 없소. 내 이야기를 들어 보시오. 그러면 내 운명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이 정해져 있는지 알게 될 것이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음 날 제게 짬이 나면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약속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맡은 일로 꼭 바쁘지 않은 밤이면 언제나, 그가 낮 동안 들려준 이야기를 될 수 있는 대로 그가 한 말 그대로 적어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이 있는 날에도 적어도 메모만은 해 두겠습니다. 이 원고는 틀림없이 누님께 더없는 즐거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알고, 그 이야기를 그의 입으로 직접 듣는 저는, 훗날 이 원고를 읽을 때 얼마나 큰 관심과 연민을 느끼겠습니까! 이 일을 시작하는 지금도 그의 낭랑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빛나는 두 눈이 우수 어린 다정함을 가득 담고 저를 바라봅니다. 그가 열띠게 여윈 손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보이고, 그의 얼굴은 안에 깃든 영혼으로 환히 빛납니다. 그의 이야기는 기이하고

처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항해하던 늠름한 배를 휘감아 부숴 버린 그 폭풍은 무시무시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제1장

나는 제네바 사람으로 태어났다. 우리 집안은 그 공화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였다. 내 조상들은 여러 대에 걸쳐 참사회 의원과 행정관[1]을 지냈고, 아버지도 여러 공직을 맡아 명예와 명성을 얻었다. 아버지는 청렴했고 나랏일에 지칠 줄 모르고 마음을 쏟았기에,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를 존경했다. 젊은 시절은 내내 나랏일에 매여 지냈고, 여러 사정이 겹쳐 일찍 결혼하지 못했으며, 삶이 저물어 갈 무렵에야 비로소 남편이 되고 한 집안의 아버지가 되었다.

아버지의 결혼에 얽힌 사연은 아버지의 성품을 잘 보여 주므로 여기서 이야기해 두어야겠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벗 가운데 한 사람은 상인이었는데, 한때 번창하던 그는 거듭된 불운 끝에 가난에 떨어졌다. 보포르라는 이 사람은 자존심이 세고 굽힐 줄 모르는 성미여서, 한때 지위와 호사로 이름을 날리던 바로 그 나라에서 가난하게 잊힌 채 살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더없이 떳떳하게 빚을 모두 갚은 뒤 딸을 데리고 루체른으로 물러가, 아무도 모르게 비참하게 살았다. 아버지는 더없이 참된 우정으로 보포르를 아꼈기에, 그가 이런 불행한 처지로 숨어 버린 것을 몹시 슬퍼했다. 두 사람을 묶어 준 우정에 조금도 걸맞지 않은 처신으로 벗을 몰아간 그 그릇된 자존심을 아버지는 뼈저리게 한탄했다. 아버지는 지체 없이 그를 찾아 나섰다. 자기의 신용과 도움을 빌려 세상살이를 다시 시작해 보라고 그를 설득하고 싶었다.

보포르는 빈틈없이 몸을 숨겼고, 아버지가 그의 거처를 찾아내기까지는 열 달이 걸렸다. 아버지는 뛸 듯이 기뻐하며 로이스강 가까이 초라한 거리에 있는 그 집으로 서둘러 갔다. 그러나 집 안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를 맞은 것은 비참과 절망뿐이었다. 보포르가 무너진 재산에서 건져 낸 돈은 아주 적었지만 몇 달 먹고살기에는 넉넉했으므로, 그는 그사이에 어느 상회에서 번듯한 일자리를 얻으리라 기대했다. 그래서 그 몇 달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흘러갔다. 생각할 틈이 생기자 그의 슬픔은 더 깊어지고 곪아 들기만 했으며, 마침내 슬픔이 그의 마음을 단단히 움켜쥔 나머지 석 달째가 끝날 무렵 그는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병상에 눕고 말았다.

보포르의 딸은 더없이 다정하게 병든 아버지를 돌보았다. 그러나 얼마 안 되는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데 달리 살아갈 길은 보이지 않았고, 딸은 그것을 보며 절망했다. 그래도 캐럴라인 보포르는 보기 드문 바탕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어서, 역경 속에서 오히려 용기가 솟아 그 처지를 버텨 냈다. 캐럴라인은 바느질감을 얻어 오고, 밀짚을 엮고, 이런저런 수단을 짜내어 겨우 목숨을 부지할까 말까 한 푼돈을 벌었다.

몇 달이 이렇게 흘렀다. 보포르의 병은 깊어졌고, 캐럴라인은 병구완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겼으며, 먹고살 거리는 줄어들었다. 그리고 열 달째에 보포르가 딸의 품에서 숨을 거두자, 캐럴라인은 고아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이 마지막 타격에 캐럴라인은 무너졌다. 내 아버지가 그 방에 들어섰을 때, 캐럴라인은 보포르의 관 곁에 무릎을 꿇고 서럽게 울고 있었다. 아버지는 가엾은 처녀에게 수호신처럼 다가왔고, 처녀는 아버지에게 제 몸을 맡겼다. 벗의 장례를 치른 뒤 아버지는 캐럴라인을 제네바로 데려가 한 친척에게 보살핌을 맡겼다. 이 일이 있고 두 해 뒤에 캐럴라인은 아버지의 아내가 되었다.

부모님은 나이 차이가 꽤 났지만, 그 사실은 오히려 두 사람을 헌신적인 애정으로 더 굳게 묶어 주는 것 같았다. 꼿꼿한 아버지의 마음에는 정의감이 있어서, 깊이 사랑하려면 먼저 깊이 인정해야만 했다. 어쩌면 아버지는 지난날 사랑하던 누군가가 뒤늦게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이 드러나 괴로움을 겪었고, 그래서 시련으로 검증된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애정에는 고마움과 숭배의 빛이 어려 있었고, 그것은 늙은이가 젊은 아내에게 빠져드는 맹목적인 사랑과는 전혀 달랐다. 어머니의 덕을 우러르는 마음과, 어머니가 견뎌 온 슬픔을 얼마간이라도 갚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바람에서 우러난 애정이었기에, 어머니를 대하는 아버지의 몸가짐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품이 깃들었다. 모든 일이 어머니의 바람과 편의에 맞춰졌다. 정원사가 귀한 이국의 꽃을 감싸듯 아버지는 어머니를 온갖 거친 바람에서 지켜 주려 애썼고, 부드럽고 선량한 어머니의 마음에 즐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로 어머니를 둘러싸려 했다. 그때까지 한결같던 어머니의 건강과 마음의 평온마저 그간 겪은 일로 흔들려 있었다. 결혼하기 전 두 해 동안 아버지는 맡고 있던 공직을 하나씩 내려놓았고, 두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어머니의 약해진 몸을 추스르려고 날씨가 온화한 이탈리아로 떠났으며, 경이로운 그 땅을 두루 여행하며 바뀌는 풍경과 새로운 관심거리가 어머니의 기운을 되살려 주리라 기대했다.

두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독일과 프랑스로 건너갔다. 그들의 맏이인 나는 나폴리에서 태어났고, 젖먹이 때부터 부모님의 여행길을 따라다녔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외아들이었다. 부모님은 서로를 깊이 아꼈지만, 마치 사랑의 광맥에서 캐내듯 바닥나지 않는 애정을 길어 올려 내게 쏟아붓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다정한 손길과, 나를 바라보며 짓던 아버지의 자애롭고 흐뭇한 미소가 내 맨 처음 기억이다. 나는

부모님의 장난감이자 우상이었고, 그보다 더 나은 것, 바로 그들의 자식이었다. 하늘이 내려 준 순진하고 의지할 데 없는 생명이었고, 선하게 길러 내야 할 아이였으며, 부모가 내게 의무를 다하느냐에 따라 앞날이 행복으로도 불행으로도 갈릴 아이였다. 자기들이 생명을 준 존재에게 무엇을 빚졌는지 깊이 깨닫고 있었던 데다 두 사람 모두 생기 넘치는 다정함을 지녔으니 짐작이 가겠지만, 나는 어린 시절 내내 시간마다 인내와 자비와 절제를 배우면서도 비단 끈에 이끌리듯 부드럽게 길러졌기에, 모든 것이 내게는 그저 한 줄로 이어진 즐거움으로만 여겨졌다.

오랫동안 부모님의 관심은 오직 나 하나에게 쏠려 있었다. 어머니는 딸을 몹시 갖고 싶어 했지만, 나는 계속 외아들로 남았다. 내가 다섯 살 무렵, 부모님은 이탈리아 국경 너머로 나들이를 갔다가 코모호 기슭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두 사람은 선량한 성품 때문에 가난한 이들의 오두막을 자주 찾았다. 어머니에게 그것은 의무 이상이었다. 자기가 겪은 고통과 자기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기에, 이번에는 자기가 괴로워하는 이들의 수호천사가 되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자 열정이었다. 한번은 산책길에 골짜기 주름진 곳에 자리 잡은 초라한 오두막 한 채가 두 사람의 눈에 띄었다. 유난히 쓸쓸해 보이는 데다, 반쯤 헐벗은 아이들이 우르르 그 둘레에 모여 있는 모습이 가난의 가장 처참한 꼴을 말해 주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혼자 밀라노에 간 사이,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그 집을 찾아갔다. 거기서는 근심과 노동에 허리가 굽은 부지런한 농부 내외가 굶주린 다섯 아이에게 변변찮은 끼니를 나눠 주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아이가 다른 누구보다 어머니의 마음을 끌었다. 그 아이는 핏줄이 달라 보였다. 다른 넷은 눈이 검고 튼튼한 꼬마 떠돌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는 여위고 살결이 아주 희었다. 머리카락은 살아 있는 황금처럼 눈부시게 빛나서, 옷차림은 초라한데도

머리에 기품의 관을 씌워 놓은 듯했다. 이마는 맑고 시원했으며 파란 눈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입술과 얼굴 생김새에는 감수성과 다정함이 가득 배어 있어서, 누구든 이 아이를 보면 다른 종족으로, 하늘이 보낸 존재로, 얼굴 곳곳에 천상의 표지를 지닌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농부의 아내는 어머니가 이 사랑스러운 여자아이를 놀라움과 감탄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아채고는, 아이의 내력을 서둘러 들려주었다. 그 아이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 밀라노 귀족의 딸이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독일 사람이었는데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갓난아이는 젖을 먹여 길러 달라고 이 착한 사람들에게 맡겨졌는데, 그때는 이들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맏이가 막 태어난 무렵이었다. 맡은 아이의 아버지는 이탈리아의 옛 영광을 기억하며 자란 이탈리아 사람 가운데 하나, 늘 들끓는 노예들(schiavi ognor frementi) 가운데 하나로, 조국의 자유를 얻으려고 몸을 던진 사람이었다. 그는 조국이 힘이 없었던 탓에 희생되고 말았다. 그가 죽었는지, 아니면 아직 오스트리아의 지하 감옥에서 목숨을 이어 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아이는 고아이자 빈털터리가 되었다. 아이는 길러 준 부모 곁에 남아 그 거친 집에서 꽃처럼 피어났는데, 잎이 검푸른 가시덤불 사이에 핀 정원의 장미보다도 더 고왔다.

아버지가 밀라노에서 돌아와 보니, 그림 속 아기 천사보다 고운 아이 하나가 우리 별장의 현관 홀에서 나와 놀고 있었다. 얼굴에서 빛이 쏟아지는 듯한 아이였고, 생김새와 몸놀림은 산을 뛰노는 알프스 영양보다도 가벼웠다. 이 환영 같은 아이의 정체는 곧 밝혀졌다.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어머니는 아이를 맡아 기르던 시골 사람들을 설득해 아이를 자기에게 넘겨 달라고 했다. 그들은 이 사랑스러운 고아를 무척 아꼈다. 아이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에게는 축복

같았다. 그러나 섭리가 그토록 든든한 보호자를 보내 주었는데 아이를 가난과 궁핍 속에 붙잡아 두는 것은 아이에게 못 할 짓이었다. 그들은 마을 사제와 의논했고, 그 결과 엘리자베스 라벤차는 우리 부모님 집의 식구가 되었다. 내게는 누이 이상인 사람,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길동무가 되었다.[2]

모두가 엘리자베스를 사랑했다. 누구나 엘리자베스에게 품은 열렬하고 숭배에 가까운 애정은, 나도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동안 내 자랑이자 기쁨이 되었다. 엘리자베스가 우리 집에 오기 전날 저녁, 어머니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우리 빅터한테 줄 예쁜 선물이 있단다. 내일이면 빅터가 받게 될 거야." 이튿날 어머니가 약속한 선물이라며 엘리자베스를 내게 데려오자, 나는 어린아이다운 진지함으로 그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엘리자베스를 내 것으로 여겼다. 내가 지키고 사랑하고 아껴야 할 내 것으로. 엘리자베스에게 쏟아지는 칭찬은 모두 내 소유물에 바치는 칭찬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서로를 스스럼없이 사촌이라고 불렀다. 엘리자베스가 내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그 어떤 낱말도, 그 어떤 표현도 그려 낼 수 없었다. 누이 이상인 사람이었다. 죽는 날까지 오직 내 사람이 되기로 정해져 있었으니까.

---

1. 행정관(syndic): 제네바 공화국을 다스리던 네 명의 최고 행정관.

2. 1818년 초판에서 엘리자베스는 알퐁스의 누이가 이탈리아 사람과 결혼해 낳은 딸, 곧 빅터의 친사촌이다.

제2장

우리는 함께 자랐다. 나이는 한 살도 차이 나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불화나 다툼도 몰랐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조화가 우리 사귐의 넋이었고, 우리 성격에 깃든 다름과 대조는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끌어당겼다. 엘리자베스는 더 차분하고 한곳에 마음을 모으는 성품이었다. 그러나 나는 열정이 넘치는 만큼 더 맹렬하게 몰두할 줄 알았고, 지식을 향한 갈증에 더 깊이 사로잡혀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시인들이 지어낸 하늘거리는 세계를 좇는 일에 빠져 지냈고, 스위스의 우리 집을 둘러싼 장엄하고 경이로운 풍경, 곧 숭고한 산의 모습과 철따라 바뀌는 계절, 폭풍과 고요, 겨울의 정적과 생명으로 들끓는 알프스의 여름 속에서 감탄하고 기뻐할 거리를 넉넉히 찾아냈다. 내 길동무가 진지하고 흡족한 마음으로 사물의 장려한 겉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나는 그 원인을 캐는 데서 기쁨을 느꼈다. 세계는 내게 풀어내고 싶은 비밀이었다. 호기심, 자연의 숨은 법칙을 알아내려는 진지한 탐구, 그 법칙이 내 앞에 펼쳐질 때 느끼던 황홀에 가까운 기쁨이 내가 기억하는 가장 이른 감각들이다.

나보다 일곱 살 아래인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부모님은 떠돌이 생활을 완전히 접고 고국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 집안은 제네바 시내에 집 한 채, 그리고 호수 동쪽 기슭의 벨리브에 시골 별장 하나를 두었는데, 별장은 시내에서 1리그 남짓 떨어져 있었다. 우리는 주로 별장에서 지냈고, 부모님은 세상과 꽤 거리를 두고 살았다. 나는 성미가 사람 많은

곳을 꺼리고 몇 사람에게만 뜨겁게 마음을 주는 편이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에게는 대개 무심했지만, 그 가운데 한 아이와는 더없이 끈끈한 우정으로 맺어졌다. 헨리 클레르발은 제네바 상인의 아들이었다. 남다른 재능과 상상력을 지닌 아이였다. 클레르발은 모험과 고난을, 위험까지도 그 자체로 사랑했다. 기사도 이야기와 모험담을 깊이 읽었다. 영웅의 노래를 짓기도 했고, 마법과 기사의 모험을 다룬 이야기를 여럿 쓰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연극을 시키고 가면극에 끌어들이려고도 했는데, 그 배역은 론세스바예스의 영웅들과 아서왕의 원탁 기사들, 그리고 이교도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무덤을 되찾으려고 피를 흘린 기사의 무리에서 따온 것이었다.

나보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모님은 친절과 너그러움 그 자체였다. 우리는 부모님이 제멋대로 우리 운명을 휘두르는 폭군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그 많은 기쁨을 마련해 주고 지어 주는 사람들이라고 느꼈다. 다른 집안 사람들과 어울려 보면 내 처지가 얼마나 각별히 복된지 똑똑히 알 수 있었고, 그 고마움이 효심을 키워 주었다.

나는 때로 성미가 사납고 감정이 격했다. 그러나 내 기질에 깃든 어떤 법칙 때문인지, 그 격정은 어린애다운 놀이가 아니라 배우려는 열망으로 향했다. 그것도 아무것이나 가리지 않고 배우려는 열망은 아니었다. 고백하건대 언어의 구조도, 정부의 법전도, 여러 나라의 정치도 내게는 아무 매력이 없었다.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하늘과 땅의 비밀이었다. 나를 사로잡은 것이 사물의 겉모습이든, 자연의 내밀한 정신과 사람의 신비로운 영혼이든, 내 탐구는 언제나 세계의 형이상학적 비밀, 가장 높은 뜻에서는 물리적 비밀을 향해 있었다.

그동안 클레르발은, 말하자면, 사물의 도덕적 관계에 몰두했다. 분주한 삶의 무대, 영웅들의 덕, 사람들의 행동이 그의 주제였다. 그는

이야기에 이름이 새겨진 이들, 곧 인류에게 은혜를 베푼 용감하고 모험심 강한 이들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바랐고, 그것을 꿈꾸었다. 엘리자베스의 성스러운 영혼은 평화로운 우리 집에서 성소에 바친 등불처럼 빛났다. 엘리자베스는 우리와 마음을 함께했다. 그 미소, 그 부드러운 목소리, 천상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다정한 눈길은 언제나 거기 있어 우리를 축복하고 북돋아 주었다. 엘리자베스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끌어당기는, 살아 있는 사랑의 정령이었다. 나는 공부에 파묻혀 뚱해지고 타고난 열정 때문에 거칠어졌을지도 모른다. 엘리자베스가 곁에서 나를 다독여 자기의 온화함을 조금이나마 닮게 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클레르발, 클레르발의 고귀한 정신에 무슨 나쁜 것이 끼어들 수 있었겠는가? 그래도 엘리자베스가 선행의 참된 아름다움을 펼쳐 보여 주고, 선을 행하는 일을 높이 솟는 그의 야망의 끝이자 목표로 삼게 해 주지 않았더라면, 클레르발도 그토록 온전히 인정 깊은 사람은, 너그러우면서도 그토록 사려 깊은 사람은, 대담한 공적을 향한 열정 한가운데서도 그토록 친절과 다정함이 넘치는 사람은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불행이 내 마음을 더럽히고, 널리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눈부신 꿈을 나 자신에 대한 어둡고 옹졸한 생각으로 바꿔 놓기 전, 그 어린 시절의 기억에 머무는 것은 내게 더없이 달콤한 즐거움이다. 게다가 어린 날의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알아차릴 수 없는 걸음으로 나를 훗날의 비참한 이야기로 이끈 일들도 함께 적어 둔다. 뒷날 내 운명을 지배한 그 열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스스로 따져 보면, 그것은 산골짜기의 강물처럼 하찮고 거의 잊힌 샘에서 솟아났다. 그러나 흘러가면서 불어나 급류가 되었고, 그 급류는 지나는 길에 내 모든 희망과 기쁨을 쓸어 가 버렸다.

내 운명을 다스려 온 정령은 자연철학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에서 내가 그 학문에 끌리게 된 사연을 밝혀 두고 싶다. 열세 살 때 우리는 다 함께 토농 근처의 온천으로 놀러 갔는데, 날씨가 사나워 하루를 꼼짝없이 여관에 갇혀 지내야 했다. 그 여관에서 나는 우연히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1]의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펼쳤지만, 그가 증명하려는 이론과 그가 들려주는 경이로운 사실들이 곧 그 시큰둥함을 열광으로 바꾸어 놓았다. 새로운 빛이 내 마음에 밝아 오는 듯했고, 나는 기뻐 날뛰며 아버지에게 내 발견을 알렸다. 아버지는 내 책의 속표지를 무심히 보더니 말했다. "아!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로구나! 빅터야, 이런 데 시간 버리지 마라. 한심한 쓰레기란다."

아버지가 이런 말 대신, 아그리파의 원리는 이미 완전히 무너졌고 옛 학문보다 훨씬 큰 힘을 지닌 근대 학문의 체계가 들어섰으며, 옛 학문의 힘은 허황한 것이었지만 새 학문의 힘은 실제로 쓸모 있는 것이라고 수고롭게 설명해 주었더라면, 그랬더라면 나는 틀림없이 아그리파를 내던지고, 이미 달아오른 상상력을 달래며 예전 공부로 더 열심히 돌아갔을 것이다. 어쩌면 내 생각의 흐름은 나를 파멸로 이끈 그 치명적인 충동을 끝내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가 내 책을 대충 한번 훑어본 것만으로는 아버지가 그 내용을 안다고 믿을 수 없었고, 나는 더없이 탐욕스럽게 계속 읽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맨 먼저 이 저자의 전집을 구했고, 이어서 파라켈수스와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책도 구했다. 나는 이 저자들의 허황한 공상을 기쁘게 읽고 연구했다. 그것들은 나 말고는 아는 이가 거의 없는 보물처럼 보였다. 앞에서 나는 내가 늘 자연의 비밀을 꿰뚫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에 젖어 있었다고 말했다. 근대 철학자들의 엄청난 노고와 경이로운 발견에도, 나는 공부를 마칠 때마다 늘 불만스럽고

허전했다. 아이작 뉴턴 경은 자신이 아직 아무도 탐험하지 않은 진리의 거대한 바다 곁에서 조개껍데기를 줍는 아이 같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내가 아는, 자연철학 각 분야에서 그의 뒤를 이은 학자들은 소년이던 내 눈에도 같은 일을 붙들고 씨름하는 풋내기들로 보였다.

배우지 못한 농부도 자기 둘레의 원소들을 보고 그 실제 쓰임새를 알았다. 가장 박식한 철학자라 해도 그보다 더 아는 것은 별로 없었다. 철학자는 자연의 얼굴에 덮인 너울을 조금 걷어 내었지만, 자연의 불멸하는 이목구비는 여전히 경이이자 신비였다. 그는 해부하고 분석하고 이름을 붙일 수는 있었다. 그러나 궁극의 원인은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원인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인간이 자연의 성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듯한 성벽과 장애물을 바라보며, 무모하고 무지하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여기 책들이 있었고, 더 깊이 꿰뚫고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이 단언하는 것을 모두 곧이곧대로 믿었고, 그들의 제자가 되었다. 18세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제네바의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 과정을 따르면서도, 좋아하는 공부만큼은 거의 혼자 익혔다. 아버지는 과학에 밝은 사람이 아니었기에, 나는 학생다운 지식욕에 어린아이의 맹목까지 더한 채 홀로 씨름하도록 내버려졌다. 새 스승들의 인도를 받으며 나는 더없이 부지런히 현자의 돌과 생명의 영약을 찾아 나섰지만, 곧 영약만이 내 관심을 온통 차지했다. 부는 하찮은 목표였다. 그러나 사람의 몸에서 병을 몰아내고, 사람을 폭력으로 맞는 죽음 말고는 어떤 죽음에도 다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면, 그 발견에 얼마나 큰 영광이 따르겠는가!

내 꿈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유령이나 악마를 불러내는 일은 내가 좋아하는 저자들이 아낌없이 약속한 것이었고, 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랐다. 내 주문이 번번이 실패해도 나는 그 실패를 스승들의 솜씨나 진실함이 모자란 탓이 아니라 내가 서툴고 실수한 탓으로 돌렸다. 이렇게 한동안 나는 무너진 체계들에 매달려, 풋내기처럼 서로 어긋나는 숱한 이론을 뒤섞으며 뜨거운 상상력과 어린애 같은 추론에 이끌려 잡다한 지식의 진창에서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는데, 그러다 한 사건이 다시 내 생각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열다섯 살 무렵, 우리가 벨리브 근처의 집에 물러가 있을 때, 더없이 사납고 무서운 뇌우가 몰아쳤다. 폭풍은 쥐라산맥 뒤에서 밀려왔고, 우레가 하늘 곳곳에서 한꺼번에 무시무시한 굉음으로 터졌다. 폭풍이 이어지는 동안 나는 그 진행을 호기심과 기쁨에 차서 지켜보았다. 문간에 서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20야드쯤 떨어진 곳에 서 있던 아름다운 늙은 참나무에서 불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보였다. 눈부신 빛이 사라지자마자 참나무는 간데없고, 벼락에 시커멓게 타 버린 그루터기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이튿날 아침 가 보니 나무는 기이하게 부서져 있었다. 충격에 쪼개진 것이 아니라, 통째로 가느다란 나무 리본들로 찢겨 있었다. 그렇게 철저하게 망가진 것은 그전에도 그 뒤에도 본 적이 없다.

그전에도 나는 전기의 뚜렷한 법칙들을 모르지 않았다. 그때 마침 자연철학을 깊이 연구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이 참사에 흥분해 자기가 전기와 갈바니 전기에 관해 세운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 이론은 내게 새롭고도 놀라웠다. 그가 한 말은 내 상상력의 군주였던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와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와 파라켈수스를 완전히 그늘 속으로 밀어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들이 무너지자 나는 늘 하던 공부를 이어 갈 마음이 사라졌다.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고, 알 수도 없을 것만 같았다.

그토록 오래 내 관심을 붙들던 모든 것이 갑자기 하찮아 보였다. 어쩌면 한창 어릴 때 가장 쉽게 빠지는 마음의 변덕 때문이었을까, 나는 하던 공부를 한순간에 내던졌고, 박물학과 거기서 갈라져 나온 모든 학문을 일그러진 채 태어나다 만 산물로 치부했으며, 참된 지식의 문턱조차 넘지 못할 사이비 학문을 더없이 경멸했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수학과 그에 딸린 학문들에 몰두했다. 단단한 토대 위에 세워진 학문이니 내가 마음을 쏟을 만하다고 여겼다.

우리 영혼은 이렇게 기이하게 지어져 있고, 우리를 번영이나 파멸에 묶어 두는 끈은 이렇게 가늘다. 돌이켜 보면, 거의 기적 같았던 이 마음과 의지의 변화는 내 삶의 수호천사가 곧바로 일러 준 것만 같다. 이미 그때 별들 사이에 걸려 나를 덮칠 채비를 하던 폭풍을 비켜 가게 하려고, 나를 지키려는 정령이 마지막으로 기울인 노력이었다. 오래 붙들어 왔고 근래에는 나를 괴롭히기까지 하던 공부를 내려놓자 남다른 평온과 영혼의 기쁨이 찾아왔고, 그것으로 정령의 승리가 알려졌다. 이렇게 나는 그 공부를 이어 가는 일에는 악을, 그것을 돌보지 않는 일에는 행복을 잇대어 생각하도록 배우게 되어 있었다.

그것은 선한 정령의 힘찬 노력이었다. 그러나 헛일이었다. 운명은 너무도 힘이 셌고, 그 바뀌지 않는 법칙은 나의 철저하고 끔찍한 파멸을 이미 정해 놓았다.

---

1.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1486~1535)·파라켈수스(1493~1541)·알베르투스 마그누스(1200 무렵~1280): 연금술과 신비철학으로 이름난 옛 학자들.

제3장

열일곱 살이 되자 부모님은 나를 잉골슈타트 대학에 보내기로 했다. 나는 그때까지 제네바의 학교에 다녔는데, 아버지는 내 교육을 마무리하려면 고향과는 다른 풍습도 겪어 보게 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래서 떠날 날이 일찌감치 정해졌지만, 정해 둔 날이 오기도 전에 내 삶의 첫 불행이 닥쳤으니, 말하자면 앞으로 닥칠 내 비참함의 전조였다.

엘리자베스가 성홍열에 걸렸다. 병은 무거웠고, 엘리자베스는 몹시 위태로웠다. 엘리자베스가 앓는 동안 사람들은 갖은 말로 어머니를 설득해 병구완을 말리려 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우리의 간청에 따랐지만, 아끼는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말을 듣자 더는 걱정을 누를 수 없었다. 어머니는 엘리자베스의 병상을 지켰고, 어머니의 빈틈없는 보살핌이 모진 병을 이겨 냈다. 엘리자베스는 살아났지만, 이 경솔함의 대가는 엘리자베스를 살린 사람에게 치명적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니가 앓아누웠다. 열과 함께 더없이 불길한 증세가 나타났고, 돌보던 의사들의 얼굴빛은 최악의 결말을 예고했다. 임종의 자리에서도 이 더없이 훌륭한 여인의 굳셈과 자애로움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엘리자베스와 내 손을 맞잡게 했다. "얘들아," 어머니가 말했다. "너희 둘이 맺어지는 날을 바라보며 나는 앞날의 행복을 무엇보다 굳게 믿었단다. 이제 그 바람이 너희 아버지에게 위안이 될 거야.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어린 동생들에게는 네가 내 자리를 채워 주어야 한다. 아아, 너희 곁을 떠나야 하다니 서운하구나.

이렇게 행복하고 사랑받으며 살았는데, 너희 모두를 두고 가기가 어찌 힘들지 않겠니? 하지만 이런 생각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애쓰마. 그리고 저세상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품으마."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죽어서도 얼굴에는 애정이 어려 있었다. 가장 소중한 인연이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불행에 찢겨 나간 사람들의 심정, 영혼 앞에 입을 벌린 공허, 얼굴에 드러나는 절망을 굳이 그려 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날마다 보던 사람,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자신의 일부처럼 여겨지던 사람이 영영 떠나 버렸다는 것을, 사랑하던 눈의 빛이 꺼지고 귀에 그토록 익고 정다운 목소리가 잦아들어 다시는 들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마음이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것이 처음 며칠의 생각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불행이 사실임이 드러나면, 그때 비로소 슬픔의 진짜 쓰라림이 시작된다. 하지만 그 거친 손에 소중한 인연을 빼앗겨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겪었고 또 겪을 수밖에 없는 슬픔을 내가 왜 그려 보여야 하는가? 마침내 슬픔이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것이라기보다 스스로 빠져드는 것이 되는 때가 온다. 입가에 감도는 미소가 신성모독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미소는 쫓겨나지 않는다. 어머니는 죽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우리는 남은 이들과 함께 제 길을 계속 가야 했고, 그 약탈자의 손에 잡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라도 남아 있는 동안은 우리가 운이 좋다고 여기는 법을 배워야 했다.

이 일로 미뤄졌던 잉골슈타트행이 다시 정해졌다. 나는 아버지에게 몇 주의 말미를 얻었는데, 죽음과 닮은 상갓집의 고요를 그리 서둘러 떠나 삶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것이 신성모독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슬픔은 내게 낯설었지만, 그렇다고 덜 두렵지는 않았다. 나는 내게 남은

이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놓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엘리자베스가 조금이라도 위로받는 것을 보고 싶었다.

엘리자베스는 정말로 슬픔을 감추고 우리 모두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다. 엘리자베스는 삶을 꿋꿋이 마주 보며 용기와 열의로 그 의무를 떠맡았고, 숙부와 사촌이라고 부르도록 배운 이들에게 온몸을 바쳤다. 미소의 햇살을 되살려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 주던 이때만큼 엘리자베스가 매혹적인 적은 없었다. 우리가 슬픔을 잊게 하려고 애쓰는 사이, 엘리자베스는 자기의 슬픔마저 잊었다.

마침내 떠나는 날이 왔다. 클레르발이 마지막 저녁을 우리와 함께 보냈다. 클레르발은 나와 함께 가서 같은 학생이 되도록 허락해 달라고 아버지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헛일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속 좁은 장사꾼이어서, 아들이 품은 포부와 야망에서 게으름과 패가망신밖에 보지 못했다. 헨리는 교양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불운을 뼈저리게 느꼈다. 헨리는 말이 적었지만, 입을 열 때면 불이 붙는 듯한 그의 눈과 생기 어린 눈길에서, 장사의 하찮고 비참한 잡일에 매이지 않겠다는 억눌렀으나 단단한 결심이 읽혔다.

우리는 늦게까지 앉아 있었다. 서로에게서 떨어질 수도, '안녕!'이라는 말을 꺼낼 마음을 먹을 수도 없었다. 결국 그 말은 나왔고, 우리는 쉬러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다. 저마다 상대가 속아 넘어갔으리라 생각하면서. 그러나 새벽녘에 나를 실어 갈 마차로 내려가 보니 모두 거기 나와 있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나를 축복하려고, 클레르발은 한 번 더 내 손을 꼭 잡으려고, 그리고 나의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자주 해 달라고 거듭 조르며 소꿉동무이자 벗인 내게 여자다운 마지막 보살핌을 베풀려고.

나는 나를 실어 갈 마차에 몸을 던지고 더없이 우울한 생각에 잠겼다. 늘 다정한 벗들에게 둘러싸여 서로 즐거움을 주려고 애쓰며 지내던 나는

이제 혼자였다. 내가 가는 대학에서 나는 스스로 벗을 사귀고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그때까지 내 삶은 유난히 세상과 떨어져 집 안에서만 이어졌고, 그 탓에 나는 낯선 얼굴을 어찌할 수 없이 꺼리게 되었다. 나는 동생들과 엘리자베스와 클레르발을 사랑했다. 그들은 '그리운 옛 얼굴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기에는 내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믿었다. 길을 떠날 무렵의 내 생각은 이러했다. 그러나 길을 갈수록 기운과 희망이 솟았다. 나는 지식을 얻기를 간절히 바랐다. 집에 있을 때 나는, 한창 젊은 나이에 한곳에 갇혀 지내는 것이 고역이라고 자주 생각했고,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내 자리를 잡고 싶다고 갈망했다. 이제 그 바람이 이루어졌으니, 뉘우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잉골슈타트까지 가는 길은 멀고 고되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할 틈은 넉넉했다. 마침내 그 도시의 높고 흰 첨탑이 눈에 들어왔고, 나는 마차에서 내려 혼자 쓸 방으로 안내받았고, 저녁은 마음 내키는 대로 보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소개장을 전하고 주요 교수 몇 사람을 찾아갔다. 우연이, 아니 내가 마지못한 걸음으로 아버지의 집 문을 나선 순간부터 나를 전능하게 휘두른 그 사악한 힘, 파괴의 천사가 나를 맨 먼저 자연철학을 가르치는 크렘페 교수에게로 이끌었다. 그는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학문의 비밀에는 깊이 통달해 있었다. 그는 자연철학에 딸린 여러 과학 분야를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몇 가지 물었다. 나는 건성으로 대답했고, 얼마간 깔보는 마음으로, 내가 주로 공부한 저자로 연금술사들의 이름을 댔다. 교수는 눈을 크게 떴다. "자네," 그가 말했다. "정말로 그런 허튼소리를 공부하느라 시간을 보냈단 말인가?"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크렘페 교수가 열을 올리며 말을 이었다. "자네가 그런 책에 허비한 순간순간은 모조리, 깡그리 잃어버린 걸세. 자네는 무너진 체계와 쓸모없는 이름으로 기억을 짓눌러 놓았어. 맙소사! 자네가 그토록 게걸스럽게 들이켠 그 공상들이 천 년 묵은 것이고 낡은 만큼 곰팡내도 난다고 일러 줄 만큼 친절한 사람 하나 없는 황무지에서 살았단 말인가? 이 계몽된 과학의 시대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와 파라켈수스의 제자를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이보게, 자네는 공부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네."

그는 이렇게 말하며 한쪽으로 가서 자연철학을 다룬 책 몇 권의 목록을 적어 주고 구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 주 초부터 자연철학 개론을 강의하기 시작할 생각이며, 동료 교수인 발트만 교수가 자기가 강의하지 않는 날마다 번갈아 화학을 강의할 것이라고 일러 준 뒤 나를 돌려보냈다.

나는 숙소로 돌아왔다. 실망하지는 않았다.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교수가 나무란 그 저자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쓸모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 공부로 어떤 꼴로든 돌아갈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생긴 것도 아니었다. 크렘페 교수는 작달막하고 땅딸막한 사람으로, 목소리는 거칠고 생김새는 정이 가지 않았다. 그러니 가르치는 사람부터가 그가 하는 학문에 호감을 품게 해 주지 못했다. 내가 어린 시절 그 학문들을 두고 내린 결론을 나는 어쩌면 지나치게 철학적이고 조리 있게 늘어놓았는지도 모르겠다. 어릴 때 나는 근대 자연과학 교수들이 약속하는 성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몹시 어렸고 그런 일에 길잡이가 없었다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생각의 혼란 속에서, 나는 시간의 길을 따라 지식의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갔고, 최근 탐구자들의 발견을 잊힌 연금술사들의 꿈과 맞바꾸었다. 게다가 나는 근대 자연철학의 쓰임새를 업신여겼다. 학문의 대가들이 불멸과 권능을 찾던 시절에는

사정이 아주 달랐다. 그런 목표는 헛되었을망정 웅대했다. 그러나 이제 무대가 바뀌었다. 탐구자의 야망은 내가 학문에 품은 관심의 주된 바탕이던 바로 그 꿈들을 없애는 데서 스스로 멈추는 듯했다. 나는 끝없이 웅대한 허깨비를 버리고 하찮은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받았다.

잉골슈타트에 머문 처음 이삼 일 동안 나는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며칠은 주로 새 거처의 지리와 그곳의 주요 인사들을 익히며 보냈다. 그러나 이어지는 주가 시작되자, 크렘페 교수가 강의에 대해 알려 준 말이 떠올랐다. 그 잘난 체하는 땅딸보가 강단에서 문장을 늘어놓는 것을 들으러 갈 마음은 도무지 들지 않았지만, 그가 발트만 교수에 대해 한 말은 기억났다. 발트만 교수는 그때까지 도시를 떠나 있어서 나는 아직 그를 본 적이 없었다.

얼마간은 호기심에서, 얼마간은 할 일이 없어서 나는 강의실에 들어갔고, 곧이어 발트만 교수가 들어왔다. 이 교수는 동료와 전혀 딴판이었다. 나이는 쉰 살쯤으로 보였지만, 얼굴에는 더없이 선량한 기색이 어려 있었다. 관자놀이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몇 올이 덮고 있었지만 뒷머리는 거의 검었다. 키는 작았지만 몸가짐이 유난히 꼿꼿했고, 목소리는 내가 들어 본 어떤 목소리보다 감미로웠다. 그는 화학의 역사와 여러 학자가 이룩한 갖가지 진보를 요약하며 강의를 시작했고, 가장 이름난 발견자들의 이름을 열띤 목소리로 불렀다. 이어서 이 학문의 현재 상태를 대강 훑고 기본 용어 여럿을 설명했다. 그리고 준비 삼아 실험 몇 가지를 해 보인 뒤, 근대 화학을 찬미하는 말로 강의를 맺었는데, 그 말을 나는 영영 잊지 못할 것이다.

"이 학문의 옛 스승들은," 그가 말했다. "불가능한 것을 약속했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근대의 대가들은 거의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다. 그들은 금속을 다른 금속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 생명의 영약이

허깨비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손은 오로지 흙을 주무르고, 눈은 오로지 현미경이나 도가니를 들여다보려고 생긴 듯한 이 철학자들이야말로 참으로 기적을 이루었다. 그들은 자연의 깊숙한 곳까지 꿰뚫고 들어가, 자연이 숨은 곳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 준다. 그들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들은 피가 어떻게 도는지,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가 무엇인지 밝혀냈다. 그들은 새롭고 거의 끝없는 힘을 얻었다. 하늘의 우레를 부리고, 지진을 흉내 내고, 보이지 않는 세계마저 그 세계의 그림자로 조롱할 수 있다."

교수의 말은 이러했다. 아니, 나를 파멸시키려고 선포된 운명의 말은 이러했다고 해야겠다.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나는 내 영혼이 손에 잡히는 적과 맞붙어 씨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 존재의 장치를 이루는 여러 건반이 하나씩 눌렸고, 현이 하나 또 하나 울리더니, 곧 내 마음은 하나의 생각, 하나의 착상, 하나의 목표로 가득 찼다. 이미 이렇게 많은 일이 이루어졌다고 프랑켄슈타인의 영혼은 외쳤다. 나는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 내리라. 이미 난 발자취를 따라가며 새 길을 열고, 알려지지 않은 힘을 탐색하고, 창조의 가장 깊은 신비를 세상 앞에 펼쳐 보이리라.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 안의 존재는 반란과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거기서 질서가 생겨나리라는 것은 느꼈지만, 내게는 그 질서를 만들어 낼 힘이 없었다. 동이 튼 뒤에야 잠이 조금씩 찾아왔다. 깨어 보니 간밤의 생각은 꿈만 같았다. 남은 것은 옛 공부로 돌아가, 내게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믿는 학문에 몸을 바치겠다는 결심뿐이었다. 그날 나는 발트만 교수를 찾아갔다. 사사로운 자리에서 그의 몸가짐은 강의 때보다도 더 온화하고 마음을 끌었다. 강의할 때는 그의 풍모에 어떤 위엄이 서려 있었는데, 자기 집에서는 그 자리를 더없는 상냥함과 친절이 차지했다. 나는 그의 동료에게 했던 것과 거의 같은 이야기로

지난날의 공부를 털어놓았다. 그는 내 공부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고,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와 파라켈수스라는 이름에 미소를 지었지만, 크렘페 교수가 드러냈던 경멸은 없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은 근대 철학자들이 지식의 토대 대부분을 빚진 사람들이네. 지칠 줄 모르는 그들의 열의 덕분이지. 그들이 상당 부분 빛을 보게 한 사실들에 새 이름을 붙이고 그것들을 서로 이어진 분류로 정리하는 일을, 그들은 더 쉬운 과제로 우리에게 남겨 주었네. 천재들의 노력은 아무리 그릇된 쪽으로 흘러가더라도 결국 인류에게 단단한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 일이 거의 없네." 나는 아무런 오만도 꾸밈도 없이 건네는 그의 말을 듣고 나서, 그의 강의가 근대 화학자들에 대한 내 편견을 걷어 주었다고 덧붙였다. 나는 젊은이가 스승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겸손과 공경을 갖추어 절제된 말로 이야기했고, 앞으로 할 일을 부추기던 열정은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다(세상 경험이 없던 터라 그것을 드러냈다면 부끄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책을 구해야 할지 조언을 청했다.

"제자를 얻어 기쁘네." 발트만 교수가 말했다. "자네의 노력이 자네 재능만큼만 된다면 자네가 성공하리라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네. 화학은 자연철학 가운데 가장 큰 진보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일세. 그래서 나는 화학을 내 전공으로 삼았지. 그렇다고 다른 학문 분야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네. 인간 지식 가운데 그 분야 하나에만 매달린다면 아주 형편없는 화학자가 되고 말 걸세. 자네가 바라는 것이 하찮은 실험꾼이 아니라 참된 과학자가 되는 것이라면, 수학을 포함해 자연철학의 모든 분야에 힘을 쏟으라고 권하고 싶네."

그러고 나서 그는 나를 실험실로 데려가 여러 기구의 쓰임새를 설명해 주었다. 내가 무엇을 장만해야 하는지 일러 주면서, 내가 그 기구들의 장치를 망가뜨리지 않을 만큼 학문이 나아가면 자기 기구를 쓰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청한 책 목록도 건네주었고, 나는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왔다.

이렇게 내게는 잊을 수 없는 하루가 저물었다. 그날이 내 앞날의 운명을 정했다.

제4장

이날부터 자연철학, 특히 가장 넓은 뜻의 화학이 내가 하는 일의 거의 전부가 되었다. 나는 근대의 탐구자들이 이 분야를 두고 쓴, 천재성과 날카로운 분별로 가득한 저작들을 열심히 읽었다. 강의에 빠짐없이 나갔고 대학의 과학자들과 친분을 쌓았으며, 크렘페 교수에게서도 건전한 분별과 참된 지식을 적잖이 발견했다. 물론 그 지식에는 정이 가지 않는 생김새와 태도가 함께 따라붙었지만, 그렇다고 그 값어치가 덜하지는 않았다. 발트만 교수에게서는 참된 벗을 얻었다. 그의 온화함에는 독단의 기미가 한 점도 섞이지 않았고, 그는 솔직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가르쳤기에 현학의 냄새라고는 조금도 나지 않았다. 그는 이모저모로 내 앞의 지식의 길을 닦아 주었고, 가장 난해한 문제도 내가 알아듣기 쉽고 분명하게 풀어 주었다. 내 노력은 처음에는 들쭉날쭉하고 미덥지 않았지만, 나아갈수록 힘이 붙었고, 곧 어찌나 뜨겁고 열렬해졌는지 내가 아직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이에 별들이 아침 햇빛 속으로 사라지는 일이 잦았다.

그토록 매달렸으니 내 진보가 빨랐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열정에 학생들은 정말로 놀랐고, 내 실력에 스승들도 놀랐다. 크렘페 교수는 자주 짓궂은 미소를 띠고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는 잘 지내느냐고 물었고, 발트만 교수는 내 진보를 진심으로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두 해가 흘렀다. 그동안 나는 한 번도 제네바에 가지 않았고, 이루고 싶은 몇 가지 발견을 좇아 몸과 마음을 다 바쳤다. 과학의 매혹은

겪어 본 사람이 아니면 상상하지 못한다. 다른 공부에서는 앞서 간 사람들이 간 데까지 가고 나면 더 알 것이 없다. 그러나 과학의 탐구에는 발견과 경이의 양식이 끝없이 있다. 보통 재능을 지닌 사람이라도 한 가지 공부를 끈질기게 파고들면 틀림없이 그 분야에서 큰 실력에 이르게 마련이다. 하물며 한 가지 목표만을 줄곧 좇으며 오로지 거기에만 빠져 있던 나는 어찌나 빨리 나아갔는지, 두 해가 끝날 무렵에는 몇몇 화학 기구를 개량하는 발견을 해서 대학에서 큰 존경과 찬탄을 받았다. 이 지점에 이르러 잉골슈타트의 어느 교수에게서 배울 수 있는 만큼 자연철학의 이론과 실제를 익히고 나자, 그곳에 머무는 것이 더는 내 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았으므로 나는 벗들과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 내 체류를 늘려 놓았다.

유난히 내 관심을 끈 현상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몸, 아니 생명을 지닌 모든 동물의 몸의 구조였다. 생명의 원리는 어디서 비롯하는가? 나는 자주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담한 물음이었고, 언제나 신비로 여겨져 온 물음이었다. 그러나 비겁함이나 부주의가 우리의 탐구를 붙들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내기 직전에 서 있는가. 나는 이런 일들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때부터 자연철학 가운데서도 생리학에 관련된 분야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거의 초자연적인 열정이 나를 북돋지 않았더라면 이 공부는 지겹고 거의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생명의 원인을 살피려면 먼저 죽음에 기대야 한다. 나는 해부학을 익혔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넉넉하지 않았다. 사람의 몸이 자연히 썩고 문드러지는 과정도 지켜보아야 했다. 아버지는 나를 가르칠 때, 내 마음에 초자연적인 공포가 새겨지지 않도록 더없이 조심했다. 나는 미신 이야기에 떨거나 유령이 나타날까 무서워한 기억이 한 번도 없다. 어둠은 내 상상력에 아무 힘도 미치지 못했고, 교회 묘지는 내게 그저 생명을 잃은 몸들, 아름다움과 힘이 깃들던 자리에서 벌레의

먹이로 바뀐 몸들을 담아 두는 곳일 뿐이었다. 이제 나는 이 부패의 원인과 진행을 살피게 되었고, 지하 묘소와 납골당에서 밤낮을 보내야 했다. 내 눈길은 인간의 섬세한 감정으로는 더없이 견디기 힘든 것들에 하나하나 붙박였다. 나는 사람의 아름다운 형체가 어떻게 망가지고 스러지는지 보았다. 생기 넘치던 뺨 위로 죽음의 부패가 뒤따르는 것을 보았다. 눈과 뇌의 경이를 벌레가 물려받는 것을 보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삶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바뀌는 변화에 드러나는 인과의 세세한 것들을 낱낱이 살피고 분석했다. 그러다 마침내 이 어둠 한가운데서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내게 쏟아져 들어왔다. 너무도 눈부시고 경이로우면서도 너무도 단순한 빛이어서, 그 빛이 비춰 보인 전망의 광대함에 머리가 아찔해지는 한편으로, 같은 학문에 탐구를 바친 그 많은 천재들 가운데 하필 나 혼자 이토록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도록 남겨졌다는 것에 놀랐다.

기억하라, 나는 미치광이의 환상을 적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해가 빛나는 것도 내가 지금 단언하는 이것보다 더 확실하지는 않다. 어떤 기적이 그것을 낳았을지도 모르지만, 발견의 단계들은 뚜렷했고 그럴 법했다. 믿기 어려운 노고와 피로 속에 밤낮을 보낸 끝에 나는 발생과 생명의 원인을 발견해 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나 자신이 생명 없는 물질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발견에 처음 느낀 놀라움은 곧 기쁨과 황홀로 바뀌었다. 고통스러운 노동에 그토록 긴 시간을 바친 끝에 단숨에 소망의 정상에 이른 것은 내 수고에 대한 더없이 흐뭇한 보답이었다. 그러나 이 발견이 너무도 크고 압도적이어서, 차근차근 나를 그리로 이끈 모든 단계가 지워져 버리고 나는 결과만을 보았다. 세상이 창조된 뒤로 가장 지혜로운 이들이 탐구하고 갈망해 온 것이 이제 내 손아귀에 있었다. 그렇다고 그것이 마법의 장면처럼 한꺼번에 내 앞에 펼쳐진 것은

아니었다. 내가 얻은 지식은 이미 이루어진 목표를 보여 주기보다는, 내가 찾는 목표 쪽으로 노력을 겨누기만 하면 그 노력을 이끌어 줄 성질의 것이었다. 나는 죽은 이들과 함께 묻혔다가, 깜박이는 데다 아무 소용도 없어 보이는 불빛 하나에만 의지해 삶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낸 그 아라비아 사람과 같았다.

벗이여, 당신의 간절한 기색과 당신 눈에 어린 경이와 희망을 보니, 당신은 내가 아는 그 비밀을 듣게 되리라 기대하는 모양이다. 그럴 수는 없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참고 들어 보라. 그러면 내가 왜 그 일에 입을 다무는지 쉽게 알게 될 것이다. 그때의 나처럼 아무 경계도 없이 열에 들뜬 당신을 파멸과 피할 수 없는 비참으로 이끌지는 않겠다. 나에게서 배우라. 내 가르침에서가 아니라면 적어도 내 본보기에서라도, 지식을 얻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제 본성이 허락하는 것보다 더 위대해지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자기 고향 마을을 온 세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더 행복한지 배우라.

그토록 놀라운 힘이 내 손에 쥐어진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 힘을 어떻게 쓸지 오랫동안 망설였다. 생기를 불어넣는 능력은 지녔지만, 그 생기를 받아들일 몸을, 얽히고설킨 섬유와 근육과 혈관을 모두 갖춘 몸을 마련하는 일은 여전히 상상도 못 할 만큼 어렵고 고된 작업이었다. 처음에는 나 같은 존재를 창조해 볼지, 아니면 더 단순한 짜임을 지닌 것을 만들지 망설였다. 그러나 첫 성공에 상상력이 너무 들뜬 나머지, 사람처럼 복잡하고 경이로운 동물에게 생명을 주는 내 능력을 의심할 수가 없었다. 지금 손에 넣을 수 있는 재료는 그토록 힘겨운 일에 거의 모자라 보였지만, 나는 끝내 성공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숱한 좌절을 각오했다. 작업은 쉴 새 없이 꺾일지도 모르고, 끝내 내 작품이 불완전할지도 몰랐다. 그래도 과학과 기계 기술이 날마다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시도가 적어도 앞날의 성공의 토대는

놓으리라는 희망이 생겼다. 계획이 크고 복잡하다는 것도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근거로 여길 수 없었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한 인간을 만들어 내는 일을 시작했다. 부분들이 너무 작아 작업 속도를 크게 늦추었으므로, 나는 처음 생각과 달리 그 존재를 거대한 몸집으로 만들기로 했다. 말하자면 키는 8피트쯤에, 몸집도 그에 걸맞게 크게.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몇 달 동안 재료를 모으고 갈무리하는 일을 무사히 마친 뒤, 나는 작업에 들어갔다.

성공의 첫 열광 속에서 회오리바람처럼 나를 떠밀고 간 갖가지 감정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삶과 죽음은 내게 관념상의 경계로만 보였고, 나는 그 경계를 맨 먼저 뚫고 나가 우리의 어두운 세계에 빛의 급류를 쏟아부을 것이었다. 새로운 종족이 나를 자기들의 창조자이자 근원으로 축복할 것이고, 행복하고 뛰어난 숱한 생명이 제 존재를 내게 빚질 것이었다. 어떤 아버지도 자식의 감사를 내가 그들에게서 받을 감사만큼 온전히 요구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이어 가다가 나는, 생명 없는 물질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면, 언젠가는(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죽음이 몸을 부패에 넘겨준 듯 보이는 곳에서도 생명을 되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내 기운을 받쳐 주었고, 나는 쉼 없는 열정으로 일을 밀고 나갔다. 공부로 뺨은 창백해졌고, 갇혀 지낸 탓에 몸은 바싹 여위었다. 때로는 확실함의 바로 문턱에서 실패하기도 했다. 그래도 나는 다음 날이면, 다음 시간이면 이루어질지도 모를 희망에 매달렸다. 나 혼자만 지닌 하나의 비밀, 그것이 내가 몸을 바친 희망이었다. 달은 한밤중 내 노동을 내려다보았고, 나는 늦추지 않는 숨 가쁜 열망으로 자연을 그 은신처까지 쫓아갔다. 무덤의 불경한 습기 속을 뒤적이고, 생명 없는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살아 있는 동물을 괴롭히던 그 은밀한 노역의 공포를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그 기억에 팔다리가 떨리고

눈앞이 어지럽다. 그러나 그때는 거스를 수 없는, 거의 미친 듯한 충동이 나를 앞으로 떠밀었다. 나는 이 하나의 탐구 말고는 영혼도 감각도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것은 한때의 무아지경일 뿐이어서, 부자연스러운 자극이 힘을 잃고 내가 옛 습관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오히려 새삼 날카롭게 그 공포를 느꼈다. 나는 납골당에서 뼈를 모았고, 불경한 손가락으로 인간 몸의 무서운 비밀을 어지럽혔다. 집 꼭대기, 다른 방들과는 복도와 계단으로 떨어져 있는 외딴 방, 아니 차라리 독방이라 해야 할 곳에 나는 더러운 창조의 작업실을 차렸다. 작업의 세부에 몰두하느라 눈알이 눈구멍에서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해부실과 도살장이 재료의 상당 부분을 대 주었다. 내 안의 인간다운 본성은 내 일에 구역질을 느끼며 자주 고개를 돌렸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커져 가는 열망에 떠밀려 나는 작업을 끝 가까이로 몰아갔다.

내가 이렇게 한 가지 탐구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사이 여름이 지나갔다. 더없이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들판이 그보다 풍성한 수확을 안겨 준 적도, 포도밭이 그보다 탐스러운 포도를 내 준 적도 없었다. 그러나 내 눈은 자연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둘레의 풍경을 돌보지 않게 만든 바로 그 감정 때문에, 나는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고 그토록 오래 보지 못한 벗들마저 잊었다. 내 침묵이 그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네가 너 자신에게 흡족한 동안에는 우리를 다정하게 생각할 테고, 우리도 꼬박꼬박 네 소식을 듣게 되겠지. 편지가 끊기면 네가 다른 의무도 똑같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로 여길 테니, 그건 이해해 다오."

그러니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지 잘 알았다. 그러나 나는 내 일에서 생각을 떼어 낼 수 없었다. 그 자체로는 역겨운 일이었지만, 이미 거스를 수 없이 내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었다. 나는 말하자면, 내 본성의 모든

습관을 삼켜 버린 그 큰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애정에 관련된 모든 일을 미뤄 두고 싶었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내 소홀함을 악덕이나 내 잘못 탓으로 돌린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내게 아무 허물이 없지는 않으리라고 여긴 아버지가 옳았다고 확신한다. 완전한 인간이라면 언제나 차분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지켜야 하고, 격정이나 덧없는 욕망이 그 평온을 어지럽히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지식의 탐구도 이 원칙에서 예외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이 몰두하는 공부가 당신의 애정을 약하게 하고, 어떤 불순물도 섞일 수 없는 소박한 즐거움을 누리는 마음을 망가뜨리는 경향이 있다면, 그 공부는 분명히 옳지 않은, 말하자면 인간의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 공부다. 이 원칙이 언제나 지켜졌다면, 어떤 사람도 무엇을 추구하든 그 일로 가정의 애정이 누리는 평온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그리스는 노예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카이사르는 조국을 아꼈을 것이며, 아메리카는 더 천천히 발견되었을 것이고, 멕시코와 페루의 제국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대목에서 설교를 늘어놓고 있다는 것을 깜박했다. 당신의 표정이 어서 이야기를 이어 가라고 일깨워 준다.

아버지는 편지에서 나를 나무라지 않았고, 다만 내 일을 전보다 더 꼬치꼬치 물어 내 침묵을 알아챘음을 내비쳤을 뿐이었다. 내가 일하는 동안 겨울과 봄과 여름이 지나갔다. 그러나 나는 꽃이 피고 잎이 돋아 퍼지는 모습을 지켜보지 않았다. 그전에는 늘 더없는 기쁨을 주던 광경이었지만, 그만큼 나는 일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해의 잎들이 시들고 나서야 내 작업은 끝에 가까워졌고, 이제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잘 해냈는지가 더 뚜렷이 드러났다. 그러나 내 열정은 불안에 꺾였고, 나는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예술가라기보다 노예가 되어 광산이나

다른 몸에 해로운 일터에서 일하도록 선고받은 사람 같았다. 밤마다 미열에 시달렸고, 신경이 더없이 괴로울 만큼 곤두섰다. 잎 하나 떨어지는 소리에도 화들짝 놀랐고, 죄를 지은 사람처럼 같은 인간들을 피했다. 때로는 내가 이토록 망가진 꼴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겁이 덜컥 났다. 오직 목표를 향한 기운만이 나를 버티게 했다. 작업은 곧 끝날 것이었고, 그때가 되면 운동과 기분 전환이 막 시작된 병을 몰아내 주리라 믿었다. 나는 내 창조가 완성되면 그 둘을 모두 누리리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제5장

내가 고된 노력의 결실을 본 것은 11월의 어느 음산한 밤이었다. 고통에 가까운 초조함 속에서 나는 생명의 도구들을 주위에 모아 놓고, 발치에 누운 생명 없는 것에 존재의 불꽃을 불어넣으려 했다. 벌써 새벽 한 시였고, 빗방울이 처량하게 유리창을 두드렸으며 초는 거의 다 타들어 가 있었는데, 그때 꺼져 가는 불빛의 희미한 깜박임 속에서 나는 피조물의 흐릿한 누런 눈이 뜨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거칠게 숨을 쉬었고, 경련하듯 사지가 들썩였다.

이 파국 앞에서 내가 느낀 감정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까. 끝없는 수고와 정성을 쏟아 빚으려 했던 그 흉물을 어떻게 그려 낼 수 있을까. 그의 팔다리는 균형이 잡혀 있었고, 나는 그의 이목구비를 아름다운 것으로 골라 두었다. 아름답다니! 오, 하느님! 누런 살갗은 그 밑의 근육과 핏줄이 얽힌 모양을 간신히 가리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윤기 나는 검은색으로 치렁치렁했고, 이는 진주처럼 희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함은, 그것이 박힌 칙칙한 흰 눈구멍과 거의 같은 빛깔로 보이는 물기 어린 두 눈과, 쭈글쭈글한 낯빛과, 일자로 다문 검은 입술과 맞서 더욱 끔찍한 대조를 이룰 뿐이었다.

인생의 갖가지 우연도 인간 본성의 감정만큼 변덕스럽지는 않다. 나는 생명 없는 몸에 생명을 불어넣겠다는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두 해 가까이 고되게 일했고, 그 때문에 휴식도 건강도 스스로 빼앗았다. 나는 절제를 훨씬 넘어선 열정으로 그것을 갈망했지만, 일을 마친 지금 꿈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숨 막히는 공포와 혐오가 가슴을 채웠다. 내가 창조한 존재의 모습을 견딜 수 없어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고, 마음을 가라앉혀 잠들지 못한 채 오랫동안 침실 안을 이리저리 서성였다. 마침내 그때까지 겪은 소용돌이 뒤로 나른함이 밀려왔고, 나는 잠시라도 모든 것을 잊어 보려고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러나 헛일이었다. 잠이 들기는 했지만 더없이 사나운 꿈에 시달렸다. 꿈에 나는 건강이 한창 피어난 엘리자베스가 잉골슈타트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기쁘고 놀라워서 나는 엘리자베스를 끌어안았지만, 그 입술에 첫 입맞춤을 하는 순간 입술은 죽음의 빛깔로 검푸르게 변했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바뀌는 것 같더니 어느새 나는 죽은 어머니의 시신을 품에 안고 있었고, 어머니의 몸을 감싼 수의의 플란넬 천 주름 사이로 무덤의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소스라치며 잠에서 깼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고 이가 딱딱 부딪치며 팔다리가 모두 경련하는데, 그때 덧창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흐릿한 누런 달빛 속에서, 나는 그 흉물을, 내가 창조한 비참한 괴물을 보았다. 그는 침대 휘장을 들어 올리고 있었고, 그의 눈은, 그것을 눈이라 부를 수 있다면,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턱이 벌어지더니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웅얼거렸고, 히죽 웃는 웃음에 뺨이 주름졌다. 무슨 말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듣지 못했다. 나를 붙잡으려는 듯 한 손이 뻗어 왔지만, 나는 빠져나와 계단 아래로 내달렸다. 나는 내가 사는 집에 딸린 안뜰로 피신해 남은 밤을 거기서 보냈는데, 더없이 불안하게 이리저리 서성이며 귀를 곤두세웠고, 소리가 날 때마다 내가 그토록 비참하게 생명을 준 악령 같은 시체가 다가온다는 신호일까 봐 그 소리를 붙잡고 두려워했다.

아! 살아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도 그 얼굴의 공포를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생기를 얻은 미라라 해도 그 흉물만큼 끔찍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가 미완성일 때도 그를 들여다보았고, 그때도 그는 추했다. 그러나 그 근육과 관절이 움직일 수 있게 되자, 그것은 단테조차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 되어 버렸다.

나는 비참하게 밤을 보냈다. 때로는 맥박이 너무 빠르고 세게 뛰어 온몸의 동맥 하나하나가 고동치는 것이 느껴졌고, 때로는 나른함과 극도의 허약함에 거의 땅바닥에 쓰러질 지경이었다. 이 공포에 실망의 쓰라림이 뒤섞였으니, 그토록 오랫동안 내 양식이자 달콤한 휴식이던 꿈들이 이제 내게는 지옥이 되어 버렸다. 그 변화는 얼마나 빨랐고, 그 무너짐은 얼마나 철저했던가!

마침내 음산하고 축축한 아침이 밝았고, 잠 못 이뤄 쓰라린 내 눈앞에 잉골슈타트의 교회가, 그 흰 첨탑과 막 여섯 시를 가리키는 시계가 드러났다. 문지기가 그날 밤 내 피난처였던 안뜰의 문을 열었고, 나는 거리로 나섰다. 길모퉁이를 돌 때마다 그 흉물이 눈앞에 나타날까 두려워 그것을 피하려는 듯이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누볐다. 내가 사는 방으로는 감히 돌아가지 못했고, 위안이라고는 없는 시커먼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나는 무언가에 떠밀리듯 서둘러 걸었다.

나는 한동안 이렇게 걸으며, 몸을 움직여 마음을 짓누르는 짐을 덜어 보려 애썼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분명히 알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맸다. 두려움에 메스꺼울 만큼 가슴이 두근거렸고, 나는 감히 주위를 둘러보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둘러 나아갔다.

"쓸쓸한 길을 홀로 가는 이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걷다가,
한 번 뒤돌아본 뒤로는 그저 걸을 뿐
다시는 고개를 돌리지 않듯이.
무서운 악귀 하나가 바로 등 뒤에서
따라오고 있음을 알기에."[1]

그렇게 걸어가다가 나는 마침내 여러 승합 마차와 마차가 늘 멈추는 여관 맞은편에 이르렀다. 왜인지도 모르고 나는 거기서 걸음을 멈추었고, 거리 저편에서 내 쪽으로 다가오는 마차 한 대에 눈을 박은 채 몇 분 동안 서 있었다. 마차가 가까워지자 스위스에서 오는 승합 마차라는 것이 보였는데, 마차는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멈추었고, 문이 열리자 헨리 클레르발이 보였다. 클레르발은 나를 보자마자 뛰어내렸다. "프랑켄슈타인!" 그가 외쳤다. "널 보니 정말 반갑다! 내가 마차에서 내리는 바로 그 순간에 네가 여기 있다니 이런 행운이 있나!"

클레르발을 본 기쁨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었다. 그가 나타나자 아버지와 엘리자베스와, 기억 속에 그토록 소중한 고향의 모든 정경이 떠올랐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고, 한순간에 공포와 불행을 잊었으며, 여러 달 만에 처음으로 차분하고 맑은 기쁨을 불현듯 느꼈다. 그래서 나는 더없이 따뜻하게 벗을 맞았고, 우리는 내가 묵는 학교 쪽으로 걸어갔다. 클레르발은 한동안 우리가 함께 아는 벗들 이야기와, 잉골슈타트에 오도록 허락받은 자기의 행운 이야기를 이어 갔다. "짐작이 가겠지만," 그가 말했다. "필요한 지식이 모두 부기라는 고귀한 기술 안에 들어 있는 건 아니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사실 아버지는 끝까지 믿지 않으셨을 거야. 지치지 않고 졸라 대는 내게 아버지가 늘 하시던 대답은 『웨이크필드의 목사』에 나오는 네덜란드 교사의 말과 똑같았거든. '나는 그리스어 없이도 한

해에 1만 플로린을 벌고, 그리스어 없이도 밥만 잘 먹는다.' 그래도 결국에는 날 아끼는 마음이 학문을 싫어하는 마음을 이겼고, 아버지는 내가 지식의 나라로 탐험 항해를 떠나도록 허락해 주셨어."

"네가 와서 정말 기뻐. 그런데 우리 아버지와 동생들과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지내는지 말해 줘."

"아주 잘 지내고, 아주 행복해. 다만 네 소식을 너무 가끔 들으니 조금 걱정하고 있지. 참, 그 일로 내가 너한테 잔소리를 좀 할 생각이야. 그런데 프랑켄슈타인," 그는 문득 말을 멈추고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아까는 몰랐는데 너 몹시 아파 보여. 이렇게 여위고 창백하다니. 며칠 밤을 꼬박 새운 사람 같아."

"제대로 봤어. 요즘 한 가지 일에 너무 깊이 빠져서, 보다시피 쉬지를 못했어. 하지만 이제 그 일은 다 끝났기를, 정말로 끝났기를 바라. 이제야 겨우 자유로워졌기를."

나는 몹시 떨렸다. 지난밤 일은 생각하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고, 입에 올리는 것은 더더욱 그랬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걸었고, 우리는 곧 내가 묵는 학교 건물에 이르렀다. 그때 문득, 내 방에 남겨 두고 온 피조물이 아직 그곳에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에 몸이 오싹했다. 나는 이 괴물을 보는 것이 두려웠지만, 헨리가 그를 볼까 봐 더 두려웠다. 그래서 헨리에게 계단 밑에서 몇 분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고는 내 방으로 쏜살같이 올라갔다. 정신을 차려 보니 손은 벌써 문고리에 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췄고, 차가운 전율이 온몸을 훑었다. 문 너머에 유령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여길 때 아이들이 흔히 그러듯이 나는 문을 세게 밀어젖혔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겁에 질려 발을 들여놓았다. 방은 비어 있었고, 침실에서도 그 흉측한 손님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토록 큰 행운이 내게 찾아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나의 적이 정말로 달아났다는 것을 확인하자 나는 기뻐서 손뼉을 치며 클레르발에게로 달려 내려갔다.

우리는 내 방으로 올라갔고, 곧 하인이 아침을 가져왔지만, 나는 스스로를 억누를 수 없었다. 나를 사로잡은 것은 기쁨만이 아니어서, 지나치게 예민해진 살갗이 따끔거리고 맥박이 빠르게 뛰었다. 한순간도 한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의자를 뛰어넘고, 손뼉을 치고, 소리 내어 웃었다. 클레르발은 처음에는 내 유난한 들뜸을 자기가 온 것을 반기는 기쁨 탓으로 여겼다. 그러나 나를 좀 더 유심히 살피고 나서는 내 눈에서 까닭을 알 수 없는 광기를 보았고, 거리낌 없이 터져 나오는 내 넋 나간 웃음소리에 겁을 먹고 놀랐다.

"빅터," 그가 외쳤다. "제발, 대체 무슨 일이야? 그렇게 웃지 마. 너 정말 많이 아프구나! 이게 다 무엇 때문이야?"

"묻지 마." 나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며 외쳤다. 그 무서운 유령이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이 보이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놈이 말해 줄 거야. 아, 살려 줘! 살려 줘!" 나는 괴물이 나를 붙잡았다고 상상했다. 나는 미친 듯이 몸부림치다가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가엾은 클레르발! 그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그토록 기쁘게 기다리던 만남이 이토록 기이하게 쓰라림으로 바뀌다니. 그러나 나는 정신을 잃은 채 오래오래 의식을 되찾지 못했으므로, 그의 슬픔을 곁에서 지켜보지 못했다.

이것이 신경열의 시작이었고, 그 병으로 나는 여러 달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동안 줄곧 헨리 혼자 나를 간호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헨리는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그 먼 길을 오기 어렵다는 것과, 내가 앓는다는 소식이 엘리자베스를 얼마나 비참하게 할지를 알았기에, 내 병이 얼마나 깊은지 숨겨 그들이 이런 슬픔을 겪지 않게 해 주었다. 그는 자기보다 더 다정하고 세심한 간호인을 내가 만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고, 내가 회복하리라는 희망을 굳게 품고 있었기에, 자기가 해를 끼치기는커녕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의심 없이 믿었다.

그러나 나는 사실 몹시 위중했고, 벗의 끝없고 쉼 없는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틀림없이 목숨을 되찾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생명을 준 괴물의 모습이 언제나 눈앞에 어른거렸고, 나는 쉴 새 없이 그에 대해 헛소리를 했다. 내 말에 헨리는 분명 놀랐을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그것을 어지러워진 내 상상력이 지어낸 헛소리로 여겼지만, 내가 끈질기게 같은 이야기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 내 병이 정말로 어떤 남다르고 끔찍한 사건에서 비롯했다고 믿게 되었다.

아주 더디게, 그리고 벗을 놀라게 하고 슬프게 한 잦은 재발을 거치며 나는 회복했다. 처음으로 바깥 사물을 얼마간이라도 즐겁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를 나는 기억한다. 낙엽은 사라지고 없었고, 창에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들에서는 어린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거룩한 봄이었고, 그 계절이 내 회복을 크게 도왔다. 기쁨과 애정의 감정도 가슴속에 되살아나는 것이 느껴졌고, 우울은 걷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 치명적인 열정에 사로잡히기 전처럼 명랑해졌다.

"클레르발," 내가 외쳤다. "넌 내게 어쩌면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착하니. 공부하며 보내겠다던 이번 겨울을 통째로 내 병실에서 다 써 버렸잖아.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겠어? 내가 너를 실망시킨 일이 정말 가슴 아파. 하지만 넌 날 용서해 주겠지."

"네가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하루빨리 낫기만 하면 그걸로 다 갚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기운이 나 보이니, 한 가지 이야기를 해도 되겠지?"

나는 떨었다. 한 가지 이야기! 무엇일까? 내가 감히 떠올리지도 못하는 그것을 말하려는 것일까?

"진정해." 내 얼굴빛이 바뀌는 것을 본 클레르발이 말했다. "네가 동요한다면 꺼내지 않을게. 다만 아버님과 네 사촌이 네 손으로 쓴 편지를 받으면 무척 기뻐하실 거야. 네가 얼마나 앓았는지 거의 모르고 계셔서, 네가 오래 소식이 없는 걸 걱정하고 계셔."

"그게 다야, 헨리? 내가 맨 먼저 떠올릴 사람이 그 소중하고 소중한 이들, 내가 사랑하고 내 사랑을 받기에 그토록 마땅한 그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지금 마음이 그렇다면, 며칠째 여기서 너를 기다리던 편지를 보면 반가울 거야. 네 사촌한테서 온 것 같아."

---

1. (원주) 콜리지, 「노수부의 노래」.

제6장

그러고 나서 클레르발이 다음 편지를 내 손에 쥐여 주었다. 바로 나의 엘리자베스가 보낸 편지였다.

"사랑하는 빅터에게"

"넌 아팠어, 아주 많이 아팠어. 다정하고 고마운 헨리가 꼬박꼬박 편지를 보내 주는데도 네 걱정을 놓을 수가 없어. 넌 편지를 쓰는 것도, 펜을 쥐는 것조차 금지당했지. 그래도 빅터, 우리 걱정을 가라앉히려면 네 말 한마디가 꼭 필요해. 오랫동안 나는 우편이 올 때마다 이번에는 네 글 한 줄이 오겠지 생각했고, 그렇게 숙부님을 달래서 잉골슈타트까지 가시겠다는 걸 말렸어. 숙부님이 그 먼 길의 불편과 어쩌면 위험까지 겪으시지 않도록 막기는 했지만, 내가 직접 가지 못하는 게 얼마나 자주 안타까웠는지 몰라! 네 병상을 지키는 일이 돈만 바라는 어느 늙은 간병인한테 맡겨졌을 거라고 나는 혼자 상상하는데, 그런 사람은 네가 무엇을 바라는지 짐작도 못 할 테고, 네 가엾은 사촌처럼 정성과 애정을 다해 돌봐 주지도 못할 텐데. 하지만 이제 그것도 다 지난 일이야. 네가 정말로 나아지고 있다고 클레르발이 편지에 썼거든. 네가 머잖아 네 손으로 쓴 글씨로 이 소식이 맞다고 확인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

"어서 나아서 우리에게 돌아와. 행복하고 명랑한 집과, 너를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네 아버지는 아주 정정하셔. 너를 보는 것, 네가 잘 지낸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바라시는 게 없어. 그것만 되면 그 자애로운 얼굴에 근심 한 점 드리우지 않으실 거야. 우리

어니스트가 얼마나 컸는지 보면 너도 무척 기쁠 거야! 이제 열여섯 살인데, 활기와 기운이 넘쳐. 진짜 스위스 사람이 되어 외국 군대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적어도 형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까지는 우리가 그 애를 보내 줄 수가 없어. 숙부님은 먼 나라에서 군인으로 사는 걸 탐탁지 않아 하셔. 하지만 어니스트는 한 번도 너만큼 끈기 있게 공부에 매달리지 못했어. 공부를 지긋지긋한 족쇄로 여기고, 산을 타거나 호수에서 노를 저으며 바깥에서만 지내. 우리가 한발 물러서서 그 애가 고른 길로 가게 해 주지 않으면 그 애가 게으름뱅이가 될까 봐 걱정이야."

"네가 떠난 뒤로 우리 귀여운 아이들이 자란 것 말고는 달라진 게 별로 없어. 파란 호수와 눈 덮인 산은 결코 변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의 평온한 집과 만족스러운 마음도 그 바뀌지 않는 법칙을 따르는 것 같아. 나는 자잘한 일들로 시간을 보내며 즐겁게 지내고, 무슨 수고를 하든 내 둘레에서 행복하고 다정한 얼굴만 보는 것으로 넉넉히 보답받아. 네가 떠난 뒤로 우리 작은 집안에 단 하나 바뀐 일이 있어. 저스틴 모리츠가 어떻게 우리 식구가 되었는지 기억나? 아마 기억 안 나겠지. 그러니 그 애 내력을 몇 마디로 들려줄게. 저스틴의 어머니 모리츠 부인은 아이 넷을 둔 과부였는데, 저스틴은 그 가운데 셋째였어. 저스틴은 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이상하게 비뚤어진 마음 탓에 어머니는 그 애를 견디지 못했고, 모리츠 씨가 죽은 뒤에는 그 애를 아주 모질게 대했어. 숙모님이 그걸 보시고, 저스틴이 열두 살 때 그 어머니를 설득해서 그 애가 우리 집에 와서 살도록 허락을 받아 내셨지. 우리나라의 공화 제도는 둘레의 큰 군주국들에 퍼진 것보다 더 소박하고 행복한 풍습을 낳았고,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계층 사이의 구별이 덜하고, 아랫사람들도 그리 가난하지도 멸시받지도 않으니 몸가짐이 더 점잖고 도덕적이야. 제네바의 하인은 프랑스나 영국의 하인과 같은 뜻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 집에 들어온 저스틴은 하인의 일을 배웠어. 하지만 우리 복된 나라에서 그 처지는 무지하다거나 인간의 존엄을 내버린다는 뜻을 품고 있지 않아."

"너도 기억하겠지만, 저스틴은 네가 무척 아끼던 아이였어. 언젠가 네가, 기분이 언짢을 때도 저스틴이 한 번 쳐다보기만 하면 다 풀린다고 했던 게 기억나. 아리오스토가 안젤리카[1]의 아름다움을 두고 든 것과 같은 까닭이라고 했지. 그 애는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고 행복해 보였으니까. 숙모님은 저스틴을 몹시 아끼셔서, 처음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나은 교육을 시켜 주셨어. 이 은혜는 넉넉히 갚아졌어. 저스틴은 세상에서 가장 고마워할 줄 아는 아이였거든. 그 애가 고맙다는 말을 늘어놓았다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이 그 애 입에서 나오는 걸 나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 하지만 그 애 눈을 보면 자기를 보살펴 주신 분을 거의 숭배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성격은 쾌활하고 여러 면에서 철이 없었지만 숙모님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더없이 마음을 썼고, 숙모님을 모든 훌륭함의 본보기로 여겨 그 말투와 몸가짐을 흉내 내려 애썼어. 그래서 지금도 저스틴을 보면 숙모님 생각이 자주 나."

"사랑하는 숙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다들 제 슬픔에 빠져 있느라, 숙모님이 앓으시는 동안 더없이 애타는 정성으로 곁을 지킨 가엾은 저스틴을 아무도 돌아보지 못했어. 가엾은 저스틴은 몹시 앓았어. 하지만 그 애에게는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 애의 형제자매가 하나씩 죽었고, 어머니에게는 소홀히 대하던 딸 하나 말고는 자식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 그 여자는 양심이 괴로웠어. 아끼던 자식들이 죽은 것은 자기의 편애를 벌하려는 하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지. 그 여자는 로마 가톨릭 신자였는데, 고해 신부도 그 생각을 굳혀 준 것 같아. 그래서 네가 잉골슈타트로 떠나고 몇 달 뒤에, 뉘우친 어머니가 저스틴을 집으로 불러들였어. 가엾은 아이! 우리 집을

떠날 때 그 애는 울었어. 숙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그 애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 슬픔 때문에, 전에는 유난히 발랄하던 몸가짐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스럽게 온순해졌지. 어머니 집에서 지내는 것도 그 애의 명랑함을 되찾아 줄 만한 생활은 아니었어. 그 가엾은 여자는 뉘우치면서도 마음이 이랬다저랬다 해서, 이따금 자기가 모질게 군 걸 용서해 달라고 저스틴에게 빌었지만, 그보다 훨씬 자주 형제자매가 죽은 게 그 애 탓이라고 몰아세웠어. 끊임없이 애태운 끝에 모리츠 부인은 마침내 쇠약해졌고, 처음에는 그 때문에 더 신경질적이 되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평안해. 지난겨울 초, 추위가 막 닥칠 무렵에 세상을 떠났어. 저스틴은 우리에게 돌아왔고, 정말이지 나는 그 애를 무척 아껴. 아주 영리하고 상냥하고, 정말 예뻐.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애의 몸가짐과 말투를 보면 사랑하는 숙모님 생각이 자꾸 나."

"사랑하는 빅터, 귀여운 윌리엄 이야기도 몇 마디 해야겠어. 네가 그 애를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나이에 비해 키가 아주 크고, 웃음 띤 사랑스러운 파란 눈에 속눈썹은 짙고, 머리카락은 곱슬곱슬해. 웃으면 건강하게 발그레한 두 뺨에 작은 보조개가 하나씩 패. 벌써 꼬마 색시를 한둘 두었는데, 그중에서도 다섯 살 난 예쁜 꼬마 루이자 비롱을 제일 좋아해."

"자, 빅터, 이제는 제네바의 좋은 이웃들 소문도 좀 듣고 싶겠지. 예쁜 맨스필드 양은 젊은 영국 신사 존 멜번 씨와 결혼할 날을 앞두고 벌써 축하 방문을 받았어. 맨스필드 양의 못생긴 언니 마농은 지난가을에 부자 은행가 뒤빌라르 씨와 결혼했고. 네가 제일 좋아하던 학교 친구 루이 마누아르는 클레르발이 제네바를 떠난 뒤로 몇 번 불운을 겪었지만, 벌써 기운을 되찾았고 아주 발랄하고 예쁜 프랑스 여자 타베르니에 부인과 곧 결혼한다는 소문이야. 그 부인은 과부이고

마누아르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만, 모두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야."

"편지를 쓰다 보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 하지만 끝맺으려니 다시 걱정이 밀려와. 편지해 줘, 빅터. 한 줄이라도, 한마디라도 우리에게는 축복일 거야. 헨리에게는 그 친절과 애정과 숱한 편지에 천 번 만 번 고맙다고 전해 줘. 우리는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어. 잘 있어, 빅터. 몸조심하고, 부탁이니 꼭 편지해!"

"엘리자베스 라벤차"

"제네바에서, 17○○년 3월 18일."

◆

"엘리자베스,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나는 외쳤다. "당장 편지를 써서 다들 걱정을 덜어 줘야겠어." 나는 편지를 썼고, 그 일로 몹시 지쳤다. 그러나 회복은 이미 시작되어 순조롭게 나아갔다. 2주가 더 지나자 나는 방을 나설 수 있었다.

회복한 뒤 맨 먼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클레르발을 대학의 여러 교수에게 소개하는 일이었다.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상처 입은 내 마음에는 몹시 어울리지 않는 거친 대접을 겪었다. 그 치명적인 밤, 내 노동이 끝나고 내 불행이 시작된 그 밤 이후로 나는 자연철학이라는 이름에조차 격렬한 반감을 품게 되었다. 다른 데는 건강을 거의 되찾은 뒤에도 화학 기구를 보기만 하면 신경 증세의 고통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헨리는 그것을 알아채고 내 기구들을 모두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치워 두었고, 전에 실험실로 쓰던 방을 내가 싫어하게 된 것을 눈치채고는 숙소도 바꾸어 주었다. 그러나 교수들을 찾아갔을 때 클레르발의 이런 배려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발트만 교수는 내가

과학에서 이룬 놀라운 진보를 친절하고 따뜻하게 칭찬함으로써 나를 고문했다. 그는 곧 내가 그 화제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진짜 까닭은 짐작하지 못하고 내 감정을 겸손 탓으로 돌리고는, 화제를 내 진보에서 학문 그 자체로 돌렸는데, 나를 이야기에 끌어들이고 싶어서라는 것이 뻔히 보였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나를 기쁘게 하려 했지만 나를 괴롭혔다. 그는 훗날 나를 느리고 잔인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데 쓰일 도구들을 하나씩 공들여 내 눈앞에 늘어놓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의 말에 몸부림쳤지만, 내가 느끼는 고통을 감히 드러내지 못했다. 늘 남의 기분을 재빨리 알아채는 눈과 마음을 지닌 클레르발이, 자기는 그런 일을 전혀 모른다는 핑계를 대며 그 화제를 피했고, 이야기는 더 일반적인 쪽으로 흘러갔다. 나는 마음속으로 벗에게 고마워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그가 놀랐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내 비밀을 캐내려 하지 않았다. 나는 끝 모를 애정과 존경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를 사랑했지만, 자주 기억에 떠오르는 그 사건을 끝내 그에게 털어놓을 마음을 먹지 못했는데, 남에게 자세히 이야기하면 그 일이 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질 뿐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크렘페 교수는 그만큼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그 무렵 나는 거의 견딜 수 없을 만큼 예민한 상태였으므로, 그의 거칠고 무뚝뚝한 찬사는 발트만 교수의 선량한 칭찬보다도 더 큰 고통을 주었다. "빌어먹을 녀석 같으니!" 그가 외쳤다. "이보게 클레르발 군, 정말이지 이 친구가 우리를 모두 앞질렀네. 그래, 눈을 크게 뜨고 싶으면 뜨게.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야.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를 복음서만큼이나 굳게 믿던 풋내기가 이제 대학의 맨 꼭대기에 올라섰단 말일세. 얼른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체면을 잃고 말 거야. 그래, 그래,"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내 얼굴을 보고 말을 이었다.

"프랑켄슈타인 군은 겸손하지. 젊은이에게는 훌륭한 덕목이야. 젊은이는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하네, 알겠나, 클레르발 군. 나도 젊을 때는 그랬지. 하지만 그런 건 금세 닳아 없어지는 법일세."

이제 크렘페 교수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다행히 그 덕분에 이야기는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화제에서 벗어났다.

클레르발은 자연과학을 좋아하는 내 취향에 한 번도 공감한 적이 없었고, 그가 좋아하는 문학 공부는 나를 사로잡았던 공부와 전혀 달랐다. 그는 동방의 언어들을 완전히 제 것으로 익히려는 뜻을 품고 대학에 왔는데, 그래야 스스로 정해 둔 인생 계획을 펼칠 터전이 열리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름 없는 길은 걷지 않기로 마음먹은 그는, 모험심을 펼칠 무대로 동방에 눈을 돌렸다. 페르시아어와 아랍어와 산스크리트어가 그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나도 쉽게 같은 공부에 뛰어들게 되었다. 나는 원래 빈둥거리는 것을 못 견디는 성미였고, 이제는 생각에서 달아나고 싶고 예전 공부가 싫어졌던 터라, 벗과 함께 배우는 학생이 된 것이 큰 위안이 되었으며, 동방 학자들의 저작에서 가르침뿐 아니라 위로까지 얻었다. 나는 그처럼 그 언어들을 비판적으로 깊이 연구하려 하지는 않았다. 잠시 즐거움을 얻는 것 말고 다른 데 쓸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뜻을 이해하려고 읽었고, 그것만으로도 내 수고는 넉넉히 보답받았다. 그들의 우수는 마음을 달래 주고 그들의 기쁨은 마음을 북돋워 주는데, 다른 어느 나라 작가들을 공부할 때도 그만한 것은 겪어 보지 못했다. 그들의 글을 읽으면 삶은 따스한 햇살과 장미 정원, 아름다운 적의 미소와 찡그림, 그리고 제 심장을 태우는 불꽃으로만 이루어진 것 같다. 그리스와 로마의 남성적이고 영웅적인 시와는 얼마나 다른가!

이런 일들로 여름이 지나갔고, 나는 늦가을에 제네바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몇 가지 일로 늦어지는 사이에 겨울이 오고 눈이 내려 길을

도저히 지날 수 없게 되었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내 여행은 이듬해 봄으로 미뤄졌다. 나는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 몹시 쓰라렸다. 고향 도시와 사랑하는 벗들이 그토록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 귀향이 그렇게 오래 미뤄진 것은 오로지, 클레르발이 그곳 사람 누구와도 아직 사귀기 전에 그를 낯선 곳에 혼자 남겨 두고 싶지 않았던 탓이었다. 그래도 겨울은 즐겁게 지나갔고, 봄은 유난히 늦게 왔지만 막상 오자 그 아름다움이 늦장을 넉넉히 갚아 주었다.

벌써 5월이 시작되어 나는 출발 날짜를 정해 줄 편지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헨리가, 내가 그토록 오래 살아온 이 고장과 몸소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잉골슈타트 근교를 걸어서 돌아보자고 했다. 나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나는 걷기를 좋아했고, 고향의 풍경 속에서 이런 산책을 할 때면 클레르발은 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길동무였다.

우리는 이렇게 2주 동안 이곳저곳을 거닐었다. 내 몸과 기운은 진작 회복되어 있었는데, 들이마시는 맑은 공기와 길에서 저절로 마주치는 일들, 그리고 벗과 나누는 이야기 덕분에 한층 더 튼튼해졌다. 그전까지 공부는 나를 같은 인간들과의 어울림에서 떼어 놓고 사람을 멀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클레르발은 내 마음속의 더 나은 감정들을 불러내어, 자연의 모습과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사랑하는 법을 내게 다시 가르쳐 주었다. 훌륭한 벗이여! 너는 얼마나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고, 내 마음이 너와 같은 높이에 이를 때까지 끌어올리려고 얼마나 애썼던가! 이기적인 탐구에 매달리느라 나는 움츠러들고 옹졸해져 있었지만, 너의 상냥함과 애정이 내 감각을 따뜻하게 녹여 활짝 열어 주었다. 나는 몇 해 전,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슬픔도 걱정도 몰랐던 그 행복한 사람으로 돌아갔다. 행복할 때면 생명 없는 자연도 내게 더없이 즐거운 느낌을 안겨 주는 힘이 있었다. 맑은 하늘과 푸른 들판이 나를 황홀하게

했고, 때는 참으로 거룩한 계절이어서 산울타리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고 여름꽃은 벌써 봉오리를 맺고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떨쳐 내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길 수 없는 무게로 나를 짓누르던 생각들도 이제는 나를 어지럽히지 않았다.

헨리는 내가 명랑해진 것을 기뻐했고, 내 기분을 진심으로 함께 느껴 주었다. 그는 자기 영혼을 가득 채운 느낌들을 털어놓으면서도 나를 즐겁게 해 주려고 애썼다. 이때 그가 보여 준 재치와 지혜는 참으로 놀라웠다. 그의 이야기는 상상력으로 가득했고, 페르시아와 아랍의 작가들을 흉내 내어 놀라운 공상과 열정이 넘치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지어내는 일도 아주 잦았다. 어떤 때는 내가 좋아하는 시를 읊어 주었고, 어떤 때는 나를 논쟁으로 끌어들여 무척 기발한 솜씨로 자기 주장을 펼쳤다.

우리는 어느 일요일 오후에 대학으로 돌아왔다. 농부들은 춤을 추고 있었고, 마주치는 사람마다 즐겁고 행복해 보였다. 나 역시 기분이 한껏 올라, 걷잡을 수 없는 기쁨과 흥에 겨워 껑충껑충 뛰듯이 걸었다.

---

1. 안젤리카: 아리오스토의 『광란의 오를란도』(1516)에 나오는 카타이의 공주. 아름다움으로 기사들을 홀린다.

제7장

돌아와 보니 아버지에게서 이런 편지가 와 있었다.

"사랑하는 빅터에게"

"너는 아마 집으로 돌아올 날짜를 정해 줄 편지를 애타게 기다렸겠지. 나도 처음에는 몇 줄만 적어 너를 기다릴 날짜만 알려 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잔인한 친절일 테니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아들아, 즐겁고 반가운 환영을 기대하고 왔다가 거꾸로 눈물과 비탄을 보게 된다면 너는 얼마나 놀라겠느냐? 빅터, 우리에게 닥친 불행을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겠느냐? 오래 떨어져 지냈다고 해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에 네가 무심해졌을 리는 없으니,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던 아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런 고통을 안길 수 있겠느냐? 이 비통한 소식을 듣기 전에 네 마음을 미리 다잡게 해 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지금도 네 눈은 그 끔찍한 소식을 전할 낱말을 찾아 이 종이 위를 바삐 훑어 내려가고 있을 테지."

"윌리엄이 죽었다! 웃는 얼굴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따뜻하게 데워 주던 그 귀여운 아이, 그토록 순하면서도 그토록 명랑하던 그 아이가 죽었다! 빅터, 그 아이가 살해당했다!"

"너를 위로하려고 애쓰지는 않겠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만 있는 그대로 적겠다."

"지난 목요일(5월 7일)에 나와 네 사촌 누이, 그리고 네 두 동생은 플랭팔레로 산책을 나갔다. 저녁 날씨가 따뜻하고 고요해서 우리는 여느

때보다 멀리까지 걸었다. 돌아갈 생각을 했을 때는 벌써 날이 어둑했는데, 그제야 앞서 걸어가던 윌리엄과 어니스트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우리는 두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벤치에 앉아 쉬었다. 이윽고 어니스트가 와서 제 동생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어니스트의 말로는, 윌리엄과 같이 놀고 있었는데 윌리엄이 숨겠다며 달아났고,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 한참을 기다렸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덜컥 겁이 나서 밤이 될 때까지 아이를 찾아다녔는데, 엘리자베스가 혹시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집에도 아이는 없었다. 귀여운 내 아이가 길을 잃고 밤의 습기와 이슬을 고스란히 맞고 있으리라 생각하니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횃불을 들고 다시 나갔고, 엘리자베스도 몹시 괴로워했다. 새벽 다섯 시쯤, 바로 전날 저녁만 해도 꽃처럼 피어나 팔팔하던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나는 찾아냈다. 아이는 풀밭 위에 핏기 없이 퍼렇게 질린 채 꼼짝도 않고 쭉 뻗어 누워 있었고, 목에는 살인자의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이를 집으로 옮겨 오자, 내 얼굴에 드러난 비통함을 보고 엘리자베스가 사정을 알아차렸다. 엘리자베스는 시신을 꼭 보아야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말렸지만 그 아이는 끝내 고집을 부리더니, 시신이 누운 방으로 들어가 가엾은 아이의 목을 다급하게 살펴보고는 두 손을 움켜쥐며 외쳤다. '오, 하느님! 내가 우리 귀여운 아이를 죽였어요!'"

"엘리자베스는 정신을 잃었고, 겨우겨우 깨어났다. 다시 살아나서도 울고 한숨짓기만 했다. 엘리자베스가 내게 털어놓기를, 바로 그날 저녁 윌리엄이 자기가 지니고 있던 아주 값진 네 어머니의 작은 초상화를 목에 걸어 보고 싶다고 졸라 댔다는구나. 그 초상화가 없어졌으니,

틀림없이 그것이 살인자를 범행으로 꾀어낸 미끼였을 것이다. 범인을 찾으려고 쉬지 않고 애쓰고 있지만 아직은 아무 흔적도 찾지 못했고, 설령 찾아낸다 한들 그것으로 사랑하는 윌리엄이 돌아오지는 않겠지!"

"돌아오너라, 사랑하는 빅터. 엘리자베스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다. 그 아이는 하염없이 울면서 자기가 윌리엄을 죽게 했다고 부당하게 자기를 탓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우리는 모두 불행하다. 그러니 아들아, 그것이야말로 네가 돌아와 우리를 위로해 줄 또 하나의 까닭이 되지 않겠느냐? 네 어머니! 아아, 빅터! 이제야 나는 말한다. 막내가 이토록 잔인하고 비참하게 죽는 꼴을 보지 않고 먼저 떠났으니 하느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돌아오너라, 빅터. 살인자에게 앙갚음할 생각을 곱씹으며 오지 말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곪게 하지 않고 아물게 해 줄 평화롭고 온화한 마음을 품고 오너라. 얘야, 상을 당한 이 집에 들어설 때는 너의 적들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다정함과 애정을 품고 들어오너라."

"너를 사랑하며 슬픔에 잠긴 아버지"

"알퐁스 프랑켄슈타인"

"제네바에서, 17○○년 5월 12일."

◆

내가 편지를 읽는 동안 내 얼굴을 지켜보던 클레르발은, 벗들에게서 소식을 받고 처음에 기뻐하던 내 얼굴에 절망이 뒤따라 들어서는 것을 보고 놀랐다. 나는 편지를 탁자 위로 내던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프랑켄슈타인," 내가 비통하게 우는 것을 보고 헨리가 소리쳤다. "너는 언제까지나 불행해야 하는 거야? 친구야, 무슨 일이야?"

나는 몹시 들끓는 마음으로 방 안을 서성이면서 그에게 편지를 집어 보라고 손짓했고, 내게 닥친 불행을 읽어 내려가는 클레르발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다.

"아무 위로도 해 줄 수가 없구나, 친구야." 그가 말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할 생각이야?"

"당장 제네바로 가야겠어. 헨리, 같이 가서 말을 대 달라고 하자."

길을 걸으며 클레르발은 위로의 말을 몇 마디라도 건네려 애썼지만, 마음 깊이 느끼는 슬픔을 드러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가엾은 윌리엄!" 그가 말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 이제 천사 같은 어머니 곁에서 잠들었구나! 어린 아름다움으로 환하고 즐겁게 뛰놀던 그 아이를 본 사람이라면, 누군들 그 때 이른 죽음 앞에서 울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다니, 살인자의 손아귀를 느끼며 죽다니! 그토록 빛나는 순진함을 짓밟을 수 있는 자라면 얼마나 끔찍한 살인자일까! 가엾은 녀석! 우리에게 남은 위안은 하나뿐이야. 그 아이를 사랑한 사람들은 슬퍼하며 울지만, 그 아이는 이제 편히 쉬고 있다는 것. 고통은 지나갔고, 그 아이의 괴로움은 영원히 끝났어. 그 고운 몸은 잔디 아래 덮여 이제 아무 아픔도 모르지. 그 아이는 더는 동정받을 까닭이 없으니, 동정은 살아남은 비참한 사람들을 위해 아껴 두어야 해."

우리가 거리를 서둘러 지나는 동안 클레르발은 이렇게 말했고, 그 말은 내 마음에 새겨져 나중에 홀로 있을 때 나는 그 말을 떠올렸다. 그러나 지금은 말이 오자마자 서둘러 이륜마차에 올라 벗에게 작별을 고했다.

여행길은 몹시 우울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이들, 슬픔에 잠긴 이들을 어서 위로하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 길을 재촉했지만,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걸음을 늦추었다. 마음속으로 밀려드는 숱한 감정을 나는 거의 감당할 수가 없었다. 어린 시절 눈에 익은 풍경들을 지나갔지만, 그것들을 보지 못한 지가 여섯 해 가까이 되었다. 그동안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갑작스럽고 참혹한 변화 하나는 이미 일어났지만, 자잘한 일 천 가지가 조금씩 다른 변화들을 빚어 놓았을지도 몰랐고, 그 변화들은 더 조용히 이루어졌을망정 덜 결정적이지는 않을지도 몰랐다. 두려움이 나를 덮쳤다. 나는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무엇인지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나를 떨게 하는 이름 없는 재앙 천 가지가 두려웠다.

나는 이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로잔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나는 호수를 바라보았다. 물은 잔잔했고 사방이 고요했으며, 눈 덮인 산들, 그 '자연의 궁전'들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차츰 그 고요하고 거룩한 풍경이 나를 되살려 놓았고, 나는 제네바를 향해 다시 길을 떠났다.

길은 호숫가를 따라 이어졌고, 고향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호수는 점점 좁아졌으며, 쥐라산맥의 검은 비탈과 몽블랑의 빛나는 봉우리가 더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정다운 산들아! 아름다운 나의 호수야! 너희는 떠돌다 돌아온 나를 어떻게 맞아 주느냐? 봉우리들은 맑고, 하늘과 호수는 푸르고 잔잔하구나. 이것이 평화를 알리는 징조냐, 아니면 내 불행을 비웃는 것이냐?"

벗이여, 이런 앞머리 이야기를 늘어놓느라 당신을 지루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두렵다. 그러나 그 며칠은 그래도 견딜 만큼은 행복한 나날이었고, 나는 지금도 그때를 즐겁게 떠올린다. 내 조국, 사랑하는 내 조국이여! 너의 시내와 너의 산들과, 무엇보다 너의 사랑스러운 호수를 다시 보았을 때 내가 느낀 기쁨을,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집에 가까워질수록 슬픔과 두려움이 다시 나를 덮쳤다. 밤도 사방에서 내려와 어두운 산들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자 마음은 한층 더 침울해졌다. 눈앞의 광경은 거대하고 흐릿한 악의 무대처럼 보였고, 나는 내가 인간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인간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내다보았다. 아아! 내 예언은 들어맞았다. 빗나간 것은 단 하나, 내가 상상하고 두려워한 그 모든 불행 속에서도 내가 앞으로 견뎌야 할 고통의 백분의 일조차 나는 떠올리지 못했다는 것뿐이었다.

제네바 근교에 이르렀을 때는 사방이 캄캄했고, 도시의 성문은 벌써 닫혀 있어서, 나는 도시에서 반 리그 떨어진 세슈롱이라는 마을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하늘은 맑았다. 쉴 수가 없었던 나는 가엾은 윌리엄이 살해된 곳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고, 도시를 가로질러 갈 수 없었으므로 플랭팔레로 가려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야 했다. 그 짧은 뱃길에서 나는 몽블랑 꼭대기에서 번개가 더없이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며 춤추는 것을 보았다. 폭풍은 빠르게 다가오는 듯했고, 나는 뭍에 오르자마자 폭풍이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나지막한 언덕에 올랐다. 폭풍이 밀려왔다. 하늘이 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곧 굵은 빗방울이 느릿느릿 떨어지기 시작했고, 빗줄기는 금세 사나워졌다.

나는 앉아 있던 자리를 떠나 계속 걸었는데, 어둠과 폭풍은 시시각각 더해 갔고 천둥이 머리 위에서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며 터졌다. 그 소리는 살레브산과 쥐라산맥과 사부아의 알프스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눈부신 번갯불이 번쩍일 때마다 눈이 부셔 앞이 보이지 않았다. 번갯불이 호수를 비추면 호수는 거대한 불의 장막처럼 보였고, 다음 순간에는 눈이 방금의 섬광에서 깨어날 때까지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듯했다. 스위스에서 흔히 그렇듯 폭풍은 하늘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일어났다. 가장 사나운 폭풍은 도시 바로 북쪽, 벨리브곶과 코페 마을 사이에 놓인 호수 위에 걸려 있었다. 또 다른 폭풍은 희미한

번갯불로 쥐라산맥을 밝혔고, 또 하나는 호수 동쪽의 뾰족한 산인 몰산을 어둠으로 덮었다가 이따금 드러내 보였다.

아름다우면서도 무시무시한 그 폭풍을 바라보며 나는 바쁜 걸음으로 정처 없이 걸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장엄한 싸움에 내 마음은 들끓어 올랐고, 나는 두 손을 움켜쥐고 큰 소리로 외쳤다. "윌리엄, 사랑하는 나의 천사야! 이것이 너의 장례식이구나, 이것이 너를 위한 만가로구나!" 이 말을 하는 순간, 가까운 나무 덤불 뒤에서 어떤 형체가 슬그머니 빠져나오는 것이 어둠 속에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잘못 볼 리가 없었다. 번갯불이 번쩍하며 그것을 비추어 그 모습을 똑똑히 드러냈는데, 그 거대한 키와,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흉측하게 일그러진 생김새를 보자마자 나는 그것이 내가 생명을 준 그 흉물, 그 더러운 악령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저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혹시 그가(그런 생각을 떠올리자 나는 몸서리가 쳐졌다) 내 동생을 죽인 살인자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마자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했고, 이가 딱딱 맞부딪쳐 나무에 기대지 않고는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 형체는 재빨리 내 곁을 지나갔고, 나는 어둠 속에서 그것을 놓쳤다. 사람의 모습을 한 것이라면 무엇도 그 고운 아이를 죽일 수 없었으리라. 그가 살인자였다! 의심할 수가 없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것만으로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 악마를 뒤쫓을까 생각했지만 헛일이었을 것이다. 또 한 번의 번갯불에, 그가 플랭팔레를 남쪽에서 둘러싼 언덕인 살레브산의 거의 깎아지른 비탈에서 바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는 곧 꼭대기에 이르러 사라졌다.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천둥은 그쳤지만 비는 여전히 내렸고, 사방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싸여 있었다. 그때까지 잊으려고 애써 온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창조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던 그 모든 과정, 내 손으로 빚은 작품이 살아서 내 침대 곁에 나타났던 일, 그리고 그것이 사라진 일. 그가 처음 생명을 얻은 그 밤으로부터 이제 두 해 가까이 흘렀는데, 이것이 그의 첫 범죄였을까? 아아! 나는 살육과 불행을 즐기는 타락한 흉물을 세상에 풀어놓고 말았다. 그가 내 동생을 죽이지 않았는가?

그 밤의 나머지를 나는 춥고 젖은 몸으로 한데에서 지새웠는데, 그동안 내가 겪은 괴로움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는 궂은 날씨의 괴로움을 느끼지 못했다. 내 상상은 악과 절망의 장면들로 들끓고 있었다. 내가 인간들 사이에 던져 놓았고, 방금 저지른 짓 같은 끔찍한 일을 해낼 의지와 힘까지 갖추어 준 그 존재를, 나는 거의 나 자신의 흡혈귀처럼, 무덤에서 풀려나와 내게 소중한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내몰린 나 자신의 망령처럼 여겼다.

날이 밝았다. 나는 도시 쪽으로 걸음을 옮겼고, 성문이 열려 있어 서둘러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맨 먼저 든 생각은 살인자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을 밝혀 당장 뒤쫓게 하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이야기를 곰곰이 따져 보고는 망설였다. 내가 손수 빚어 생명을 불어넣은 존재가, 사람이 오를 수 없는 산의 벼랑 사이에서 한밤중에 나와 마주쳤다는 이야기였다. 게다가 내가 창조를 이루었다고 꼽는 바로 그 무렵에 나는 신경열에 시달렸는데, 그 일 때문에 그러잖아도 터무니없는 이 이야기는 헛소리처럼 들릴 것이 뻔했다. 다른 누가 내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나도 그것을 미친 사람의 헛소리로 여겼으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았다. 더구나 내 말을 사람들이 믿어 주어 식구들을 설득해 추적을 시작하게 한다 해도, 그 짐승의 기이한 본성은 어떤 추적도 따돌릴 터였다. 그리고 추적한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살레브산의 비스듬히 튀어나온 비탈을 기어오를 수 있는 피조물을 누가 붙잡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끝에 나는 마음을 정했고, 입을 다물고 있기로 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선 것은 새벽 다섯 시쯤이었다. 나는 하인들에게 식구들을 깨우지 말라고 이르고, 식구들이 늘 일어나는 시간을 기다리려고 서재로 들어갔다.

지워지지 않는 자국 하나만 빼면 꿈처럼 지나간 여섯 해가 흘렀고, 나는 잉골슈타트로 떠나기 전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껴안았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아직 내 곁에 남아 계셨다. 나는 벽난로 선반 위에 걸린 어머니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린 역사화로, 캐럴라인 보포르가 죽은 아버지의 관 곁에 무릎을 꿇고 절망에 몸부림치는 모습이었다. 옷차림은 소박하고 뺨은 창백했지만, 그 모습에는 연민 같은 감정이 거의 끼어들 틈이 없을 만큼 기품과 아름다움이 서려 있었다. 이 그림 아래에는 윌리엄의 작은 초상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자 눈물이 흘렀다. 그렇게 서 있는데 어니스트가 들어왔다. 내가 온 소리를 듣고 서둘러 나를 맞으러 온 길이었다. 어니스트는 나를 보고 슬픔 섞인 반가움을 드러냈다. "어서 와요, 형." 어니스트가 말했다. "아! 석 달만 일찍 왔더라면 다들 즐겁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텐데요. 형은 이제 아무것도 덜어 줄 수 없는 불행을 함께 나누러 온 거예요. 그래도 형이 와 주었으니 불행에 짓눌려 쓰러져 가는 것 같은 아버지가 기운을 되찾으시겠죠. 그리고 형이 타이르면 가엾은 엘리자베스도 쓸데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자책을 그만둘 거예요. 가엾은 윌리엄! 우리 모두의 귀염둥이이자 자랑이었는데!"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고,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그때까지 나는 쑥대밭이 된 집안의 비참함을 상상만 했을 뿐이었는데, 막상 현실로 닥치자 그것은 새로운,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끔찍한 재앙이 되어 나를 덮쳤다. 나는 어니스트를 달래려 애쓰면서, 아버지에 대해, 또 내가 사촌이라 부르는 그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다.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엘리자베스예요." 어니스트가 말했다. "자기 때문에 윌리엄이 죽었다고 자책하다가 몹시 비참해졌거든요. 그런데 살인자가 밝혀진 뒤로는…"

"살인자가 밝혀졌다고! 맙소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누가 감히 그놈을 뒤쫓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건 불가능해. 차라리 바람을 따라잡거나 지푸라기로 산골 시내를 막으려 하는 편이 낫지. 나도 그놈을 봤어. 어젯밤만 해도 그놈은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동생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밝혀지는 바람에 불행이 더 커졌어요. 처음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지금도 엘리자베스는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도 믿지 않아요. 정말이지, 그렇게 상냥하고 식구들을 모두 그렇게 따르던 저스틴 모리츠가 갑자기 그토록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저스틴 모리츠! 가엾은, 가엾은 아이. 그 아이가 혐의를 받고 있는 거야? 그건 억울한 누명이야. 다들 그걸 알 거야. 설마 그걸 믿는 사람은 없겠지, 어니스트?"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가지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우리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됐고, 게다가 저스틴이 하도 갈팡질팡해서 드러난 사실들에 무게를 더 얹어 놓는 바람에 의심할 여지가 남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에요. 하지만 오늘 재판이 열리니까, 형도 그때 다 듣게 될 거예요."

어니스트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가엾은 윌리엄이 살해된 것이 알려진 날 아침, 저스틴은 병이 나서 며칠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사이에

하인 하나가 살인이 있던 날 밤 저스틴이 입었던 옷을 우연히 살펴보다가 그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초상화를 찾아냈는데, 바로 살인자를 꾀어낸 미끼로 여겨지던 물건이었다. 그 하인이 곧장 그것을 다른 하인에게 보여 주었고, 그 하인은 식구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치안판사를 찾아갔으며, 두 사람의 진술에 따라 저스틴은 붙잡혔다. 혐의를 받게 되자 그 가엾은 처녀는 몹시 당황한 기색을 보여 의심을 크게 굳혀 버렸다.

기이한 이야기였지만 내 믿음을 흔들지는 못했다. 나는 힘주어 대답했다. "다들 잘못 알고 있어. 나는 살인자를 알아. 저스틴은, 가엾고 착한 저스틴은 죄가 없어."

그때 아버지가 들어왔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불행이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아버지는 애써 밝게 나를 맞으려 했고, 우리가 슬픈 인사를 나눈 뒤에는 우리에게 닥친 재앙 말고 다른 이야기를 꺼내려 했는데, 어니스트가 먼저 소리쳤다. "맙소사, 아버지! 형이 가엾은 윌리엄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안대요."

"안타깝게도 우리도 알고 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토록 아끼던 사람에게서 이런 타락과 배은망덕을 보게 될 바에야, 차라리 영영 모르고 사는 편이 나았을 것을."

"아버지, 잘못 아셨습니다. 저스틴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이 그 아이가 죄인으로 벌받는 일을 막아 주시기를. 오늘 재판이 열린다. 나는 그 아이가 풀려나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바란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이 가라앉았다. 저스틴은, 아니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이 살인에 죄가 없다고 나는 굳게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저스틴에게 죄를 씌울 만큼 강력한 정황 증거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는 걱정하지 않았다. 내 이야기는 공공연히 떠벌릴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 기막히게

끔찍한 내용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미친 소리로 여길 터였다. 내가 세상에 풀어놓은 그 오만과 무모한 무지의 살아 있는 기념비를, 자기 눈으로 보고 확신하지 않는 한, 창조자인 나 말고 대체 누가 믿겠는가?

곧 엘리자베스가 우리에게 왔다. 마지막으로 본 뒤로 세월이 엘리자베스를 바꾸어 놓았는데, 세월은 엘리자베스에게 어린 시절의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사랑스러움을 안겨 주었다. 그 솔직함과 생기는 그대로였지만, 거기에 감수성과 지성이 한층 더 짙게 어린 표정이 어우러져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더없는 애정으로 나를 맞았다. "네가 와 주니 희망이 생겨, 빅터."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너라면 죄 없는 가엾은 저스틴의 결백을 밝힐 방법을 찾아낼지도 몰라. 아아! 저스틴이 죄인이 된다면 누가 안전하겠어? 나는 내 결백을 믿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저스틴의 결백을 믿어. 우리가 당한 불행은 두 배로 가혹해.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잃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가엾은 아이까지 그보다 더 끔찍한 운명에 빠앗기게 생겼으니까. 저스틴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나는 다시는 기쁨을 모르고 살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틀림없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나는 우리 어린 윌리엄이 그렇게 슬프게 죽은 뒤에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저스틴은 죄가 없어, 엘리자베스."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건 밝혀질 거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저스틴은 틀림없이 풀려날 테니 기운을 내."

"너는 어쩜 이렇게 다정하고 너그러워! 다른 사람들은 다 저스틴이 죄를 지었다고 믿어서 나는 비참했어. 그럴 리가 없다는 걸 나는 알았으니까. 다들 그렇게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보니 아무 희망도 없이 절망만 남았어." 엘리자베스는 울었다.

"얘야," 아버지가 말했다. "눈물을 거두어라. 네 믿음대로 저스틴이 죄가 없다면, 우리 법의 정의를 믿고, 털끝만큼의 편파도 끼어들지 못하게 내가 힘써 막을 테니 그것도 믿어라."

제8장

우리는 재판이 열리기로 한 열한 시까지 몇 시간을 슬픔 속에 보냈다. 아버지와 다른 식구들은 증인으로 나가야 했으므로 나도 함께 법정에 갔다. 정의를 흉내 낸 이 비참한 연극이 이어지는 내내 나는 산 채로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았다. 내 호기심과 무법한 계략이 낳은 결과가 같은 인간 둘을 죽음으로 몰아넣을지 어떨지가 그 자리에서 가려질 참이었다. 하나는 순진함과 기쁨이 가득한, 방긋방긋 웃던 아기였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그 살인을 공포로 영영 기억되게 할 온갖 치욕을 덧씌운 채 죽임을 당할 처지였다. 저스틴도 훌륭한 처녀였고 행복한 삶을 약속하는 자질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치욕스러운 무덤 속에 지워질 판이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나였다! 저스틴이 썼다는 죄를 내가 저질렀다고 자백할 수 있었다면 천 번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그곳에 없었으므로, 그런 고백은 미친 사람의 헛소리로 여겨졌을 것이고, 나 때문에 고통받는 그 처녀의 죄를 벗겨 주지도 못했을 것이다.

저스틴은 침착해 보였다. 저스틴은 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늘 사람의 마음을 끌던 그 얼굴이 엄숙한 감정 때문에 더없이 아름다워 보였다. 그러면서도 수천 명이 쏘아보며 저주를 퍼붓는데도 저스틴은 결백을 믿는 듯 떨지 않았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그 아름다움이 불러일으켰을 호의가, 저스틴이 저질렀다는 끔찍한 죄를 떠올리는 구경꾼들의 마음속에서 깡그리 지워져 버렸기 때문이다. 저스틴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은 누가 보아도 애써 지어낸 것이었고, 앞서 당황한 기색이 죄의 증거로 몰렸으므로, 저스틴은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법정에 들어서자 저스틴은 사방을 둘러보다가 우리가 앉은 자리를 금세 찾아냈다. 우리를 보는 순간 눈물이 눈을 흐리는 듯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고, 슬픔 어린 애정이 담긴 그 눈길은 저스틴이 조금도 죄가 없다는 것을 증언하는 듯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저스틴을 고발하는 변호인이 공소 사실을 밝히고 나자 증인 여럿이 불려 나왔다. 기이한 사실 몇 가지가 한데 얽혀 저스틴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는데, 나처럼 저스틴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쥐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흔들릴 만한 것들이었다. 살인이 벌어진 그날 밤 저스틴은 밤새 밖에 있었고, 새벽녘에는 나중에 살해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장사하는 여자의 눈에 띄었다. 그 여자가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지만 저스틴은 몹시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엉뚱한 대답만 했다. 저스틴은 여덟 시쯤 집으로 돌아왔는데, 누가 밤을 어디서 보냈느냐고 묻자 아이를 찾아다녔다고 대답하고는, 아이 소식을 들은 것이 없느냐고 다급하게 물었다. 시신을 보자 저스틴은 심한 발작을 일으켰고 며칠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어서 하인이 저스틴의 주머니에서 찾아낸 초상화가 증거로 나왔다. 엘리자베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은 아이가 없어지기 한 시간 전에 자기가 아이 목에 걸어 준 바로 그 초상화라고 확인하자, 공포와 분노에 찬 웅성거림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

저스틴에게 변론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스틴의 얼굴은 달라져, 놀라움과 공포와 비참함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이따금 눈물을 참으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했지만, 변론하라는

말을 듣자 저스틴은 힘을 끌어모아 이따금 떨리기는 해도 잘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얼마나 결백한지는 하느님께서 아십니다." 저스틴이 말했다. "그러나 제가 결백하다고 외친다고 해서 풀려나야 한다고 우기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불리하게 제시된 사실들을 쉽고 꾸밈없이 해명하는 데 제 결백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럽거나 수상해 보이는 정황이 있는 곳에서는, 제가 지금껏 지켜 온 평판을 보시고 재판관님들께서 너그럽게 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저스틴은 이렇게 진술했다. 살인이 벌어진 그날 저녁, 엘리자베스의 허락을 받고 제네바에서 1리그쯤 떨어진 셴 마을의 이모댁에서 시간을 보냈다. 아홉 시쯤 돌아오는 길에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길 잃은 아이를 혹시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그 말에 놀라 몇 시간이나 아이를 찾아다니다 보니 제네바의 성문이 닫혀 버렸고, 자기를 잘 아는 집 사람들을 깨우고 싶지 않아서 어느 오두막에 딸린 곳간에서 밤을 몇 시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서 밤을 거의 뜬눈으로 새웠고, 새벽녘에 몇 분쯤 깜박 잠이 든 것 같았는데 발소리에 놀라 깨었다. 날이 밝아 오고 있었으므로 저스틴은 내 동생을 다시 찾아보려고 그 피난처를 나섰다고 했다. 아이의 시신이 놓여 있던 곳 근처에 갔다면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였다. 장사하는 여자가 물었을 때 갈피를 못 잡았던 것은 잠 한숨 못 잔 밤을 보냈고 가엾은 윌리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모르던 때였으니 놀랄 일이 아니었다. 초상화에 대해서는 아무 해명도 하지 못했다.

"이 한 가지 정황이 저에게 얼마나 무겁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불리한지 저는 압니다." 불행한 희생자는 말을 이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으니,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제 주머니에 들어갔을지 그럴듯한 경우를 짐작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저는 막힙니다. 저는 이 세상에 원수가 없다고 믿고, 까닭 없이 저를 파멸시킬 만큼 사악한 사람이 있을 리도 없습니다. 살인자가 그것을 제 주머니에 넣었을까요? 그 사람에게 그럴 기회가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설령 있었다 한들, 그렇게 빨리 내버릴 보석을 왜 훔쳤겠습니까?"

"저는 재판관님들의 정의에 제 운명을 맡깁니다만, 희망을 걸 여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 됨됨이에 대해 몇몇 증인을 신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 증언이 저에게 씌워진 죄를 이겨 내지 못한다면, 제 영혼의 구원을 걸고 결백을 맹세할 수 있다 해도 저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 해 동안 저스틴을 알아 온 증인 몇이 불려 나와 저스틴을 좋게 말했다. 그러나 저스틴이 저질렀다고들 여기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미움 때문에 증인들은 머뭇거렸고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저스틴의 훌륭한 성품과 나무랄 데 없는 행실이라는 이 마지막 기댈 곳마저 피고를 저버리려 하는 것을 보고, 몹시 마음이 들끓는데도 법정에서 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했다.

"저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살해된 그 불행한 아이의 사촌, 아니 차라리 누이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지금까지 그 아이의 부모님 손에 자라고 그분들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리에 제가 나서는 것은 점잖지 못한 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친구라던 사람들의 비겁함 때문에 같은 인간 하나가 죽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을 보고 있으니, 이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피고를 잘 압니다. 한 번은 다섯 해, 또 한 번은 두 해 가까이 저는 이 사람과 한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숙모님이신 프랑켄슈타인 부인이 마지막

병석에 계실 때 더없는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했고, 그 뒤에는 자기 어머니가 오래 앓는 동안 곁을 지키며 보살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제 숙부님 댁에 와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온 식구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은 세상을 떠난 그 아이를 무척 아껴서, 더없이 다정한 어머니처럼 그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저로서는, 이 사람에게 불리한 증거가 아무리 많이 나왔다 해도 이 사람이 전혀 죄가 없다고 믿고 그 결백에 기댄다고 서슴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런 짓을 저지를 까닭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증거라는 그 노리개로 말하자면, 이 사람이 그것을 간절히 갖고 싶어 했다면 저는 기꺼이 내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만큼 이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엘리자베스의 꾸밈없고 힘 있는 호소가 끝나자 찬성하는 웅성거림이 뒤따랐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자베스의 너그러운 나섬에 대한 것이었지 가엾은 저스틴을 편드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는 한층 더 거세게 저스틴에게 쏠려, 더없이 시커먼 배은망덕의 죄까지 저스틴에게 덧씌웠다. 엘리자베스가 말하는 동안 저스틴도 울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재판 내내 내 마음은 들끓었고 괴로움은 극에 달했다. 나는 저스틴의 결백을 믿었다. 아니, 알고 있었다. 내 동생을 죽인(나는 그것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악령이 지옥 같은 장난으로 죄 없는 사람까지 죽음과 치욕으로 몰아넣은 것일까? 나는 내가 처한 처지의 공포를 견딜 수가 없었다. 여론과 재판관들의 얼굴이 벌써 불행한 나의 희생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나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법정을 뛰쳐나왔다. 피고의 고통도 내 고통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 처녀는 결백이 버팀목이 되어 주었지만, 내 가슴은 회한의 송곳니가 물어뜯고 놓아줄 줄을 몰랐다.

나는 비참함밖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밤을 보냈다. 아침에 나는 입술과 목이 바싹 탄 채 법정으로 갔는데, 그 운명의 질문을 감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았으므로 관리가 내가 찾아온 까닭을 짐작했다. 투표는 이미 끝났는데, 모두 검은 공이었고, 저스틴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을 그려 보이겠다고 감히 나서지는 못하겠다. 그전에도 나는 공포를 겪은 적이 있었고, 그 감정들을 알맞은 말로 옮기려고 애써 왔다. 그러나 그때 내가 견뎌야 했던 그 속이 뒤집히는 절망은 어떤 말로도 전할 수가 없다. 내가 말을 건 그 사람은 저스틴이 이미 죄를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뻔한 사건에서 그런 증거까지 필요하지는 않았소." 그가 말했다. "그래도 자백이 나와서 다행이오. 사실 우리 재판관 가운데는 아무리 결정적이라 해도 정황 증거만으로 죄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말이오."

기이하고도 뜻밖의 소식이었다. 대체 무슨 뜻일까? 내 눈이 나를 속였던 것일까? 그리고 내가 의심하는 상대를 털어놓는다면 온 세상이 나를 미쳤다고 여길 텐데, 나는 정말 그만큼 미친 것일까?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엘리자베스가 다급하게 결과를 물었다.

"엘리자베스," 내가 대답했다. "네가 짐작했을지도 모르는 대로 결정이 났어.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죄인 하나를 놓치느니 차라리 죄 없는 사람 열이 벌을 받는 편을 택하니까. 그런데 저스틴이 자백했대."

저스틴의 결백을 굳게 믿었던 가엾은 엘리자베스에게 이것은 무서운 타격이었다. "아아!"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이제 내가 어떻게 다시 인간의 선함을 믿을 수 있겠어? 내가 동생처럼 사랑하고 아끼던 저스틴이, 배신하려고 그런 순진한 미소를 지어 보일 수 있었을까? 그

순한 눈에는 어떤 모짊이나 거짓도 담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도 저스틴은 살인을 저질렀어."

얼마 뒤 우리는 그 가엾은 희생자가 엘리자베스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는 엘리자베스가 가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 아이 스스로 판단하고 마음 가는 대로 정하도록 맡기겠다고 했다. "네, 갈래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저스틴이 죄를 지었다 해도 갈래요. 빅터, 너도 같이 가 줘. 나 혼자서는 못 가겠어." 그곳을 찾아간다는 생각만 해도 고문 같았지만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음침한 감방으로 들어갔고, 저스틴이 저쪽 끝에 깔린 짚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두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머리는 무릎에 묻혀 있었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저스틴은 일어섰고, 우리만 남게 되자 엘리자베스의 발치에 몸을 던지며 서럽게 울었다. 엘리자베스도 울었다.

"아, 저스틴!"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왜 나한테 남은 마지막 위안까지 빼앗았어? 나는 네 결백을 믿고 있었어. 그때도 몹시 괴로웠지만, 지금처럼 비참하지는 않았어."

"아가씨도 제가 그렇게, 그렇게 사악하다고 믿으세요? 아가씨도 제 원수들과 한편이 되어 저를 짓밟고 살인자로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저스틴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막혀 있었다.

"일어나, 가엾은 저스틴."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죄가 없다면 왜 무릎을 꿇니? 나는 네 원수가 아니야. 나는 온갖 증거에도 불구하고 네가 죄가 없다고 믿었어. 네가 직접 죄를 털어놓았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 소문이 거짓이라고 네가 말하는구나. 사랑하는 저스틴, 믿어 줘. 네 입으로 한 자백 말고는 그 무엇도 너를 믿는 내 마음을 한순간도 흔들 수 없어."

"자백은 했어요. 하지만 거짓을 자백했어요. 죄를 사함 받으려고 자백했는데, 이제는 그 거짓말이 제가 지은 다른 어떤 죄보다도 무겁게 가슴을 짓눌러요. 하늘에 계신 하느님, 저를 용서하소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로 고해 신부님이 저를 몰아세웠어요. 하도 을러대고 겁을 주는 바람에, 저는 하마터면 신부님 말씀대로 제가 정말 괴물인가 생각할 뻔했어요.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마지막 순간에 파문을 당하고 지옥 불에 떨어질 거라고 신부님은 위협하셨어요. 아가씨, 저를 붙들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다들 저를 치욕과 파멸이 정해진 비참한 죄인으로 볼 뿐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만 몹쓸 순간에 거짓말에 서명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야 정말로 비참해졌어요."

저스틴은 울며 말을 멈추었다가 이렇게 말을 이었다. "다정하신 아가씨, 아가씨의 저스틴을, 돌아가신 마님께서 그토록 아껴 주셨고 아가씨가 사랑해 주신 저를, 악마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저지를 수 없는 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이라고 아가씨가 믿으실 거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어요. 사랑하는 윌리엄! 복된, 더없이 사랑스러운 아이! 나는 곧 하늘나라에서 너를 다시 만날 거야. 거기서는 우리 모두 행복하겠지. 치욕과 죽음을 겪으러 가는 지금, 그 생각이 저를 위로해 줘요."

"아, 저스틴! 한순간이나마 너를 의심했던 나를 용서해 줘. 왜 자백을 했어? 하지만 슬퍼하지 마, 저스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결백을 널리 알리고, 증명해 보일게. 내 눈물과 기도로 네 원수들의 돌 같은 마음을 녹일 거야. 너는 죽지 않아! 내 소꿉동무, 내 벗, 내 동생인 네가 교수대에서 죽다니! 안 돼! 안 돼! 그런 끔찍한 불행을 겪고 나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저스틴은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제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저스틴이 말했다. "그 괴로움은 지나갔어요. 하느님께서 약한 저를

일으켜 주시고, 가장 나쁜 일도 견딜 용기를 주세요. 저는 슬프고 쓰라린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 아가씨가 저를 기억해 주시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쓴 사람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저는 저를 기다리는 운명을 달게 받겠어요. 아가씨, 저를 보고 하늘의 뜻에 참고 따르는 법을 배우세요!"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나는 감방 한구석으로 물러나, 나를 사로잡은 끔찍한 괴로움을 감추고 있었다. 절망! 누가 감히 그런 말을 입에 올린단 말인가? 이튿날이면 삶과 죽음 사이의 두려운 경계를 넘어야 할 그 가엾은 희생자도 나만큼 깊고 쓰라린 고통을 느끼지는 않았다. 나는 이를 갈고 또 갈며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신음을 토했다. 저스틴이 흠칫 놀랐지만, 누구인지 알아보자 내게 다가와 말했다. "도련님, 저를 보러 와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도련님은 제가 죄를 지었다고 믿지 않으시겠지요?"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럼, 저스틴."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빅터는 나보다 더 네 결백을 확신하고 있어. 네가 자백했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으니까."

"진심으로 고마워요. 이 마지막 순간에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께 저는 더없이 깊은 고마움을 느껴요. 저처럼 비참한 사람에게 남들의 애정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것만으로 제 불행이 절반 넘게 덜어져요. 아가씨와 도련님이 제 결백을 알아주셨으니, 이제는 편안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가엾은 처녀는 남들을 위로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다. 그리고 저스틴은 정말로 바라던 체념에 이르렀다. 그러나 진짜 살인자인 나는 결코 죽지 않는 벌레가 가슴속에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고, 그 벌레는 어떤 희망도 위안도 허락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도 울며 불행해했지만, 엘리자베스의 불행 역시 결백한 자의 불행이어서, 아름다운 달 위를 지나가는 구름처럼 한동안 그 빛을 가릴 수는 있어도

흐려 놓을 수는 없었다. 괴로움과 절망이 내 가슴 한복판까지 파고들었고, 나는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지옥을 안에 품고 있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저스틴 곁에 머물렀고, 엘리자베스는 겨우겨우 몸을 떼어 냈다. "너랑 같이 죽을 수 있으면 좋겠어."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나는 이 비참한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

저스틴은 쓰라린 눈물을 겨우 참으며 밝은 기색을 지어 보였다. 저스틴은 엘리자베스를 껴안고, 반쯤 억누른 감정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히 계세요, 다정하신 아가씨,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아가씨, 하나뿐인 제 소중한 벗. 하늘이 너그러이 아가씨를 축복하고 지켜 주시기를. 이것이 아가씨가 겪는 마지막 불행이 되기를! 살아 주세요. 행복하게 사시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튿날 저스틴은 죽었다. 엘리자베스의 가슴을 찢는 웅변도, 그 성녀 같은 희생자가 죄인이라고 굳게 믿는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격정과 분노에 차서 내가 올린 호소도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었고, 그들의 차가운 대답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매정하고 무정한 논리를 듣자, 털어놓으려던 내 고백은 입술 위에서 스러지고 말았다. 그렇게 했다면 나는 스스로 미치광이임을 선언할 수는 있었겠지만, 불행한 나의 희생자에게 내려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저스틴은 살인자가 되어 교수대에서 죽었다!

내 마음을 찢는 고문에서 눈을 돌려, 나는 사랑하는 엘리자베스의 깊고 말 없는 슬픔을 바라보았다. 이것도 내가 한 짓이었다! 아버지의 비탄도, 얼마 전까지 그토록 웃음이 넘치던 집안의 황폐함도, 모두 세 번 저주받은 내 손이 한 일이었다! 불행한 이들이여, 당신들은 울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들의 마지막 눈물은 아니다! 당신들은 다시 장례의 곡을 올릴 것이고, 당신들의 통곡 소리는 거듭거듭 들려올 것이다! 당신들의 아들, 당신들의 혈육, 어릴 적부터 그토록 사랑받던 당신들의

벗 프랑켄슈타인, 당신들을 위해서라면 생명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을 사람, 당신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에 비치지 않는 기쁨이라면 기쁨을 떠올리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 허공을 축복으로 채우고 당신들을 섬기는 데 평생을 바치려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들에게 울라고, 셀 수 없는 눈물을 흘리라고 명한다. 이렇게 해서 가혹한 운명이 만족한다면, 무덤의 평화가 당신들의 서글픈 고통을 대신하기 전에 파멸이 멈추어 준다면, 그는 바라던 것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

회한과 공포와 절망에 찢긴 채, 사랑하는 이들이 내 불경한 기술의 첫 불운한 희생자인 윌리엄과 저스틴의 무덤 위에 헛된 슬픔을 쏟는 것을 바라보며, 예언하는 내 영혼은 이렇게 말했다.

제9장

잇달아 몰아친 사건들로 감정이 한껏 달아오른 뒤에 찾아와 영혼에게서 희망도 두려움도 앗아 가는 무위와 확실성의 죽은 듯한 고요만큼 인간의 마음에 괴로운 것은 없다. 저스틴은 죽었다. 저스틴은 안식을 얻었고, 나는 살아 있었다. 피는 혈관 속을 거침없이 흘렀지만, 무엇으로도 걷어 낼 수 없는 절망과 회한의 무게가 내 가슴을 짓눌렀다. 잠은 내 눈에서 달아났다. 나는 사악한 혼령처럼 떠돌았다. 말로 다할 수 없이 끔찍한 해악을 저질렀고, 그보다 더한, 훨씬 더한 일이 아직 남아 있다고(나는 그렇게 믿었다)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내 가슴에는 다정함과 덕을 향한 사랑이 넘쳐흘렀다. 나는 선량한 뜻을 품고 삶을 시작했고, 그 뜻을 실천에 옮겨 같은 인간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순간을 목마르게 기다렸다. 이제 모든 것이 시들어 버렸다. 지난날을 흐뭇하게 돌아보고 거기서 새로운 희망의 약속을 거두어들일 수 있게 해 주는 맑은 양심 대신, 회한과 죄의식이 나를 사로잡아 어떤 말로도 그려 낼 수 없는 지독한 고문의 지옥으로 몰아갔다.

이런 마음 상태가 내 건강을 갉아먹었는데, 내 건강은 처음 받은 충격에서 어쩌면 끝내 다 회복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사람의 얼굴을 피했다. 기쁨이나 흐뭇함이 묻어나는 소리라면 무엇이든 내게는 고문이었다. 고독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깊고 어둡고 죽음 같은 고독만이.

아버지는 내 성미와 버릇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을 괴로운 마음으로 지켜보았고, 평온한 양심과 죄 없는 삶에서 우러난 감정을 근거 삼아 나를 타이르면서, 내게 굳센 마음을 불어넣고 내 위에 드리운 먹구름을 걷어 낼 용기를 일깨우려 애썼다. "빅터,"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괴롭지 않은 줄 아느냐? 누구도 내가 네 동생을 사랑한 것보다 더 자식을 사랑할 수는 없었을 게다."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지나친 슬픔을 내보여 살아남은 사람들의 불행을 더하지 않도록 삼가는 것이 그들에게 지는 의무가 아니겠느냐? 그것은 너 자신에게 지는 의무이기도 하다. 지나친 슬픔은 나아지는 것도 즐거움도 가로막고, 날마다 해야 할 쓸모 있는 일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구실을 할 수가 없다."

옳은 충고였지만 내 처지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 회한이 그 쓰라림을, 공포가 그 불안을 내 다른 감정들에 섞어 넣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누구보다 먼저 슬픔을 감추고 식구들을 위로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절망 어린 눈빛으로 아버지에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의 눈에 띄지 않게 숨으려고 애쓸 뿐이었다.

이 무렵 우리는 벨리브의 집으로 옮겨 갔다. 이 변화가 나는 무척 반가웠다. 열 시면 어김없이 성문이 닫히고 그 뒤로는 호수에 나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네바 성벽 안의 생활은 내게 몹시 답답했다. 이제 나는 자유로웠다. 식구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뒤면 나는 자주 배를 타고 나가 물 위에서 여러 시간을 보냈다. 어떤 때는 돛을 올려 바람에 실려 갔고, 어떤 때는 호수 한가운데까지 노를 저어 간 다음 배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둔 채 비참한 생각에 몸을 내맡겼다. 사방이 고요한데, 그토록 아름답고 거룩한 풍경 속에서 쉬지 못하고 떠도는 불안한 것이라고는 나 하나뿐일 때면(박쥐 몇 마리와, 내가 물가에 다가갈 때에만 들려오는 거칠고 띄엄띄엄한 울음소리의 개구리들을 빼면 말이다), 그럴 때면

나는 자주 고요한 호수에 몸을 던져 물이 나와 내 불행을 영원히 덮어 버리게 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애틋하게 사랑하며 그 삶이 내 삶과 하나로 묶여 있는, 영웅처럼 고통을 견디는 엘리자베스를 생각하면 나는 마음을 돌렸다. 아버지와 살아남은 동생도 생각했다. 내가 비겁하게 저버리고 떠나 버리면, 내가 그들 사이에 풀어놓은 악귀의 악의 앞에 그들을 아무 보호도 없이 내버려 두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면 나는 서럽게 울었고, 오직 그들에게 위안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회한이 모든 희망을 꺼 버렸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빚어낸 장본인이었고, 내가 창조한 괴물이 또 어떤 새로운 악행을 저지르지나 않을까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았다.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으며, 그가 아직도 어떤 엄청난 범죄를, 그 끔찍함으로 지난 일의 기억마저 거의 지워 버릴 범죄를 저지르리라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라도 남아 있는 한 두려워할 여지는 언제나 있었다. 이 악귀를 향한 내 혐오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를 생각하면 나는 이를 갈았고 눈에 핏발이 섰으며, 그토록 생각 없이 내어 준 그 생명을 끊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랐다. 그의 범죄와 악의를 곱씹을 때면 내 증오와 복수심은 절제의 둑을 모조리 터뜨렸다. 그를 안데스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밑바닥까지 내던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꼭대기까지라도 순례를 떠났을 것이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의 머리 위에 내 혐오를 남김없이 퍼붓고 윌리엄과 저스틴의 죽음을 갚아 주고 싶었다.

우리 집은 상을 당한 집이었다. 최근에 일어난 끔찍한 일들로 아버지의 건강은 크게 흔들렸다. 엘리자베스는 슬픔에 잠겨 풀이 죽어 있었다. 늘 하던 일에서도 더는 즐거움을 찾지 못했고, 모든 즐거움이

죽은 이들을 모독하는 짓처럼 여겨지는 모양이었다. 그토록 시들고 짓밟힌 결백 앞에 바쳐야 할 마땅한 공물은 영원한 비탄과 눈물뿐이라고 그때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더 어린 시절 나와 함께 호숫가를 거닐며 우리 앞날을 황홀하게 이야기하던 그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떼어 놓으려고 보내지는 슬픔들 가운데 첫 슬픔이 엘리자베스를 찾아왔고, 그 슬픔의 그늘이 엘리자베스의 더없이 사랑스러운 미소를 꺼뜨려 버렸다.

"빅터, 저스틴 모리츠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걸 생각하면,"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세상과 세상일이 이제는 전과 같아 보이지 않아. 전에는 책에서 읽거나 남들에게서 들은 악덕과 불의 이야기를 옛날이야기나 상상 속의 재앙으로만 여겼어. 적어도 그런 일들은 멀리 있었고, 상상보다는 이성으로나 아는 것이었지. 그런데 이제 불행이 바로 우리 집에 들이닥쳤고, 사람들이 서로의 피에 목마른 괴물들처럼 보여. 하지만 이건 틀림없이 내가 공정하지 못한 거야. 다들 그 가엾은 아이가 죄를 지었다고 믿었어. 그리고 저스틴이 정말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틀림없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인간이었을 거야. 보석 몇 개 때문에, 자기를 돌봐 준 은인이자 벗의 아들을, 갓난아기 때부터 길러 왔고 제 자식처럼 사랑하는 듯 보이던 아이를 죽이다니! 나는 어떤 인간의 죽음에도 찬성할 수 없어. 하지만 그런 인간이라면 사람들 사이에 남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틀림없이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저스틴은 죄가 없었어. 나는 알아. 저스틴이 죄가 없었다는 걸 나는 느껴. 너도 같은 생각이니까 내 믿음이 더 굳어져. 아아! 빅터, 거짓이 이토록 진실처럼 보일 수 있다면, 누가 자기 행복을 확신할 수 있겠어? 나는 마치 낭떠러지 끝을 걷고 있는 것 같아. 수천 명이 그쪽으로 몰려들어 나를 그 깊은 구렁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어. 윌리엄과 저스틴은 살해되었는데 살인자는 빠져나갔어. 그자는

자유롭게, 어쩌면 존경까지 받으며 세상을 활보하고 있겠지. 하지만 내가 똑같은 죄로 교수대에서 죽으라는 판결을 받는다 해도, 나는 그런 흉물과 자리를 바꾸지는 않을 거야."

나는 더없는 괴로움 속에서 이 말을 들었다. 행동으로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진짜 살인자는 나였다. 엘리자베스는 내 얼굴에서 괴로움을 읽고는 다정하게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빅터, 제발 마음을 가라앉혀. 이번 일들이 나를 얼마나 깊이 흔들어 놓았는지는 하느님만 아실 거야. 하지만 나는 너만큼 비참하지는 않아. 네 얼굴에는 절망이, 그리고 때로는 복수심이 서려 있어서 나는 몸이 떨려. 사랑하는 빅터, 이런 어두운 격정은 떨쳐 버려. 너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네 곁의 사람들을 생각해. 우리에게는 이제 너를 행복하게 해 줄 힘이 없어진 걸까? 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동안에는,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땅, 너의 고향에서 서로에게 진실한 동안에는, 우리는 고요한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어. 그러니 무엇이 우리의 평화를 어지럽힐 수 있겠어?"

운명이 내게 준 어떤 선물보다도 내가 애틋하게 아끼던 이의 입에서 나온 이런 말이라면, 내 가슴속에 도사린 악귀를 쫓아내기에 넉넉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도 엘리자베스가 말하는 동안 나는 겁에 질린 사람처럼 엘리자베스에게 바싹 다가갔다. 바로 그 순간에도 파괴자가 가까이 와서 엘리자베스를 내게서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웠다.

이렇게 벗의 다정함도, 땅의 아름다움도, 하늘의 아름다움도 내 영혼을 비탄에서 건져 낼 수 없었고, 사랑의 목소리마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어떤 이로운 힘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구름에 둘러싸여 있었다. 상처 입은 사슴이 아무도 밟지 않은 덤불숲으로 기진한 다리를 끌고 들어가 저를 꿰뚫은 화살을 바라보며 죽어 가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

어떤 때는 나를 짓누르는 음울한 절망을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회오리바람 같은 영혼의 격정이 나를 몰아세워, 견딜 수 없는 감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몸을 움직이고 자리를 옮기게 했다. 그런 발작이 일었을 때 나는 불쑥 집을 떠나 가까운 알프스의 골짜기들로 발길을 돌렸고, 그 장엄하고 영원한 풍경 속에서 나 자신과, 인간의 것이기에 덧없는 나의 슬픔을 잊으려 했다. 나는 샤모니 골짜기를 향해 떠돌아갔다. 소년 시절에 자주 찾던 곳이었다. 그로부터 여섯 해가 흘렀고, *나*는 폐허가 되었지만, 그 거칠고 변함없는 풍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여정의 첫 부분은 말을 타고 갔다. 그 뒤에는 이 험한 길에서 발을 헛디디지 않고 다칠 염려도 가장 적은 노새를 한 마리 빌렸다. 날씨는 좋았다. 8월 중순 무렵, 저스틴이 죽은 지 두 달 가까이 지난 때였다. 저스틴이 죽은 그 비참한 날부터 나는 내 모든 비탄을 헤아리고 있었다. 아르브강의 협곡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마음을 누르던 무게가 눈에 띄게 가벼워졌다. 사방에서 나를 굽어보는 거대한 산과 벼랑, 바위 사이에서 미친 듯 날뛰는 강물 소리, 주위에서 쏟아지는 폭포 소리가 전능자처럼 막강한 어떤 힘을 말해 주었고, 나는 여기서 가장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드러난 원소들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힘보다 못한 존재라면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지도 않게 되었다. 높이 올라갈수록 골짜기는 한층 더 장엄하고 놀라운 모습을 띠었다. 소나무 우거진 산의 벼랑에 매달린 허물어진 성들, 거세게 흐르는 아르브강, 나무들 사이로 여기저기 고개를 내민 오두막들이 어우러져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더하고 숭고하게 만든 것은 웅대한 알프스였다. 하얗게 빛나는 그 피라미드와 둥근 지붕 같은 봉우리들은 모든 것 위로 높이 솟아, 다른 세계, 다른 종족의 존재들이 사는 곳인 듯했다.

나는 펠리시에 다리를 건넜다. 강이 깎아 놓은 협곡이 눈앞에 열렸고, 나는 그 위로 솟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곧 나는 샤모니 골짜기로 들어섰다. 이 골짜기는 방금 지나온 세르보의 골짜기보다 더 경이롭고 숭고했지만 그만큼 아름답고 그림 같지는 않았다. 높고 눈 덮인 산들이 바로 골짜기의 경계를 이루었고, 허물어진 성이나 기름진 들판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거대한 빙하들이 길 가까이까지 내려와 있었다. 쏟아져 내리는 눈사태가 천둥처럼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눈보라가 보였다. 몽블랑, 더없이 높고 장엄한 몽블랑이 둘레의 바늘 봉우리들 사이로 솟아올라, 그 엄청난 둥근 꼭대기로 골짜기를 굽어보고 있었다.

이 여행을 하는 동안 오래전에 잃어버린 즐거움이 이따금 찌르르 나를 스치고 지나갔다. 길모퉁이 하나, 문득 눈에 띄어 알아본 어떤 새로운 것 하나가 지나간 날들을 떠올리게 했고, 소년 시절의 걱정 없는 즐거움과 이어졌다. 바람마저 달래는 목소리로 속삭였고, 어머니 같은 자연은 더는 울지 말라고 내게 일렀다. 그러다가 다시 그 다정한 힘이 사라지면, 나는 또다시 슬픔에 묶여 온갖 비참한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럴 때면 나는 짐승에게 박차를 가하며 세상과 내 두려움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그렇게라도 잊으려 애썼다. 아니면 더욱 절망에 차서 짐승에서 내려 공포와 절망에 짓눌린 채 풀밭에 몸을 내던졌다.

마침내 나는 샤모니 마을에 이르렀다. 견뎌 온 몸과 마음의 극심한 피로 끝에 기진맥진이 찾아왔다. 나는 잠시 창가에 머물러, 몽블랑 위에서 춤추는 창백한 번개를 바라보고 내 발밑에서 요란하게 제 길을 달려가는 아르브강의 물소리를 들었다. 그 한결같이 달래는 소리가 너무도 날카로워진 내 감각에 자장가가 되어 주었다. 베개에 머리를 누이자 잠이 스르르 밀려왔다. 나는 잠이 오는 것을 느꼈고, 망각을 베풀어 주는 이를 축복했다.

제10장

이튿날 나는 골짜기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하루를 보냈다. 나는 아르베롱강의 발원지 곁에 서 보았는데, 그 강은 산꼭대기에서 느린 걸음으로 밀려 내려와 골짜기를 가로막으려 하는 빙하에서 시작되었다. 눈앞에는 거대한 산들의 가파른 비탈이 솟아 있었고, 빙하의 얼음 벽이 내 머리 위로 드리워 있었으며, 부러진 소나무 몇 그루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위엄 있는 자연의 이 영광스러운 알현실을 감싼 엄숙한 고요를 깨뜨리는 것은 오직 요란하게 부서지는 물결 소리나, 어딘가에서 거대한 바윗덩이가 떨어지는 소리, 천둥 같은 눈사태 소리, 그리고 변하지 않는 법칙이 소리 없이 작용하여 마치 그 손에 쥐인 장난감이기라도 한 듯 이따금 찢기고 갈라지는 쌓인 얼음이 산들을 따라 메아리치며 깨지는 소리뿐이었다. 이 숭고하고 장엄한 풍경은 그때의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안을 주었는데, 그 풍경은 나를 온갖 옹졸한 감정에서 끌어올려 주었고, 내 슬픔을 없애 주지는 못했어도 누그러뜨리고 가라앉혀 주었다. 또한 지난 한 달 동안 내 마음이 곱씹어 온 생각들에서 어느 정도 마음을 돌려 주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자, 낮 동안 바라본 웅대한 형상들이 한데 모여 내 잠을 지켜 주고 보살펴 주는 듯했다. 티 없이 눈 덮인 산꼭대기, 반짝이는 뾰족한 봉우리, 소나무 숲, 헐벗고 울퉁불퉁한 협곡, 구름 사이로 치솟는 독수리, 그 모두가 내 둘레로 모여들어 이제 편히 쉬라고 일러 주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것들은 다 어디로 달아나 버렸을까? 영혼을 북돋워 주던 것은 모두 잠과 함께 달아나 버렸고, 어두운 우울이 모든 생각을 흐려 놓았다.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짙은 안개가 산봉우리들을 가려서, 그 힘센 벗들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그 안개의 장막을 뚫고 들어가 구름 속 은신처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리라 마음먹었다. 비와 폭풍이 내게 무슨 상관이었겠는가? 노새를 문 앞에 대게 하고, 나는 몽탕베르[1] 꼭대기에 오르기로 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엄청난 빙하를 처음 보았을 때 그 광경이 내 마음에 남긴 느낌을 나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광경은 나를 숭고한 황홀로 가득 채워 영혼에 날개를 달아 주었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기쁨으로 날아오르게 해 주었다. 자연의 외경스럽고 장엄한 모습은 정말이지 언제나 내 마음을 엄숙하게 하고 삶의 덧없는 근심을 잊게 해 주었다. 길을 잘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풍경의 고독한 장엄함이 깨질 것이었기에, 나는 길잡이 없이 혼자 가기로 했다.

오르막은 가팔랐지만, 길이 짧게 굽이굽이 끊임없이 꺾여 나 있어서 깎아지른 산을 오를 수 있었다. 무시무시하게 황량한 풍경이었다. 수많은 곳에 겨울 눈사태가 지나간 자국이 보였는데, 그런 곳에서는 나무들이 부러진 채 땅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어떤 나무는 완전히 부서졌으며, 어떤 나무는 휘어져 산의 튀어나온 바위에 기대거나 다른 나무 위에 가로로 걸쳐져 있었다. 더 높이 오르면 길은 눈 덮인 골짜기들로 끊겼는데, 그 골짜기로는 위에서 돌이 쉴 새 없이 굴러떨어졌다. 그 가운데 한 곳은 특히 위험해서, 아주 작은 소리, 이를테면 큰 소리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흔들려 말한 사람의 머리 위로 파멸을 불러올 수 있었다. 소나무들은 키가 크지도 무성하지도 않았지만 어둑하고 음울해서 풍경에 엄혹한 기운을 더했다. 아래 골짜기를 내려다보니, 골짜기를 흐르는 강들에서 거대한 안개가

피어올라 맞은편 산들을 두꺼운 화환처럼 휘감았고, 그 산들의 봉우리는 한결같은 구름 속에 숨어 있었으며, 어두운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져 둘레의 사물들에게서 받은 우울한 인상을 한층 더 짙게 했다. 아아! 사람은 어째서 짐승에게서 보이는 것보다 뛰어난 감성을 지녔다고 뽐내는가. 그 감성은 사람을 더 많은 것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 뿐이다. 우리의 충동이 배고픔과 목마름과 욕망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거의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불어오는 바람 하나하나에,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나 그 말이 떠올려 주는 장면 하나에도 흔들린다.

우리는 쉰다. 꿈 하나가 잠을 독으로 물들인다.
우리는 일어난다. 떠도는 생각 하나가 하루를 더럽힌다.
우리는 느끼고, 헤아리고, 따진다. 웃거나 운다.
애틋한 슬픔을 껴안거나, 근심을 던져 버린다.
다 매한가지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것이 떠나갈 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사람의 어제는 내일과 같지 않으리라.
무상함 말고는 아무것도 머물지 못하리![2]

오르막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는 거의 정오였고, 나는 한동안 얼음 바다를 내려다보는 바위 위에 앉아 있었는데, 안개가 얼음 바다와 둘레의 산들을 함께 뒤덮고 있었다. 이윽고 산들바람이 불어 구름을 흩어 놓자 나는 빙하 위로 내려갔다. 빙하의 표면은 몹시 울퉁불퉁해서, 성난 바다의 물결처럼 솟았다가 낮게 꺼지고, 그 사이사이로 깊이 꺼진 틈이 나 있었다. 얼음 벌판의 너비는 1리그가 채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건너는 데 나는 두 시간 가까이 걸렸으며, 그 맞은편의 산은 헐벗은 채 깎아지른 바위였다. 내가 서 있던 쪽에서 보면 몽탕베르가 1리그 거리에 정확히 마주 보고 있었고, 그 위로 몽블랑이 외경스러운 위엄을 띠고

솟아 있었다. 나는 바위의 움푹한 곳에 머물러 이 경이롭고 엄청난 풍경을 바라보았다. 바다, 아니 차라리 거대한 얼음의 강이 그것을 거느린 산들 사이로 굽이쳐 흘렀고, 그 산들의 아득히 높은 봉우리가 강의 후미진 곳들 위로 드리운 채, 얼음에 덮여 반짝이는 꼭대기들을 구름 위 햇빛 속에서 빛내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슬픔에 잠겨 있던 내 가슴이 이제 기쁨 같은 무언가로 부풀어 올랐고, 나는 외쳤다. "떠도는 혼령들이여, 너희가 정말로 떠돌며 좁은 잠자리에서 쉬지 못하고 있다면, 내게 이 희미한 행복을 허락해 다오. 아니면 나를 길동무로 삼아 삶의 기쁨에서 데려가 다오."

이 말을 하는 순간, 문득 저만치에서 한 남자의 형체가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내가 조심조심 걸어온 얼음 틈들을 훌쩍훌쩍 뛰어넘었고, 가까이 올수록 그 키도 사람의 키를 훨씬 넘어서는 듯했다. 나는 마음이 어지러워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산의 찬 바람을 맞고 곧 정신을 차렸다. 그 형체가 더 가까이 다가오자, 나는 그것이 내가 창조한 그 흉물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무섭고도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다!). 나는 분노와 공포로 떨면서, 그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죽기 살기로 맞붙어 싸우리라 마음먹었다. 그가 다가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쓰라린 고뇌가 경멸과 악의와 뒤섞여 드러나 있었고, 이 세상 것이 아닌 그 추악함 때문에 그 얼굴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끔찍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에 거의 눈길을 주지 않았다. 처음에는 분노와 증오로 말문이 막혔고, 말문이 트이자마자 나는 사나운 혐오와 경멸을 담은 말을 그에게 퍼붓고 또 퍼부었다.

"이 악마야," 내가 소리쳤다. "감히 내게 다가오느냐? 내 팔이 네 비참한 머리통에 퍼부을 사나운 복수가 두렵지도 않으냐? 꺼져라, 이 버러지 같은 놈! 아니, 거기 있어라. 너를 짓밟아 가루로 만들어 주마!

아, 네 비참한 목숨을 끊어서 네가 그토록 악마같이 죽인 이들을 되살릴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맞을 줄 알았소." 악령이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비참한 자를 미워하오. 그러니 살아 있는 어떤 것보다도 비참한 나는 얼마나 미움을 받겠소! 그런데 나의 창조자인 당신마저, 우리 둘 가운데 하나가 없어져야만 풀릴 끈으로 당신과 묶여 있는 당신의 피조물인 나를 증오하고 내치는구려.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오. 어찌 감히 생명을 이렇게 가지고 논단 말이오? 내게 당신의 의무를 다하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과 나머지 인류에게 내 의무를 다하겠소. 내 조건을 들어주면 저들도 당신도 편히 내버려 두겠소. 그러나 거절한다면, 살아남은 당신 벗들의 피로 배가 부를 때까지 죽음의 아가리를 채워 주겠소."

"가증스러운 괴물! 이 악귀야! 지옥의 고문도 네 죄를 갚기에는 너무 가벼운 복수다. 비참한 악마야! 너를 만들었다고 나를 탓하느냐? 그렇다면 덤벼라, 내가 그토록 무심히 불어넣은 그 불꽃을 이 손으로 꺼 버릴 수 있게."

분노가 끝 간 데를 몰랐다. 한 존재가 다른 존재의 목숨을 노려 무기를 들게 할 수 있는 온갖 감정에 떠밀려, 나는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가볍게 나를 피하고는 말했다.

"진정하시오! 이 저주받은 머리 위에 증오를 쏟아붓기 전에 부디 내 말을 들어 주시오. 내가 겪은 고통이 아직도 모자라서 당신은 내 불행을 더하려 하오? 삶이란 고통이 쌓인 것일 뿐일지라도 내게는 소중하오. 나는 그것을 지킬 것이오. 기억하시오, 당신은 나를 당신보다 힘센 자로 만들었소. 내 키는 당신보다 크고, 내 관절은 더 유연하오. 그래도 나는 당신에게 맞서고 싶은 유혹에 지지 않겠소.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니, 당신도 당신 몫을, 내게 빚진 그 몫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타고난 나의 주인이자 왕인 당신에게 온순하고 고분고분하기까지 하겠소. 오,

프랑켄슈타인, 다른 모두에게는 공정하면서 나 하나만 짓밟지는 마시오. 당신의 정의와, 당신의 너그러움과 애정까지도 누구보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나요. 기억하시오,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오. 나는 당신의 아담이어야 했소. 그런데 나는 오히려 타락한 천사요. 아무 잘못도 없이 당신이 기쁨에서 몰아내는 타락한 천사 말이오. 어디를 보아도 행복이 있는데, 나 혼자만 영영 그 행복에서 밀려나 있소. 나는 자비롭고 선했소. 불행이 나를 악귀로 만들었소.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시오. 그러면 나는 다시 덕스러워질 것이오."

"꺼져라! 네 말 따위는 듣지 않겠다. 너와 나 사이에 통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적이다. 꺼지든지, 아니면 둘 중 하나가 쓰러질 때까지 힘을 겨뤄 보자."

"어떻게 하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소? 당신의 선함과 연민을 애원하는 당신의 피조물이 어떤 간청을 드려야 당신은 너그러운 눈길을 돌려 주겠소? 내 말을 믿으시오, 프랑켄슈타인. 나는 선량했소. 내 영혼은 사랑과 인정으로 불타올랐소.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고 무엇이오? 비참하게 혼자가 아니고 무엇이오? 나의 창조자인 당신마저 나를 혐오하는데, 내게 아무 빚도 없는 당신의 같은 인간들에게서 내가 무슨 희망을 얻을 수 있겠소? 그들은 나를 내치고 미워하오. 황량한 산과 음산한 빙하가 나의 피난처요. 나는 여러 날을 여기서 떠돌았는데, 나만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 얼음 동굴이 내 거처이고, 사람이 나에게 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거처는 이것 하나뿐이오. 나는 이 쓸쓸한 하늘을 반기오. 당신의 같은 인간들보다는 이 하늘이 내게 더 너그럽기 때문이오. 인류의 무리가 내가 있는 줄 알게 되면 그들도 당신처럼 무기를 들고 나를 없애려 들 텐데, 그렇다면 나를 혐오하는 그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소? 나는 내 적들과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소. 나는 비참하니, 그들도 내 비참함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오. 그러나

당신에게는 나에게 보상해 줄 힘이 있고, 그들을 재앙에서 건져 낼 힘도 있으며, 그 재앙을 키워 당신과 당신 가족뿐 아니라 다른 수천 명까지 그 사나운 회오리 속에 삼켜 버리게 할지 말지는 이제 오직 당신에게 달렸소. 연민으로 마음을 움직여 주시오. 나를 업신여기지 마시오. 내 이야기를 들어 보고, 다 듣고 나서 내가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나를 버리든지 불쌍히 여기든지 하시오. 다만 들어 주시오. 피비린내 나는 인간의 법도 죄인에게는 판결을 받기 전에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주오. 내 말을 들으시오, 프랑켄슈타인. 당신은 나를 살인자라고 몰아세우면서도,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당신 자신의 피조물을 없애려 하고 있소. 아, 인간의 영원한 정의를 찬양하시오! 그렇다고 나를 살려 달라는 것은 아니오. 내 말을 들으시오.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고 싶다면, 당신 손으로 만든 작품을 없애시오."

"왜 너는," 내가 되받았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일들을, 바로 내가 그 비참한 근원이자 장본인이라는 것을 일깨우느냐? 이 가증스러운 악마야, 네가 처음 빛을 본 그날이 저주받기를! 너를 빚은 이 두 손도 저주받기를! 나 자신을 저주하는 일이 될지라도. 너는 나를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만들었고, 내가 너에게 공정한지 아닌지 따져 볼 힘조차 내게 남겨 두지 않았다. 꺼져라! 그 혐오스러운 꼴을 내 눈앞에서 치워라."

"그렇다면 이렇게 치워 드리리다, 나의 창조자여." 그는 이렇게 말하며 그 끔찍한 두 손으로 내 눈을 가렸고, 나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이렇게 당신이 질색하는 모습을 당신 눈앞에서 거두겠소. 그래도 당신은 내 말을 들을 수 있고, 내게 연민을 베풀 수 있소. 한때 내가 지녔던 덕을 걸고 당신에게 이것을 요구하오. 내 이야기를 들어 보시오. 길고 기이한 이야기요. 이곳의 추위는 당신의 섬세한 감각에 맞지 않으니 산 위의 오두막으로 갑시다. 해는 아직 하늘 높이 떠 있소. 해가 저 눈 덮인 벼랑 뒤로 내려가 몸을 숨기고 다른 세상을 비추기 전에,

당신은 내 이야기를 다 듣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오. 내가 사람 사는 곳을 영영 떠나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지, 아니면 당신과 같은 인간들에게 재앙이 되고 당신 자신을 하루빨리 파멸로 몰아넣는 장본인이 될지는 당신에게 달렸소."

이렇게 말하고 그는 앞장서서 얼음을 건너갔다. 나는 뒤따랐다. 가슴이 벅차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걸어가면서 그가 내세운 여러 논리를 저울질해 보았고, 적어도 그의 이야기만은 들어 보기로 마음먹었다. 호기심이 나를 떠밀기도 했고, 연민이 그 결심을 굳혀 주기도 했다. 나는 그때까지 그가 내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고 여기고 있었기에,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서 확인하고 싶었다. 또한 나는 그때 처음으로 창조자가 자기 피조물에게 지는 의무가 무엇인지 느꼈고, 그의 사악함을 탓하기 전에 먼저 그를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까닭들이 나를 그의 요구에 따르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얼음을 건너 맞은편 바위를 올랐다. 공기는 차가웠고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악귀는 의기양양한 기색으로, 나는 무거운 마음과 가라앉은 기분으로. 그래도 나는 들어 보기로 했다. 역겨운 길동무가 피워 놓은 불가에 내가 자리를 잡고 앉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

1. 몽탕베르·얼음 바다: 샤모니 골짜기 위의 언덕과, 그 아래를 흐르는 몽블랑 산군의 큰 빙하 메르 드 글라스.

2. 퍼시 비시 셸리의 시 「무상(Mutability)」(1816)의 뒤 두 연.

제11장

내 존재의 첫 시기는 기억해 내기가 무척 어렵다. 그 무렵의 일은 모두 뒤엉키고 흐릿하게만 떠오른다. 낯설게 뒤섞인 숱한 감각이 한꺼번에 나를 사로잡아 나는 보고 느끼고 듣고 냄새 맡는 일을 동시에 했고, 그래서 여러 감각이 하는 일을 저마다 가려내는 법을 익히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기억하기로는, 차츰 더 센 빛이 신경을 짓눌러 나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어둠이 덮쳐 와 나를 불안하게 했는데, 그것을 느끼기가 무섭게, 지금 짐작하기로는 내가 눈을 떴기 때문에, 빛이 다시 내게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걸었고, 아마 아래로 내려갔던 듯하다. 그런데 곧 감각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았다. 전에는 손으로 만져도 눈으로 보아도 뚫고 나갈 수 없는 어둡고 불투명한 물체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지만, 이제는 넘어서거나 비켜 가지 못할 걸림돌이 하나도 없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다. 빛은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고, 걸을수록 열기에 지쳐 나는 그늘을 얻을 만한 곳을 찾았다. 그곳은 잉골슈타트 근처의 숲이었다. 나는 시냇가에 누워 피로를 풀다가 이윽고 허기와 갈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 괴로움이 거의 잠들어 있던 나를 흔들어 깨웠고, 나는 나무에 매달려 있거나 땅에 떨어져 있는 열매를 주워 먹었다. 시냇물로 갈증을 달랜 다음 다시 누웠더니 잠이 나를 덮쳤다.

깨어 보니 어두웠다. 춥기도 했고, 이렇게 홀로 버려진 처지임을 알자 본능처럼 반쯤 겁에 질렸다. 당신의 방을 나서기 전에 나는 추위를

느끼고 옷가지를 몇 벌 걸쳤지만, 그것으로는 밤이슬을 막아 내기에 턱없이 모자랐다. 나는 가련하고 무력하고 비참한 존재였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아무것도 가려내지 못했다. 다만 사방에서 고통이 밀려드는 것을 느끼고 주저앉아 울었다.

이윽고 부드러운 빛이 하늘에 살며시 번지며 내게 기쁜 느낌을 주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고, 나무들 사이에서 빛나는 형체 하나가 떠오르는 것이 보였다.[1] 나는 일종의 경이에 차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느릿느릿 움직였지만 내 길을 밝혀 주었고, 나는 다시 열매를 찾아 나섰다. 여전히 추웠는데, 어느 나무 밑에서 커다란 망토 한 벌을 찾아내어 몸에 두르고 땅바닥에 앉았다. 뚜렷한 생각은 하나도 머릿속에 자리 잡지 못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 나는 빛을, 허기를, 갈증을, 어둠을 느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리가 귓가에 울렸고 사방에서 갖가지 냄새가 나를 맞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또렷이 가려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밝은 달 하나뿐이어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눈길을 붙박았다.

낮과 밤이 여러 번 바뀌고 밤하늘의 둥근 빛이 크게 이지러졌을 무렵, 나는 감각들을 서로 가려내기 시작했다. 내게 마실 물을 대 주는 맑은 시내와 잎으로 그늘을 드리워 주는 나무들이 차츰 또렷이 보였다. 자주 귓가를 반겨 주던 즐거운 소리가, 이따금 내 눈앞의 빛을 가로막던 날개 달린 작은 동물들의 목에서 나온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나는 무척 기뻤다. 또 나는 주위를 둘러싼 형체들을 더 정확하게 살피고, 머리 위를 덮은 눈부신 빛의 지붕이 어디서 끝나는지 그 가장자리를 가늠해 보기 시작했다. 때로는 새들의 즐거운 노래를 흉내 내 보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때로는 내 나름대로 느낌을 드러내고 싶었지만, 내게서 터져 나오는 거칠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에 나 스스로 겁이 나서 다시 입을 다물고 말았다.

달은 밤하늘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가느다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때도 나는 여전히 숲에 머물러 있었다. 그 무렵에는 감각이 또렷해졌고, 내 마음은 날마다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였다. 눈은 빛에 익숙해져 사물을 제 모양대로 알아보게 되었다. 나는 벌레와 풀을 구별했고, 차츰 이 풀과 저 풀도 구별했다. 참새는 거친 소리만 내지만 검은지빠귀와 개똥지빠귀의 소리는 달콤하고 마음을 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추위에 시달리던 나는 떠돌이 거지들이 남겨 두고 간 불을 발견했고, 그 불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 기쁜 나머지 시뻘건 잉걸불 속에 손을 쑥 집어넣었다가,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얼른 빼냈다. 같은 것이 이토록 반대되는 결과를 낳다니 참 이상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불을 이루는 재료를 살펴보고는 그것이 나무라는 것을 알고 기뻤다. 나는 재빨리 나뭇가지를 몇 개 모았지만, 젖어 있어서 타지 않았다. 속이 상한 나는 가만히 앉아 불이 타는 모양을 지켜보았다. 그러자 불 가까이 놓아둔 젖은 나무가 마르더니 저절로 불이 붙었다. 나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했고 여러 나뭇가지를 만져 보며 그 까닭을 알아냈으며, 그래서 나무를 잔뜩 모아 말려 두고 불을 넉넉히 마련해 두려고 부지런히 움직였다. 밤이 와서 잠을 함께 데려오자, 나는 불이 꺼질까 봐 몹시 두려웠다. 마른 나무와 잎으로 불을 조심스레 덮고 그 위에 젖은 가지를 얹은 다음, 망토를 펴고 땅에 누워 잠에 빠져들었다.

깨어 보니 아침이었고, 나는 맨 먼저 불부터 살폈다. 덮은 것을 걷어 내자 산들바람이 금세 불씨를 부채질해 불꽃을 일으켰다. 나는 이것도 눈여겨보았다가, 나뭇가지로 부채를 엮어 불씨가 거의 꺼져 갈 때마다 되살렸다. 다시 밤이 오자 불이 열뿐 아니라 빛도 준다는 것을 알고 기뻤고, 이 원소를 찾아낸 것이 먹을거리를 마련하는 데에도 쓸모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그네들이 버리고 간 고기 찌꺼기 가운데 몇 점이 불에 구워져 있었는데, 나무에서 딴 열매보다 훨씬 맛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먹을 것을 잉걸불 위에 올려 똑같이 익혀 보았다. 열매는 그렇게 하면 못 쓰게 되었지만, 견과와 뿌리는 훨씬 나아졌다.

그러나 먹을 것은 점점 귀해졌다. 허기의 고통을 달랠 도토리 몇 알을 찾아 하루 내내 헤매고도 허탕을 치는 날이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는 것을 알자, 나는 그때까지 살던 곳을 떠나 몇 가지 안 되는 내 필요를 더 쉽게 채울 수 있는 곳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옮겨 가면서 가장 애석했던 것은 우연히 얻은 불을 잃는 일이었다. 나는 그 불을 다시 만들 줄 몰랐다. 이 난관을 몇 시간이나 진지하게 궁리했지만, 결국 불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모두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망토로 몸을 감싸고 해 지는 쪽으로 숲을 가로질러 나아갔다. 그렇게 사흘을 헤맨 끝에 마침내 탁 트인 들판에 이르렀다. 전날 밤에 눈이 많이 내려서 들판은 온통 한 가지 흰빛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 모습은 쓸쓸했고, 땅을 덮은 차갑고 축축한 것에 닿은 발이 시렸다.

아침 일곱 시쯤이었다. 먹을 것과 쉴 곳이 몹시 아쉬웠는데, 마침내 둔덕 위에 작은 움막 한 채가 보였다. 틀림없이 어느 양치기가 쓰려고 지은 것이었다. 처음 보는 광경이라 나는 호기심에 차서 그 생김새를 자세히 살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노인 하나가 불 곁에 앉아 아침을 짓고 있었다. 그는 기척을 듣고 돌아보았다. 그리고 나를 보자 크게 비명을 지르고는 움막을 뛰쳐나가 들판을 가로질러 달아났는데, 그 쇠약한 몸으로는 도저히 낼 수 없을 듯한 빠르기였다. 그때까지 본 무엇과도 다른 그의 생김새와 그가 달아난 일에 나는 조금 놀랐다. 그러나 나는 움막의 모습에 넋을 빼앗겼다. 이곳에는 눈도 비도 스며들지 못했고 바닥은 말라 있었다. 불의 호수에서 고통을 겪고 난 지옥의 악령들에게 만마전[2]이 그렇게 보였듯이, 그때 내게 그곳은

더없이 아늑하고 거룩한 안식처로 보였다. 나는 빵과 치즈와 우유와 포도주로 된 양치기의 아침 식사 남은 것을 게걸스레 먹어 치웠다. 다만 포도주는 입에 맞지 않았다. 그러고는 피로에 겨워 짚더미 속에 누워 잠이 들었다.

깨어 보니 한낮이었다. 하얀 땅 위로 환히 내리쬐는 햇볕의 따스함에 이끌려 나는 다시 길을 떠나기로 했다. 그 농부의 아침 식사 남은 것을 거기서 찾은 자루에 담아 들고 몇 시간 동안 들판을 가로질러 가다가, 해질 녘에 어느 마을에 이르렀다. 그 모습이 얼마나 기적처럼 보였던가! 움막들, 그보다 깔끔한 오두막들, 위풍당당한 집들이 번갈아 나를 감탄하게 했다. 텃밭의 채소들과 몇몇 오두막 창가에 놓인 우유와 치즈가 식욕을 돋우었다. 나는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집 하나에 들어갔다. 그러나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고,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기절했다. 온 마을이 들고일어났다. 어떤 이들은 달아났고 어떤 이들은 나를 공격했다. 나는 돌과 그 밖의 온갖 던질 것에 맞아 몸이 심하게 상한 채 탁 트인 들판으로 달아났고, 겁에 질려 낮은 헛간 하나에 몸을 숨겼는데, 헛간은 텅 비어 있었고 마을에서 본 궁전 같은 집들에 비하면 참으로 초라했다. 그런데 이 헛간은 깔끔하고 보기 좋은 오두막 한 채에 붙어 있었다. 그러나 얼마 전에 그토록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경험이 있었기에 나는 감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내가 숨은 곳은 나무로 지어졌지만 너무 낮아서 그 안에서는 똑바로 앉기도 힘들었다. 바닥은 맨흙이어서 나무 한 조각 깔려 있지 않았지만 말라 있었고, 셀 수 없이 많은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어도 눈비를 피하기에는 기분 좋은 안식처였다.

그래서 나는 그곳으로 물러나 누웠다. 아무리 초라할망정 사나운 날씨를 피할 곳을, 그보다도 인간의 잔인함을 피할 곳을 찾아낸 것이 행복했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개집 같은 그곳에서 기어 나왔다. 이웃한 오두막을 살펴보고, 내가 찾아낸 이 거처에 그대로 머물 수 있을지 알아보려 했다. 헛간은 오두막 뒷벽에 기대어 지어져 있었고, 바깥으로 드러난 쪽은 돼지우리와 맑은 물웅덩이가 둘러싸고 있었다. 한쪽이 트여 있어 나는 그리로 기어 들어왔지만, 이제 누가 나를 볼 수 있을 만한 틈새는 모조리 돌과 나무로 막았고, 다만 나갈 일이 있을 때는 그것들을 치울 수 있게 해 두었다. 내가 누리는 빛은 모두 돼지우리 쪽에서 들어왔지만, 그것으로 넉넉했다.

이렇게 거처를 꾸미고 깨끗한 짚을 깔아 놓은 다음 나는 안으로 물러나 있었다. 멀리 사람 하나가 보였는데, 전날 밤 내가 당한 일이 너무도 생생해서 그의 손에 나를 맡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에 나는 그날 먹을 것을 마련해 두었다. 거친 빵 한 덩이를 훔쳐 왔고, 은신처 곁을 흐르는 맑은 물을 손으로 떠 마시기보다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잔 하나도 챙겨 두었다. 바닥이 조금 돋워져 있어서 늘 보송보송했고, 오두막 굴뚝이 가까워 제법 따뜻했다.

이렇게 채비를 갖추고, 나는 무엇이든 내 결심을 바꿀 일이 생길 때까지 이 헛간에서 살기로 했다. 전에 살던 황량한 숲과 빗방울 듣는 나뭇가지와 축축한 땅에 비하면 이곳은 그야말로 낙원이었다. 나는 즐겁게 아침을 먹고 물을 좀 뜨려고 널빤지 하나를 치우려던 참에 발소리를 들었고, 작은 틈새로 내다보니 머리에 물동이를 인 젊은 처녀 하나가 내 헛간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처녀는 젊고 몸가짐이 얌전해서, 그 뒤로 내가 보게 된 오두막 사람들이나 농가의 하녀들과는 달랐다. 그러나 옷차림은 초라해서, 거친 푸른 속치마와 리넨 웃옷이 걸친 옷의 전부였다. 고운 금발은 땋았지만 아무 장식도 없었다. 참을성 있어 보였지만 슬퍼 보였다. 처녀는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15분쯤 지나 다시 물동이를 이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물동이에 우유가 조금 담겨

있었다. 짐이 버거운 듯 힘겹게 걸어오는 처녀를 젊은이 하나가 맞았는데, 그 얼굴에는 더 깊은 낙담이 서려 있었다. 젊은이는 울적한 기색으로 몇 마디 소리를 내더니 처녀의 머리에서 물동이를 받아 직접 오두막으로 날랐다. 처녀가 뒤따랐고, 둘은 사라졌다. 곧 젊은이가 연장 몇 개를 손에 들고 오두막 뒤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다시 보였고, 처녀도 때로는 집 안에서, 때로는 마당에서 바삐 일했다.

거처를 살펴보니, 전에는 오두막 창문 하나가 이 헛간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유리를 끼울 자리를 나무판으로 막아 놓았다. 그 판자 하나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틈이 있어서 겨우 눈을 대고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 틈으로 작은 방 하나가 보였는데, 회칠을 해서 깨끗했지만 세간은 거의 없었다. 한쪽 구석 작은 불 곁에 노인 하나가 두 손에 머리를 괴고 수심에 잠긴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젊은 처녀는 오두막을 치우느라 바빴지만, 곧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으로 일감을 놀리며 노인 곁에 앉았다. 노인은 악기 하나를 집어 들고 연주를 시작했는데, 개똥지빠귀나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보다 더 감미로운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인 나에게도 그것은 사랑스러운 광경이었다! 늙은 오두막 주인의 은빛 머리칼과 자애로운 얼굴은 내 존경을 얻었고, 처녀의 다정한 몸가짐은 내 사랑을 끌어냈다. 노인은 감미롭고 구슬픈 곡조를 연주했고, 나는 그 곡이 곁에 있는 상냥한 처녀의 눈에서 눈물을 자아내는 것을 알아보았다. 노인은 처녀가 소리 내어 흐느낄 때까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제야 노인이 몇 마디 소리를 내자, 그 고운 처녀는 하던 일을 놓고 그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노인은 처녀를 일으켜 세우고 더없이 다정하고 애정 어린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에 나는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느낌에 휩싸였다. 고통과 기쁨이 뒤섞인 그

느낌은 허기나 추위에서도, 따스함이나 먹을 것에서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이 감정을 견딜 수 없어 창문에서 물러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이가 땔나무 한 짐을 어깨에 지고 돌아왔다. 처녀는 문간에서 그를 맞아 짐 내리는 것을 거들고, 땔감 얼마를 오두막 안으로 가져가 불에 얹었다. 그런 다음 처녀와 청년은 오두막 한구석으로 따로 갔고, 청년은 커다란 빵 한 덩이와 치즈 한 조각을 처녀에게 보여 주었다. 처녀는 기뻐하는 듯했고, 텃밭에 나가 뿌리와 푸성귀를 캐어 와서는 물에 담갔다가 불에 올렸다. 그 뒤로 처녀는 하던 일을 계속했고, 청년은 텃밭으로 나가 땅을 파고 뿌리를 뽑느라 바빠 보였다. 그렇게 한 시간쯤 일하고 나자 젊은 여자가 그에게 가서, 둘이 함께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그동안 노인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두 젊은이가 나타나자 한결 밝은 기색을 띠었고, 셋은 앉아서 밥을 먹었다. 식사는 금방 끝났다. 젊은 여자는 다시 오두막을 치웠고, 노인은 청년의 팔에 기대어 몇 분 동안 오두막 앞 햇볕 속을 거닐었다. 이 훌륭한 두 사람이 이루는 대조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었다. 한 사람은 늙었고, 은빛 머리칼에 얼굴에는 자애와 사랑이 환히 빛났다. 젊은 쪽은 몸이 호리호리하고 우아했으며 이목구비가 더없이 고르게 빚어져 있었지만, 그의 눈과 몸짓에는 더할 나위 없는 슬픔과 낙담이 배어 있었다. 노인은 오두막으로 돌아갔고, 청년은 아침에 쓰던 것과 다른 연장을 들고 들판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밤이 금세 내려앉았다. 그러나 오두막 사람들이 가는 초를 켜서 빛을 늘이는 수단을 지녔다는 것을 알고 나는 몹시 놀랐고, 해가 져도 인간 이웃들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뻤다. 저녁에 젊은 처녀와 그 곁의 청년은 내가 알 수 없는 갖가지 일을 했고, 노인은 아침에 나를 홀린 그 거룩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다시 집어 들었다.

노인이 연주를 마치자마자 청년이 무언가를 시작했다. 연주가 아니라 단조로운 소리를 내는 일이었는데, 그 소리는 노인의 악기가 내는 화음과도 새들의 노래와도 닮지 않았다. 그가 소리 내어 책을 읽고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았다. 그때 나는 말이나 글자에 관한 학문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잠시 저마다 일을 하고 나서 식구들은 불을 끄고, 내가 짐작하기로는, 쉬러 물러갔다.

---

1. (원주) 달.

2. 만마전: 밀턴 『실낙원』 제1권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불의 호수를 벗어나 지은 지옥의 궁전.

제12장

나는 짚 위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그날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되새겼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이 사람들의 다정한 몸가짐이어서, 나는 그들 틈에 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감히 그러지 못했다. 전날 밤 야만스러운 마을 사람들에게 당한 일이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옳다고 여기게 되든, 당분간은 헛간에 조용히 머물며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의 행동을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내려 애써 보기로 마음먹었다.

이튿날 아침 오두막 사람들은 해보다 먼저 일어났다. 젊은 여자는 오두막을 치우고 음식을 장만했고, 청년은 아침을 먹고 나서 집을 나섰다.

이날도 전날과 똑같이 흘러갔다. 젊은이는 줄곧 바깥에서 일했고, 처녀는 안에서 갖가지 고된 일을 했다. 노인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곧 알아차렸는데, 그는 한가한 시간을 악기를 타거나 생각에 잠기며 보냈다. 젊은 오두막 사람들이 이 존경스러운 노인에게 보이는 사랑과 공경보다 더한 것은 있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애정과 도리에서 우러나는 자잘한 시중을 하나하나 다정하게 들었고, 노인은 그때마다 자애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두 사람의 정성에 보답했다.

그들이 온전히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 젊은이와 그 곁의 처녀는 자주 따로 떨어져 가서 우는 듯했다. 나는 그들이 불행할 까닭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 모습에 깊이 마음이 흔들렸다. 이토록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비참하다면, 불완전하고 외로운 존재인 내가 비참한 것은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 다정한 존재들이 왜 불행하단 말인가? 그들에게는 아늑한 집이 있었고(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온갖 호사가 있었다. 추우면 몸을 덥혀 줄 불이, 배고프면 맛있는 음식이 있었고, 훌륭한 옷을 입었으며, 무엇보다 서로 함께 있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애정과 친절이 어린 눈길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그들의 눈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이 정말 고통을 나타내는가? 처음에 나는 이런 물음을 풀 수 없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지켜보는 동안 시간이 흐르자, 처음에는 수수께끼 같던 많은 모습이 차츰 풀려 갔다.

이 상냥한 식구들이 근심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를 알아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것은 가난이었고, 그들은 몹시 괴로울 만큼 그 불행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의 먹을거리라고는 텃밭의 채소와 암소 한 마리에게서 짜는 우유뿐이었는데, 겨울이면 주인들이 소에게 먹일 꼴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해 소는 젖을 아주 조금밖에 내지 않았다. 내 생각에 그들은, 특히 두 젊은이는, 자주 허기의 고통에 사무치게 시달렸던 듯하다. 자기들 몫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노인 앞에만 음식을 차려 놓는 일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이 친절한 마음씨가 나를 깊이 움직였다. 나는 밤마다 그들이 쌓아 둔 먹을거리 일부를 훔쳐다 먹는 버릇이 들어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오두막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그 일을 그만두고, 이웃한 숲에서 거둔 열매와 견과와 뿌리로 배를 채웠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덜어 줄 수 있는 방도를 하나 더 찾아냈다. 청년이 날마다 하루의 상당 부분을 집에서 땔 나무를 모으는 데 쓴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밤이면 자주 그의 연장을 가져다가, 쓰는 법은 금세 터득했으므로, 여러 날 땔 만큼의 나무를 해다 놓았다.

처음 이렇게 했을 때의 일이 기억난다. 아침에 문을 연 젊은 여자는 바깥에 나무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라는 눈치였다. 처녀가 큰 소리로 몇 마디 말하자 청년이 다가왔는데, 그도 놀라움을 드러냈다. 그날 그가 숲에 가지 않고 오두막을 손보고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내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뻤다.

차츰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아냈다. 이 사람들은 또렷한 소리로 자기가 겪은 일과 느낀 것을 서로 전하는 수단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때로는 듣는 이의 마음과 얼굴에 기쁨이나 고통을, 웃음이나 슬픔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나는 알아보았다. 이것이야말로 신과 같은 학문이었고, 나는 그것을 익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그러려고 애쓸 때마다 나는 번번이 좌절했다. 그들의 발음은 빨랐고, 그들이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사물과 뚜렷한 연관이 없어서, 그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 수수께끼를 풀어낼 실마리를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무척 애를 쓰고, 달이 여러 번 차고 기울도록 헛간에 머문 끝에, 나는 이야기에 가장 자주 오르는 몇몇 사물에 붙은 이름을 알아냈다. 나는 '불', '우유', '빵', '나무'라는 말을 배워 써 보았다. 오두막 사람들 자신의 이름도 배웠다. 청년과 그 곁의 처녀는 저마다 이름이 여럿이었지만 노인은 하나뿐이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였다. 처녀는 '누이' 또는 '아가타'라고 불렸고, 청년은 '펠릭스', '오빠', '아들'이라고 불렸다. 이 소리 하나하나에 깃든 뜻을 알고 그것을 소리 내어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내가 느낀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나는 그 밖에도 몇 가지 말을 가려듣게 되었지만, 아직 그 뜻을 알거나 써먹지는 못했다. '좋은', '가장 사랑하는', '불행한' 같은 말이었다.

나는 그렇게 겨울을 났다. 오두막 사람들의 다정한 몸가짐과 아름다움 때문에 나는 그들이 무척 좋아졌다. 그들이 불행하면 나도 울적했고, 그들이 기뻐하면 나도 그 기쁨을 함께 느꼈다. 그들 말고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 어쩌다 다른 누가 오두막에 들어오면 그 거친 몸가짐과 무례한 걸음걸이가 오히려 내 벗들의 뛰어난 품위를 더욱 돋보이게 할 뿐이었다. 노인은 자식들에게, 나는 노인이 이따금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알아들었는데, 울적한 마음을 떨쳐 버리라고 자주 북돋아 주려 애쓰는 듯했다. 그는 명랑한 말씨로 이야기했고, 그 얼굴에 어린 선량함은 나에게까지 기쁨을 주었다. 아가타는 공손히 귀를 기울였고 이따금 눈에 고이는 눈물을 아무도 모르게 닦아 내려 애썼지만, 내가 보기에 아버지의 타이름을 듣고 나면 대개 얼굴빛과 말씨가 한결 밝아졌다. 펠릭스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늘 식구 가운데 가장 슬퍼 보였고, 서툰 내 눈에도 다른 식구들보다 더 깊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얼굴은 더 슬퍼 보여도, 특히 노인에게 말을 건넬 때면 그의 목소리는 누이의 목소리보다 더 밝았다.

사소하지만 이 상냥한 오두막 사람들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을 나는 셀 수 없이 많이 들 수 있다.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펠릭스는 눈 덮인 땅 밑에서 처음 고개를 내민 작고 하얀 꽃 한 송이를 기쁘게 누이에게 가져다주었다. 아침 일찍 누이가 일어나기 전에 그는 젖 짜는 헛간으로 가는 누이의 길을 막은 눈을 치우고, 우물에서 물을 긷고, 바깥 광에서 나무를 날라 왔는데, 광에 가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늘 나무를 채워 놓아서 그는 그때마다 놀라워했다. 낮에는 이따금 이웃 농부의 일을 거들었던 것 같다. 자주 집을 나섰다가 저녁 먹을 때가 되어서야 돌아왔는데, 나무를 지고 오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때에는 텃밭에서 일했지만, 서리 내리는 계절이라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노인과 아가타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처음에 나는 이 책 읽기가 무척 수수께끼 같았다. 그러나 차츰 그가 책을 읽을 때에도 이야기할 때와 같은 소리를 많이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종이 위에서 자기가 아는 말의 기호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짐작했고, 그 기호도 알고 싶어 몸이 달았다. 그러나 그 기호가 나타내는 소리조차 모르는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래도 나는 이 학문에서 눈에 띄게 나아졌지만, 온 마음을 쏟아 애썼는데도 어떤 대화든 따라갈 만큼은 되지 못했다. 나는 오두막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애가 탔지만, 먼저 그들의 말을 완전히 익히기 전에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쉽게 깨달았다. 말을 알면 그들이 내 생김새의 흉측함을 눈감아 주게 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이 흉측함 역시 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 끊임없이 눈앞에 드러나는 그들과 나의 대조가 그것을 깨우쳐 주었다.

나는 내 오두막 사람들의 완벽한 모습,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과 고운 살결에 감탄해 왔다. 그런데 맑은 웅덩이에 비친 나 자신을 보았을 때 나는 얼마나 겁에 질렸던가! 처음에는 거울 같은 물에 비친 것이 정말 나라고는 믿을 수 없어서 흠칫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지금의 이 괴물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자, 나는 더없이 쓰라린 낙담과 굴욕에 휩싸였다. 아아, 나는 이 비참한 흉측함이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지 아직 다 알지 못했다!

해가 더 따뜻해지고 낮이 길어지자 눈이 사라지고 헐벗은 나무와 검은 땅이 드러났다. 이때부터 펠릭스는 일이 더 많아졌고, 머지않아 굶주림이 닥치리라는 가슴 아픈 조짐도 사라졌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들의 음식은 거칠어도 몸에 좋았고, 그들은 이제 그것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할 수 있었다. 텃밭에는 새로운 식물이 여러 가지 돋아났고 그들은 그것을 가꾸었으며, 계절이 깊어 갈수록 이런 넉넉함의 조짐은 날마다 늘어 갔다.

노인은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날마다 한낮에 아들에게 기대어 산책을 했다. 하늘이 물을 쏟아 내는 것을 '비'라고 부른다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다. 비는 자주 내렸지만, 거센 바람이 땅을 금세 말려 주었고, 계절은 전보다 훨씬 쾌적해졌다.

헛간에서 나의 생활은 한결같았다. 아침에는 오두막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고, 그들이 저마다 일하러 흩어지면 잠을 잤다. 나머지 시간은 내 벗들을 지켜보며 보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고 나면, 달이 떴거나 별빛이 있는 밤에는 숲으로 가서 내 먹을거리를 모으고 오두막에서 땔 나무를 해 왔고, 돌아와서는 필요할 때마다 그들이 다니는 길의 눈을 치우고, 펠릭스가 하는 것을 보아 둔 일들을 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해 놓은 이런 일에 그들은 무척 놀랐다. 그런 일이 있을 때 한두 번 그들이 '착한 정령', '놀랍구나'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때 나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다.

이제 내 생각은 더 활발해졌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들의 동기와 감정을 알아내고 싶었고, 펠릭스는 왜 그렇게 비참해 보이고 아가타는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는지 궁금했다. 나는(어리석기도 하지, 이 비참한 존재가!) 이 훌륭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되찾아 주는 일이 내 힘으로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잠들었을 때나 헛간을 떠나 있을 때에도, 존경스러운 눈먼 아버지와 다정한 아가타와 훌륭한 펠릭스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나는 그들을 나보다 높은 존재로, 내 앞날의 운명을 판가름할 이들로 우러러보았다. 그들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과 그들이 나를 맞아 주는 장면을 나는 상상 속에서 수천 번이나 그려 보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역겨워하겠지만, 내가 다정한 몸가짐과 달래는 말로 먼저 그들의 호의를 얻고 나중에는 사랑까지 얻게 되리라고 상상했다.

이런 생각에 나는 기운이 솟았고, 새로운 열의로 말의 기술을 익히는 데 매달렸다. 내 발성 기관은 거칠기는 해도 유연해서, 내 목소리는 그들의 부드러운 음악 같은 목소리와 아주 달랐지만 그래도 나는 뜻을

아는 말은 꽤 수월하게 소리 낼 수 있었다. 나귀와 무릎 강아지 이야기와 같은 꼴이었다. 그러나 몸가짐은 거칠어도 마음은 다정했던 그 순한 나귀가, 매질과 욕설보다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았던가.

봄의 상쾌한 소나기와 포근한 따스함이 땅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이 변화가 오기 전에는 굴속에 숨어 지낸 듯하던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저마다 갖가지 농사일에 매달렸다. 새들은 더 즐거운 가락으로 노래했고 나무에는 잎이 돋기 시작했다. 행복한, 행복한 땅이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량하고 축축하고 몸에 해로웠던 땅이 이제는 신들이 살 만한 곳이 되었구나. 자연의 황홀한 모습에 내 마음은 한껏 부풀었다. 지난 일은 기억에서 지워졌고, 지금은 평온했으며, 앞날은 밝은 희망의 빛과 기쁨에 대한 기대로 금빛을 띠었다.

제13장

이제 서둘러 내 이야기에서 더 마음을 울리는 대목으로 넘어가겠다. 지금부터 들려줄 일들은 내 안에 여러 감정을 새겨 넣었고, 그 감정들이 예전의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다.

봄이 빠르게 깊어 갔다. 날씨는 화창해졌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전에는 황량하고 음울하던 것이 이제 더없이 아름다운 꽃과 푸르름으로 피어나는 것이 놀라웠다. 기쁨을 주는 수천 가지 향기와 아름다움을 주는 수천 가지 광경에 내 감각은 흡족해지고 새로워졌다.

그런 날들 가운데 하루, 내 오두막 사람들이 정해진 대로 일손을 놓고 쉬던 때였다. 노인은 기타를 타고 자식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펠릭스의 얼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울적해 보였다. 그는 자주 한숨을 쉬었다. 한번은 아버지가 연주를 멈추었는데, 그 모습으로 보아 아들이 슬퍼하는 까닭을 묻는 것이라고 나는 짐작했다. 펠릭스는 밝은 말씨로 대답했고, 노인이 다시 연주를 시작하려던 참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말을 탄 숙녀 하나가 길잡이로 삼은 시골 사내 하나를 데리고 와 있었다. 숙녀는 짙은 빛깔의 옷을 입고 두꺼운 검은 베일을 쓰고 있었다. 아가타가 무언가를 묻자, 낯선 여인은 다만 고운 말씨로 펠릭스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대답했다. 그 목소리는 음악 같았지만 내 벗들 누구의 목소리와도 달랐다. 이 말을 듣자 펠릭스가 서둘러 숙녀에게 다가왔고, 숙녀는 그를 보자 베일을 걷어 올렸다. 그러자 천사처럼 아름답고 맑은 얼굴이 내 눈앞에 드러났다. 까마귀 깃처럼 윤기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은 신기한 모양으로 땋아 올려져 있었고, 눈은 검지만 생기 있으면서도 부드러웠고, 이목구비는 고르게 짜여 있었으며, 살결은 놀랄 만큼 희고 두 뺨에는 사랑스러운 분홍빛이 감돌았다.

펠릭스는 숙녀를 보자 기쁨에 넋을 잃은 듯했다. 그의 얼굴에서 슬픔의 흔적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고, 그런 얼굴이 지을 수 있으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황홀한 기쁨이 단숨에 떠올랐다. 그의 눈은 반짝였고 뺨은 기쁨으로 달아올랐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낯선 여인만큼이나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여인은 그와는 다른 감정에 젖어 있는 듯했다. 사랑스러운 눈에서 눈물 몇 방울을 닦아 내고는 펠릭스에게 손을 내밀었다. 펠릭스는 그 손에 황홀하게 입을 맞추고, 내가 알아들은 대로라면 여인을 '나의 사랑스러운 아라비아 여인'이라고 불렀다. 여인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듯했지만 미소를 지었다. 펠릭스는 여인이 말에서 내리도록 거들고 길잡이를 돌려보낸 다음 여인을 오두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펠릭스와 아버지 사이에 이야기가 좀 오갔고, 젊은 낯선 여인은 노인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손에 입을 맞추려 했지만, 노인은 여인을 일으켜 세우고 다정하게 끌어안았다.

곧 나는 알아차렸다. 낯선 여인은 또렷한 소리를 내고 자기 나름의 말이 있는 듯했지만, 오두막 사람들은 여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여인도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알 수 없는 손짓을 많이 했다. 그러나 해가 아침 안개를 걷어 내듯 여인이 와 있다는 것만으로 오두막에 기쁨이 퍼지고 그들의 슬픔이 흩어지는 것이 보였다. 펠릭스는 유난히 행복해 보였고, 기쁨에 찬 미소로 그의 아라비아 여인을 맞았다. 아가타, 늘 다정한 아가타는 사랑스러운 낯선 여인의 손에 입을 맞추었고, 오빠를 가리키며 손짓을 했는데, 내게는 여인이 오기 전까지 오빠가 슬퍼했다는 뜻으로 보였다. 몇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 그동안 그들은 얼굴로 기쁨을 드러냈지만, 나는 그 기쁨의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이윽고 낯선 여인이 그들을 따라 되풀이하는 어떤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으로 보아, 여인이 그들의 말을 배우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같은 가르침을 같은 목적에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이 곧바로 떠올랐다. 낯선 여인은 첫 수업에서 스무 개쯤 되는 낱말을 배웠는데, 사실 대부분은 내가 이미 알던 것이었지만 나머지 몇 개로 나는 덕을 보았다.

밤이 되자 아가타와 아라비아 여인은 일찍 잠자리로 물러갔다. 헤어질 때 펠릭스는 낯선 여인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잘 자요, 사랑스러운 사피." 그는 훨씬 더 오래 깨어 앉아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인의 이름이 자주 되풀이되는 것으로 보아, 나는 사랑스러운 손님이 그들의 이야깃거리라고 짐작했다. 나는 그들의 말을 알아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온 힘을 그쪽으로 기울였지만, 도무지 그럴 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 펠릭스는 일하러 나갔고, 아가타가 늘 하는 일을 마치자 아라비아 여인은 노인의 발치에 앉아 그의 기타를 집어 들고 몇 곡을 연주했다. 그 가락이 어찌나 넋을 잃을 만큼 아름다웠던지 내 눈에서는 슬픔과 기쁨의 눈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렸다. 여인은 노래도 불렀는데, 그 목소리는 숲속의 나이팅게일처럼 풍성한 가락으로 흘러나오며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잦아들기도 했다.

노래를 마치자 여인은 기타를 아가타에게 건넸고, 아가타는 처음에는 사양했다. 아가타는 소박한 곡조를 연주하며 고운 목소리로 따라 불렀지만, 낯선 여인의 경이로운 가락과는 달랐다. 노인은 황홀해하는 듯하더니 몇 마디 말을 했다. 아가타는 그 말을 사피가 알아듣게 풀어 주려 애썼는데, 노인은 사피의 음악이 자기에게 더없는 기쁨을 주었다는 뜻을 전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이제 날들은 전처럼 평화롭게 흘러갔고,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 내 벗들의 얼굴에서 슬픔이 물러나고 기쁨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뿐이었다. 사피는 늘 명랑하고 행복했다. 사피와 나는 말을 빠르게 익혀 나갔고, 그래서 두 달이 지나자 나는 내 보호자들이 하는 말을 대부분 알아듣기 시작했다.

그사이 검은 땅은 풀로 뒤덮였고, 푸른 둑에는 향기롭고 눈에 고운 꽃들이 셀 수 없이 흩어져 달빛 비치는 숲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별처럼 반짝였다. 해는 더 따뜻해지고 밤은 맑고 포근해졌다. 밤마다 나서는 산책은 내게 더없는 즐거움이었다. 다만 해가 늦게 지고 일찍 떠서 그 산책은 꽤 짧아졌다. 처음 들어갔던 마을에서 당한 일을 또 당할까 두려워 나는 낮에는 한 번도 감히 밖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말을 더 빨리 익히려고 낮 동안 내내 귀를 곤두세우고 지냈다. 그래서 나는 아라비아 여인보다 빨리 늘었다고 자랑해도 될 것이다. 여인은 알아듣는 것이 아주 적어 더듬더듬 서툰 말로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거의 다 알아들었고 거의 모든 낱말을 흉내 낼 수 있었다.

말이 느는 동안 나는 낯선 여인이 배우는 대로 글자의 학문도 배웠다. 그러자 경이와 기쁨이 가득한 넓은 들판이 내 앞에 펼쳐졌다.

펠릭스가 사피를 가르칠 때 쓴 책은 볼네의 『제국의 폐허』[1]였다. 펠릭스가 읽어 주면서 아주 자세히 풀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책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이 책을 고른 까닭이 그 웅변조 문체가 동방 작가들을 본떠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책 덕분에 나는 역사를 대강이나마 알게 되었고, 지금 세상에 있는 여러 제국을 두루 살펴보게 되었다. 이 책은 땅 위의 여러 민족이 지닌 풍습과 정치와 종교를 들여다보게 해 주었다. 나는 게으른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 그리스 사람들의 엄청난 재능과 활발한 정신에 대해, 초기 로마

사람들의 전쟁과 놀라운 덕과 그 뒤의 타락과 그 강대한 제국의 쇠망에 대해, 그리고 기사도와 그리스도교와 왕들에 대해 들었다.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에 대해 듣고는, 그곳 원주민들의 불운한 운명을 두고 사피와 함께 울었다.

이 경이로운 이야기들은 내 안에 이상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인간은 정말로 그토록 강하고 덕이 높고 장엄하면서, 동시에 그토록 사악하고 비열한 존재란 말인가? 인간은 어떤 때는 악의 원리에서 갈라져 나온 곁가지에 지나지 않는 듯 보였고, 또 어떤 때는 고귀하고 신 같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품은 존재로 보였다. 위대하고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느낄 줄 아는 존재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예로 보였고, 기록에 남은 많은 이들처럼 비열하고 사악해지는 것은 가장 깊은 타락, 눈먼 두더지나 해를 끼치지 않는 벌레보다도 더 비천한 처지로 보였다. 오랫동안 나는 어떻게 한 인간이 제 동족을 죽이러 나설 수 있는지, 아니 법과 정부는 왜 있어야 하는지조차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악덕과 유혈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나자 의아함은 사라졌고, 나는 역겨움과 혐오에 차서 고개를 돌렸다.

이제 오두막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하나같이 새로운 경이를 내 앞에 열어 보였다. 펠릭스가 아라비아 여인에게 베푸는 가르침을 듣는 동안, 인간 사회의 이상한 체계가 내게 풀려 나왔다. 나는 재산의 분배에 대해, 엄청난 부와 비참한 가난에 대해, 신분과 가문과 고귀한 혈통에 대해 들었다.

이런 말을 들으며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당신과 같은 인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높고 흠 없는 가문에 재산이 더해진 것이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둘 가운데 하나만 갖추어도 존중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둘 다 없으면, 아주 드문 경우를 빼고는, 떠돌이나 노예로 여겨져 뽑힌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제 힘을 허비할 운명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를 만든 창조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내게 돈도 벗도 어떤 재산도 없다는 것만은 알았다. 게다가 나는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역겨운 생김새를 타고났고, 인간과 같은 본성조차 지니지 못했다. 나는 그들보다 날래고 더 거친 음식으로도 살아갈 수 있었으며, 혹독한 더위와 추위를 견디고도 몸이 덜 상했고, 키는 그들보다 훨씬 컸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나 같은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나는 모든 인간이 피해 달아나고 모든 인간이 외면하는 괴물, 땅 위의 얼룩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내게 안긴 고뇌를 당신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다. 나는 그 생각을 떨쳐 내려 애썼지만, 슬픔은 앎과 함께 커지기만 했다. 아, 내가 태어난 숲에 영영 머물러, 허기와 갈증과 더위의 감각 너머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더라면!

앎이란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 한번 마음을 붙잡으면 바위에 붙은 이끼처럼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때로 모든 생각과 감정을 떨쳐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고통의 감각을 이겨 낼 방도는 오직 하나,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두려우면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나는 덕과 선한 감정을 우러렀고, 내 오두막 사람들의 다정한 몸가짐과 상냥한 성품을 사랑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어울리는 길에서 밀려나 있었다.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할 때 몰래 훔쳐 얻는 방도가 있을 뿐이었고, 그것은 같은 무리 가운데 하나가 되고 싶은 내 갈망을 채워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키울 뿐이었다. 아가타의 다정한 말도, 매력 있는 아라비아 여인의 생기 넘치는 미소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노인의 부드러운 타이름도, 사랑받는 펠릭스의 활기찬 이야기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비참하고 불행한 존재여!

다른 가르침들은 내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졌다. 나는 남녀의 다름에 대해,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일에 대해 들었다. 아버지가 젖먹이의 미소와 조금 큰 아이의 발랄한 재롱을 얼마나 귀애하는지, 어머니의 삶과 근심이 모두 그 귀한 아이에게 어떻게 감싸여 있는지, 젊은이의 마음이 어떻게 자라나 앎을 얻는지 들었다. 형제와 자매에 대해, 그리고 인간 하나를 다른 인간과 서로의 끈으로 묶어 주는 온갖 관계에 대해 들었다.

그러나 내 벗과 친척은 어디 있었는가? 어떤 아버지도 내 어린 날을 지켜보지 않았고, 어떤 어머니도 미소와 손길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았다.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지나간 내 삶은 이제 온통 얼룩이었고, 아무것도 가려낼 수 없는 눈먼 공백이었다. 가장 이른 기억에서부터 나는 키와 몸집이 그때와 똑같았다. 나는 나를 닮은 존재도, 나와 사귀자고 다가오는 존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무엇인가? 그 물음이 다시 떠올랐고, 거기에 대답할 것은 신음뿐이었다.

이런 감정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곧 밝히겠다. 그러나 이제는 허락해 준다면 오두막 사람들 이야기로 돌아가겠다. 그들의 내력은 내 안에 분노와 기쁨과 경이 같은 여러 감정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감정들은 모두 결국 내 보호자들(나는 순진하고 반쯤은 괴로운 자기기만 속에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했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더해 주는 것으로 끝났다.

---

1. 볼네의 『제국의 폐허』(1791): 문명의 흥망을 돌아보며 종교와 전제 정치를 비판한 프랑스 계몽기의 책.

제14장

내 벗들의 내력을 알기까지는 얼마간 시간이 걸렸다. 그것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나처럼 아무것도 겪어 보지 못한 존재에게는 하나하나가 흥미롭고 경이로운 여러 사정을 펼쳐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노인의 이름은 드 라세였다. 그는 프랑스의 좋은 가문 출신으로, 여러 해 동안 그곳에서 넉넉하게 살며 윗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대등한 이들에게는 사랑을 받았다. 아들은 나라를 섬기도록 길러졌고, 아가타는 가장 이름난 귀부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내가 오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파리라는 크고 호화로운 도시에서 벗들에게 둘러싸여, 덕과 세련된 지성과 취향에 알맞은 재산까지 갖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온갖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다.

그들을 몰락시킨 것은 사피의 아버지였다. 그는 튀르크의 상인으로 여러 해째 파리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까닭으로 정부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그는 사피가 아버지와 함께 살려고 콘스탄티노플에서 도착한 바로 그날 붙잡혀 감옥에 갇혔다. 상인은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 선고가 부당하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뻔했다. 온 파리가 분개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씌운 죄목보다는 그의 종교와 재산이 사형 선고를 불렀다고 판단했다.

펠릭스는 우연히 그 재판에 가 있었는데, 법정의 판결을 듣자 공포와 분노를 누를 길이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구해 내겠다고

엄숙히 맹세하고는 방도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감옥에 들어가 보려고 여러 번 애썼지만 허사였고, 마침내 그는 건물에서 지키는 이가 없는 쪽에 굵은 쇠창살이 박힌 창 하나를 찾아냈다. 그 창은 불운한 무함마드 신도의 지하 감방에 빛을 들이고 있었는데, 그 무함마드 신도는 사슬에 묶인 채 야만스러운 선고가 집행되기를 절망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펠릭스는 밤에 그 창살을 찾아가 죄수를 도우려는 자기 뜻을 알렸다. 튀르크인은 놀라고 기뻐하며, 상과 재물을 약속해 구원자의 열의에 불을 지피려 애썼다. 펠릭스는 그 제안을 경멸하며 물리쳤다. 그러나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것이 허락된 사랑스러운 사피를 보았을 때, 그리고 사피가 손짓으로 뜨거운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을 때, 청년은 그 갇힌 사람이 자기 수고와 위험을 넉넉히 갚고도 남을 보물을 지녔다는 것을 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튀르크인은 자기 딸이 펠릭스의 마음에 남긴 인상을 금세 알아차렸고, 자기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기만 하면 곧바로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하여 펠릭스를 자기편에 더욱 단단히 붙잡아 두려 했다. 펠릭스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를 자기 행복의 완성처럼 고대했다.

그 뒤 며칠 동안 상인의 탈출 준비가 진행되는 사이, 펠릭스의 열의는 이 사랑스러운 처녀에게서 받은 몇 통의 편지로 더욱 뜨거워졌다. 처녀는 프랑스어를 아는 늙은 하인, 곧 아버지의 하인의 도움을 받아 연인의 말로 자기 생각을 전할 방도를 찾아냈다. 처녀는 아버지를 위해 펠릭스가 해 주려는 일에 더없이 뜨거운 말로 고마움을 표했고, 그러면서도 자기 운명을 조용히 한탄했다.

나는 그 편지들의 사본을 지니고 있다. 헛간에 사는 동안 필기구를 구할 방도를 찾아냈고, 그 편지들은 자주 펠릭스나 아가타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이다. 떠나기 전에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 편지들이 내

이야기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해가 벌써 많이 기울었으니, 그 요지만 되풀이해 들려줄 시간밖에 없다.

사피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그리스도교도인 아라비아 사람으로, 튀르크인들에게 붙잡혀 노예가 되었다. 그 아름다움에 끌려 사피의 아버지가 마음을 빼앗겼고, 그는 사피의 어머니를 아내로 맞았다. 어린 사피는 어머니를 높이 우러르며 뜨겁게 이야기했다. 자유롭게 태어난 어머니는 자기가 떨어진 노예의 처지를 경멸했다. 어머니는 딸에게 자기 종교의 교리를 가르쳤고, 무함마드를 따르는 여자들에게는 금지된 더 높은 지성과 독립된 정신을 꿈꾸도록 가르쳤다. 이 부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가르침은 사피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졌다. 그래서 사피는 다시 아시아로 돌아가 하렘의 담장 안에 갇힌 채, 이제 웅대한 생각과 덕을 향한 고귀한 열망에 익숙해진 자기 영혼의 기질에는 어울리지 않는 어린애 같은 놀이에만 매여 지낼 앞날을 생각하면 넌더리가 났다. 그리스도교도와 결혼하여 여자도 사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나라에 머문다는 생각은 사피를 황홀하게 했다.

튀르크인의 처형 날짜가 정해졌다. 그러나 그 전날 밤 그는 감옥을 빠져나갔고, 날이 밝기 전에 이미 파리에서 여러 리그나 떨어진 곳에 가 있었다. 펠릭스는 아버지와 누이와 자기 이름으로 여권을 마련해 두었다. 그는 미리 아버지에게 계획을 알렸고, 아버지는 여행을 떠난다는 핑계로 집을 나와 딸과 함께 파리의 후미진 곳에 숨어 지내며 그 속임수를 거들었다.

펠릭스는 도망자들을 데리고 프랑스를 가로질러 리옹으로, 다시 몽스니를 넘어 리보르노로 갔다. 상인은 그곳에서 튀르크 영토 어딘가로 건너갈 좋은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다.

사피는 아버지가 떠나는 순간까지 아버지 곁에 머물기로 했고, 그때가 오기 전에 튀르크인은 딸을 구원자와 맺어 주겠다는 약속을 거듭했다.

펠릭스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그들과 함께 지냈다. 그사이 그는 아라비아 여인과 어울리는 즐거움을 누렸고, 여인은 그에게 더없이 순박하고 다정한 애정을 보였다. 두 사람은 통역을 거치거나 때로는 눈빛으로 서로의 뜻을 헤아리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피는 고향의 거룩한 노래를 그에게 불러 주었다.

튀르크인은 둘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내버려 두었고, 젊은 연인들의 희망을 부추기기까지 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획을 세워 두고 있었다. 그는 딸이 그리스도교도와 맺어진다는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났다. 그러나 미지근한 기색을 보였다가는 펠릭스가 분개할까 봐 두려웠다. 구원자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탈리아의 나라에 자기를 넘겨줄 수 있었으니, 자기가 아직 구원자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더는 속일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 속임수를 끌고 갈 수 있는 방안과, 떠날 때 몰래 딸을 데려갈 방안을 수천 가지나 궁리했다. 그러던 중에 파리에서 날아든 소식이 그의 계획을 한결 쉽게 만들어 주었다.

프랑스 정부는 손아귀에 넣었던 희생자가 달아난 데 크게 노하여, 그를 구해 낸 자를 찾아내 벌하려고 갖은 애를 썼다. 펠릭스의 계략은 금세 드러났고, 드 라세와 아가타가 감옥에 갇혔다. 그 소식이 닿자 펠릭스는 즐거운 꿈에서 깨어났다. 눈멀고 늙은 아버지와 다정한 누이가 악취 나는 지하 감옥에 누워 있는데 자기는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사랑하는 여인과 어울리고 있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고문 같았다. 펠릭스는 서둘러 튀르크인들과 약속을 정했다. 펠릭스가 이탈리아로 돌아오기 전에 튀르크인들이 달아날 좋은 기회를 얻으면, 사피는 리보르노의 수녀원에 기숙생으로 남기로 했다. 그러고는 사랑스러운 아라비아 여인을 떠나 파리로 달려가, 이렇게 하면 드 라세와 아가타를 풀어 줄 수 있으리라 바라며 법의 응징에 자기 몸을 내맡겼다.

그러나 그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재판이 열리기까지 다섯 달 동안 갇혀 있었고, 재판 결과 재산을 빼앗기고 조국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형을 받았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찾아낸 독일의 그 오두막에서 비참한 피난처를 얻었다. 펠릭스는 곧 소식을 들었다. 그와 식구들은 그 배신자 튀르크인 때문에 듣도 보도 못한 억압을 견뎠건만, 튀르크인은 구원자가 이렇게 가난과 몰락에 빠진 것을 알자 선한 마음과 명예를 저버리고 딸을 데리고 이탈리아를 떠났다. 그러면서 앞으로 먹고살 방도를 마련하는 데 보태라며 모욕하듯 푼돈을 펠릭스에게 보내왔다.

이런 일들이 펠릭스의 가슴을 갉아먹었고, 내가 처음 보았을 때 그를 식구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가난이라면 그는 견딜 수 있었다. 이 곤경이 자기 덕의 대가인 동안에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기까지 했다. 그러나 튀르크인의 배은망덕과 사랑하는 사피를 잃은 일은 그보다 더 쓰라리고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었다. 이제 아라비아 여인이 찾아오자 그의 영혼에 새 생명이 흘러들었다.

펠릭스가 재산과 지위를 잃었다는 소식이 리보르노에 닿자, 상인은 딸에게 연인은 더 생각하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너그러운 성품의 사피는 이 명령에 몹시 분개했다. 아버지에게 따져 보려 했지만, 아버지는 그 폭군 같은 명령을 되풀이하며 성이 나서 딸을 두고 나가 버렸다.

며칠 뒤 튀르크인은 딸의 방에 들어와, 리보르노에 머무는 것이 탄로 났다고 믿을 만한 까닭이 있고 곧 프랑스 정부에 넘겨질 터이니 콘스탄티노플로 갈 배를 한 척 빌려 두었으며 몇 시간 뒤에 그 도시로 떠나겠다고 다급하게 말했다. 그는 믿을 만한 하인에게 딸을 맡겨 두고, 아직 리보르노에 도착하지 않은 재산 대부분을 가지고 천천히 뒤따라오게 할 작정이었다.

혼자 남자 사피는 이 다급한 처지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지 속으로 궁리했다. 튀르크에서 산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사피의 종교도 감정도 똑같이 그것을 거부했다. 손에 들어온 아버지의 서류 몇 장에서 사피는 연인이 추방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지금 사는 곳의 이름도 알아냈다. 사피는 한동안 망설였지만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자기 몫의 보석 몇 점과 돈을 얼마 챙겨, 리보르노 태생이지만 튀르크의 일상어를 아는 시녀 하나를 데리고 이탈리아를 떠나 독일로 향했다.

사피는 드 라세의 오두막에서 20리그쯤 떨어진 어느 마을에 무사히 닿았는데, 그때 시녀가 위독한 병에 걸렸다. 사피는 온 정성을 다해 시녀를 간호했지만 가련한 처녀는 죽고 말았고, 아라비아 여인은 그 나라 말도 모르고 세상 물정에도 전혀 어두운 채 홀로 남겨졌다. 그러나 사피는 좋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다. 이탈리아 시녀가 자기들이 가는 곳의 이름을 말해 둔 터라, 시녀가 죽은 뒤 그들이 묵던 집의 안주인이 사피가 연인의 오두막에 무사히 닿도록 보살펴 주었다.

제15장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오두막 사람들의 내력이었다. 그 이야기는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그 이야기가 펼쳐 보인 사회생활의 모습을 보며 나는 그들의 덕을 우러르고 인류의 악덕을 개탄하게 되었다.

아직 나는 죄악을 먼 곳의 해악으로만 여겼다. 선의와 너그러움은 늘 내 눈앞에 있었고, 그토록 많은 훌륭한 자질이 불려 나와 드러나는 그 분주한 무대에서 나도 한 사람의 배우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내 안에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내 지성이 자라 간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해 8월 초에 일어난 일 하나를 빠뜨려서는 안 되겠다.

어느 날 밤, 늘 그랬듯이 내 먹을거리를 모으고 내 보호자들을 위해 땔나무를 해 오려고 이웃한 숲에 갔다가, 나는 땅바닥에서 가죽 여행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책이 몇 권 들어 있었다. 나는 이 노획물을 냉큼 집어 들고 헛간으로 돌아왔는데, 다행히도 그 책들은 내가 오두막에서 기초를 익힌 바로 그 말로 쓰여 있었다. 『실낙원』과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한 권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다. 이 보물들을 손에 넣은 나는 더없이 기뻤고, 그 뒤로 벗들이 저마다 늘 하던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줄곧 이 이야기들을 공부하며 거기에 마음을 쏟았다.

이 책들이 내게 미친 영향을 당신에게 다 말하기는 어렵다. 책들은 내 안에 끝없이 새로운 심상과 감정을 낳았고, 그것들은 때로 나를 황홀경으로 들어 올렸지만 그보다 더 자주 가장 깊은 낙담 속으로

가라앉혔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는 소박하고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의 흥미 말고도 숱한 견해가 논의되어 있었고, 그때까지 내게 흐릿하던 문제들에 숱한 빛이 비쳐 있어서, 나는 거기서 사색과 놀라움이 그치지 않고 솟는 샘을 찾았다. 그 책이 그리는 다정한 가정의 풍습은, 자기 바깥의 무언가를 향하는 고결한 정서와 감정과 어우러져, 내 보호자들 곁에서 내가 겪은 것과도, 내 가슴속에 늘 살아 있는 갈망과도 잘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베르테르 자신은 내가 보거나 상상해 본 어떤 존재보다도 거룩한 존재로 여겨졌다. 그의 성품에는 꾸밈이 없었지만 깊이 스며들었다. 죽음과 자살에 대한 논의는 나를 경이로 채우기에 알맞았다. 나는 그 일의 옳고 그름을 따져 보려 하지는 않았지만, 주인공의 견해에 마음이 기울었고, 그가 스러져 간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를 위해 울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나는 많은 것을 내 감정과 처지에 비추어 보았다. 내가 읽은 이야기 속의 존재들, 내가 그 대화를 귀 기울여 들은 존재들과 나는 닮았으면서도 이상하리만치 달랐다. 나는 그들에게 공감했고 얼마쯤은 이해했지만, 내 마음은 아직 제대로 빚어지지 않았다. 나는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았고 아무와도 이어져 있지 않았다. '떠나갈 내 길은 열려 있었고', 내가 사라진다고 슬퍼할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내 모습은 흉측했고 키는 거인 같았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 이런 물음이 끊임없이 되살아났지만 나는 그것을 풀 수 없었다.

내가 지닌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한 권에는 고대 공화국들을 처음 세운 이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이 책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는 아주 다른 영향을 내게 주었다. 베르테르의 상상에서 나는 낙담과 우울을 배웠지만, 플루타르코스는 내게 높은 생각을 가르쳐 주었고,

나를 내 생각의 비참한 테두리 위로 들어 올려 지난 시대의 영웅들을 우러르고 사랑하게 해 주었다. 내가 읽은 것 가운데 많은 것이 내 이해와 경험을 넘어섰다. 왕국이며 드넓은 땅, 큰 강과 끝없는 바다에 대해서는 무척 어렴풋하게나마 알았지만, 도시와 사람들이 크게 모여 사는 곳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때까지 인간의 본성을 배운 학교는 내 보호자들의 오두막 하나뿐이었지만, 이 책은 새롭고 더 웅대한 활동의 무대를 펼쳐 보였다. 나는 나랏일에 관여하여 제 동족을 다스리거나 학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다. 내 안에서 덕을 향한 더없이 뜨거운 열의와 악덕에 대한 혐오가 솟아올랐다. 다만 그것은 그 낱말들의 뜻을 내가 이해한 데까지였고, 내가 쓰는 대로라면 그 말들은 오직 기쁨과 고통에만 관련된 상대적인 것이었다. 이런 감정에 이끌려 나는 당연히 로물루스와 테세우스보다는 평화로운 입법자들, 누마와 솔론과 리쿠르고스를 우러르게 되었다. 내 보호자들의 가부장적인 삶이 이런 인상을 내 마음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했다. 어쩌면 내가 인류를 처음 알게 된 것이 영광과 살육에 불타는 젊은 병사를 통해서였다면, 나는 전혀 다른 감정에 물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낙원』은 그와 다른, 훨씬 더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손에 들어온 다른 책들을 읽을 때처럼 이 책도 참된 역사로 읽었다. 전능한 신이 자기 피조물들과 싸우는 그림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온갖 경이와 경외의 감정이 내 안에서 일었다. 나는 여러 장면이 내 처지와 닮았다는 것에 놀라 자주 그것을 나에게 견주어 보았다. 아담처럼 나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와도 아무 끈으로 이어져 있지 않은 듯했지만, 그 밖의 모든 점에서 그의 처지는 나와 아주 달랐다. 그는 신의 손에서 완전한 피조물로 태어나 행복하고 번성했으며 창조주의 각별한 보살핌을 받았고, 더 높은 본성을 지닌 존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에게서 앎을 얻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나는 비참하고

무력하고 외로웠다. 나는 여러 번 사탄이야말로 내 처지에 더 걸맞은 상징이라고 생각했다. 사탄처럼 나도 내 보호자들의 행복을 볼 때면 질투의 쓰디쓴 쓸개즙이 속에서 치밀어 오르곤 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일이 이런 감정을 더 굳게 다져 주었다. 헛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당신의 실험실에서 들고 나온 옷의 주머니에서 종이 몇 장을 찾아냈다.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이제 거기 쓰인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자 열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지기 전 넉 달 동안 당신이 쓴 일지였다. 당신은 그 종이에 작업을 진척시키며 밟은 단계를 하나하나 꼼꼼히 적어 놓았고, 그 기록 사이사이에 집안일도 섞여 있었다. 당신도 틀림없이 이 종이를 기억할 것이다. 여기 있다. 저주받은 내 기원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이 안에 적혀 있다. 나를 낳은 그 역겨운 일들의 자초지종이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나 있고,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내 몸뚱이가 더없이 세세하게 그려져 있다. 그 말들은 당신이 느낀 공포를 그대로 그려 냈고, 내 공포를 지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읽는 동안 나는 속이 메스꺼웠다. 나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외쳤다. "내가 생명을 받은 그날이 저주스럽다! 저주받을 창조자여! 어찌하여 *당신*조차 역겨워 내게서 고개를 돌릴 만큼 흉측한 괴물을 만들었는가? 신은 연민을 품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아름답고 매력 있게 지었다. 그러나 내 모습은 당신의 더러운 본이고, 닮았기에 오히려 더 끔찍하다. 사탄에게는 그를 우러르고 북돋아 주는 동료 악마들이라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외롭고 미움받는다."

이것이 낙담과 고독의 시간에 내가 품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오두막 사람들의 덕과 그들의 상냥하고 선량한 성품을 떠올릴 때면, 내가 그들의 덕을 얼마나 우러르는지 그들이 알게 되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생김새의 흉측함을 눈감아 주리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아무리 괴물 같은 자라도, 연민과 우정을 청하는 이를 그들이 문간에서 내쫓을 수

있겠는가? 나는 적어도 절망하지는 않기로, 그리고 내 운명을 결정할 그들과의 만남에 대비해 모든 면에서 스스로를 갖추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이 시도를 몇 달 더 미루었다. 그 성패가 너무도 중요했기에 실패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날마다 겪는 일로 내 이해력이 부쩍부쩍 자라는 것을 알았기에, 몇 달이 더 지나 분별이 더 쌓일 때까지 이 일을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

그사이 오두막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사피가 와 있는 것만으로 식구들 사이에 행복이 퍼졌고, 살림도 전보다 한결 넉넉해진 것을 나는 알았다. 펠릭스와 아가타는 즐겁게 놀고 이야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일은 하인들이 거들었다. 그들은 부유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만족하고 행복했으며 마음도 고요하고 평화로웠는데, 내 마음은 그와 달리 날이 갈수록 더 어지러워지기만 했다. 앎이 늘수록 내가 얼마나 비참한 버림받은 자인지가 더욱 똑똑히 드러날 뿐이었다. 물론 나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물에 비친 내 모습이나 달빛 속의 내 그림자를 보면, 그 희망은 그 덧없는 모습처럼, 그 흔들리는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렸다.

나는 이런 두려움을 짓누르고, 몇 달 뒤에 치르기로 마음먹은 시련에 대비해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그리고 때로는 이성의 고삐를 풀어 놓고 생각이 낙원의 들판을 거닐게 내버려 둔 채,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이들이 내 감정에 공감하고 내 우울을 북돋아 주는 모습을 감히 상상했고, 그들의 천사 같은 얼굴은 위로의 미소를 띠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꿈이었다. 어떤 하와도 내 슬픔을 달래 주거나 내 생각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나는 혼자였다. 나는 아담이 자기 창조주에게 올린 간청을 떠올렸다. 그러나 내 창조자는 어디 있었는가? 그는 나를 버렸고, 나는 쓰라린 마음으로 그를 저주했다.

가을은 그렇게 지나갔다. 나는 놀라움과 슬픔에 차서 나뭇잎이 시들어 떨어지고, 내가 처음 숲과 사랑스러운 달을 보았을 때처럼 자연이 다시 메마르고 황량한 모습을 띠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래도 나는 날씨가 쓸쓸한 것은 개의치 않았다. 내 몸의 생김새는 더위보다 추위를 견디기에 더 알맞았다. 그러나 내 가장 큰 기쁨은 꽃과 새와 여름의 온갖 화사한 차림을 보는 일이었으므로, 그것들이 나를 떠나자 나는 더 열심히 오두막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다. 여름이 가도 그들의 행복은 줄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감했고, 서로에게 기대는 그들의 기쁨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로 끊기지 않았다. 그들을 보면 볼수록 그들에게 보호와 친절을 청하고 싶은 마음은 더 커졌다. 내 가슴은 이 상냥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랑받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들의 다정한 눈길이 애정을 담고 나를 향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내 바람의 마지막 끝이었다. 나는 그들이 경멸과 공포에 차서 그 눈길을 내게서 돌리리라고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다. 그들의 문간에 멈춰 선 가난한 이들은 한 번도 쫓겨난 적이 없었다. 물론 내가 청하려는 것은 약간의 먹을 것이나 쉴 자리보다 더 큰 보물, 곧 친절과 공감이었지만, 나 스스로 그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는 믿지 않았다.

겨울이 깊어 갔고, 내가 깨어나 삶을 얻은 뒤로 계절은 어느새 한 바퀴를 온전히 돌아 있었다. 이 무렵 내 관심은 오직 내 보호자들의 오두막에 나를 소개할 계획에만 쏠려 있었다. 나는 여러 방안을 궁리한 끝에, 눈먼 노인이 혼자 있을 때 그 집에 들어가기로 마침내 마음을 정했다. 전에 나를 본 사람들이 무엇보다 끔찍해한 것은 내 생김새의 기괴한 흉측함이라는 것을 알아챌 만한 분별은 내게도 있었다. 내 목소리는 거칠기는 해도 무서운 데는 없었으므로, 나는 자식들이 없을 때 드 라세 노인의 호의를 얻고 그가 사이에 서 주기만 하면, 노인 덕분에 젊은 보호자들도 나를 받아들여 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땅에 흩어진 붉은 잎 위로 햇살이 비쳐 따스함은 주지 않아도 명랑한 기운을 퍼뜨리던 날, 사피와 아가타와 펠릭스는 멀리 시골길을 걸으러 떠났고, 노인은 스스로 원해서 오두막에 혼자 남았다. 자식들이 떠나자 노인은 기타를 집어 들고 구슬프지만 감미로운 곡조를 몇 곡 연주했는데, 내가 그때까지 들어 본 그의 어떤 연주보다도 더 감미롭고 구슬펐다. 처음에는 그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히 빛났지만, 연주가 이어질수록 생각에 잠긴 슬픈 기색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마침내 그는 악기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다.

내 가슴은 빠르게 뛰었다. 지금이 바로 내 희망을 이루어 줄지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지 판가름할 시련의 때였다. 하인들은 이웃 장터에 가고 없었다. 오두막 안팎이 모두 고요했다.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막상 계획을 실행하려 하자 팔다리에 힘이 빠져 나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다시 일어났고, 내가 낼 수 있는 굳은 마음을 다 짜내어 은신처를 감추려고 헛간 앞에 대 놓은 널빤지를 치웠다. 신선한 공기에 기운이 되살아났고, 나는 새로 다진 결심을 품고 그들의 오두막 문으로 다가갔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누구시오?" 노인이 말했다. "들어오시오."

나는 들어가서 말했다. "불쑥 들어와 죄송합니다. 저는 잠시 쉬어 갈 곳이 필요한 나그네입니다. 몇 분만 불 앞에 머물게 해 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들어오시오." 드 라세가 말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마련해 보리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이들이 집에 없고 나는 앞을 보지 못하니, 당신에게 먹을 것을 내주기는 어려울 듯하오."

"괘념치 마십시오, 친절하신 주인어른. 먹을 것은 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따스함과 쉼뿐입니다."

나는 자리에 앉았고, 침묵이 흘렀다. 1분 1분이 내게 얼마나 귀한지 알면서도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노인이 내게 말을 건넸다.

"나그네 양반, 말씨를 들으니 내 나라 사람인 듯하구려. 프랑스 사람이오?"

"아닙니다. 하지만 프랑스 사람 집안에서 배워서 그 말밖에 모릅니다. 저는 지금 몇몇 벗들에게 보호를 청하러 가는 길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이고, 그들이 저를 호의로 맞아 주리라는 희망을 조금은 품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오?"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지요. 저는 불행하고 버림받은 몸입니다. 둘러보아도 이 땅 위에 친척도 벗도 하나 없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이 상냥한 사람들은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저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거기서 실패하면 저는 영영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절망하지 마시오. 벗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오. 그러나 뻔한 사리사욕에 눈이 가리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형제 같은 사랑과 자비로 가득하오. 그러니 희망을 믿으시오. 그 벗들이 선하고 상냥한 사람들이라면 절망하지 마시오."

"그들은 친절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들은 저에 대해 편견을 품고 있습니다. 제 성품은 선합니다. 지금까지 제 삶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얼마간은 이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편견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느낄 줄 알고 다정한 벗을 보아야 할 자리에서 그들은 혐오스러운 괴물만 봅니다."

"그것참 딱한 일이오. 하지만 당신에게 정말 아무 허물이 없다면, 그들의 오해를 풀어 줄 수는 없겠소?"

"바로 그 일을 하려는 참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그 벗들을 진심으로 아낍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저는 여러 달 동안 날마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제가 자기들을 해치려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겨내고 싶은 것이 바로 그 편견입니다."

"그 벗들은 어디 사오?"

"이 근처에 삽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당신 사연을 숨김없이 자세히 털어놓는다면, 그들의 오해를 푸는 데 내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오. 나는 앞을 보지 못해 당신 얼굴을 헤아릴 수는 없소. 그러나 당신 말에는 당신이 진실하다고 믿게 하는 무언가가 있소. 나는 가난하고 추방된 몸이오. 그래도 어떤 일로든 사람에게 쓸모가 될 수 있다면 참으로 기쁘겠소."

"훌륭하신 분이여!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너그러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친절로 어르신은 저를 먼지 속에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어르신의 도움이 있으면 제가 어르신과 같은 인간들의 어울림과 공감에서 쫓겨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하늘이 그런 일을 막아 주기를 바라오! 설령 당신이 정말 죄인이라 해도 말이오. 그런 일은 당신을 절망으로 몰아갈 뿐 덕으로 이끌지는 못하니 말이오. 나도 불행한 사람이오. 나와 내 식구들은 죄 없이 벌을 받았소. 그러니 내가 당신의 불행을 남의 일로 여기겠는지 생각해 보시오."

"하나뿐인 은인이시자 누구보다 좋으신 어르신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저를 향한 친절한 목소리를 저는 어르신의 입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어르신께서

베푸시는 인정을 보니, 곧 만나려는 그 벗들에게서도 일이 잘되리라 믿게 됩니다."

"그 벗들의 이름과 사는 곳을 알 수 있겠소?"

나는 말을 멈추었다. 나는 생각했다. 지금이 바로 내게서 행복을 영원히 빼앗거나 영원히 안겨 줄 결단의 순간이다. 나는 그에게 대답할 만큼 굳은 마음을 내려고 애썼지만 헛일이었다. 그 애씀이 남아 있던 기운마저 모조리 앗아 가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소리 내어 흐느꼈다. 바로 그때 젊은 보호자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다. 나는 노인의 손을 붙잡고 외쳤다. "지금입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어르신과 어르신 식구들이 바로 제가 찾는 그 벗들입니다. 이 시련의 때에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오, 하느님!" 노인이 외쳤다. "당신은 누구요?"

그 순간 오두막 문이 열리고 펠릭스와 사피와 아가타가 들어왔다. 나를 본 그들의 공포와 경악을 누가 그려 낼 수 있을까? 아가타는 기절했고, 사피는 벗을 돌볼 겨를도 없이 오두막 밖으로 뛰쳐나갔다. 펠릭스는 앞으로 내달아, 아버지의 무릎에 매달린 나를 사람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으로 떼어 내더니, 격분에 휩싸여 나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리쳤다. 사자가 영양을 찢어발기듯 나는 그의 사지를 하나하나 찢어 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쓰라린 병을 앓듯 가슴이 무너져 내려 나는 손을 거두었다. 그가 다시 내리치려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고통과 괴로움에 못 이겨 오두막을 빠져나왔고, 모두가 어수선한 틈에 아무 눈에도 띄지 않고 헛간으로 달아났다.

제16장

저주받을, 저주받을 창조자여! 나는 왜 살았는가? 당신이 그토록 함부로 내려 준 존재의 불꽃을 나는 왜 그 순간 꺼 버리지 않았는가? 나도 모르겠다. 그때는 아직 절망이 나를 사로잡지 않았고 내 안에 있는 것은 분노와 복수심뿐이었으므로, 나는 기꺼이 오두막과 거기 사는 사람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비명과 비참함으로 내 배를 채울 수도 있었다.

밤이 되자 나는 은신처를 나와 숲을 헤맸다. 이제는 들킬까 두려워 몸을 사릴 까닭도 없었으므로 나는 무시무시한 울부짖음으로 내 괴로움을 쏟아 냈다. 나는 그물을 찢고 뛰쳐나온 들짐승 같았다. 앞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부수며 사슴처럼 날쌔게 숲속을 내달렸다. 오, 얼마나 비참한 밤이었던가! 차가운 별들은 나를 비웃듯 빛났고, 헐벗은 나무들은 내 머리 위에서 가지를 흔들었으며, 이따금 온 세상이 잠잠한 가운데 새 한 마리의 고운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만 빼고 모든 것이 쉬거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다. 나는 악귀들의 우두머리처럼 내 안에 지옥을 품고 있었고, 아무도 나를 가엾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나무들을 뿌리째 뽑아 버리고 내 주위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 그 폐허를 즐기며 앉아 있고 싶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갈 수 없는 사치스러운 격정이었다. 몸을 지나치게 혹사한 나는 지쳐서, 절망이 안기는 메스꺼운 무력감 속에 축축한 풀밭으로 쓰러졌다. 세상에 사는 수많은 인간 가운데 나를 가엾게 여기거나 도와줄 이는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적들에게 친절을 느껴야

한단 말인가? 아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인류에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를 빚어 이 견딜 수 없는 비참 속으로 내보낸 그자에게 영원한 전쟁을 선포했다.

해가 떴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 그날 낮에는 은신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나는 빽빽한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그 뒤의 몇 시간을 내 처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데 쓰기로 했다.

기분 좋은 햇살과 맑은 낮 공기 덕분에 나는 얼마쯤 평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오두막에서 일어난 일을 되짚어 보니,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분명 경솔하게 굴었다. 내 이야기가 아버지의 마음을 내 편으로 끌어당긴 것은 분명했는데, 어리석게도 나는 그 자식들의 공포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먼저 드 라세 노인이 나에게 익숙해지게 한 다음, 나머지 식구들이 내가 다가가는 것을 맞을 채비가 되었을 때 차츰차츰 내 모습을 드러냈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내 잘못을 돌이킬 수 없다고는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오래 궁리한 끝에, 오두막으로 돌아가 노인을 찾아내고 내 사정을 털어놓아 그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생각에 마음이 가라앉아 나는 오후에 깊은 잠에 빠졌지만, 피가 들끓어 평화로운 꿈은 찾아오지 않았고 전날의 끔찍한 장면이 끊임없이 눈앞에서 되풀이되었다. 여자들은 달아나고, 성난 펠릭스는 아버지의 발치에서 나를 떼어 내고 있었다. 기진맥진해서 깨어 보니 벌써 밤이었다. 나는 숨어 있던 곳에서 기어 나와 먹을 것을 찾으러 갔다.

허기를 달래고 나서 나는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낯익은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온통 평화로웠다. 나는 헛간으로 기어 들어가, 식구들이 늘 일어나던 시간이 오기를 숨죽여 기다렸다. 그 시간이 지나고 해가 하늘 높이 떠올랐지만 오두막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무슨 끔찍한 불행이 닥친 것은 아닐까 하여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오두막

안은 어두웠고 아무런 움직임도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마음 졸이던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얼마 뒤 시골 사내 둘이 지나가다가 오두막 근처에 멈춰 서서 손짓 발짓을 요란하게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들은 내 보호자들의 말과 다른 그 고장 말을 썼기 때문에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그런데 곧 펠릭스가 다른 사내 하나와 함께 다가왔다. 그날 아침 펠릭스가 오두막을 나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놀랐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이 심상치 않은 일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내려고 애타게 기다렸다.

"생각해 보았소?" 펠릭스와 함께 온 사내가 그에게 말했다. "석 달 치 집세를 물어야 하고 텃밭 소출도 잃게 될 텐데. 나는 부당하게 이득을 볼 생각은 없소. 그러니 며칠 말미를 두고 결정을 잘 생각해 보기를 바라오."

"아무 소용 없습니다." 펠릭스가 대답했다. "우리는 다시는 당신 오두막에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끔찍한 일 때문에 아버지의 목숨이 몹시 위태롭습니다. 제 아내와 누이는 결코 그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부탁이니 더는 저를 설득하지 마십시오. 집을 도로 맡으시고, 제가 이곳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며 펠릭스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와 사내는 오두막으로 들어가 몇 분 동안 머물다가 떠났다. 나는 그 뒤로 드 라세 집안 사람 누구도 다시 보지 못했다.

나는 그날 남은 시간을 헛간에서 넋 나간 듯 완전한 절망에 빠진 채 보냈다. 내 보호자들은 떠났고, 나를 세상에 이어 주던 단 하나의 끈을 끊어 버렸다. 처음으로 복수와 증오의 감정이 내 가슴을 가득 채웠고, 나는 그것을 억누르려 애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물살에 몸을 내맡긴 채 해악과 죽음 쪽으로 마음을 기울였다. 내 벗들을, 드 라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아가타의 다정한 눈과 아라비아 여인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은 사라지고 왈칵 쏟아지는 눈물이 나를 얼마쯤 달래 주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내치고 버렸다는 것을 다시 떠올리면 분노가, 미칠 듯한 분노가 되살아났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 해도 입힐 수 없었던 나는 생명 없는 것들에 분풀이를 했다. 밤이 깊어 가자 나는 오두막 둘레에 불탈 만한 것들을 갖가지로 쌓아 두었고, 텃밭에서 가꾸던 것은 흔적도 없이 짓밟아 놓은 다음, 달이 지기를 기다려 일을 시작하려고 억지로 조바심을 누르며 기다렸다.

밤이 깊어 갈수록 숲에서 사나운 바람이 일어, 하늘에 머뭇거리던 구름을 금세 흩어 버렸고, 돌풍은 거대한 눈사태처럼 휩쓸고 지나갔고, 내 정신에 일종의 광기를 일으켜 이성과 분별의 테두리를 모조리 터뜨렸다. 나는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고, 저주받은 오두막 둘레를 미친 듯이 춤추며 돌았다. 그러면서도 눈은 서쪽 지평선에 붙박고 있었는데, 달이 그 가장자리에 거의 닿아 있었다. 마침내 달의 둥근 몸이 한 귀퉁이 가려지자 나는 횃불을 휘둘렀다. 달이 졌다. 나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모아 둔 짚과 마른풀과 덤불에 불을 질렀다. 바람이 불을 부채질했고, 오두막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불길은 오두막에 달라붙어, 갈라지고 모든 것을 삼키는 혀로 그것을 핥아 댔다.

어떤 도움으로도 그 집의 어느 한 부분조차 구해 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나는 그 자리를 떠나 숲속으로 피신했다.

이제 세상이 내 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나는 어디로 발걸음을 돌려야 한단 말인가? 나는 내 불행이 벌어진 이곳에서 멀리 달아나기로 했다. 그러나 미움받고 멸시받는 내게는 어느 나라든 똑같이 끔찍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당신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당신의 종이에서 나는 당신이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자라는 것을 알았다. 내게 생명을 준 그 사람보다 내가 찾아가기에 더 마땅한 이가 누가 있겠는가? 펠릭스가

사피에게 가르친 과목 가운데는 지리도 빠지지 않았기에, 나는 그것으로 땅 위의 여러 나라가 서로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배워 두었다. 당신은 고향 도시의 이름을 제네바라고 적어 두었다. 나는 그곳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어떻게 길을 찾아간단 말인가? 목적지에 닿으려면 남서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내 길잡이라고는 해밖에 없었다. 지나가야 할 도시들의 이름도 몰랐고, 인간 누구에게도 길을 물을 수 없었다. 그래도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이라고는 증오밖에 없었지만, 구원을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에게서뿐이었다. 무정하고 매정한 창조자여! 당신은 내게 지각과 정념을 주고는, 인류의 경멸과 공포의 대상이 되도록 나를 세상에 내던졌다. 그러나 내가 연민과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오직 당신에게뿐이었으므로, 인간의 모습을 한 다른 어떤 존재에게서도 헛되이 얻으려 했던 정의를 나는 당신에게서 구하기로 결심했다.

내 여정은 길었고, 내가 겪은 고통은 혹독했다. 그토록 오래 머물던 고장을 떠난 것은 늦가을이었다. 나는 인간의 얼굴과 마주칠까 두려워 밤에만 길을 갔다. 주위의 자연은 시들어 갔고 해는 열기를 잃었으며, 비와 눈이 사방에서 퍼부었고, 큰 강들은 얼어붙었으며, 땅거죽은 단단하고 차갑고 헐벗어서 나는 몸 둘 곳을 찾지 못했다. 오, 대지여! 나는 내 존재의 근원을 얼마나 자주 저주했던가! 내 본성의 온화함은 달아나 버렸고, 내 안의 모든 것은 쓸개즙과 쓰라림으로 변했다. 당신이 사는 곳에 가까워질수록 내 가슴에서 복수의 혼이 타오르는 것을 더욱 깊이 느꼈다. 눈이 내리고 물이 얼어붙었지만 나는 쉬지 않았다. 이따금 이런저런 일이 길을 알려 주었고, 그 고장의 지도도 하나 지니고 있었지만, 나는 자주 길에서 멀리 벗어나 헤맸다. 감정의 고통은 내게 한순간의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았다. 내 분노와 비참함이 먹잇감을

끌어내지 못하는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해가 따스함을 되찾고 땅이 다시 푸르러 보이기 시작할 무렵 스위스 접경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한 가지 일이, 내 감정의 쓰라림과 공포를 각별히 굳혀 주었다.

나는 대개 낮에는 쉬었고, 밤이 되어 인간의 눈에 띌 걱정이 없을 때에만 길을 갔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길이 깊은 숲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나는 해가 뜬 뒤에도 감히 여정을 이어 갔다. 이른 봄의 어느 날이었는데, 햇살은 사랑스럽고 공기는 포근해서 나조차 기운이 났다. 오래전에 죽어 버린 듯하던 온화함과 기쁨의 감정이 내 안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이 새로운 느낌에 반쯤은 놀라면서도 나는 그 느낌에 몸을 맡겼고, 내 외로움과 흉측함을 잊은 채 감히 행복해했다. 그러자 부드러운 눈물이 다시 뺨을 적셨고, 나는 이런 기쁨을 베풀어 준 복된 해를 향해 고마움에 젖은 눈을 들어 올리기까지 했다.

나는 숲속 오솔길을 이리저리 따라가다가 숲의 끝자락에 이르렀는데, 그 가장자리를 따라 깊고 물살이 빠른 강이 흐르고 있었고, 막 새봄의 싹을 틔운 나무들이 그 강 위로 가지를 드리우고 있었다.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잘 몰라 그곳에 멈춰 섰는데, 그때 사람 목소리가 들려 실측백나무 그늘 아래로 몸을 숨겼다. 몸을 숨기기가 무섭게, 어린 소녀 하나가 웃으며 내가 숨은 곳 쪽으로 달려왔다. 누군가에게서 장난삼아 달아나는 듯했다. 소녀는 가파른 강기슭을 따라 계속 달리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 급류 속으로 떨어졌다. 나는 숨은 곳에서 뛰쳐나가, 거센 물살 때문에 몹시 애를 먹으며 소녀를 구해 강기슭으로 끌어냈다. 소녀는 정신을 잃었고, 나는 할 수 있는 수단을 다해 숨을 되살리려 애썼다. 그때 갑자기 시골 사내 하나가 다가와 나를 방해했는데, 아마도 소녀가 장난삼아 피해 달아나던 그 사람인 듯했다. 그는 나를 보자 내게 달려들어 내 팔에서 소녀를 낚아채더니 숲 깊숙한 곳으로 서둘러 갔다.

나는 왜인지도 잘 모른 채 재빨리 그 뒤를 쫓았다. 그러나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자 사내는 들고 있던 총을 내 몸에 겨누고 쏘았다. 나는 땅바닥에 쓰러졌고, 나를 해친 자는 더욱 빠르게 숲속으로 달아났다.

이것이 내 선의에 대한 보답이었다! 나는 인간 하나를 죽음에서 구해 냈는데, 그 대가로 지금 살과 뼈를 산산이 부순 상처의 비참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고, 불과 몇 분 전까지 품었던 친절과 온화함의 감정은 지옥 같은 분노와 이를 가는 원한에 자리를 내주었다. 고통에 불이 붙은 나는 온 인류에게 영원한 증오와 복수를 맹세했다. 그러나 상처의 고통이 나를 압도했다. 맥박이 멎는 듯하더니 나는 정신을 잃었다.

몇 주 동안 나는 숲속에서 입은 상처를 낫게 하려고 애쓰며 비참하게 살았다. 총알은 어깨에 박혔는데, 그것이 몸속에 남았는지 뚫고 나갔는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내게는 그것을 빼낼 방도가 없었다. 그 상처를 입힌 일이 얼마나 부당하고 배은망덕한지 생각하면 짓눌리는 듯한 그 느낌이 내 고통을 더욱 키웠다. 나는 날마다 복수를 맹세했다. 깊고도 치명적인 복수, 내가 견뎌 온 모욕과 괴로움을 갚기에 그것만이 걸맞은 복수였다.

몇 주가 지나 상처가 아물자 나는 여정을 이어 갔다. 내가 견디는 고생은 이제 밝은 해나 봄의 산들바람으로도 덜어지지 않았다. 모든 기쁨은 조롱에 지나지 않았고, 그것은 내 쓸쓸한 처지를 모욕하며 내가 즐거움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아프게 느끼게 했다.

그러나 이제 내 고생도 끝나 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두 달 만에 나는 제네바 근교에 닿았다.

내가 도착한 것은 저녁이었다. 나는 도시를 둘러싼 들판 가운데 숨을 곳을 찾아 들어가, 어떻게 당신을 찾아갈지 궁리했다. 피로와 허기에

짓눌려 있었고, 너무도 불행해서 저녁의 부드러운 산들바람도, 쥐라산맥의 거대한 산줄기 뒤로 해가 지는 경치도 즐길 수 없었다.

그때 얕은 잠이 생각의 고통에서 나를 잠시 풀어 주었다. 그 잠은 아름다운 아이 하나가 어린것다운 장난기를 한껏 뽐내며 내가 골라 둔 후미진 곳으로 뛰어 들어오는 바람에 깨지고 말았다. 아이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 어린것은 편견이 없고, 아직 너무 짧게 살아서 흉측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몸에 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 아이를 붙잡아 내 길동무이자 벗으로 기른다면, 사람이 가득한 이 땅에서 나도 그토록 쓸쓸하지는 않으리라.

이 충동에 떠밀려 나는 곁을 지나가는 아이를 붙잡아 끌어당겼다. 아이는 내 모습을 보자마자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나는 아이의 손을 얼굴에서 억지로 떼어 내고 말했다. "얘야, 이게 무슨 짓이냐? 너를 해칠 생각은 없다. 내 말을 들어라."

아이는 사납게 버둥거렸다. "놔!" 아이가 소리쳤다. "괴물! 못생긴 놈! 날 잡아먹고 갈기갈기 찢으려는 거지. 넌 식인귀야. 놔, 안 놓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이를 거야."

"얘야, 너는 다시는 네 아버지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와 함께 가야 한다."

"흉측한 괴물! 놔. 우리 아버지는 행정관이야. 프랑켄슈타인 씨라고. 아버지가 널 혼내 줄 거야. 넌 날 붙잡아 두지 못해."

"프랑켄슈타인! 그렇다면 너는 내 적의 사람이로구나. 내가 영원한 복수를 맹세한 바로 그자의 핏줄이로구나. 네가 나의 첫 희생자가 될 것이다."

아이는 여전히 버둥거리며 내 가슴에 절망을 안기는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아이의 입을 막으려고 목을 움켜쥐었고, 한순간에 아이는 내 발치에 죽어 쓰러졌다.

나는 내 희생자를 내려다보았다. 가슴이 기쁨과 지옥 같은 승리감으로 부풀어 올랐다. 나는 손뼉을 치며 외쳤다. "나도 황폐를 지어낼 수 있다. 내 적도 다치지 않는 몸은 아니다. 이 죽음은 그에게 절망을 안겨 줄 것이고, 그 밖에도 천 가지 불행이 그를 괴롭히고 파멸시키리라."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가슴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집어 들고 보니 더없이 사랑스러운 여인의 초상화였다. 내 안에 악의가 들끓었는데도 그 초상화는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끌어당겼다. 나는 잠시 동안, 짙은 속눈썹에 둘러싸인 그 여인의 검은 눈과 사랑스러운 입술을 기쁨에 차서 바라보았다. 그러나 곧 분노가 되살아났다. 그토록 아름다운 이들이 베풀 수 있는 기쁨을 나는 영원히 빼앗겼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이 초상의 주인도 나를 본다면 그 거룩한 자애의 표정을 혐오와 공포의 표정으로 바꾸었으리라는 것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에 내가 분노에 휩쓸린 것이 당신에게는 이상한가? 내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오직 하나, 그 순간 내가 외침과 몸부림으로 감정을 쏟아 내는 데 그치고, 인간들 속으로 뛰어들어 그들을 쳐부수려다 죽어 버리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이런 감정에 휩싸인 채 나는 살인을 저지른 그 자리를 떠났다. 더 으슥한 은신처를 찾다가, 비어 있는 듯 보이던 곳간으로 들어갔다. 짚 위에 젊은 여자 하나가 잠들어 있었는데, 내가 지닌 초상화 속 여인만큼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보기 좋은 얼굴에 젊음과 건강의 사랑스러움이 활짝 피어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여기에도 나만 빼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미소를 베푸는 이가 하나 있구나. 그래서 나는 그 여자 위로 몸을 굽히고 속삭였다. "일어나시오, 어여쁜 이여. 그대의 연인이 곁에 있소. 그대 눈에서 다정한 눈길 한 번 받을 수만 있다면 목숨이라도 내줄 이가 여기 있소. 내 사랑, 일어나시오!"

잠든 여자가 몸을 뒤척였다. 공포가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정말로 깨어나 나를 보고, 나를 저주하고, 살인자를 고발하면 어쩌나? 감긴 눈이 열려 나를 본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하리라. 미친 생각이었다. 그 생각이 내 안의 악귀를 휘저어 깨웠다. 내가 아니라 저 여자가 고통을 받으리라. 저 여자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영영 빼앗겼기에 저지른 이 살인을, 저 여자가 갚으리라. 죄의 뿌리는 저 여자에게 있으니, 벌도 저 여자가 받으라! 펠릭스의 가르침과 인간의 피비린내 나는 법 덕분에 나는 이제 해악을 끼치는 법을 배운 터였다. 나는 몸을 굽혀 그 여자의 옷 주름 속에 초상화를 단단히 끼워 넣었다. 여자가 다시 움직였고, 나는 달아났다.

며칠 동안 나는 이 일들이 벌어진 곳 언저리를 맴돌았다. 어떤 때는 당신을 보고 싶었고, 어떤 때는 세상과 그 비참함을 영영 떠나리라 마음먹었다. 마침내 나는 이 산들 쪽으로 떠돌아와, 오직 당신만이 채워 줄 수 있는 불타는 열망에 사로잡힌 채 이 거대한 산의 깊숙한 곳들을 이리저리 헤매 다녔다. 당신이 내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기 전에는 우리는 헤어질 수 없다. 나는 외롭고 비참하다. 인간은 나와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만큼 일그러지고 끔찍한 존재라면 나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내 짝은 나와 같은 종이어야 하고, 나와 같은 결함을 지녀야 한다. 당신은 이런 존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제17장

그 존재는 말을 마치고 내 대답을 기다리며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지만, 나는 어리둥절하고 갈피를 잡지 못해 그의 제안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헤아릴 만큼 생각을 가다듬을 수가 없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여자 하나를 만들어야 하오. 내 존재에 없어서는 안 될 공감을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갈 여자 말이오. 이 일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 나는 이것을 당신이 결코 거절해서는 안 될 내 권리로 요구하오."

그가 오두막 사람들 틈에서 보낸 평화로운 나날을 이야기하는 동안 잦아들었던 분노가 이야기의 뒷부분에 이르러 내 안에서 다시 불붙었고, 그가 이 말을 하자 나는 속에서 타오르는 노여움을 더는 누를 수 없었다.

"거절한다." 내가 대답했다. "어떤 고문으로도 내 승낙을 받아 내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으로 만들 수는 있어도, 내 눈에 비친 나를 비열한 인간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너 같은 것을 또 하나 만들어, 둘이 함께 저지르는 악행으로 세상을 황폐하게 하란 말이냐. 꺼져라! 대답은 했다. 너는 나를 괴롭힐 수는 있겠지만, 나는 결코 승낙하지 않겠다."

"당신이 틀렸소." 악귀가 대답했다. "나는 위협하는 대신 당신과 이치를 따져 보는 것으로 만족하겠소. 내가 악한 것은 비참하기 때문이오. 나는 온 인류에게 따돌림받고 미움받고 있지 않소? 나의

창조자인 당신마저 나를 갈가리 찢어 놓고 의기양양해하려 하오. 그것을 기억하시오. 그러고 나서, 사람이 나를 가엾게 여기지 않는데 어째서 내가 사람을 더 가엾게 여겨야 하는지 말해 보시오. 당신이 나를 저 얼음 틈 하나에 떠밀어 당신 손으로 지은 이 몸뚱이를 부숴 버린다 해도, 당신은 그것을 살인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오.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는데 내가 사람을 존중해야겠소? 사람이 나와 친절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 준다면, 나는 해를 끼치기는커녕 받아 준 것이 고마워 눈물을 흘리며 온갖 은혜를 아낌없이 그에게 베풀 것이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소.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을 인간의 감각이 넘을 수 없는 벽처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오. 그렇다고 내가 비굴한 노예처럼 굴복하지는 않겠소. 나는 내가 입은 상처를 되갚을 것이오.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겠소.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가장 큰 적인 당신, 나의 창조자이기에 가장 큰 적인 당신에게 꺼지지 않을 증오를 맹세하오. 조심하시오. 나는 당신을 파멸시키려 애쓸 것이고, 당신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 당신이 태어난 그 시각을 저주하게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오."

이 말을 하는 동안 악귀 같은 분노가 그의 온몸에서 들끓었고, 그의 얼굴은 사람의 눈으로는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일그러지고 주름졌다. 그러나 이내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이었다.

"나는 이치를 따지려 했소. 이렇게 격해지는 것은 내게 해로울 뿐이오. 이 격정이 이토록 넘치는 것은 *당신*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당신은 헤아리지 않으니 말이오. 어떤 존재든 내게 선의를 느껴 준다면, 나는 그것을 백 배로, 또 백 배로 돌려주겠소. 그 하나를 위해서라면 나는 인류 전체와도 화해하겠소! 그러나 지금 나는 이루어질 수 없는 행복을 꿈꾸고 있구려.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고 지나치지 않은 것이오. 나는 나와 성이 다르되 나만큼 흉측한 피조물 하나를 요구하오.

보잘것없는 위안이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고,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소. 물론 우리는 온 세상과 끊어진 괴물이겠지만, 바로 그 때문에 서로에게 더욱 깊이 매달릴 것이오.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는 않겠지만 해롭지 않을 것이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비참함에서는 벗어나 있을 것이오. 오, 나의 창조자여,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시오. 단 한 번의 은혜로라도 당신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해 주시오! 살아 있는 무엇인가가 나를 가엾게 여긴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해 주시오. 내 청을 물리치지 마시오!"

나는 마음이 움직였다. 내가 승낙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졌지만, 그의 논리에 어느 만큼은 정당한 데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이야기와 지금 그가 드러낸 감정은 그가 섬세한 감각을 지닌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렇다면 그를 만든 사람으로서 나는 내 힘이 닿는 한의 행복을 모두 그에게 빚지고 있지 않은가? 그는 내 마음이 바뀐 것을 알아보고 말을 이었다.

"당신이 승낙한다면, 당신도 다른 어떤 인간도 다시는 우리를 보지 못할 것이오. 나는 남아메리카의 광막한 황야로 가겠소. 내 먹을거리는 사람의 것과 달라서, 나는 내 배를 채우려고 어린 양이나 새끼 염소를 죽이지 않고 도토리와 산딸기만으로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소. 내 짝도 나와 같은 본성을 지닐 것이니 같은 먹을거리로 만족할 것이오. 우리는 마른 잎으로 잠자리를 마련할 것이고, 해는 사람에게 그러듯 우리에게도 비치어 우리의 먹을거리를 익혀 줄 것이오. 내가 그려 보이는 이 그림은 평화롭고 인간다운 것이니, 당신이 이것을 물리친다면 그것은 오로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잔인함 때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신도 느낄 것이오. 당신은 내게 무자비했지만, 지금 당신 눈에서 연민이 보이오. 이 좋은 때를 붙잡아, 내가 이토록 간절히 바라는 것을 약속하도록 당신을 설득하게 해 주시오."

"너는," 내가 대답했다. "사람 사는 곳에서 달아나, 들짐승만이 길동무가 되어 줄 황야에서 살겠다고 한다. 사람의 사랑과 공감을 그토록 갈망하는 네가 어떻게 이 유배를 끝까지 견디겠느냐? 너는 돌아와 다시 사람들의 친절을 구하다가 그들의 혐오와 마주칠 것이다. 그러면 네 악한 격정이 되살아날 것이고, 그때는 파괴의 일을 거들어 줄 짝까지 네 곁에 있을 것이다. 그럴 수는 없다. 더는 따지지 마라. 나는 승낙할 수 없다."

"당신 마음은 어찌 이리도 변덕스럽소! 바로 조금 전만 해도 내 호소에 마음이 움직였으면서, 왜 다시 내 하소연 앞에서 마음을 굳게 닫는 것이오? 내가 사는 이 땅을 걸고, 나를 만든 당신을 걸고 맹세하오. 당신이 내주는 짝과 함께, 나는 사람 사는 곳 근처를 떠나 발길 닿는 대로 가장 거친 곳에 머물겠소. 공감을 얻게 될 터이니 내 악한 격정은 사라지고 없을 것이오! 내 삶은 조용히 흘러가 버릴 것이고, 죽어 가는 순간에도 나는 나를 만든 이를 저주하지 않을 것이오."

그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은 묘하게 흔들렸다. 나는 그가 가여웠고 때로는 그를 위로해 주고 싶기까지 했지만, 그를 바라보고 움직이며 말하는 그 더러운 덩어리를 보았을 때는 속이 메스꺼워졌고 내 감정은 공포와 증오로 바뀌었다. 나는 이런 느낌을 억누르려 애쓰면서, 내가 그와 같은 마음이 되어 줄 수 없는 바에야, 아직 내 힘으로 베풀 수 있는 그 작은 행복마저 그에게서 거둘 권리는 내게 없다고 생각했다.

"너는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내가 말했다. "그러나 너는 이미, 내가 너를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만큼 악의를 드러내지 않았느냐? 이것마저 네 복수의 폭을 넓혀 네 승리를 키우려는 속임수가 아닐지 어찌 알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오? 나를 우롱하지 마시오. 나는 대답을 요구하오. 내게 아무 인연도 애정도 없다면 증오와 악덕이 내 몫일 수밖에 없소.

다른 누군가의 사랑이 내 죄의 원인을 없애 줄 것이고, 그러면 나는 아무도 있는 줄 모르는 하찮은 것이 될 것이오. 내 악덕은 내가 몹시 싫어하는, 억지로 떠안은 고독이 낳은 자식들이니, 나와 대등한 이와 어울려 살게 되면 내 덕은 저절로, 그리고 반드시 생겨날 것이오. 나는 감정을 지닌 존재의 애정을 느끼게 될 것이고, 지금은 나를 밀어내고 있는 존재와 사건의 사슬에 이어지게 될 것이오."

나는 한동안 말을 멈추고 그가 들려준 모든 이야기와 그가 내세운 여러 논리를 곰곰이 되짚었다. 존재를 처음 얻었을 무렵 그가 보여 주었던 덕의 싹을, 그리고 그 뒤 그의 보호자들이 그에게 드러낸 혐오와 멸시 때문에 다정한 감정이 모두 시들어 버린 일을 떠올렸다. 그의 힘과 위협도 내 셈에서 빠지지 않았다. 빙하의 얼음 동굴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고 다가갈 수 없는 벼랑의 등성이 사이에 몸을 숨겨 추격을 피할 수 있는 피조물이라면, 맞서 보았자 헛일인 능력을 지닌 존재였다.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나는 그에게도 내 같은 인간들에게도 마땅히 지켜야 할 정의가 그의 청을 들어주라고 내게 요구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로 몸을 돌려 말했다.

"네 요구를 들어주마. 그 대신, 네 유배길을 함께할 여자를 내가 네 손에 넘겨주는 즉시 유럽을, 그리고 사람 사는 곳 가까이 있는 다른 모든 곳을 영원히 떠나겠다고 엄숙히 맹세해라."

"맹세하오." 그가 외쳤다. "해를 걸고, 하늘의 푸른 빛을 걸고, 내 심장을 태우는 사랑의 불길을 걸고 맹세하오. 당신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면, 이것들이 있는 한 당신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 집으로 돌아가 일을 시작하시오.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애태우며 일이 되어 가는 것을 지켜볼 것이고, 당신이 준비를 마치면 내가 나타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아마 내 마음이 바뀔까 두려웠던지, 갑자기 내 곁을 떠났다. 나는 그가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보다도 빠르게 산을 내려가는 것을 보았고, 그는 곧 얼음 바다의 굽이치는 기복 사이로 사라졌다.

그의 이야기는 하루를 통째로 차지했고, 그가 떠날 무렵 해는 지평선 끝에 걸려 있었다. 곧 어둠에 휩싸일 테니 서둘러 골짜기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은 무겁고 걸음은 더뎠다. 그날 일어난 일들이 불러일으킨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산속의 좁은 길을 굽이굽이 따라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단단히 디디는 일조차 나를 어지럽게 했다. 중턱의 쉼터에 이르러 샘가에 앉았을 때는 밤이 이미 깊어 있었다. 구름이 흘러가는 사이사이로 별들이 이따금 빛났고, 검은 소나무들이 눈앞에 솟아 있었으며, 여기저기 부러진 나무가 땅에 쓰러져 있었다. 경이로울 만큼 엄숙한 광경이었고, 그 광경이 내 안에 기이한 생각들을 휘저어 놓았다. 나는 서럽게 울었고, 괴로움에 두 손을 움켜쥐며 외쳤다. "오, 별들아, 구름아, 바람아, 너희는 모두 나를 비웃으려 하는구나. 정말로 나를 가엾게 여긴다면 내 감각과 기억을 짓뭉개어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다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떠나라, 떠나서 나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어라."

거칠고 비참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별들의 영원한 반짝임이 얼마나 무겁게 나를 짓눌렀는지, 그리고 바람이 한 번 불 때마다 그것이 나를 태워 없애려고 다가오는 음울하고 흉한 시로코 열풍이기라도 한 듯 내가 얼마나 귀를 곤두세웠는지, 당신에게 다 말할 수는 없다.

샤모니 마을에 이르기 전에 날이 밝았지만, 나는 쉬지도 않고 곧장 제네바로 돌아갔다. 나 자신의 마음속에서조차 그 느낌들을 말로 나타낼 수 없었다. 그것들은 산 하나의 무게로 나를 짓눌렀고, 너무도 넘친 나머지 그 밑에 깔린 내 괴로움마저 짓이겨 버렸다. 이렇게 나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초췌하고 사나운 내 몰골에 모두가 몹시 놀랐지만, 나는 아무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나는 파문이라도 당한 것 같았다. 그들의 공감을 바랄 권리가 내게는 없는 것 같았고, 다시는 그들과 어울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래도 나는 그들을 우러러 받들 만큼 사랑했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내가 가장 혐오하는 일에 몸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런 일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니 삶의 다른 모든 일은 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고, 오직 그 생각만이 내게는 삶의 실감을 지니고 있었다.

제18장

제네바로 돌아온 뒤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흘러갔지만, 나는 일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끌어모을 수 없었다. 실망한 악귀의 복수가 두려웠으면서도, 내게 지워진 그 일에 대한 혐오를 이겨 낼 수가 없었다. 여자 하나를 짜 맞추려면 다시 여러 달을 깊은 연구와 고된 탐구에 바쳐야 한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영국의 어느 자연철학자가 이룬 발견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지식이 내 성공에 꼭 필요했으므로 나는 이따금 그 일로 영국에 다녀오도록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볼까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미룰 핑계라면 무엇이든 붙들고 늘어졌고, 당장 해야 할 까닭이 점점 덜 절실해 보이는 그 일에 첫걸음을 떼기를 꺼렸다. 사실 내게는 변화가 일어나 있었다. 그때까지 나빠지기만 하던 건강이 이제는 많이 회복되었고, 그 불행한 약속이 떠올라 기운을 꺾지 않을 때면 마음도 그만큼 밝아졌다. 아버지는 이 변화를 기쁘게 지켜보며, 내 우울의 찌꺼기를 뿌리째 뽑아낼 가장 좋은 방법을 궁리했다. 그 우울은 때때로 발작처럼 되살아나, 다가오던 햇살을 집어삼킬 듯한 어둠으로 뒤덮었다. 그럴 때면 나는 더없이 완전한 고독 속으로 숨어들었다. 작은 배를 타고 혼자 호수에서 온종일을 보내며, 말없이 맥 놓고 구름을 바라보거나 물결이 찰랑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도 맑은 공기와 밝은 해는 거의 언제나 나를 어느 만큼은 가라앉혀 주었고, 집에 돌아오면 나는 한결 쉽게 웃으며 한결 밝은 마음으로 가까운 이들의 인사를 받았다.

그렇게 호수를 떠돌다 돌아온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네가 예전에 즐기던 일들을 다시 즐기고 본래의 너로 돌아오는 것 같아 기쁘구나. 그런데도 너는 여전히 불행해 보이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기를 피하는구나. 한동안 나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 짐작만 하며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런데 어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생각이 맞다면 제발 털어놓아 다오. 이런 일을 두고 마음을 감추는 것은 쓸데없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세 곱절의 불행을 불러올 것이다."

아버지의 이 서두에 나는 몹시 떨었고,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아들아, 솔직히 말하마. 나는 네가 우리 사랑하는 엘리자베스와 결혼하는 날을 늘 고대해 왔다. 그것이 우리 집안을 편안하게 묶어 줄 끈이 되고, 기울어 가는 내 노년의 버팀목이 되리라 여겼지. 너희 둘은 아주 어릴 적부터 서로를 따랐고 함께 공부했으며, 성품으로 보나 취향으로 보나 서로에게 꼭 맞는 짝으로 보였다. 그러나 사람의 경험이란 참으로 눈먼 것이어서, 내 계획을 가장 잘 도와주리라 여겼던 바로 그것이 오히려 계획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는지도 모르겠구나. 어쩌면 너는 엘리자베스를 누이로만 여길 뿐, 아내로 맞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도 모른다. 아니, 사랑할 만한 다른 사람을 만났는지도 모르지. 그러면서도 명예를 걸고 엘리자베스에게 매여 있다고 여기니, 그 갈등 때문에 네가 겪는 듯한 그 쓰라린 괴로움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아버지, 안심하십시오. 저는 사촌을 다정하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엘리자베스만큼 제 마음에 뜨거운 경애와 애정을 불러일으킨 여자는 이제껏 본 적이 없습니다. 앞날에 대한 제 희망과 기대는 모두 우리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걸려 있습니다."

"빅터, 이 일을 두고 네가 그렇게 마음을 털어놓으니 근래에 느껴 보지 못한 기쁨이 이는구나. 네 마음이 그렇다면, 지금 일어난 일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늘을 드리우더라도 우리는 틀림없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걷어 내고 싶은 것은 바로 그 그늘, 네 마음을 그토록 단단히 움켜쥔 듯한 그 그늘이다. 그러니 당장 혼례를 올리는 데 반대하는지 말해 다오. 우리는 불운했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내 나이와 병약한 몸에 어울리는 일상의 평온을 잃었다. 너는 아직 젊다. 그러나 넉넉한 재산이 있으니, 일찍 결혼한다고 해서 네가 세워 두었을지 모를 명예롭고 쓸모 있는 앞날의 계획에 조금이라도 걸림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네게 행복을 강요하려 한다거나, 네가 미룬다고 해서 내가 몹시 언짢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부탁이니 나를 믿고 진심으로 대답해 다오."

나는 말없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고,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수많은 생각을 머릿속에서 재빨리 굴리며 어떻게든 결론에 이르려 애썼다. 아아, 나에게는 당장 엘리자베스와 맺어진다는 생각이 공포와 낭패감 그 자체였다. 나는 엄숙한 약속에 묶여 있었고, 그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으면서 감히 깨뜨릴 수도 없었다. 만일 깨뜨린다면, 나와 저주받은 내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불행이 닥쳐올지 모를 일이었다! 이 죽음 같은 무게를 여전히 목에 매단 채, 그 무게에 짓눌려 땅에 엎드리다시피 하면서 어떻게 잔치 자리에 들어설 수 있겠는가. 나는 약속을 지켜 괴물을 그 짝과 함께 떠나보낸 뒤에야, 평화를 안겨 주리라 기대하는 그 혼인의 기쁨을 누리도록 나 자신에게 허락할 수 있었다.

또한 나는 영국으로 떠나든지, 아니면 지금 하려는 일에 그 지식과 발견이 없어서는 안 될 그 나라의 자연철학자들과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든지 해야 한다는 것도 떠올렸다. 뒤의 길로 바라는 지식을 얻는

것은 더디고 미덥지 못했다. 게다가 사랑하는 이들과 허물없이 어울려 지내는 아버지의 집에서 그 역겨운 일에 매달린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이 싫었다. 끔찍한 사고가 천 가지는 일어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가장 사소한 것 하나만으로도 나와 얽힌 모든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할 이야기가 드러날 터였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그 일을 해 나가는 동안 나를 사로잡을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감출 힘도, 나 자신을 다스릴 힘도 자주 잃으리라는 것 역시 알고 있었다.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했다. 일단 시작하면 금세 끝날 것이고, 그러면 나는 평화롭고 행복하게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었다. 약속을 지키고 나면 괴물은 영원히 떠날 터였다. 아니면 (나의 어리석은 상상은 이렇게 그려 보았다) 그사이에 무슨 사고가 일어나 그를 없애 버리고, 내 노예 생활을 영원히 끝내 줄지도 몰랐다.

이런 감정들이 아버지에게 할 대답을 정해 주었다. 나는 영국에 가 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청하는 진짜 까닭은 숨긴 채 아무 의심도 사지 않을 그럴듯한 겉옷을 바람에 입혔고, 아버지가 쉽게 허락할 만큼 간곡하게 졸랐다. 거세기로 보나 미친 영향으로 보나 광기와 다름없던 우울이 그토록 오래 나를 삼키고 있던 끝이었으므로, 아버지는 내가 그런 여행을 생각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 그리고 풍경이 바뀌고 이런저런 즐거움을 맛보다 보면 내가 돌아오기 전에 완전히 본래의 나로 돌아오리라고 기대했다.

얼마 동안 떠나 있을지는 내 뜻에 맡겨졌다. 몇 달, 길어야 한 해쯤으로 잡았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다정한 배려로 내게 길동무가 있도록 미리 손을 써 두었다. 나와 미리 의논하지도 않고 엘리자베스와 뜻을 모아, 클레르발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나와 만나도록 일을 꾸며 두었다. 이것은 일을 해내기 위해 내가 바라던 고독을 방해했다. 그래도 여행 첫머리에는 벗이 곁에 있다고 해서 조금도 걸림돌이 될 리 없었고,

그 덕분에 홀로 미칠 듯이 생각에 잠기는 숱한 시간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이 나는 정말로 기뻤다. 아니, 헨리가 나와, 불쑥 끼어들 원수 사이를 막아 줄지도 몰랐다. 내가 혼자라면 그놈은 이따금 그 혐오스러운 모습을 내 앞에 억지로 들이밀며, 내 일을 일깨우거나 그 일이 얼마나 되었는지 살피려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영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돌아오는 즉시 엘리자베스와 혼례를 올리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아버지는 나이 때문에 미루는 것을 몹시 꺼렸다. 나로서는 그 혐오스러운 수고 끝에 내가 나 자신에게 약속한 보상이 하나 있었다. 유례없는 내 고통에 주어질 단 하나의 위안, 그것은 이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 엘리자베스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혼인 속에서 지난 일을 모두 잊을 수 있을 그날을 바라보는 일이었다.

나는 이제 여행 채비를 했다. 그러나 한 가지 느낌이 나를 따라다니며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채웠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 가족과 벗들은 자기들의 적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채, 내가 떠난 것에 격분했을지도 모를 그의 공격 앞에 아무 방비 없이 남겨질 터였다. 그러나 그는 내가 어디로 가든 따라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영국까지 나를 따라오지 않겠는가? 이 상상은 그것만으로도 끔찍했지만, 가족과 벗들이 무사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위안이 되었다. 혹시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는 괴로워 몸부림쳤다. 그러나 내 피조물의 노예로 지낸 그 모든 기간 동안 나는 그 순간의 충동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겼고, 지금 내 느낌은 악귀가 나를 따라와 그 흉계의 위험에서 내 가족을 비켜나게 해 주리라고 강하게 일러 주었다.

내가 다시 고국을 떠난 것은 9월 말이었다. 여행은 내가 먼저 꺼낸 일이었으므로 엘리자베스도 따랐다. 그러나 내가 자기 곁을 떠나 비참과 슬픔에 시달리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엘리자베스는 불안으로

가득했다. 클레르발이라는 길동무를 내게 마련해 준 것도 엘리자베스의 마음 씀이었다. 그래도 남자란, 여자라면 세심하게 마음을 기울일 천 가지 자잘한 일에 눈이 먼 법이다. 엘리자베스는 어서 돌아오라고 당부하고 싶었지만 수많은 감정이 엇갈려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 속에 말없이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나를 실어 갈 마차에 몸을 던지듯 올랐다. 어디로 가는지도 거의 모른 채, 둘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 다만 화학 기구들을 꾸려 함께 보내라고 이른 것만은 기억했는데, 그 일을 생각하면 쓰라린 괴로움이 일었다. 음산한 상상에 사로잡힌 채 나는 아름답고 장엄한 풍경을 숱하게 지나쳤지만, 내 눈은 한곳에 머문 채 아무것도 살피지 않았다. 나는 오직 여행의 끝과, 여행하는 동안 내가 매달려야 할 일만을 생각할 수 있었다.

여러 리그를 지나며 며칠을 멍하니 맥 놓고 보낸 끝에 나는 스트라스부르에 닿았고, 그곳에서 이틀 동안 클레르발을 기다렸다. 그가 왔다. 아아, 우리 둘은 얼마나 달랐던가! 그는 새로운 풍경 하나하나에 생기를 띠었다. 지는 해의 아름다움을 보면 즐거워했고, 해가 다시 떠올라 새날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더욱 행복해했다. 그는 시시각각 바뀌는 풍경의 빛깔과 하늘의 모습을 내게 가리켜 보였다. "이게 바로 사는 거야." 그가 외쳤다. "이제야 살아 있는 게 즐겁구나! 그런데 프랑켄슈타인, 너는 왜 그렇게 풀이 죽고 슬퍼하는 거야!" 사실 나는 우울한 생각에 빠져 있어서, 저녁별이 지는 것도, 라인강에 비친 금빛 해돋이도 보지 못했다. 벗이여, 당신에게는 내 상념을 듣는 것보다, 느낌과 기쁨이 어린 눈으로 풍경을 바라본 클레르발의 일기를 읽는 편이 훨씬 즐거울 것이다. 즐거움으로 가는 모든 길을 닫아 버린 저주에 시달리던 나는 비참한 인간이었으니.

우리는 스트라스부르에서 로테르담까지 배를 타고 라인강을 내려가, 그곳에서 런던으로 가는 배를 타기로 했다. 이 뱃길에서 우리는 버드나무 우거진 섬들을 숱하게 지나쳤고, 아름다운 도시도 여럿 보았다. 만하임에서 하루를 묵었고, 스트라스부르를 떠난 지 닷새째 되는 날 마인츠에 닿았다. 마인츠 아래로 라인강의 물길은 훨씬 더 그림 같아졌다. 강은 빠르게 흘러내리며, 높지는 않으나 가파르고 생김새가 아름다운 언덕들 사이를 굽이쳤다. 높고 다가갈 수 없는 검은 숲에 둘러싸인 채 벼랑 끝에 서 있는 무너진 성들이 많이 보였다. 라인강의 이 구간은 참으로 보기 드물게 다채로운 풍경을 펼쳐 보였다. 어느 곳에서는 험한 언덕과, 무시무시한 벼랑을 내려다보는 무너진 성들과, 그 아래로 세차게 흐르는 검은 라인강이 보였다. 그러다 곶 하나를 갑자기 돌아서면, 무성한 포도밭과 비탈진 푸른 강둑과 굽이굽이 흐르는 강과 사람이 북적이는 도시들이 눈앞을 가득 채웠다.

우리가 여행한 것은 포도를 거두는 철이었고, 물결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동안 일꾼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마음이 가라앉아 있고 음울한 감정에 끊임없이 기운이 흔들리던 나조차, 그런 나조차 즐거웠다. 나는 배 바닥에 누워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을 들이마시는 것 같았다. 내 느낌이 이러했다면, 헨리의 느낌은 누가 그려 낼 수 있겠는가? 그는 요정의 나라로 옮겨 온 것 같은 기분에 젖어, 사람이 좀처럼 맛보지 못하는 행복을 누렸다. "나는," 그가 말했다. "내 고국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았어. 루체른호와 우리주의 호수에도 가 보았지. 눈 덮인 산들이 거의 곧장 물속으로 내리꽂히며 검고 꿰뚫어 볼 수 없는 그늘을 드리우는 곳이라, 눈을 쉬게 해 주는 싱그러운 초록 섬들이 없었다면 음울하고 구슬픈 모습이었을 거야. 폭풍에 그 호수가 뒤집히는 것도 보았어. 바람이 물을 소용돌이로 찢어 올리는 걸 보면 큰 바다의 용오름이

어떨지 짐작이 가더라. 파도는 산기슭을 사납게 때렸는데, 거기가 바로 사제와 그 정인이 눈사태에 묻힌 곳이고, 밤바람이 잦아들 때면 지금도 두 사람의 죽어 가는 목소리가 들린다고들 하지. 발레주와 보주의 산들도 보았어. 그런데 빅터, 이 고장이 그 모든 경이보다 더 마음에 들어. 스위스의 산들은 더 장엄하고 기이하지만, 이 신성한 강의 기슭에는 내가 이제껏 어디서도 보지 못한 매력이 있어. 저 벼랑 위에 걸린 성을 봐. 저기 섬 위에 있는 성도, 저 아름다운 나무들 잎사귀 사이에 거의 가려진 성 말이야. 그리고 지금 포도밭 사이에서 나오는 저 일꾼들도, 산 우묵한 곳에 반쯤 숨은 저 마을도 봐. 오, 이곳에 깃들어 이곳을 지키는 정령은 틀림없이, 우리 고국에서 빙하를 쌓아 올리거나 다가갈 수 없는 산꼭대기로 물러나 사는 정령들보다 사람과 더 잘 어울리는 영혼을 지녔을 거야."

클레르발! 사랑하는 벗이여! 지금도 나는 네 말을 적고 네가 그토록 마땅히 받을 만한 찬사를 곱씹는 일이 기쁘다. 그는 "자연의 시 그 자체"로 빚어진 존재였다. 거침없고 열정적인 상상력은 섬세한 마음으로 다듬어져 있었다. 영혼은 뜨거운 애정으로 넘쳐흘렀고, 우정은 세속에 밝은 이들이 상상 속에서나 찾으라고 가르치는 그런 헌신적이고 경이로운 우정이었다. 그러나 사람끼리 나누는 공감만으로는 그 열렬한 마음을 다 채울 수 없었다. 남들은 그저 감탄하며 바라보기만 하는 바깥 자연의 풍경을 헨리는 뜨겁게 사랑했다.

…"울려 퍼지는 폭포 소리는
열정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높은 바위,
산, 그리고 깊고 어두운 숲,
그 빛깔과 그 모양은 그때 그에게
허기였고, 느낌이었고, 사랑이었다.
더 먼 곳의 매력은 필요 없었다.
생각이 보태 주는 매력도, 눈에서
빌려 오지 않은 어떤 흥미도."[1]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는 영원히 사라져 버렸단 말인가? 그토록 많은 생각과 기발하고 웅장한 상상들로 가득 차서, 그 창조자의 목숨에 존재를 기대는 하나의 세계를 이루었던 이 정신이, 이 정신이 스러져 버렸단 말인가? 이제 그것은 내 기억 속에만 있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토록 거룩하게 빚어지고 아름다움으로 빛나던 너의 모습은 썩어 없어졌지만, 너의 영혼은 지금도 너의 불행한 벗을 찾아와 위로해 준다.

이렇게 슬픔을 쏟아 놓은 것을 용서하라. 이 부질없는 말들은 헨리의 비길 데 없는 값어치에 바치기에는 보잘것없는 헌사에 지나지 않지만, 그를 떠올릴 때마다 솟는 괴로움으로 넘쳐흐르는 내 마음을 달래 준다. 이제 이야기를 이어 가겠다.

쾰른을 지나 네덜란드의 평야로 내려선 우리는, 바람이 거슬러 불고 강물도 너무 느릿해서 배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남은 길은 역마차를 갈아타며 가기로 했다.

이곳부터 우리 여행은 아름다운 풍경이 주던 흥취를 잃었지만, 며칠 뒤 로테르담에 닿았고 그곳에서 바닷길로 영국에 건너갔다. 내가 처음으로 영국의 흰 절벽을 본 것은 12월 하순의 어느 맑은 아침이었다. 템스강 기슭은 새로운 풍경을 펼쳐 보였다. 땅은 평평했지만 기름졌고,

거의 모든 도시에 어떤 이야기의 기억이 서려 있었다. 우리는 틸버리 요새를 보며 스페인 무적함대를 떠올렸고, 그레이브젠드와 울리치와 그리니치처럼 고국에서도 이름을 들었던 곳들을 보았다.

마침내 우리 눈앞에 런던의 수많은 첨탑이 나타났고, 그 모두를 굽어보며 우뚝 솟은 세인트폴 대성당과 영국 역사에 이름 높은 런던탑도 보였다.

---

1. (원주) 워즈워스, 「틴턴 사원」.

제19장

런던은 당분간 우리가 머물 곳이었다. 우리는 이 경이롭고 이름 높은 도시에서 몇 달을 지내기로 했다. 클레르발은 그 무렵 한창 이름을 떨치던 천재와 재사들과 사귀고 싶어 했지만, 나에게 그것은 부차적인 일이었다. 나는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을 방도에 주로 마음을 쏟았고, 가장 이름난 자연철학자들 앞으로 써 받아 가지고 온 소개장들을 서둘러 써먹었다.

이 여행이 공부하며 행복하던 시절에 이루어졌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삶에는 이미 서리가 내려 있었고, 나는 그토록 무섭게 깊이 매달린 그 문제에서 그들이 줄 수 있을 지식을 얻으려고 그 사람들을 찾아갔을 뿐이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괴로웠다. 혼자 있을 때면 하늘과 땅의 모습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었고, 헨리의 목소리가 나를 달래 주면 덧없는 평화로 나 자신을 속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분주하고 무심하고 즐거운 얼굴들은 내 마음에 절망을 도로 불러왔다. 나와 내 이웃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놓여 있었다. 그 벽은 윌리엄과 저스틴의 피로 봉인되어 있었고, 그 이름들과 얽힌 일들을 떠올리면 내 영혼은 괴로움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클레르발에게서 나는 예전의 내 모습을 보았다. 헨리는 호기심이 많았고, 경험과 가르침을 얻으려고 애가 탔다. 눈여겨본 풍습의 차이는 그에게 마르지 않는 배움과 즐거움의 샘이었다. 또 오래전부터 품어 온 목표도 좇고 있었다. 인도에 가 보려는

계획이었는데, 인도의 여러 언어를 알고 그 사회를 두고 나름의 견해를 세워 두었으니 유럽의 식민지 개척과 교역이 나아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곳은 영국뿐이었다. 클레르발은 늘 바빴고, 그의 즐거움을 가로막는 것은 슬픔에 잠겨 풀이 죽은 내 마음 하나뿐이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쓰라린 기억도 없이 새로운 삶의 무대에 들어서는 사람이 마땅히 누릴 즐거움을 벗에게서 빼앗지 않으려고 될 수 있는 대로 내 마음을 감추려 애썼다. 혼자 남으려고 다른 약속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함께 가기를 거절하는 일도 잦았다. 나는 이제 새로운 창조에 필요한 재료들도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 일은 머리 위로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주는 고문과 같았다. 그 일에 바치는 생각 하나하나가 극심한 괴로움이었고, 그 일을 넌지시 가리키는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입술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런던에서 몇 달을 보낸 뒤, 전에 제네바로 우리를 찾아온 적이 있는 스코틀랜드의 어떤 사람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그는 자기 고향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며, 그것만으로도 자기가 사는 퍼스까지 북쪽으로 여행을 늘릴 만한 유혹이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클레르발은 이 초대를 몹시 받아들이고 싶어 했고, 나도 사람들과 어울리기는 몸서리치게 싫었지만 산과 냇물을, 그리고 자연이 스스로 고른 거처를 꾸미는 그 모든 경이로운 작품들을 다시 보고 싶었다.

우리가 영국에 닿은 것은 10월 초였는데, 어느덧 2월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이 더 지나면 북쪽으로 떠나기로 했다. 이번 여행에서는 에든버러로 가는 큰길을 따르지 않고 윈저와 옥스퍼드와 매틀록과 컴벌랜드의 호수들을 둘러본 뒤, 7월 말쯤 여정을 마치기로 했다. 나는 화학 기구와 그동안 모은 재료들을 꾸리며, 스코틀랜드 북부 고지의 어느 외진 구석에서 일을 마치리라 마음먹었다.

우리는 3월 27일에 런던을 떠나 윈저에서 며칠을 묵으며 그 아름다운 숲을 거닐었다. 산골에서 자란 우리에게는 새로운 풍경이었다. 장엄한 떡갈나무들, 숱한 사냥감, 위풍당당한 사슴 떼, 모두가 우리 눈에는 낯설고 새로웠다.

거기서 우리는 옥스퍼드로 갔다. 이 도시에 들어서자, 한 세기 반도 더 전에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의 기억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다. 찰스 1세가 군대를 모은 곳이 바로 여기였다. 온 나라가 왕의 대의를 저버리고 의회와 자유의 깃발 아래로 모여든 뒤에도 이 도시만은 끝까지 왕에게 충성을 지켰다. 그 불운한 왕과 동지들, 곧 상냥한 포클랜드 경과 오만한 고링[1], 그리고 왕비와 왕자의 기억은 그들이 머물렀으리라 여겨지는 도시의 구석구석에 남다른 흥취를 더해 주었다. 옛 시절의 정신이 이곳에 깃들어 있었고, 우리는 그 발자취를 더듬어 가는 것이 즐거웠다. 이런 감정이 상상 속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다 해도, 도시의 모습 자체가 우리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넉넉할 만큼 아름다웠다. 칼리지들은 오래되고 그림 같았으며 거리는 장려하다 해도 좋을 만했다. 그리고 더없이 싱그러운 초록 풀밭 사이로 도시 곁을 흐르는 사랑스러운 아이시스강은 고요하고 너른 물을 펼쳐, 늙은 나무들 품에 안긴 탑과 첨탑과 둥근 지붕들의 장엄한 무리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이 풍경을 즐겼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지난 일의 기억과 앞일에 대한 예감으로 쓰라렸다. 나는 평화로운 행복을 누리도록 태어난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불만이 내 마음을 찾아온 적이 없었고, 어쩌다 권태에 빠지더라도 자연 속의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인간이 이룬 것 가운데 뛰어나고 숭고한 것을 공부하면 언제나 마음이 끌리고 기운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나는 벼락 맞은 나무다. 벼락이 내 영혼을 꿰뚫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느꼈다. 나는 살아남아, 머지않아 그것마저 그치게 될

모습, 곧 남들에게는 가엾고 나 자신에게는 견딜 수 없는, 부서진 인간의 비참한 구경거리를 내보이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옥스퍼드에서 꽤 오래 머물며 그 둘레를 거닐었고, 영국 역사에서 가장 피 끓는 시대와 얽혔을 법한 곳을 하나하나 찾아내려 애썼다. 잇달아 나타나는 볼거리들 때문에 우리의 작은 탐험은 자주 길어졌다. 우리는 이름 높은 햄던[2]의 무덤과, 그 애국자가 쓰러진 싸움터를 찾아갔다. 한순간 내 영혼은 나를 비굴하게 만드는 비참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높이 올라, 이 자리들이 기념하고 일깨우는 자유와 자기희생이라는 거룩한 이념을 우러러보았다. 한순간 나는 감히 사슬을 떨쳐 버리고 자유롭고 높은 정신으로 둘레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쇠붙이는 이미 내 살을 파고들어 있었고, 나는 떨며 희망을 잃은 채 다시 비참한 나 자신 속으로 가라앉았다.

우리는 아쉬움 속에 옥스퍼드를 떠나 다음 쉴 곳인 매틀록으로 갔다. 이 마을 근방의 시골은 스위스의 풍경을 꽤 많이 닮아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한결 작은 규모였고, 초록 언덕들에는 내 고국의 소나무 덮인 산들 뒤에 언제나 솟아 있는 먼 흰 알프스의 왕관이 없었다. 우리는 경이로운 동굴과, 세르보와 샤모니의 수집품과 똑같이 진기한 것들을 늘어놓은 작은 자연사 진열실들을 둘러보았다. 헨리가 샤모니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자 나는 몸이 떨렸고, 그 끔찍한 장면과 그렇게 얽혀 버린 매틀록을 서둘러 떠났다.

더비를 지나 계속 북쪽으로 가며, 우리는 컴벌랜드와 웨스트멀랜드에서 두 달을 보냈다. 이제 나는 스위스의 산속에 있다고 거의 착각할 수 있을 정도였다. 산의 북쪽 비탈에 아직 남아 있는 작은 눈 조각들, 호수들, 바위 사이로 부딪치며 흐르는 냇물, 모두가 내게는 낯익고 정다운 광경이었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몇몇 사람과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를 속여 행복하게 만들 뻔했다. 클레르발의 기쁨은

그만큼 나보다 더 컸다. 그의 정신은 재능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넓어졌고, 자기보다 못한 이들과 어울리던 동안에는 상상도 못 했던 더 큰 역량과 자질을 자기 안에서 찾아냈다. "여기서라면 평생을 보낼 수도 있겠어." 그가 내게 말했다. "이 산들 속에서라면 스위스도 라인강도 그리 아쉽지 않을 거야."

그러나 헨리는 나그네의 삶이란 즐거움 가운데 많은 괴로움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그네의 감정은 늘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 그리고 쉼에 잠기기 시작할 즈음이면, 즐겁게 머물던 곳을 버리고 다시 마음을 사로잡는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야 하고, 그것마저 또 다른 새로움을 위해 버리게 된다.

우리가 컴벌랜드와 웨스트멀랜드의 여러 호수를 겨우 둘러보고 그곳 사람들 몇몇에게 정이 들 무렵, 스코틀랜드 친구와 약속한 때가 다가와 우리는 그들을 떠나 다시 길을 나섰다. 나로서는 아쉽지 않았다. 나는 한동안 약속을 내버려 두고 있었고, 악령이 실망해서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웠다. 그는 스위스에 남아 내 가족에게 복수를 퍼부을지도 몰랐다. 이 생각이 나를 따라다니며, 그렇지 않았다면 휴식과 평화를 낚아챌 수 있었을 모든 순간마다 나를 괴롭혔다. 나는 열에 들뜬 듯 조바심치며 편지를 기다렸다. 편지가 늦어지면 비참한 기분으로 천 가지 두려움에 짓눌렸고, 편지가 와서 엘리자베스나 아버지의 필적으로 쓴 겉봉을 보면 내 운명을 읽어 확인하기가 두려워 차마 봉투를 열지 못했다. 때로는 악귀가 나를 따라와, 내 길동무를 죽여 게으른 나를 재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나는 한순간도 헨리 곁을 떠나지 않고, 그를 노리는 파괴자의 분노를 상상하며 벗을 지키려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나는 무슨 큰 죄라도 저질러 그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 같았다. 나는 죄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죄 못지않게 치명적인 무서운 저주를 내 머리 위에 불러들였다.

나는 생기 없는 눈과 마음으로 에든버러를 둘러보았다. 그래도 그 도시는 가장 불행한 존재의 마음마저 끌 만했다. 클레르발은 옥스퍼드만큼 에든버러를 좋아하지는 않았다. 옥스퍼드의 오랜 역사가 더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든버러 신시가지의 아름다움과 반듯함, 낭만적인 성,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근교인 아서스 시트와 세인트버나드 샘과 펜틀랜드 언덕이 바뀐 풍경을 보상하고도 남아, 그를 명랑함과 감탄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나 나는 어서 여정의 끝에 이르고 싶어 조바심이 났다.

우리는 일주일 만에 에든버러를 떠나 쿠퍼와 세인트앤드루스를 거쳐 테이강 기슭을 따라 퍼스로 갔고, 그곳에서 친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낯선 사람들과 웃고 떠들거나, 손님에게 기대되는 너그러운 기분으로 그들의 감정이나 계획에 장단을 맞출 기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클레르발에게 혼자 스코틀랜드를 여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너는," 내가 말했다. "즐겁게 지내.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만나자. 한두 달쯤 떠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부탁이니 내가 어디로 가든 상관하지 말아 줘. 잠시만 나를 평화와 고독 속에 내버려 둬. 돌아올 때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네 기질에 더 잘 어울리는 모습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

헨리는 나를 말리려 했지만, 내가 이 계획을 굳힌 것을 보고 더는 말리지 않았다. 그는 편지를 자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는," 그가 말했다. "알지도 못하는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과 있느니 차라리 너의 외로운 여행에 함께하고 싶어. 그러니 친구야, 어서 돌아와. 그래야 내가 다시 조금이나마 내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해질 수 있어. 네가 없으면 그럴 수가 없거든."

벗과 헤어진 뒤 나는 스코틀랜드의 어느 외진 곳을 찾아가 홀로 일을 마치기로 했다. 괴물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일을

마치면 자기 짝을 받으려고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리라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는 북부 고지를 가로질러, 오크니제도에서도 가장 외딴 섬 하나를 일할 곳으로 정했다. 그런 일에 걸맞은 곳이었다. 바위나 다름없는 섬이었고, 높은 벼랑에는 쉴 새 없이 파도가 부딪쳤다. 땅은 메말라 몇 마리 안 되는 비참한 소들이 뜯을 풀과 섬사람들이 먹을 귀리도 겨우 내줄 뿐이었다. 섬사람이라고는 다섯 사람뿐이었는데, 앙상하게 뼈만 남은 팔다리가 그들의 비참한 먹을거리를 말해 주었다. 채소와 빵은, 그런 사치를 누릴 때면 말이지만, 그리고 마실 물까지도 5마일쯤 떨어진 본토에서 구해 와야 했다.

온 섬에 비참한 오두막이 세 채뿐이었는데, 내가 닿았을 때 그 가운데 한 채가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집을 빌렸다. 방은 두 칸뿐이었고, 둘 다 더없이 비참한 가난의 누추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이엉은 내려앉았고 벽은 회칠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문은 경첩에서 떨어져 있었다. 나는 집을 고치게 하고 세간을 몇 가지 사들여 들어앉았다. 오두막 사람들의 모든 감각이 궁핍과 누추한 가난에 마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일은 틀림없이 얼마간 놀라움을 샀을 것이다. 그러나 형편이 그러했으므로, 나는 아무의 눈길도 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시달리지 않으며 살았고, 내가 건넨 얼마 안 되는 먹을거리와 옷가지에도 고맙다는 말을 거의 듣지 못했다. 고통은 사람의 가장 거친 감각마저 그토록 무디게 만든다.

이 은거지에서 나는 아침에는 일에 몸을 바쳤다. 그러나 저녁이면, 날씨가 허락하는 한, 돌투성이 바닷가를 거닐며 발치에서 울부짖고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었다. 단조로우면서도 끊임없이 바뀌는 광경이었다. 나는 스위스를 생각했다. 스위스는 이 황량하고 섬뜩한 풍경과는 아주 달랐다. 그곳의 언덕은 포도덩굴로 덮여 있었고,

들판에는 오두막들이 빽빽이 흩어져 있었다. 아름다운 호수들은 푸르고 부드러운 하늘을 비추었고, 바람에 물결이 일어도 그 소란은 거대한 바다의 포효에 견주면 활발한 어린아이의 장난에 지나지 않았다.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하루를 나누어 썼다. 그러나 일이 진척될수록 그 일은 날마다 더 끔찍하고 넌더리 나는 것이 되었다. 어떤 때는 며칠씩 실험실에 들어갈 마음을 다잡지 못했고, 또 어떤 때는 일을 마치려고 밤낮없이 매달렸다. 내가 하던 것은 참으로 더러운 작업이었다. 첫 번째 실험 때는 일종의 열광적인 광기가 내 눈을 가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보지 못했다. 내 마음은 오로지 일을 완성하는 데에만 쏠려 있었고, 내 눈은 내 작업의 끔찍함 앞에서 감겨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냉정한 정신으로 일에 임했고, 내 손이 한 일을 보며 속이 메스꺼워질 때가 많았다.

이런 처지에서, 더없이 혐오스러운 일에 매달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한순간도 내 주의를 돌려 줄 것이 없는 고독 속에 잠겨 있다 보니, 나는 기분이 들쭉날쭉해졌고 안절부절못하며 신경이 곤두섰다. 나는 매 순간 박해자와 마주칠까 두려웠다. 때로는 그토록 보기 두려운 것과 눈이 마주칠까 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만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다. 혼자 있을 때 그가 자기 짝을 내놓으라고 찾아올까 봐, 같은 인간들의 눈길이 닿는 곳을 벗어나 돌아다니기도 두려웠다.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일을 계속했고, 일은 이미 꽤 진척되어 있었다. 나는 떨리면서도 간절한 희망을 품고 그 완성을 내다보았다. 감히 스스로 캐물을 엄두도 내지 못한 그 희망에는 어렴풋한 불길한 예감이 뒤섞여 있어서, 가슴속이 메슥거렸다.

---

1. 찰스 1세는 잉글랜드 내전(1642~1651) 때 옥스퍼드를 본거지로 삼았다. 포클랜드와 고링은 왕당파 사람들이다.

2. 찰스 1세의 선박세에 맞선 의회파 지도자 존 햄던(1594~1643). 1643년 싸움터에서 입은 상처로 죽었다.

제20장

어느 날 저녁 나는 실험실에 앉아 있었다. 해는 이미 졌고, 달이 막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었다. 일을 하기에는 빛이 모자라 나는 손을 놓은 채, 오늘 밤은 이만 일을 그만둘지 아니면 쉬지 않고 매달려 서둘러 끝을 볼지 생각하며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앉아 있는 동안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따져 보게 되었다. 세 해 전에도 나는 똑같은 일에 매달렸고, 그 결과 유례없이 잔혹한 짓으로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영원히 더없이 쓰라린 회한으로 채운 악귀를 만들어 냈다. 이제 나는 또 하나의 존재를 빚으려 하고 있었는데, 그 성품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여자는 제 짝보다 만 배는 더 악독해져서 살인과 비참을 그 자체로 즐기게 될지도 몰랐다. 그는 사람 사는 곳을 떠나 황야에 숨겠다고 맹세했지만 그 여자는 맹세하지 않았다. 그리고 십중팔구 생각하고 따질 줄 아는 동물이 될 그 여자는, 자기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맺어진 약속을 따르기를 거부할지도 몰랐다. 둘이 서로 미워할 수도 있었다. 이미 살아 있는 피조물은 제 흉한 생김새를 혐오했는데, 그 흉함이 여자의 모습을 하고 눈앞에 나타나면 더 큰 혐오를 품지 않겠는가? 여자 또한 역겨워하며 그에게서 고개를 돌려 인간의 더 뛰어난 아름다움에 끌릴지도 몰랐다. 그 여자가 떠나 버리면 그는 다시 혼자가 되어, 자기와 같은 종에게마저 버림받았다는 새로운 모욕에 격분할 것이었다.

설령 둘이 유럽을 떠나 신대륙의 황야에 산다 해도, 악령이 그토록 목말라하던 공감이 맨 먼저 낳을 결과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일 것이고, 그러면 악마의 종족이 땅 위에 퍼져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태롭고 공포로 가득한 처지로 몰아넣을지도 몰랐다. 나 하나 좋자고 대대로 이어질 끝없는 세대에 이 저주를 지울 권리가 내게 있단 말인가? 전에는 내가 만든 존재의 궤변에 마음이 움직였고 그의 악귀 같은 위협에 넋을 잃었지만, 이제 처음으로 내 약속이 얼마나 사악한지 불현듯 깨달았다. 다가올 시대가 나를 역병이라 저주하리라고, 어쩌면 온 인류의 존재를 값으로 치르고서라도 제 평화를 사기를 서슴지 않은 이기적인 인간이라 저주하리라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졌다.

나는 몸을 떨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때 문득 고개를 들었다. 달빛 속에 악령이 창가에 서 있었다. 자기가 맡긴 일을 하며 앉아 있는 나를 바라보는 그의 입술이 섬뜩한 웃음으로 일그러졌다. 그렇다, 그는 내 여행길을 줄곧 따라왔다. 숲속을 서성이고, 동굴에 숨고, 넓고 황량한 들판에 몸을 피하며 따라왔다. 그리고 이제 일이 얼마나 되었는지 살피고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러 왔다.

그를 바라보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는 악의와 배신의 기색이 떠올랐다. 그와 같은 것을 또 하나 만들겠다던 약속을 떠올리자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나는 격정에 떨며 만들고 있던 것을 갈가리 찢어 버렸다. 흉물은 앞으로 존재할 그 피조물에게 자기 행복을 걸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부수는 것을 보고는 악마 같은 절망과 복수의 울부짖음을 내지르며 물러갔다.

나는 방을 나와 문을 잠그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엄숙히 맹세한 뒤, 떨리는 걸음으로 내가 지내는 방을 찾아갔다. 나는 혼자였다. 우울을 걷어 주고, 더없이 끔찍한 몽상이 주는 메스꺼운 압박에서 나를 풀어 줄 사람은 곁에 아무도 없었다.

몇 시간이 흘렀고, 나는 창가에 머문 채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잦아들어 바다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온 자연이 고요한 달의 눈길 아래 쉬고 있었다. 고깃배 몇 척만이 물 위에 점점이 떠 있었고, 이따금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어부들이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를 물 건너로 실어 왔다. 나는 그 고요를 느꼈지만 그 고요가 얼마나 깊은지는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가 가까이에서 노 젓는 소리가 내 귀를 붙잡았고, 누군가 내 집 바로 가까이에서 뭍으로 올라왔다.

몇 분 뒤, 누군가 살며시 문을 열려는 듯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었다. 누구인지 예감이 들어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오두막에 사는 농부 하나를 깨우고 싶었지만, 무서운 꿈속에서 자주 느끼는 그 무력감, 닥쳐오는 위험에서 달아나려 해도 헛되이 애만 쓰게 되는 그 무력감에 사로잡혀, 나는 그 자리에 뿌리박힌 듯 꼼짝할 수 없었다.

곧 복도를 따라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내가 두려워하던 흉물이 나타났다. 그는 문을 닫고 내게 다가와 억누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시작한 일을 당신 손으로 부숴구려. 무슨 속셈이오? 감히 약속을 깨겠다는 것이오? 나는 고생과 비참을 견뎠소. 나는 당신과 함께 스위스를 떠났소. 라인강 기슭을 따라, 버드나무 우거진 섬들 사이로, 언덕 꼭대기를 넘어 기다시피 따라왔소. 잉글랜드의 황야에서, 스코틀랜드의 황무지에서 여러 달을 지냈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피로와 추위와 굶주림을 견뎠소. 그런데 감히 내 희망을 부수겠다는 것이오?"

"꺼져라! 그래, 나는 약속을 깬다. 생김새로나 사악함으로나 너와 똑같은 것을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

"노예야, 전에는 내가 너와 이치를 따졌다. 그러나 너는 내가 몸을 낮춰 줄 값어치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 내게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네가 비참하다고 믿겠지만, 나는 너를 햇빛조차 증오스러울 만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 너는 나의 창조자다. 그러나 나는 너의 주인이다. 복종해라!"

"내가 망설이던 때는 지났고, 네 힘이 끝날 때가 왔다. 네 위협으로는 나를 움직여 사악한 짓을 하게 만들 수 없다. 오히려 네 위협 때문에, 악덕을 함께할 짝을 너에게 만들어 주지 않겠다는 결심이 굳어질 뿐이다. 내가 냉정한 정신으로, 죽음과 비참을 즐기는 악령을 이 땅에 풀어놓겠느냐? 꺼져라! 내 결심은 확고하다. 네 말은 내 분노를 돋울 뿐이다."

괴물은 내 얼굴에서 내 결심을 읽고, 어찌할 수 없는 분노에 이를 갈았다. "사람마다 가슴에 품을 아내를 얻고 짐승마다 제 짝이 있는데, 나만 홀로 있어야 한단 말이냐?" 그가 외쳤다. "나에게도 애정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애정은 혐오와 멸시로 되돌아왔다. 인간아! 미워할 테면 미워해라. 그러나 조심해라! 너의 시간은 두려움과 비참 속에 흘러갈 것이고, 머지않아 벼락이 떨어져 너의 행복을 영원히 앗아 갈 것이다. 내가 비참의 밑바닥에서 기는 동안 너는 행복하겠다는 것이냐? 너는 내 다른 정념들은 꺾을 수 있다. 그러나 복수가 남아 있다. 이제부터 빛보다도 먹을 것보다도 소중한 복수가!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전에, 나의 폭군이자 나를 괴롭히는 자인 너는 너의 비참을 내려다보는 해를 저주하게 될 것이다. 조심해라. 나는 두려움을 모르고, 그래서 강하다. 나는 뱀처럼 교활하게 지켜보다가 그 독으로 물 것이다. 인간아, 너는 네가 입힌 상처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 악마야, 그만둬라. 그런 악의에 찬 소리로 공기를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에게 내 결심을 밝혔고, 말 따위에 굽힐 겁쟁이가 아니다. 썩

물러가라. 나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좋다. 가겠다. 그러나 기억해라. 네 결혼식 날 밤에 내가 함께 있겠다."

나는 앞으로 달려들며 외쳤다. "이 악당아! 내 사형 집행장에 서명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안전한지 확인해 두어라."

나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나를 피해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다. 잠시 뒤 나는 그가 배에 오른 것을 보았다. 배는 화살처럼 빠르게 물을 가르며 나아가더니 곧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다시 모든 것이 고요해졌지만, 그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나는 내 평화를 죽인 살인자를 뒤쫓아 바다에 처넣고 싶은 분노로 타올랐다. 상상이 나를 괴롭히고 찌르는 천 가지 모습을 불러내는 동안, 나는 불안에 쫓겨 방 안을 바삐 서성였다. 왜 그를 뒤쫓아 목숨을 건 싸움으로 맞붙지 않았던가? 그러나 나는 그를 놓아 보냈고 그는 본토 쪽으로 길을 잡았기에, 그 끝없는 복수에 바쳐질 다음 희생자가 누구일지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졌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의 말을 떠올렸다. "*네 결혼식 날 밤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렇다면 그때가 내 운명이 이루어지도록 정해진 때였다. 그 시각에 나는 죽을 것이고, 그의 악의를 채워 주는 동시에 꺼뜨릴 것이었다. 그런 앞날을 생각해도 두렵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랑하는 엘리자베스를, 약혼자를 그토록 잔인하게 빼앗겼음을 알게 될 때 엘리자베스가 흘릴 눈물과 끝없는 슬픔을 떠올리자, 여러 달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내 눈에서 쏟아졌다. 그리고 나는 처절하게 싸워 보지도 않고 적 앞에 쓰러지지는 않으리라 결심했다.

밤이 지나고 해가 바다에서 떠올랐다. 분노의 격렬함이 절망의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것을 평온이라 부를 수 있다면, 내 감정은 한결 평온해졌다. 나는 간밤에 다툼이 벌어진 그 소름 끼치는 곳인 집을 나와 바닷가를 거닐었다. 나는 그 바다를 나와 같은 인간들 사이를 가르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여기다시피 했고, 아니,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슬며시 들기까지 했다. 고달프기야 하겠지만 갑작스러운 불행의 충격에 시달리지 않고 그 메마른 바위섬에서 평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랐다. 돌아간다면 나는 제물이 되거나, 내가 손수 만든 악령의 손아귀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 가는 것을 보게 될 터였다.

나는 사랑하는 모든 것과 떨어져 그 이별에 비참해하는, 쉴 곳 없는 유령처럼 섬을 헤맸다. 한낮이 되어 해가 더 높이 떠오르자 나는 풀밭에 누웠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난밤을 꼬박 새운 데다 신경은 곤두서 있었고, 눈은 뜬눈으로 지새운 밤과 비참함에 벌겋게 달아 있었다. 그렇게 빠져든 잠은 나를 새롭게 해 주었고, 깨어나자 나는 다시 나와 같은 인간들의 무리에 속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지난 일을 한결 침착하게 돌이켜 보기 시작했다. 그래도 악귀의 말은 여전히 조종처럼 귓가에 울렸고, 꿈만 같으면서도 현실처럼 또렷하고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해가 한참 기울도록 나는 여전히 바닷가에 앉아, 걸신들린 듯 사나워진 허기를 귀리 과자로 달래고 있었다. 그때 고깃배 한 척이 바로 가까이에 닿더니, 사내 하나가 내게 꾸러미를 가져다주었다. 제네바에서 온 편지들과, 와서 함께하자고 간청하는 클레르발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클레르발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헛되이 시간만 보내고 있으며, 런던에서 사귄 벗들이 인도 사업을 두고 시작한 교섭을 마무리하려면 돌아와야 한다고 편지로 알려 왔다고 했다. 더는 떠날 날을 미룰 수 없지만, 런던으로 가는 여행에 이어 지금 짐작하는 것보다 더 일찍 먼 항해를 떠나게 될지도 모르니 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자기와 함께 보내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니 외로운 섬을 떠나 퍼스에서 만나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자고 애원했다. 이 편지는 어느 만큼 나를 삶으로 불러 돌려놓았고, 나는 이틀 뒤에 섬을 떠나기로 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일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다. 나는 화학 기구들을 꾸려야 했고, 그러자면 그 혐오스러운 작업이 벌어졌던 방에 들어가 보기만 해도 속이 메스꺼운 도구들을 손으로 만져야 했다. 이튿날 새벽, 나는 용기를 넉넉히 끌어모아 실험실 문의 자물쇠를 열었다. 내가 부숴 버린, 반쯤 만들다 만 피조물의 잔해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산 사람의 살을 짓이겨 놓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잠시 멈췄다가 방에 들어섰다. 떨리는 손으로 기구들을 방 밖으로 나르다가, 내 작업의 잔해를 그대로 남겨 두었다가는 농부들의 공포와 의심을 살 테니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돌멩이와 함께 바구니에 잔뜩 담아 치워 두고 바로 그날 밤 바다에 던지기로 했으며, 그동안은 바닷가에 앉아 화학 기구들을 닦고 정리했다.

악령이 나타난 그날 밤 이후 내 감정에 일어난 변화보다 더 완전한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전에는 무슨 결과가 따르든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 음울한 절망 속에서 내 약속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제는 눈앞을 가리던 막이 걷혀 처음으로 똑똑히 보게 된 것 같았다.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한순간도 들지 않았다. 내가 들은 위협이 생각을 짓눌렀지만,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처음 만든 악귀와 같은 것을 또 하나 만드는 것은 더없이 비열하고 잔악한 이기심의 소행이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고, 다른 결론으로 이끌 수 있는 생각은 모두 마음에서 몰아냈다.

새벽 두 시에서 세 시 사이에 달이 떠올랐다. 나는 바구니를 작은 거룻배에 싣고 물가에서 4마일쯤 바다로 나아갔다. 사방이 더없이 쓸쓸했다. 배 몇 척이 뭍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나는 그 배들에게서 멀어졌다. 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려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들어, 같은 인간들과 마주칠까 봐 몸서리치며 조마조마하게 피했다. 그때까지 맑던

달이 한순간 갑자기 짙은 구름에 덮였고, 나는 그 어둠을 틈타 바구니를 바다에 던졌다. 바구니가 가라앉으며 꾸르륵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하늘은 구름에 덮였지만 공기는 맑았고, 마침 일기 시작한 북동풍에 쌀쌀하기는 했어도 그 바람이 나를 상쾌하게 하고 기분 좋은 느낌으로 채워 주어, 나는 물 위에 좀 더 머물기로 했다. 나는 키를 똑바로 고정해 두고 배 바닥에 몸을 쭉 뻗고 누웠다. 구름이 달을 가려 모든 것이 어두웠고, 들리는 것이라고는 용골이 물결을 가르며 내는 배의 소리뿐이었다. 그 웅얼거림에 마음이 누그러져, 나는 곧 깊이 잠들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깨어나 보니 해가 이미 꽤 높이 떠 있었다. 바람이 거셌고, 파도가 쉴 새 없이 내 작은 거룻배를 위협했다. 바람은 북동풍이었고, 내가 떠나온 해안에서 나를 멀리 밀어냈을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뱃길을 바꾸려 애썼지만, 한 번만 더 시도했다가는 배가 순식간에 물로 가득 차리라는 것을 곧 알았다. 이런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람에 떠밀려 가는 것뿐이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얼마간 공포를 느꼈다. 나침반도 없었고, 세상의 이쪽 바다 언저리의 지리를 너무도 몰라서 해가 떠 있어도 방향을 잡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드넓은 대서양으로 떠밀려 가 굶주림의 온갖 고통을 맛보거나, 둘레에서 울부짖으며 나를 때려 대는 끝없는 물속에 삼켜질지도 몰랐다. 이미 여러 시간을 바다에 나와 있었던 터라, 앞으로 닥칠 다른 고통들의 전주곡이라 할 타는 듯한 갈증에 시달렸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바람에 쫓겨 날아가고 다른 구름이 곧 그 자리를 메웠고, 바다를 내려다보니 그곳이 내 무덤이 될 터였다. "악귀야," 내가 외쳤다. "네 일은 벌써 이루어졌구나!" 나는 엘리자베스와 아버지와 클레르발을 생각했다. 모두 뒤에 남겨 두고 왔으니, 괴물이 그들에게 피에 굶주린 무자비한 정념을 마음껏 채울지도 몰랐다. 이 생각에 나는

몽상 속으로 빠져들었는데, 그 몽상이 어찌나 절망적이고 무서웠던지, 이 모든 장면이 내 앞에서 영영 막을 내리려는 지금도 그것을 떠올리면 몸서리가 쳐진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해가 지평선 쪽으로 기울면서 바람은 차츰 잦아들어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되었고, 부서지는 큰 파도도 사라졌다. 그 대신 묵직한 너울이 일었다. 나는 멀미가 나서 키를 붙잡고 있기도 힘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남쪽으로 높은 땅이 길게 뻗어 있는 것이 보였다.

피로와, 몇 시간 동안 견딘 무서운 조바심으로 기진맥진해 있던 터라, 살았다는 이 갑작스러운 확신은 따뜻한 기쁨의 홍수처럼 가슴으로 밀려들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변하기 쉬운가. 비참이 넘치는 가운데서도 삶에 매달리는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기이한가! 나는 옷 일부로 돛을 하나 더 만들어 달고, 육지를 향해 간절히 뱃머리를 돌렸다. 육지는 거칠고 바위투성이로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이 땅을 일군 흔적이 쉽게 눈에 띄었다. 해안 가까이에 배들이 보였고, 나는 별안간 문명 세계의 사람들 곁으로 되돌아온 것만 같았다. 나는 육지의 굽이를 조심스레 따라가다가, 마침내 작은 곶 뒤로 솟아오르는 첨탑 하나를 보고 반가워 소리쳤다.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으므로, 먹을 것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인 그 마을로 곧장 배를 몰기로 했는데, 다행히 돈은 지니고 있었다. 곶을 돌자 작고 깔끔한 마을과 좋은 항구가 보였고, 나는 뜻밖에 살아났다는 기쁨에 가슴이 뛰는 채로 항구에 들어섰다.

내가 배를 매고 돛을 정리하는 동안 사람들 여럿이 그곳으로 몰려왔다. 그들은 내 모습에 몹시 놀란 듯했지만, 도와주기는커녕 저희끼리 수군거리며 손짓을 주고받았는데, 다른 때였다면 나는 그런 몸짓에 조금은 불안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그저 그들이

영어로 말한다는 것만 알아차렸고, 그래서 영어로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여러분," 내가 말했다. "미안하지만 이 마을 이름이 무엇이고 여기가 어디인지 좀 알려 주시겠소?"

"곧 알게 될 거요." 쉰 목소리의 사내가 대답했다. "어쩌면 당신 입맛에 그리 맞지 않는 곳에 온 건지도 모르지. 하지만 당신이 묵을 데를 당신한테 물어보고 정하지는 않을 거요. 내 장담하지."

낯선 사람에게서 그런 무례한 대답을 듣고 나는 몹시 놀랐고, 그의 동무들이 찌푸린 성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당황하기도 했다. "왜 그렇게 거칠게 대답하시오?" 내가 되물었다. "낯선 사람을 이렇게 박대하는 것이 영국 사람의 풍습은 아닐 텐데."

"영국 사람 풍습이 어떤지는 모르겠소." 사내가 말했다. "하지만 악당을 미워하는 건 아일랜드 사람 풍습이오."

이 이상한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사람들이 빠르게 불어나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그것이 나를 짜증스럽게 하면서도 어느 만큼은 불안하게 했다. 나는 여관으로 가는 길을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걸음을 옮기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나를 따라와 에워쌌는데, 그때 험상궂게 생긴 사내 하나가 다가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자, 나리, 커윈 씨 댁으로 따라가서 당신이 누군지 해명해야겠소."

"커윈 씨가 누구요? 내가 왜 해명을 해야 하오?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오?"

"그렇소, 나리. 정직한 사람들한테야 넉넉히 자유로운 나라요. 커윈 씨는 치안판사요. 당신은 어젯밤 이곳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신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해명해야 하오."

그 대답에 나는 깜짝 놀랐지만 곧 정신을 가다듬었다. 나는 죄가 없었고, 그것은 쉽게 증명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잠자코 길잡이를

따라갔고, 마을에서 가장 좋은 집 가운데 하나로 끌려갔다. 피로와 허기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몸이 약해진 기색이 겁을 먹었다거나 죄를 알고 있다는 뜻으로 읽히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 끌어모으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몇 분 뒤에 나를 덮쳐, 치욕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공포와 절망 속에 모조리 꺼뜨려 버릴 재앙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그때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야겠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그 끔찍한 일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되살려 내려면 내 모든 용기를 짜내야 하기 때문이다.

제21장

나는 곧 치안판사 앞으로 끌려갔다. 차분하고 온화한 몸가짐을 지닌 선량한 노인이었다. 그러나 노인은 다소 엄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더니, 나를 데려온 사람들 쪽으로 몸을 돌려 이번 일에 누가 증인으로 나섰느냐고 물었다.

사내 대여섯 명이 앞으로 나섰다. 치안판사가 그 가운데 하나를 고르자 그 사내가 진술했다. 간밤에 아들과 처남 대니얼 뉴전트와 함께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열 시쯤 북쪽에서 거센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항구로 배를 돌렸다고 했다. 달이 아직 뜨지 않아 몹시 어두운 밤이었다. 그들은 항구에 배를 대지 않고, 늘 하던 대로 2마일쯤 아래쪽의 작은 후미에 배를 댔다. 어부는 고기잡이 도구 일부를 메고 앞장서 걸었고, 동무들은 얼마쯤 떨어져 뒤따랐다. 모래밭을 따라 걸어가다가 그는 무언가에 발이 걸려 땅바닥에 길게 엎어졌다. 동무들이 일으켜 주려고 다가왔고, 등불에 비춰 보니 그가 넘어진 곳에는 누가 보아도 죽은 것이 분명한 한 남자의 몸이 놓여 있었다. 처음에 그들은 물에 빠져 죽은 누군가의 시체가 파도에 밀려 뭍으로 올라왔으려니 짐작했다. 그러나 살펴보니 옷은 젖어 있지 않았고, 몸도 그때까지 식지 않은 채였다. 그들은 곧바로 시체를 그 근처에 사는 노파의 오두막으로 옮겨 숨을 되살려 보려 했으나 헛일이었다. 스물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잘생긴 젊은이였다. 목에 남은 검은 손가락 자국 말고는 폭행의 흔적이 전혀 없었으니, 아무래도 목이 졸려 죽은 것 같았다.

진술의 앞부분은 내 관심을 조금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손가락 자국 이야기가 나오자 나는 동생이 살해된 일을 떠올리고 몹시 동요했는데, 팔다리가 떨리고 눈앞이 안개가 낀 듯 흐려져서, 나는 의자에 기대어 겨우 몸을 가누어야 했다. 치안판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지켜보았고, 당연히 내 태도에서 좋지 않은 징조를 읽어 냈다.

아들도 아버지의 이야기가 맞다고 했다. 그런데 불려 나온 대니얼 뉴전트는, 동무가 넘어지기 바로 전에 바닷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사람만 탄 배 한 척을 보았으며, 별 몇 개의 빛으로 가늠할 수 있는 한 그것은 내가 방금 타고 들어온 바로 그 배였다고 맹세하며 단언했다.

한 여자는 자기가 바닷가 가까이에 사는데,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기 한 시간쯤 전에 오두막 문간에 서서 어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한 사람만 탄 배 한 척이 나중에 시체가 발견된 바로 그 언저리의 물가를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여자는 어부들이 시체를 자기 집으로 들고 왔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시체는 식어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들은 시체를 침대에 눕히고 몸을 문질렀으며, 대니얼은 약제사를 부르러 읍내로 달려갔지만 숨은 이미 완전히 끊어진 뒤였다.

다른 사내 몇 사람이 내가 뭍에 오른 일을 두고 신문을 받았다. 그들은 밤사이 거센 북풍이 불었으니 내가 여러 시간 동안 바다 위를 이리저리 떠돌다가 떠났던 곳과 거의 같은 자리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데 입을 모았다. 게다가 그들은 내가 시체를 다른 곳에서 싣고 온 것으로 보이며, 이 해안을 잘 모르는 듯하니 시체를 내려놓은 곳에서 ○○○ 읍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 채 이 항구로 들어왔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커윈 씨는 이 증언을 듣고, 시체를 보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장례를 기다리며 시체를 안치해 둔 방으로 나를 데려가라고 했다. 아마 살해된 모습을 이야기할 때 내가 보인 극심한 동요가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치안판사와 다른 몇 사람에게 이끌려 여관으로 갔다. 일이 많기도 했던 그날 밤에 겹친 기이한 우연들에 나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체가 발견된 무렵 나는 내가 머물던 섬에서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시체가 놓인 방으로 들어가 관 앞으로 이끌려 갔다. 그것을 보았을 때의 내 느낌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도 공포로 목이 타들어 가고, 그 무서운 순간을 떠올리면 몸서리와 고통을 피할 수 없다. 헨리 클레르발의 생명 없는 몸이 내 앞에 길게 누워 있는 것을 본 순간, 신문도, 치안판사와 증인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도 꿈처럼 내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다. 나는 숨을 헐떡였고, 시체 위에 몸을 던지며 외쳤다. "사랑하는 헨리, 사람을 죽이는 내 음모가 너의 목숨마저 앗아 갔단 말이냐? 둘은 이미 내가 죽였다. 다른 희생자들도 제 운명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너는, 클레르발, 나의 벗, 나의 은인인 너는…"

사람의 몸으로는 내가 겪는 고통을 더는 견딜 수 없었고, 나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방 밖으로 실려 나갔다.

그 뒤로 열병이 찾아왔다. 나는 두 달 동안 죽음의 문턱에 누워 있었다. 나중에 들으니 그동안 내가 쏟아 낸 헛소리가 무시무시했다고 한다. 나는 스스로를 윌리엄과 저스틴과 클레르발을 죽인 살인자라고 불렀다. 어떤 때는 나를 괴롭히는 악귀를 없애도록 도와 달라고 곁에서 시중드는 사람들에게 애원했고, 또 어떤 때는 괴물의 손가락이 벌써 내 목을 움켜쥐는 것을 느끼며 고통과 공포에 겨워 크게 비명을 질렀다. 다행히 나는 모국어로 말했으므로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커윈 씨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내 몸짓과 처절한 울부짖음만으로도 다른 증인들은 충분히 겁에 질렸다.

나는 왜 죽지 않았던가? 일찍이 어떤 인간보다도 비참했던 내가, 왜 망각과 안식 속으로 가라앉지 못했던가? 죽음은 피어나는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애지중지하는 부모의 하나뿐인 희망을 숱하게 앗아 간다. 하루는 건강과 희망으로 꽃피어 있던 신부와 젊은 연인이 이튿날에는 벌레의 먹이가 되어 무덤 속에서 썩어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기에, 형벌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듯 끊임없이 고문을 새로 시작하던 그 숱한 충격을 이렇게 견뎌 낼 수 있었단 말인가?

그러나 나는 살아야 할 운명이었다. 두 달 뒤, 꿈에서 깨어나듯 정신을 차려 보니 나는 감옥 안의 초라한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둘레에는 간수와 옥지기와 빗장, 그 밖에 지하 감옥의 온갖 비참한 도구가 늘어서 있었다. 내가 그렇게 깨어나 정신이 든 것은 아침이었다고 기억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것은 잊어버렸고 그저 어떤 큰 불행이 갑자기 나를 덮쳤다는 느낌만 들었는데, 둘레를 둘러보고 창살 박힌 창문과 내가 있는 방의 지저분한 꼴을 보자 모든 것이 번개처럼 기억에 되살아났고, 나는 쓰라린 신음을 토했다.

그 소리에 내 곁 의자에서 자고 있던 노파가 깨어났다. 삯을 받고 나를 돌보는 간병인으로 옥지기 한 사람의 아내였는데, 그 얼굴에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온갖 나쁜 기질이 드러나 있었다. 얼굴의 주름은 비참한 광경을 보아도 아무 동정도 느끼지 않는 데 길든 사람들의 얼굴처럼 딱딱하고 거칠었다. 말투에는 무관심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노파는 영어로 내게 말을 걸었는데, 그 목소리는 내가 앓는 동안 들은 적이 있는 목소리 같았다.

"이제 좀 나아졌소, 나리?" 노파가 말했다.

나는 같은 말로,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 것 같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내가 꿈을 꾼 것이 아니라면, 아직 살아서 이 비참과 공포를 느껴야 하는 것이 원통하오."

"그 일이라면," 노파가 대답했다. "당신이 죽인 그 신사 이야기라면, 차라리 죽는 편이 당신한테 나았을 거요. 아무래도 일이 험하게 돌아갈 것 같으니 말이오! 하긴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나는 당신을 간호해서 낫게 하라고 보내진 사람이오. 나는 떳떳한 양심으로 내 할 일을 하오. 누구나 그렇게만 하면 좋으련만."

죽음의 바로 그 문턱에서 겨우 살아난 사람에게 그토록 매정한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역겨움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나는 기운이 없었고, 지나간 모든 일을 곰곰이 되짚어 볼 힘도 없었다. 내 삶 전체가 한바탕 꿈처럼 여겨졌다. 그것이 정말로 다 사실인지 이따금 의심스러웠는데, 그 일들이 한 번도 현실의 무게를 띠고 내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눈앞을 떠돌던 영상들이 또렷해지자 나는 다시 열이 올랐다. 어둠이 나를 에워싸고 짓눌렀다. 사랑이 담긴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달래 줄 사람은 곁에 아무도 없었고, 나를 붙들어 줄 정다운 손도 없었다. 의사가 와서 약을 지어 주었고 노파가 그 약을 달여 주었지만, 의사에게서는 철저한 무관심이 보였고, 노파의 얼굴에는 잔인한 기색이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삯을 받을 사형 집행인 말고 누가 살인자의 운명에 마음을 쓰겠는가?

이것이 처음에 든 생각이었다. 그러나 나는 곧 커윈 씨가 내게 더없는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가장 좋은 방을 나를 위해 마련하게 했고(가장 좋다는 방도 참으로 비참했지만), 의사와 간병인을 구해 준 것도 그였다. 그가 나를 보러 오는 일이 드물기는 했다. 모든 사람의 고통을 덜어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살인자가

몸부림치며 비참하게 헛소리를 늘어놓는 자리에 함께 있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따금 와서 내가 내버려져 있지 않은지 살폈지만, 머무는 시간은 짧았고 찾아오는 사이는 길었다.

어느 날, 차츰 회복해 가던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은 반쯤 뜬 채였고, 뺨은 죽은 사람처럼 핏기 없이 거무스름했다. 나는 우울과 비참에 짓눌려, 불행만이 가득한 이 세상에 남아 있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죽음을 찾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다. 한때는 차라리 죄를 자백하고 법의 벌을 받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가엾은 저스틴보다 내가 덜 결백했으니까.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내 방 문이 열리고 커윈 씨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동정과 연민이 어려 있었다. 그는 의자를 내 의자 가까이 끌어다 놓고 프랑스어로 내게 말을 걸었다.

"이곳이 당신에게 무척 괴로울 것 같아 걱정이오.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해 줄 일이 있겠소?"

"고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넓은 세상 어디에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위안은 없습니다."

"당신처럼 그토록 기이한 불행에 짓눌린 사람에게 낯선 사람의 동정이 그리 위안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은 나도 아오. 하지만 당신은 머지않아 이 음울한 곳을 떠나게 되기를 바라오. 당신에게 걸린 죄를 벗길 증거는 틀림없이 쉽게 나올 테니 말이오."

"그것은 제게 가장 하찮은 걱정입니다. 저는 기이한 일들이 잇따르는 바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껏 박해와 고문을 받아 왔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죽음이 제게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요즘 일어난 기이한 일들보다 더 불행하고 괴로운 일은 정말 없을 것이오. 당신은 무슨 놀라운 우연으로 손님 대접이 좋기로 이름난 이 바닷가에 떠밀려 왔다가, 곧바로 붙잡혀 살인 혐의를 받았소. 그리고

당신 눈에 맨 처음 들어온 광경은 도무지 까닭을 알 수 없이 살해되어, 마치 어떤 악귀가 당신 앞길에 가로놓아 둔 것만 같은 당신 벗의 시체였소."

커윈 씨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지난 고통을 되돌아보며 몹시 동요하면서도 나는 그가 나에 대해 꽤 많은 것을 아는 듯해서 적잖이 놀랐다. 아마 내 얼굴에 놀란 기색이 드러났던 모양이다. 커윈 씨가 서둘러 말했다.

"당신이 쓰러지자마자, 당신 몸에 지니고 있던 서류가 모두 내게 왔소. 나는 당신의 불행과 병을 친척들에게 알릴 실마리를 찾으려고 그 서류를 살펴보았소. 편지가 여러 통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첫머리를 보니 당신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소. 나는 곧바로 제네바에 편지를 썼소. 내 편지가 떠난 지 벌써 두 달 가까이 되었소. 그런데 당신은 아직 아프구려. 지금도 떨고 있소. 어떤 동요도 지금의 당신에게는 해롭소."

"이렇게 애태우며 기다리는 것이 가장 끔찍한 일보다 천 배는 더 괴롭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또 어떤 죽음의 장면이 벌어졌고, 이번에는 누가 살해되어 제가 슬퍼해야 합니까?"

"당신 가족은 모두 무사하오." 커윈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의 벗 한 사람이 당신을 보러 왔소."

어떤 생각의 사슬을 거쳐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살인자가 내 비참을 비웃고, 클레르발의 죽음으로 나를 조롱하며, 자기의 지옥 같은 욕망에 따르라고 나를 새로이 부추기러 왔다는 생각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꿰뚫었다. 나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괴로움에 겨워 외쳤다.

"아! 그자를 데려가십시오! 저는 그자를 볼 수 없습니다. 제발, 그자를 들이지 마십시오!"

커윈 씨는 난처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외침을 내 죄의 증거로 여길 수밖에 없었고, 꽤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이, 나는 아버지가 왔다면 그렇게 격하게 싫어하기는커녕 반가워할 줄 알았소."

"아버지라니요!" 나는 외쳤다. 얼굴의 모든 선과 근육이 고뇌에서 기쁨으로 풀어졌다. "정말 아버지가 오셨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디 계십니까? 왜 서둘러 제게 오지 않으십니까?"

내 태도가 바뀌자 치안판사는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아까의 내 외침이 잠깐 섬망이 도진 탓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는 곧 처음의 선량한 태도를 되찾았다. 그는 일어나 간병인과 함께 방을 나갔고, 잠시 뒤 아버지가 들어왔다.

이때 아버지가 와 준 것보다 더 큰 기쁨은 내게 없었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며 외쳤다.

"그러면 아버지는 무사하십니까? 엘리자베스도, 어니스트도 무사합니까?"

아버지는 모두 잘 있다고 거듭 일러 나를 진정시켰고, 내 마음이 그토록 끌리는 이야기들을 오래 들려주며 가라앉은 내 기운을 북돋우려 애썼다. 그러나 감옥이 즐거움이 깃들 곳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도 곧 느꼈다. "네가 지내는 곳이 이 무슨 곳이냐, 아들아!" 아버지는 창살 박힌 창문과 방의 비참한 꼴을 서글프게 둘러보며 말했다. "너는 행복을 찾아 여행을 떠났는데, 어떤 숙명이 너를 뒤쫓는 것만 같구나. 그리고 가엾은 클레르발은…"

불행하게 살해된 벗의 이름은 약해진 내가 견디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아아,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대답했다. "더없이 끔찍한 어떤 운명이 제 위에 드리워져 있고, 저는 그 운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틀림없이 헨리의 관 위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누도록 허락받지 못했다. 내 건강이 위태로웠으므로 안정을 지키려면 할 수 있는 온갖 조심을 다 해야 했다. 커윈 씨가 들어와 너무 애를 쓰다가 기운이 다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습은 내게 나를 지켜 주는 착한 천사의 모습과 같았고, 나는 차츰 건강을 되찾았다.

병이 물러가자, 나는 그 무엇으로도 걷어 낼 수 없는 어둡고 시커먼 우울에 빠져들었다. 클레르발의 모습이 끔찍하게 살해된 채로 언제나 내 눈앞에 있었다. 그런 생각에 빠져 내가 동요하는 바람에, 곁의 사람들이 위험하게 병이 도질까 봐 두려워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아, 그들은 왜 이토록 비참하고 혐오스러운 목숨을 지켜 주었던가?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내 운명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었고, 그 운명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곧, 아, 아주 곧, 죽음이 이 고동을 멈추게 하고 나를 짓눌러 흙으로 끌어내리는 엄청난 고뇌의 무게에서 나를 풀어 줄 것이며, 정의의 심판을 집행하고 나면 나 또한 안식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그때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죽고 싶은 마음은 늘 내 생각 속에 있었다. 나는 몇 시간이고 꼼짝도 하지 않고 말도 없이 앉아, 나와 나의 파괴자를 그 폐허 속에 함께 묻어 버릴 어떤 거대한 격변이 일어나기를 바라곤 했다.

순회 재판 철이 다가왔다. 나는 이미 석 달째 감옥에 있었다. 아직 기력이 없었고 언제 병이 도질지 모르는 위험이 끊이지 않았지만, 재판이 열리는 그 주의 중심 도시까지 100마일 가까운 길을 가야 했다. 커윈 씨는 증인을 모으고 변론을 준비하는 온갖 수고를 손수 맡아

주었다. 이 사건은 생사를 가르는 법정에 올라가지 않았으므로, 나는 죄인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치욕은 면했다. 벗의 시체가 발견된 시각에 내가 오크니제도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 대배심이 기소를 기각했고, 나는 그리로 옮겨진 지 2주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다.

아버지는 내가 형사 고발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다시 맑은 공기를 마시고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것을 알고 기뻐 어쩔 줄 몰랐다. 나는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 내게는 지하 감옥의 벽이나 궁전의 벽이나 똑같이 끔찍했다. 삶의 잔에는 영원히 독이 들었다.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에게처럼 내게도 해는 비쳤지만, 내 둘레에는 짙고 무시무시한 어둠뿐이었고, 그 어둠을 뚫는 빛이라고는 나를 노려보는 두 눈의 희미한 빛뿐이었다. 어떤 때 그것은 죽어 가며 힘없이 감기던 헨리의 표정 풍부한 눈이었다. 검은 눈동자는 눈꺼풀에 거의 덮였고, 길고 검은 속눈썹이 그 가장자리를 둘렀다. 어떤 때 그것은 잉골슈타트의 내 방에서 처음 보았던 괴물의 물기 어린 흐린 눈이었다.

아버지는 내 안의 애정을 일깨우려 애썼다. 아버지는 내가 곧 가게 될 제네바 이야기를, 엘리자베스와 어니스트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그 말들은 내게서 깊은 신음만 끌어낼 뿐이었다. 사실 이따금은 행복해지고 싶은 바람이 들어, 서글픈 기쁨에 잠겨 사랑하는 사촌을 떠올리기도 했고, 어린 시절 그토록 정다웠던 푸른 호수와 빠른 론강을 다시 보고 싶어 애가 타는 향수병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그러나 대체로 내 마음은 무감각에 빠져 있어서, 감옥도 자연의 가장 성스러운 풍경만큼이나 반가운 거처였다. 이런 상태가 끊기는 것은 고뇌와 절망의 발작이 덮칠 때뿐이었다. 그런 순간이면 나는 내가 혐오하는 이 삶을 끝내려고 자주 애썼고, 내가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면 끊임없이 곁을 지키며 살펴야 했다.

그래도 내게는 한 가지 의무가 남아 있었고, 그 의무를 떠올리자 마침내 내 이기적인 절망도 꺾였다. 나는 지체 없이 제네바로 돌아가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의 목숨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살인자를 기다리며 숨어 있다가, 어떤 우연으로 내가 그가 숨은 곳에 이르게 되거나 그가 감히 다시 나타나 나를 파멸시키려 한다면, 빗나가지 않는 겨냥으로, 내가 더욱 괴물 같은 영혼의 흉내까지 불어넣어 준 그 괴물 같은 형상의 존재를 끝장내야 했다. 아버지는 내가 여행의 피로를 견디지 못할까 봐 걱정하여 아직 떠나기를 미루고 싶어 했다. 나는 산산이 부서진 난파선, 인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력은 다 빠져 있었다. 나는 그저 해골이었고, 열병이 밤낮으로 내 야윈 몸을 갉아먹었다.

그런데도 내가 그토록 안달하며 조급하게 아일랜드를 떠나자고 조르자, 아버지는 내 뜻을 따르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르아브르로 가는 배에 자리를 얻었고, 순풍을 받으며 아일랜드 해안을 떠났다. 한밤중이었다. 나는 갑판에 누워 별을 바라보며 철썩이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일랜드를 내 눈앞에서 가려 주는 어둠을 나는 반겼고, 곧 제네바를 보게 되리라는 생각에 맥박이 열띤 기쁨으로 뛰었다. 지난 일은 무서운 꿈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내가 탄 배와, 저주스러운 아일랜드 해안에서 나를 실어 가는 바람과, 나를 둘러싼 바다는, 이것이 환영이 아니며 나의 벗이자 가장 소중한 길동무였던 클레르발이 나와 내가 만든 괴물에게 희생되었다는 것을 너무도 뚜렷이 일러 주었다. 나는 기억 속에서 내 삶 전체를 되짚어 보았다. 제네바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시절의 조용한 행복, 어머니의 죽음, 잉골슈타트로 떠나던 날. 나는 몸서리치며 나를 몰아세워 그 흉측한 적을 만들게 한 미친 열정을 떠올렸고, 그가 처음으로 살아난 그 밤을 기억에 불러냈다.

나는 그 생각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었다. 천 가지 감정이 나를 짓눌렀고, 나는 비통하게 울었다.

열병에서 회복한 뒤로 나는 밤마다 아편팅크를 조금씩 먹는 버릇이 들었다. 목숨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한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약 덕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불행의 기억에 짓눌린 나는 그날 밤 평소의 두 배를 삼켰고, 곧 깊이 잠들었다. 그러나 잠도 생각과 비참에서 나를 쉬게 해 주지 못했다. 꿈속에 나를 겁에 질리게 하는 것들이 천 가지나 나타났다. 새벽녘에는 가위 같은 것에 눌렸다. 악귀의 손아귀가 내 목을 움켜쥐는 것이 느껴졌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신음과 비명이 귓가에 울렸다. 곁에서 나를 지켜보던 아버지가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나를 깨웠다. 둘레에는 파도가 철썩였고, 위에는 흐린 하늘이 있었다. 악귀는 여기에 없었다. 안도감이, 지금 이 시간과 거스를 수 없는 재앙의 앞날 사이에 휴전이 맺어졌다는 느낌이, 사람의 마음이 그 생김새부터 유난히 잘 빠져들게 되어 있는 일종의 고요한 망각을 내게 안겨 주었다.

제22장

항해가 끝났다. 우리는 뭍에 올라 파리로 갔다. 나는 곧 내가 힘에 부치게 무리했으며, 여행을 계속하려면 먼저 쉬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보살핌과 정성은 지칠 줄 몰랐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 고통의 근원을 알지 못했으므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려고 엉뚱한 방법을 찾았다. 아버지는 내가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움을 찾기를 바랐다. 나는 사람의 얼굴이 몹시 싫었다. 아, 싫었다니! 그들은 나의 형제요 나와 같은 존재들이었고, 나는 그들 가운데 가장 역겨운 사람에게조차, 천사 같은 본성을 타고나 하늘의 솜씨로 지어진 생명에게 끌리듯 끌렸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어울릴 권리가 내게 없다고 느꼈다. 나는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들의 신음 속에서 흥청거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적을 그들 사이에 풀어놓았다. 내 불경한 행위와 내게서 비롯된 죄악들을 안다면, 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나를 얼마나 혐오하며 이 세상에서 몰아내려 하겠는가!

마침내 아버지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다는 내 바람을 받아들였고, 여러 가지 이치를 들어 내 절망을 몰아내려 애썼다. 아버지는 이따금 내가 살인 혐의에 답해야 했던 굴욕을 깊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자존심이란 부질없는 것임을 내게 깨우쳐 주려 했다.

"아아, 아버지."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저를 너무 모르십니다. 저 같은 비참한 인간이 자존심을 느낀다면, 사람이라는 존재와 그 감정과 정념이 참으로 욕되고 말 것입니다. 저스틴, 가엾고 불행한 저스틴은

저만큼이나 죄가 없었는데도 같은 혐의를 받았고, 그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 애를 죽였습니다. 윌리엄도, 저스틴도, 헨리도, 모두 제 손에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도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고발할 때면 아버지는 어떤 때는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어떤 때는 그것을 섬망이 낳은 말로, 앓는 동안 내 상상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가 회복기에도 그 기억이 남은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나는 설명을 피했고, 내가 만든 흉물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다물었다. 미친 사람으로 여겨지리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내 혀는 영원히 묶여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나는 듣는 사람을 경악으로 채우고 그 가슴속에 두려움과 자연스럽지 못한 공포를 들여앉힐 비밀을 차마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동정을 바라는 조급한 갈증을 누르고, 그 숙명적인 비밀을 털어놓을 수만 있다면 온 세상이라도 내주었을 때에도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도 내가 앞에서 전한 것 같은 말들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곤 했다. 나는 그 말들을 해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어느 만큼은 참이었기에, 남이 알 수 없는 내 슬픔의 짐이 조금은 덜어졌다.

이때 아버지는 한없이 놀란 얼굴로 말했다. "사랑하는 빅터, 이게 무슨 망상이냐? 아들아, 부탁이니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힘주어 외쳤다. "제가 한 일을 지켜본 해와 하늘이 제 말이 참이라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더없이 죄 없는 희생자들을 죽인 자객입니다. 그들은 제 음모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면 저는 천 번이라도 제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온 인류를 희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말의 끝부분을 듣고 아버지는 내 생각이 어지러워졌다고 확신했고, 곧바로 화제를 바꾸어 내 생각의 흐름을 돌리려 애썼다. 아버지는 아일랜드에서 벌어진 일들의 기억을 될 수 있는 대로 지워 버리고 싶어 했고, 그 일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으며, 내가 내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차츰 차분해졌다. 비참은 여전히 내 가슴에 깃들어 있었지만, 나는 더는 그렇게 앞뒤 없이 내 죄를 떠들지 않았다. 그 죄를 의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나 자신을 있는 힘껏 억누르며, 때로 온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비참의 거센 목소리를 다스렸고, 그리하여 내 몸가짐은 얼음 바다로 여행을 떠난 뒤로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침착해졌다.

스위스로 가는 길에 파리를 떠나기 며칠 전, 나는 엘리자베스에게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사랑하는 빅터에게"

"파리에서 쓰신 숙부님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제 너는 그렇게 아득히 먼 곳에 있지 않으니, 2주도 안 되어 너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해도 되겠지. 가엾은 빅터,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제네바를 떠날 때보다 더 앓은 얼굴로 돌아올 것 같아. 이번 겨울은 애타게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느라 너무도 비참하게 보냈어. 그래도 네 얼굴에서 평화를 보고, 네 마음에 위안과 평온이 아주 없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

"그런데도 한 해 전에 너를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감정이 지금도 남아 있을까 봐,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졌을까 봐 두려워. 이렇게 많은 불행이 너를 짓누르는 때에 너를 어지럽히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숙부님이 떠나시기 전에 나눈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기 전에 꼭 해 두어야 할 이야기가 생겼어."

"해 두어야 할 이야기라니! 너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 엘리자베스가 무슨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야? 네가 정말 그렇게 말한다면 내 물음에는 답이 나온 셈이고, 내 의심도 다 풀린 셈이야. 하지만 너는 내게서 멀리 있고, 어쩌면 너는 이 이야기를 두려워하면서도 반가워할지 몰라.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네가 없는 동안 너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한 번도 꺼낼 용기를 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더는 미룰 수가 없어."

"빅터, 너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맺어지는 것은 우리가 아기였을 때부터 네 부모님이 가장 바라시던 일이었어.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고, 반드시 일어날 일로 여기며 그날을 기다리도록 배웠지. 어린 시절 우리는 다정한 놀이 동무였고, 자라면서는 서로에게 소중하고 귀한 벗이었다고 나는 믿어. 하지만 남매는 더 가까운 결합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서로 깊은 정을 품는 일이 많은데,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닐까? 말해 줘, 사랑하는 빅터. 우리 둘의 행복을 걸고 비니, 꾸밈없는 진실로 대답해 줘. 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니?"

"너는 여행을 했고, 잉골슈타트에서 여러 해를 보냈어. 빅터, 털어놓을게. 지난가을 네가 그토록 불행해하며 모든 사람을 피해 혼자 있으려고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네가 우리 사이를 후회하면서도, 네 마음과는 어긋나더라도 부모님의 바람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명예의 굴레에 매여 있다고 여기는 게 아닐까 짐작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이건 그릇된 생각이야. 빅터, 털어놓을게. 나는 너를 사랑해. 앞날을 그리는 내 덧없는 꿈속에서 너는 언제나 나의 벗이자 길동무였어. 하지만 우리 결혼이 너 스스로 자유롭게 고른 것이 아니라면 그 결혼은 나를 영원히 비참하게 만들 거라고 말하는 것은, 내 행복만큼이나 네 행복을 바라기 때문이야. 지금도 나는, 더없이 잔인한 불행에 짓눌린 네가 *명예*라는 말 하나 때문에, 너를 너 자신에게로

되돌려 줄 유일한 것인 사랑과 행복의 희망을 모두 짓눌러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 너를 아무 사심 없이 사랑하는 내가 네 바람을 가로막아 네 비참을 열 배로 늘릴지도 몰라. 아, 빅터, 믿어 줘. 네 사촌이자 놀이 동무인 나는 너를 너무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그런 생각만으로도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 행복해야 해, 빅터. 내 이 한 가지 부탁만 들어준다면, 이 세상 무엇도 내 평온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안심해."

"이 편지 때문에 마음 어지러워하지 마. 괴롭다면 내일도, 모레도, 아니 돌아올 때까지도 답장하지 않아도 돼. 숙부님이 네 건강 소식을 보내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 이 편지 덕분이든 내가 애쓴 다른 무엇 덕분이든 네 입가에 미소 한 번만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나는 다른 행복은 바라지 않을 거야."

"엘리자베스 라벤차"

"제네바에서, 17○○년 5월 18일."

◆

이 편지를 읽자 그때까지 잊고 있던 것이, 악귀의 위협이 다시 기억에 되살아났다. "*네 결혼식 날 밤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것이 내게 내려진 선고였다. 그날 밤 악령은 온갖 수단을 다해 나를 파멸시키고, 내 고통을 얼마쯤 달래 주리라 약속하던 행복의 어렴풋한 빛에서 나를 떼어 낼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나를 죽임으로써 자기 죄를 완성하기로 작정해 두었다. 좋다, 그렇게 되라지. 그러면 틀림없이 목숨을 건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그가 이긴다면 나는 평화를 얻고 나를 짓누르던 그의 힘도 끝날 것이다. 그가 진다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아아, 무슨 자유란 말인가? 눈앞에서 가족이 학살당하고 오두막이 불타고 땅이

짓밟힌 채, 집도 돈도 없이 홀로 떠돌이 신세로 내몰렸으되 자유로운 농부가 누리는 그런 자유일 터였다. 나의 엘리자베스라는 보물이 있다는 것만 다를 뿐 내 자유도 그러할 것이었다. 아아, 그러나 그 보물은 죽을 때까지 나를 뒤쫓을 회한과 죄의식의 공포와 함께 저울에 올라 있었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엘리자베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누그러진 감정이 내 가슴에 스며들어 낙원 같은 사랑과 기쁨의 꿈을 감히 속삭였다. 그러나 사과는 이미 먹은 뒤였고, 천사는 나를 모든 희망에서 몰아내려고 벌써 팔을 걷어붙이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엘리자베스를 행복하게 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았다. 괴물이 위협을 실행한다면 죽음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다시, 결혼이 내 운명을 앞당기지는 않을지 따져 보았다. 내 파멸이 정말 몇 달쯤 일찍 닥칠지도 몰랐다. 그러나 나를 괴롭히는 자가, 내가 그의 위협에 겁을 먹고 결혼을 미룬다고 의심한다면 틀림없이 다른, 어쩌면 더 끔찍한 복수의 수단을 찾아낼 것이었다. 그는 *네 결혼식 날 밤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맹세했지만, 그 위협 때문에 그때까지는 얌전히 있어야 한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아직 피에 물리지 않았다는 것을 내게 보여 주려는 듯, 그는 위협을 입에 올리자마자 곧바로 클레르발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사촌과 곧바로 맺어지는 것이 엘리자베스나 아버지의 행복에 보탬이 된다면, 내 목숨을 노리는 원수의 계략 때문에 결혼을 한 시간도 늦추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엘리자베스에게 편지를 썼다. 차분하고 다정한 편지였다.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나는 이렇게 썼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남은 행복은 많지 않을까 봐 두려워. 그래도 내가 언젠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모두 너에게 모여 있어. 쓸데없는 걱정은 떨쳐 버려. 나는 오직 너에게 내 삶을,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는 내 모든 노력을 바칠 거야. 엘리자베스, 내게는 비밀이 하나 있어. 끔찍한

비밀이야. 그 비밀을 알게 되면 너는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을 거고, 그러면 내 비참에 놀라기는커녕 내가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살아남은 것을 이상하게 여길 거야. 이 비참하고 무서운 이야기는 우리가 결혼한 다음 날 너에게 털어놓을게. 사랑하는 사촌, 우리 사이에는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니까. 하지만 그때까지는 부탁이니 그 이야기를 꺼내지도, 넌지시 비치지도 말아 줘. 이것만은 정말 간곡히 부탁해. 너라면 들어주리라 믿어."

엘리자베스의 편지가 온 지 일주일쯤 뒤에 우리는 제네바로 돌아왔다. 사랑스러운 엘리자베스는 따뜻한 애정으로 나를 맞았지만, 여윈 내 몸과 열에 들뜬 뺨을 보고는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엘리자베스에게서도 달라진 데가 보였다. 전보다 야위었고, 예전에 나를 사로잡던 하늘에서 내린 듯한 생기도 많이 잃었다. 그러나 그 상냥함과 연민 어린 부드러운 눈길 덕분에, 엘리자베스는 나처럼 망가지고 비참한 사람에게 더욱 어울리는 길동무가 되어 있었다.

그때 누리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기억은 광기를 데려왔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되었다. 어떤 때는 격분하여 분노로 타올랐고, 어떤 때는 풀이 죽어 낙담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채, 나를 덮친 숱한 비참에 넋을 잃고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이런 발작에서 나를 끌어낼 힘이 있는 사람은 엘리자베스뿐이었다. 내가 격정에 휩쓸릴 때면 엘리자베스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를 달래 주었고, 무감각에 빠져 있을 때면 사람다운 감정을 불어넣어 주었다. 엘리자베스는 나와 함께 울었고, 나를 위해 울었다. 내가 이성을 되찾으면 엘리자베스는 나를 타이르며 체념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애썼다. 아, 불행한 사람에게는 체념이 좋겠지만, 죄지은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다. 회한의 고뇌는, 그것만 없다면 슬픔에 한껏 빠져드는 데서 이따금 얻을 수 있었을 사치스러운 위안마저 독으로 물들인다.

내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는 엘리자베스와 곧 결혼하라는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렇다면 너, 마음에 둔 다른 사람이라도 있는 게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를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결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날을 정해 주십시오. 그날 저는 살든 죽든 사촌의 행복에 저를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빅터,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무거운 불행이 우리에게 닥쳤지만, 남은 것에 더 굳게 매달리고, 잃어버린 이들에게 품었던 사랑을 아직 살아 있는 이들에게 옮기자꾸나. 우리 식구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애정과 함께 겪은 불행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을 게다. 그리고 세월이 네 절망을 누그러뜨리고 나면, 우리가 그토록 잔인하게 빼앗긴 이들의 자리를 채워 줄 새롭고 소중한 아이들이 태어날 게다."

이것이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 그러나 내게는 그 위협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 악귀가 피비린내 나는 짓을 저지르는 데 지금까지 전능하다시피 했으니 내가 그를 거의 이길 수 없는 존재로 여겼다 해도, 그리고 그가 "네 결혼식 날 밤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그 위협받은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해도, 당신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를 잃는 일과 저울에 올려 본다면 죽음은 내게 아무런 악도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흡족한, 아니 쾌활하기까지 한 얼굴로, 사촌이 동의한다면 열흘 뒤에 식을 올리자는 아버지의 말에 따랐고, 그렇게 내 딴에는 내 운명에 도장을 찍었다.

오, 하느님! 악귀 같은 원수가 품은 지옥 같은 속셈이 무엇일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생각해 보았더라면, 이 비참한 결혼에 동의하느니 차라리 고국에서 영원히 나 자신을 내쫓고 벗 하나 없는 떠돌이로 온 땅을

헤매었을 것이다. 그러나 괴물은 마법의 힘이라도 지닌 듯 자기의 진짜 속셈을 내 눈에서 가려 버렸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의 죽음만을 준비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보다 훨씬 소중한 희생자의 죽음을 재촉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비겁함 때문인지 어떤 예감 때문인지, 나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짐짓 쾌활한 척하며 감정을 숨겼고, 그 덕분에 아버지의 얼굴에는 웃음과 기쁨이 떠올랐지만, 늘 나를 지켜보는 엘리자베스의 더 섬세한 눈은 거의 속이지 못했다. 엘리자베스는 차분한 만족감으로 우리의 결혼을 기다렸지만, 지난 불행들이 새겨 놓은 작은 두려움이 그 만족감에 섞여 있었다. 지금은 확실하고 손에 잡힐 듯한 행복이 곧 덧없는 꿈처럼 흩어져, 깊고 영원한 회한 말고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결혼 준비가 갖추어졌고, 축하하러 오는 손님들을 맞았으며, 모든 것이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가슴을 갉아먹는 불안을 될 수 있는 대로 가슴속에 가두어 두고, 그것이 내 비극을 꾸미는 장식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의 계획에 짐짓 열심히 끼어들었다. 아버지가 애쓴 덕분에 엘리자베스는 물려받을 재산의 일부를 오스트리아 정부에게서 되찾았다. 코모호 기슭의 작은 땅이 엘리자베스의 것이었다.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라벤차 별장으로 가서, 별장이 자리한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행복한 첫날들을 보내기로 했다.

그동안 나는 악귀가 드러내 놓고 나를 덮칠 경우에 대비해 내 몸을 지킬 온갖 조심을 다했다. 나는 늘 권총과 단검을 몸에 지녔고,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도록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나는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사실 그날이 다가올수록 그 위협은 내 평화를 어지럽힐 값어치도 없는 망상처럼 여겨졌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정한 날이 다가오고 어떤 사고로도 막을 수 없는 일처럼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수록, 결혼에서 바라던 행복은 더욱 확실한 모습을 띠어 갔다.

엘리자베스는 행복해 보였다. 내 차분한 태도가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큰 몫을 했다. 그러나 내 소망과 운명이 이루어질 그날, 엘리자베스는 우울했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었다. 어쩌면 내가 다음날 털어놓겠다고 약속한 그 끔찍한 비밀을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고, 준비하느라 북새통을 이루는 가운데 조카딸의 우울을 그저 신부의 수줍음으로만 여겼다.

식이 끝나자 아버지의 집에 많은 손님이 모였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와 나는 물길로 여행을 시작해, 그날 밤은 에비앙에서 묵고 이튿날 뱃길을 이어 가기로 했다. 날씨는 맑았고 바람은 순했으며, 모든 것이 혼례의 뱃길에 오르는 우리에게 미소 지었다.

그것이 내 생애에서 행복을 느낀 마지막 순간들이었다. 우리는 빠르게 나아갔다. 햇볕은 뜨거웠지만 우리는 차양 같은 것 아래에서 햇살을 피하며 경치의 아름다움을 즐겼다. 어떤 때는 호수 한쪽 기슭을 따라가며 살레브산과 몽탈레그르의 아름다운 물가를, 그리고 멀리 모든 것 위로 솟은 아름다운 몽블랑과, 몽블랑과 겨루려 헛되이 애쓰는 눈덮인 산들의 무리를 보았다. 어떤 때는 맞은편 기슭을 따라가며 우람한 쥐라산맥을 보았는데, 쥐라산맥은 고국을 떠나려는 야심에는 그 어두운 사면을 맞세우고, 고국을 노예로 삼으려는 침략자에게는 넘을 수 없다시피 한 장벽이 되어 서 있었다.

나는 엘리자베스의 손을 잡았다. "슬퍼 보여, 내 사랑. 아! 내가 무엇을 겪었고 앞으로 또 무엇을 견뎌야 할지 안다면, 너는 적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고요와 절망에서 놓여난 홀가분함을 내가 맛보도록 애써 줄 텐데."

"행복해야 해, 사랑하는 빅터."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너를 괴롭힐 일은 아무것도 없으리라 믿어. 내 얼굴에 생생한 기쁨이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만족하고 있다는 걸 믿어 줘. 우리 앞에 열린 앞날을 너무 믿지 말라고 무언가가 속삭이지만, 나는 그런 불길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야. 봐, 우리가 얼마나 빨리 나아가는지. 몽블랑의 둥근 꼭대기를 가렸다가 그 위로 솟아올랐다 하는 구름 덕분에 이 아름다운 풍경이 얼마나 더 볼만해지는지 봐. 맑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저 수많은 물고기도 봐. 바닥에 깔린 조약돌 하나하나까지 다 보여. 정말 거룩한 날이야! 온 자연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이는지!"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자기 생각도 내 생각도 우울한 것들에서 돌리려 애썼다. 그러나 그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렸다. 잠깐씩 기쁨이 그 눈에서 빛났지만, 그 기쁨은 번번이 멍한 상념에 자리를 내주었다.

해가 하늘에서 더 낮게 내려앉았다. 우리는 드랑스강을 지나며, 높은 산들의 협곡과 낮은 산들의 골짜기를 뚫고 흐르는 그 물길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는 알프스산맥이 호수에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고, 우리는 호수의 동쪽 끝을 이루는 원형 극장 같은 산들로 다가갔다. 에비앙의 첨탑이 둘레를 감싼 숲과 그 위로 첩첩이 솟은 산줄기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때까지 놀라운 속도로 우리를 실어 오던 바람은 해 질 녘에 이르러 산들바람으로 잦아들었다. 부드러운 공기가 물결을 살짝 일렁이게 했고, 우리가 기슭으로 다가가자 나무들 사이로 기분 좋게 불어 들며 꽃과 마른풀의 더없이 향긋한 내음을 실어 왔다. 우리가 뭍에 오를 때 해가 지평선 아래로 졌고, 기슭에 발을 딛는 순간 나는 곧 나를 움켜쥐고 영원히 내게서 떨어지지 않을 근심과 두려움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제23장

우리가 뭍에 오른 것은 여덟 시였다. 우리는 스러져 가는 빛을 즐기며 잠시 물가를 거닐다가 여관으로 들어갔고, 어둠에 잠겼으면서도 여전히 검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물과 숲과 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남쪽에서 잦아들었던 바람이 이제 서쪽에서 거세게 일어났다. 달은 하늘 꼭대기에 이르렀다가 기울기 시작했다. 구름이 독수리가 나는 것보다 빠르게 달을 스쳐 지나가며 그 빛을 흐렸고, 호수는 그렇게 어수선한 하늘의 모습을 비추었는데, 일기 시작한 물결이 쉴 새 없이 출렁여 그 모습을 더욱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갑자기 세찬 비가 쏟아졌다.

낮 동안 나는 차분했다. 그러나 밤이 사물의 모습을 가리자마자 천 가지 두려움이 마음속에 일어났다. 나는 불안에 떨며 경계했고, 오른손으로는 품에 숨긴 권총을 움켜쥐고 있었다. 소리 하나하나가 나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결코 헐값에 내주지 않겠다고, 내 목숨이든 원수의 목숨이든 어느 한쪽이 꺼질 때까지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엘리자베스는 한동안 겁먹은 채 말없이 두려워하며 내 동요를 지켜보았지만, 내 눈빛에 엘리자베스까지 겁에 질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는지, 엘리자베스는 떨며 물었다. "무엇이 너를 그렇게 불안하게 하는 거야, 빅터? 무엇이 두려운 거야?"

"아! 진정해, 진정해, 내 사랑." 내가 대답했다. "오늘 밤만 지나면 모든 것이 무사할 거야. 하지만 오늘 밤은 무서워. 정말 무서운 밤이야."

나는 이런 마음으로 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문득, 금방이라도 벌어질 것만 같은 싸움을 아내가 본다면 얼마나 무서워할지 생각이 미쳐, 먼저 들어가 쉬라고 간곡히 당부했고, 적이 어디 있는지 얼마쯤이라도 알아낼 때까지는 아내 곁에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아내는 나를 두고 방으로 갔다. 나는 한동안 집 안의 복도를 이리저리 오가며 원수가 숨을 만한 구석을 모조리 살폈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나는 어떤 다행스러운 우연이 끼어들어 그가 위협을 실행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닐까 짐작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날카롭고 무서운 비명이 들렸다. 엘리자베스가 들어간 방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진실이 머릿속으로 밀려들었다. 두 팔이 툭 떨어졌다. 근육과 신경 하나하나가 움직임을 멈췄다. 핏줄 속에서 피가 흐르며 팔다리 끝이 저릿저릿한 것이 느껴졌다. 그것도 한순간이었다. 비명이 다시 들렸고, 나는 방으로 뛰어들었다.

오, 하느님! 나는 왜 그때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나는 왜 여기 살아남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희망이요 가장 순결한 사람이 무너진 일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인가? 엘리자베스는 거기 있었다. 숨도 생기도 없이 침대 위에 가로로 내던져진 채, 머리는 아래로 늘어져 있었고, 창백하게 일그러진 얼굴은 머리카락에 반쯤 덮여 있었다. 지금도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그 모습이 보인다. 살인자가 혼례의 상여 위에 내던진 핏기 없는 두 팔과 축 늘어진 몸이. 이것을 보고도 살 수 있단 말인가? 아아, 목숨이란 모진 것이어서, 가장 미움받는 곳에 가장 끈질기게 매달린다. 나는 잠깐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정신을 차려 보니 여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숨 막히는 공포가 어려 있었다. 그러나 남들의 공포는 나를

짓누르는 감정을 흉내 낸 조롱이나 그 그림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서 빠져나와, 나의 사랑, 나의 아내, 조금 전까지 살아 있던, 그토록 소중하고 그토록 귀한 엘리자베스의 시체가 누운 방으로 갔다. 엘리자베스는 내가 처음 보았던 자세에서 옮겨져 있었다. 팔을 베고 누워 얼굴과 목 위로 손수건이 덮인 지금의 모습만 보면 잠들었다고 여길 수도 있었다. 나는 달려가 엘리자베스를 뜨겁게 끌어안았지만, 죽음의 나른함과 팔다리의 차가움이, 지금 내 품에 안긴 것은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엘리자베스가 더는 아니라는 것을 일러 주었다. 목에는 악귀의 손아귀가 남긴 살인의 자국이 있었고, 입술에서는 숨이 더 나오지 않았다.

절망의 고통 속에서 아직 엘리자베스 위에 엎드려 있을 때, 나는 우연히 고개를 들었다가, 아까까지 창문이 어둠에 가려 있던 방에 창백한 누런 달빛이 비쳐 드는 것을 보고 일종의 공황에 사로잡혔다. 덧문이 젖혀져 있었다.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나는 열린 창가에 더없이 흉측하고 끔찍한 형체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괴물의 얼굴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는 악귀 같은 손가락으로 내 아내의 시체를 가리키며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창가로 달려가 품에서 권총을 뽑아 쏘았지만, 그는 나를 피해 서 있던 자리에서 뛰어내렸고, 번개처럼 빠르게 달려가 호수로 뛰어들었다.

총소리에 사람들이 방으로 몰려들었다. 나는 그가 사라진 곳을 가리켰고, 우리는 배를 타고 그 자취를 뒤쫓았다. 그물을 던졌지만 헛일이었다. 여러 시간이 지나 우리는 희망을 잃고 돌아왔다. 함께 간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이 내 상상이 불러낸 허깨비였다고 믿었다. 그들은 뭍에 오른 뒤 여러 무리로 나뉘어 숲과 포도밭 사이를 이리저리 헤치며 근방을 뒤졌다.

나도 그들을 따라가려고 집에서 얼마쯤 걸어 나갔지만, 머리가 핑핑 돌았고 걸음은 술 취한 사람 같았으며, 나는 마침내 기진맥진하여 쓰러졌다. 눈앞에 막이 덮였고, 살갗은 열병의 열기로 바싹 타들어 갔다. 나는 이런 상태로 다시 실려 와 침대에 눕혀졌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거의 알지 못한 채, 나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기라도 하듯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얼마 뒤에 나는 일어나 본능에 이끌리듯 사랑하는 이의 시체가 누운 방으로 기어 들어갔다. 둘레에서 여자들이 울고 있었다. 나는 시체 위에 엎드려 그들의 눈물에 내 슬픈 눈물을 보탰다. 그러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또렷한 생각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고, 생각은 이것저것으로 헤매며 내 불행과 그 원인을 어지러이 더듬었다. 나는 경악과 공포의 구름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윌리엄의 죽음, 저스틴의 처형, 클레르발의 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아내의 살해. 그 순간에도 나는 내게 남은 단 하나의 가족이 악귀의 악의를 피해 무사한지 알지 못했으니, 바로 그때에도 아버지가 그의 손아귀에서 몸부림치고 있을지 모르고, 어니스트가 그의 발치에 죽어 있을지도 몰랐다. 이 생각에 나는 몸서리쳤고, 정신이 번쩍 들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제네바로 돌아가기로 했다.

말을 구할 수 없어서 호수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바람은 맞바람이었고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다. 그래도 아직 이른 아침이었으므로 밤까지는 닿으리라고 기대해 볼 만했다. 나는 노 저을 사람들을 사고 나도 노 하나를 잡았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의 고통이 늘 덜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넘쳐흐르는 비참과 견디기 힘든 극심한 동요 때문에 나는 아무 힘도 쓸 수 없었다. 나는 노를 내던지고 두 손에 머리를 묻은 채, 떠오르는 온갖 어두운 생각에 나를 내맡겼는데, 고개를

들면 더 행복하던 시절 내게 낯익었던 풍경이, 바로 전날 이제는 그림자와 추억일 뿐인 그 사람과 함께 바라보던 풍경이 보였다. 눈물이 쏟아졌다. 비가 잠깐 그쳤고, 몇 시간 전처럼 물속에서 노니는 물고기들이 보였다. 그때 그 물고기들을 바라보던 사람은 엘리자베스였다. 크고 갑작스러운 변화만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다. 해가 빛나든 구름이 낮게 드리우든, 무엇도 내게는 전날과 같아 보일 수 없었다. 한 악귀가 앞날의 행복에 대한 희망을 모조리 내게서 앗아 갔다. 일찍이 어떤 생명도 나만큼 비참하지 않았다. 이토록 무서운 일은 인류의 역사에 단 한 번뿐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압도적인 사건 뒤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왜 길게 늘어놓아야 하겠는가? 내 이야기는 공포의 이야기였다. 나는 그 공포의 절정에 이르렀고, 이제부터 이야기할 것은 당신에게 지루할 뿐일 것이다. 내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게서 빼앗겼고 나는 홀로 버려졌다는 것만 알아 두라. 나도 이제 기력이 다했다. 이 끔찍한 이야기의 남은 부분은 몇 마디로 해야겠다.

나는 제네바에 닿았다. 아버지와 어니스트는 아직 살아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가 가져간 소식에 무너져 내렸다. 지금도 그 모습이 보인다.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노인이여! 아버지의 눈은 허공을 헤맸다. 그 눈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던 이를 잃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엘리자베스, 딸 이상이던 엘리자베스, 늘그막에 정을 붙일 데가 얼마 남지 않아 남은 이들에게 더욱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의 온 애정을 다해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엘리자베스를. 아버지의 흰머리에 비참을 안기고 아버지를 비참 속에서 시들어 가게 한 그 악귀는 저주받으라, 저주받으라! 아버지는 둘레에 쌓인 공포를 견디며 살 수 없었다. 목숨을 받치던 용수철이 갑자기 꺾여 버렸다. 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며칠 뒤 내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 뒤로 나는 어떻게 되었던가? 모르겠다. 나는 감각을 잃었고, 사슬과 어둠만이 나를 짓누르는 전부였다. 사실 이따금은 젊은 시절의 벗들과 함께 꽃이 핀 풀밭과 아늑한 골짜기를 거니는 꿈을 꾸기도 했지만, 깨어보면 나는 언제나 지하 감옥에 있었다. 우울이 뒤따랐지만, 나는 차츰 내 비참과 처지를 또렷이 깨닫게 되었고, 그제야 감옥에서 풀려났다.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했기 때문이다. 내가 들은 바로는 여러 달 동안 독방이 내 거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성에 눈뜨는 동시에 복수에도 눈뜨지 않았다면, 자유는 내게 쓸모없는 선물이었을 것이다. 지난 불행의 기억이 나를 짓누르자 나는 그 원인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만든 괴물, 나를 파멸시키라고 내가 세상에 내보낸 비참한 악령. 그를 생각하면 미칠 듯한 분노에 사로잡혔고, 나는 그를 손아귀에 넣어 그 저주받은 머리에 크고 뚜렷한 복수를 퍼부을 수 있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다.

내 증오는 쓸모없는 바람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다. 나는 그를 붙잡을 가장 좋은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풀려난 지 한 달쯤 뒤에 읍내의 형사 판사를 찾아가 고발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내 가족의 파괴자를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살인자를 붙잡는 데 판사의 모든 권한을 써 달라고 요구했다.

치안판사는 주의 깊고 친절하게 내 말을 들었다. "안심하시오, 선생." 그가 말했다. "그 악당을 찾아내는 데 내 쪽에서는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겠소."

"고맙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러면 제가 하려는 진술을 들어 주십시오.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라서, 아무리 놀랍더라도 저절로 믿게 만드는 힘이 진실에 없다면 판사님이 믿지 않으실까 봐 두려울 정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꿈으로 여기기에는 앞뒤가 너무 잘 맞고, 제게는 거짓말을 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건넬 때 내 태도는

듣는 사람을 압도하면서도 차분했다. 나는 나의 파괴자를 죽을 때까지 뒤쫓겠다는 결심을 마음속에 굳혀 두었고, 그 목적이 내 고뇌를 가라앉혀 한동안이나마 나를 삶과 화해시켰다. 나는 내 내력을 간략하게, 그러나 단호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날짜를 틀림없이 짚었고, 욕설을 퍼붓거나 탄식을 늘어놓으며 곁길로 빠지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치안판사는 처음에는 전혀 믿지 않는 듯했지만, 내 이야기가 이어지자 차츰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고, 이따금 공포에 몸서리치는 것이 보였고, 또 어떤 때는 의심이 섞이지 않은 생생한 놀라움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는 말했다. "이것이 제가 고발하는 존재입니다. 그를 붙잡아 벌하는 데 판사님의 모든 힘을 써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것이 치안판사로서 판사님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서 판사님의 인간적인 감정도 그 직무를 다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리라 믿고 바랍니다."

이 말에 내 이야기를 듣던 사람의 낯빛이 꽤 달라졌다. 그는 유령이나 초자연적인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처럼 반쯤만 믿으며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직무상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받자, 그의 불신이 고스란히 밀물처럼 되돌아왔다. 그래도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이 그자를 뒤쫓는 데 기꺼이 온갖 도움을 주고 싶소.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그 피조물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당해 낼 수 없는 힘을 지닌 것 같소. 얼음 바다를 건너다니고, 아무도 감히 들어가려 하지 않을 동굴과 굴속에 사는 짐승을 누가 뒤쫓을 수 있겠소? 게다가 그자가 죄를 저지른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으니, 그자가 어디로 떠돌아갔는지, 지금 어느 고장에 사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소."

"그자가 제가 사는 곳 가까이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으며, 그자가 정말로 알프스로 숨어들었다면 알프스 영양처럼 사냥하여 맹수처럼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의 생각을 알겠습니다. 판사님은 제 이야기를 믿지 않으시고, 제 적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려고 그를 뒤쫓을 생각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 눈에서 분노가 번득였다. 치안판사는 겁을 먹었다. "당신이 잘못 안 것이오." 그가 말했다. "나도 힘을 다하겠소. 그 괴물을 붙잡는 것이 내 힘으로 될 일이라면, 그가 지은 죄에 걸맞은 벌을 받으리라 믿어도 좋소. 하지만 당신이 직접 말한 그자의 성질로 보아, 그것은 해낼 수 없는 일이 될까 두렵소. 그러니 마땅한 조치는 모두 취하겠지만, 당신은 실망할 각오를 해 두어야 하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제 복수는 판사님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저도 그것이 악덕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고백하건대 그것은 제 영혼을 삼키는 단 하나의 정념입니다. 제가 세상에 풀어놓은 살인자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판사님은 제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제게 남은 길은 하나뿐입니다. 저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를 없애는 데 저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나는 극심한 동요로 몸을 떨었다. 내 태도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옛 순교자들이 지녔다는 그 오만한 사나움 같은 것도 틀림없이 얼마쯤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헌신이나 영웅심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로 머릿속이 차 있는 제네바의 치안판사에게, 이런 정신의 고양은 미친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그는 유모가 아이를 달래듯 나를 달래려 했고, 내 이야기를 섬망 탓으로 돌렸다.

"이보시오," 내가 외쳤다. "지혜를 자부하는 당신은 얼마나 무지하오! 그만두시오. 당신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오."

나는 화가 나고 마음이 어지러워 그 집을 뛰쳐나왔고, 다른 방도를 궁리하려고 물러났다.

제24장

그때 내 처지는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하려는 마음이 모조리 삼켜져 사라져 버린 처지였다. 나는 분노에 휩쓸려 내달렸다. 오직 복수만이 내게 힘과 침착함을 주었다. 복수가 내 감정의 틀을 빚어 주었고, 그것이 아니었다면 섬망이나 죽음이 내 몫이 되었을 때에도 나는 복수 덕분에 셈을 하며 차분할 수 있었다.

나는 무엇보다 먼저 제네바를 영원히 떠나기로 결심했다. 내가 행복하고 사랑받던 시절에는 그토록 소중하던 내 나라가 역경에 빠진 지금은 증오스러워졌기 때문이다. 나는 얼마간의 돈과 어머니의 것이던 보석 몇 점을 챙겨 길을 떠났다.

그리고 이제 내 방랑이 시작되었다. 이 방랑은 목숨이 다해야만 끝날 것이다. 나는 이 땅의 드넓은 곳을 가로질렀고, 사막과 미개한 나라를 지나는 나그네들이 으레 겪는 온갖 고난을 견뎌 왔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도 거의 모르겠다. 나는 몇 번이고 모래벌판에 쓰러져 가는 팔다리를 뻗고 누워 죽게 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복수가 나를 살려 두었다. 원수를 살려 둔 채 감히 죽을 수는 없었다.

제네바를 떠나며 내가 맨 먼저 매달린 일은 악귀 같은 적의 발자취를 더듬어 갈 실마리를 얻는 일이었지만, 내 계획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몇 시간이나 도시 언저리를 헤맸다. 밤이 다가올 무렵, 나는 어느새 윌리엄과 엘리자베스와 아버지가 잠든 묘지 입구에 와 있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무덤을 알리는 묘비로

다가갔는데, 바람에 살랑이는 나뭇잎 소리 말고는 모든 것이 고요했다. 밤은 거의 캄캄했고, 그 광경은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 보아도 엄숙하고 가슴 저몄을 것이다. 떠난 이들의 넋이 둘레를 떠돌며, 보이지는 않으나 느껴지는 그림자를 애도하는 이의 머리 위에 드리우는 것 같았다.

이 광경이 처음 불러일으킨 깊은 슬픔은 곧 분노와 절망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아 있었다. 그들을 죽인 자도 살아 있었고, 그를 없애려면 나는 지친 목숨을 질질 끌고 가야 했다. 나는 풀밭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춘 뒤 떨리는 입술로 외쳤다. "내가 무릎 꿇은 이 거룩한 땅을 두고, 내 곁을 떠도는 망령들을 두고, 내가 느끼는 이 깊고 영원한 슬픔을 두고 나는 맹세한다. 그리고 밤이여, 너와 너를 다스리는 넋들을 두고, 이 비참을 불러온 악령을 그놈이든 나든 목숨을 건 싸움에서 쓰러질 때까지 뒤쫓겠다고 맹세한다. 이 일을 위해 나는 목숨을 지키겠다. 이 소중한 복수를 이루기 위해 나는 다시 해를 보고 땅의 푸른 풀을 밟겠다.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은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마땅하다. 죽은 이들의 넋이여, 그리고 떠도는 복수의 사자들이여, 너희를 부른다. 나를 도와 이 일로 이끌어 다오. 저주받은 지옥의 괴물이 고뇌를 실컷 들이켜게 하라. 지금 나를 괴롭히는 절망을 그놈도 느끼게 하라."

나는 엄숙하게, 그리고 살해된 내 사람들의 망령이 내 맹세를 듣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거의 확신하게 하는 외경 속에서 맹세를 시작했다. 그러나 맹세를 끝맺을 무렵에는 복수의 여신들이 나를 사로잡았고, 분노가 내 목소리를 틀어막았다.

밤의 고요를 뚫고, 크고 악귀 같은 웃음소리가 내게 대답했다. 그 소리는 길고 무겁게 내 귀에 울렸다. 산들이 그 소리를 되울렸고, 나는 온 지옥이 조롱과 웃음으로 나를 에워싼 것만 같았다. 내 맹세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내가 복수를 위해 남겨진 몸이 아니었다면, 그

순간 나는 틀림없이 광란에 사로잡혀 내 비참한 목숨을 끊어 버렸을 것이다.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때 귀에 익은, 그리고 내가 혐오하는 목소리가 바로 내 귓가에서 들리는 듯 똑똑히 속삭였다. "만족한다. 비참한 인간아! 너는 살기로 마음먹었구나. 나는 만족한다."

나는 소리가 난 곳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악마는 내 손아귀를 빠져나갔다. 갑자기 둥근 달이 떠올라, 사람의 것이 아닌 빠르기로 달아나는 그의 섬뜩하고 일그러진 모습을 환히 비추었다.

나는 그를 뒤쫓았다. 그리고 여러 달 동안 그것이 내 일이 되어 왔다. 희미한 실마리를 좇아 나는 굽이치는 론강을 따라갔지만 헛일이었다. 푸른 지중해가 나타났고, 기이한 우연으로 나는 악귀가 밤을 틈타 흑해로 가는 배에 올라 몸을 숨기는 것을 보았다. 나도 같은 배에 자리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빠져나갔다.

타타르와 러시아의 황야에서도 그는 여전히 나를 피했지만, 나는 늘 그의 자취를 따라갔다. 어떤 때는 이 끔찍한 허깨비에 겁먹은 농부들이 그가 간 길을 알려 주었다. 어떤 때는 내가 그의 자취를 모조리 잃으면 절망하여 죽어 버릴까 봐 두려워한 그가 몸소 나를 이끌 표시를 남겨 두었다. 눈이 내 머리 위로 쏟아졌고, 나는 하얀 벌판에 찍힌 그의 거대한 발자국을 보았다. 이제 막 삶에 들어서서 근심이 낯설고 고뇌를 모르는 당신이, 내가 느껴 왔고 지금도 느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추위와 굶주림과 피로는 내가 견뎌야 할 운명이던 고통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이었다. 나는 어떤 악마의 저주를 받아 나만의 영원한 지옥을 늘 짊어지고 다녔다. 그러나 선한 넋 하나가 나를 따르며 내 걸음을 이끌었고, 내가 가장 원망할 때면 넘을 수 없을 것만 같던 어려움에서 문득 나를 건져 주곤 했다. 어떤 때는 굶주림에 지친 몸이 기진하여 쓰러지면, 황야 한가운데에 나를 되살리고 기운을 북돋아 줄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그 지방 농부들이 먹는 것 같은 거친 음식이기는

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도움을 청해 부른 넋들이 그것을 차려 놓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겠다. 모든 것이 메마르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 내가 목말라 타들어 갈 때면, 엷은 구름이 하늘을 흐리며 나를 되살릴 빗방울 몇 개를 떨어뜨리고는 사라지곤 했다.

나는 할 수 있을 때면 강줄기를 따라갔다. 그러나 악령은 대개 강을 피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주로 강가에 모여 살았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는 사람을 보기 어려웠고, 나는 대개 길에서 마주치는 들짐승으로 끼니를 이었다. 나는 돈을 지니고 있어서 그것을 나누어 주며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잡은 짐승을 가져가 조금만 덜어 먹고, 불과 조리 도구를 내준 사람들에게 늘 나머지를 건넸다.

이렇게 흘러가는 내 삶은 참으로 증오스러웠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잠들었을 때뿐이었다. 오, 축복받은 잠이여! 가장 비참할 때 나는 자주 잠 속으로 가라앉았고, 꿈은 나를 황홀할 지경까지 달래 주었다. 나를 지키는 넋들이 내가 순례를 다할 힘을 잃지 않도록 이 행복한 순간들을, 아니 행복한 시간들을 마련해 주었다. 이 쉼이 없었다면 나는 고난에 짓눌려 쓰러졌을 것이다. 낮 동안 나를 버티게 하고 기운을 북돋워 준 것은 밤이 오리라는 희망이었다. 잠 속에서 나는 내 사람들과 아내와 사랑하는 고국을 보았고, 다시 아버지의 자애로운 얼굴을 보고, 나의 엘리자베스의 은방울 같은 목소리를 듣고, 건강과 젊음을 누리는 클레르발을 보았기 때문이다. 고된 행군에 지칠 때면 나는 밤이 올 때까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며, 밤이 되면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품에서 현실을 누리게 되리라고 나 자신을 타이르곤 했다. 나는 그들을 얼마나 애타게 그리워했던가! 깨어 있을 때조차 이따금 그들의 모습이 나를 찾아오면, 나는 그 정다운 모습에 얼마나 매달리며 그들이 아직 살아 있다고 나 자신을 설득했던가! 그런 순간이면 내 안에서 타오르던 복수심은 가슴속에서 꺼졌고, 나는 영혼의 뜨거운 갈망이라기보다

하늘이 내린 과업으로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의 기계적인 충동으로서 악령을 없애러 가는 길을 따라갔다.

내가 뒤쫓는 자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사실 그는 이따금 나무껍질에 글을 써 두거나 돌에 새겨 두어 나를 이끌고 내 분노를 부추겼다. "내 통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새긴 글 가운데 하나에서 이런 말을 읽을 수 있었다.) "너는 살아 있고, 내 힘은 온전하다. 나를 따라와라. 나는 북쪽의 영원한 얼음을 찾아간다. 거기서 너는 추위와 서리의 비참을 맛보겠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너무 늦지 않게 따라온다면 이 근처에서 죽은 산토끼 한 마리를 찾을 것이다. 먹고 기운을 차려라. 따라와라, 나의 적아. 우리는 아직 목숨을 걸고 맞붙어야 한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까지 너는 고되고 비참한 시간을 수없이 견뎌야 할 것이다."

비웃는 악마야! 나는 다시 복수를 맹세한다. 비참한 악귀야, 나는 다시 너를 고문과 죽음에 바친다. 그놈이든 나든 죽을 때까지 나는 결코 추적을 멈추지 않겠다. 그러고 나면 나는 얼마나 황홀하게 나의 엘리자베스와 세상을 떠난 내 사람들 곁으로 가게 될 것인가! 그들은 지금도 이 지루한 수고와 끔찍한 순례의 보상을 나를 위해 마련하고 있다.

내가 북쪽으로 계속 길을 가는 동안 눈은 두꺼워지고 추위는 거의 견딜 수 없을 만큼 매서워졌고, 농부들은 오두막에 틀어박혀 있었고, 가장 억센 몇 사람만이 굶주림에 못 이겨 먹이를 찾아 은신처에서 나온 짐승들을 잡으러 밖으로 나섰다. 강은 얼음에 덮여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고, 그리하여 나는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잃었다.

내 수고가 고될수록 적의 의기양양함은 커졌다. 그가 남긴 새긴 글 가운데 하나는 이러했다. "준비해라! 네 고생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털가죽으로 몸을 감싸고 먹을 것을 마련해라. 우리는 곧 여행길에 오를

것이고, 그 길에서 네가 겪을 고통이 나의 끝없는 증오를 채워 줄 것이다."

이 비웃는 말에 내 용기와 끈기는 오히려 힘을 얻었다. 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쓰러지지 않으리라 결심했고, 하늘에 나를 붙들어 달라고 빌며 조금도 꺾이지 않은 열의로 끝없는 황야를 가로질렀다. 마침내 멀리 바다가 나타나 지평선의 맨 끝을 이루었다. 아! 그 바다는 남쪽의 푸른 바다와 얼마나 달랐던가! 얼음에 덮인 그 바다는 뭍보다 더 거칠고 험하다는 것 말고는 뭍과 가려낼 수도 없었다. 그리스 사람들은 아시아의 언덕에서 지중해를 보았을 때 기뻐 울었고, 고난의 끝을 황홀하게 맞이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무릎을 꿇고 벅찬 가슴으로, 원수가 비웃었어도 그를 만나 맞붙기를 바라던 곳까지 나를 무사히 데려다준 나를 이끄는 혼령에게 감사했다.

이보다 몇 주 전에 나는 썰매와 개들을 구했고, 그 덕분에 상상도 못 할 빠르기로 눈밭을 가로질렀다. 악귀에게도 같은 이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전에는 날마다 뒤처지던 내가 이제는 그를 따라잡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 바다를 보았을 때 그는 나보다 겨우 하루 길 앞서 있을 뿐이었고, 나는 그가 바닷가에 닿기 전에 길을 가로막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새로운 용기를 얻어 서둘러 나아갔고, 이틀 만에 바닷가의 초라한 작은 마을에 닿았다.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악귀에 대해 물었고, 정확한 소식을 얻었다. 그들의 말로는 거대한 괴물 하나가 총 한 자루와 권총 여러 자루로 무장하고 전날 밤 나타나서, 무시무시한 생김새로 외딴 오두막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해 쫓아냈다고 했다. 그는 그들이 겨울을 나려고 쌓아 둔 먹을거리를 빼앗아 썰매에 싣고, 그 썰매를 끌게 하려고 길들인 개 여러 마리를 붙잡아 매고는,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그날 밤 어느 뭍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쪽으로 바다를 건너 길을 떠났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얼음이 깨져 곧 죽거나 영원한 서리에 얼어 죽으리라고 짐작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한동안 절망에 빠졌다. 그가 나를 따돌렸다. 이제 나는 바다의 산 같은 얼음을 건너, 파멸을 부르는 거의 끝없는 여행을 시작해야 했는데, 그곳 사람들도 오래 견디는 이가 드문 추위였고, 따뜻하고 볕 좋은 고장에서 태어난 나로서는 살아남기를 바랄 수조차 없는 추위였다. 그러나 악귀가 살아서 의기양양해하리라는 생각이 들자 분노와 복수심이 되살아나 거대한 밀물처럼 다른 모든 감정을 휩쓸어 버렸다. 잠시 쉬는 동안 죽은 이들의 넋이 둘레를 맴돌며 나를 수고와 복수로 부추겼고, 나는 여행 채비를 했다.

나는 뭍에서 쓰던 썰매를 얼어붙은 바다의 울퉁불퉁한 얼음에 맞게 만든 썰매로 바꾸고, 먹을거리를 넉넉히 사서 뭍을 떠났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났는지는 짐작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정당한 응보를 바라는 영원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타오르지 않았다면 결코 견딜 수 없었을 비참을 견뎌 왔다. 거대하고 험한 얼음산들이 자주 내 길을 가로막았고, 나를 삼켜 버리겠다고 으르는 바다 밑 너울의 우레 같은 소리를 자주 들었지만, 다시 서리가 내려 바닷길을 단단하게 다져 주었다.

먹어 치운 먹을거리의 양으로 보아 이 여행에서 3주를 보낸 것 같았다. 희망이 끝없이 미뤄지다가 가슴으로 되돌아올 때마다, 낙담과 슬픔의 쓰라린 눈물이 내 눈에서 쥐어짜듯 흘러나왔다. 절망은 정말이지 제 먹이를 거의 손에 넣은 참이었고, 나는 곧 이 비참에 짓눌려 쓰러질 것만 같았다. 한번은 나를 태우고 가던 가엾은 짐승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애를 써서 비탈진 얼음산 꼭대기에 올랐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지쳐 쓰러져 죽었다. 내가 고뇌에 차서 눈앞에 펼쳐진 넓은 얼음벌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어스름한 벌판 위의 검은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눈을 부릅떴고, 썰매 한 대와 그 안에 탄 낯익은 형체의 일그러진 몸집을 알아보자 황홀한 외침을 내질렀다. 아! 희망이 얼마나 뜨겁게 솟구치며 내 가슴으로 돌아왔던가! 뜨거운 눈물이 눈에 고였다. 악령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리지 않게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지만, 그 뜨거운 눈물방울 때문에 시야는 여전히 흐렸고, 마침내 나는 북받치는 감정에 무너져 소리 내어 울었다.

그러나 꾸물거릴 때가 아니었다. 나는 죽은 동료를 개들에게서 떼어내고 개들에게 먹이를 넉넉히 주었고, 꼭 필요하면서도 내게는 몹시 견디기 어려운 한 시간을 쉰 뒤에 다시 길을 떠났다. 썰매는 여전히 보였다. 이따금 얼음 바위가 그 사이에 솟은 험한 바위벽으로 잠시 가리는 때 말고는 나는 다시는 썰매를 놓치지 않았다. 나는 눈에 띄게 썰매를 따라잡았다. 그리고 이틀 가까이 길을 간 끝에 적이 겨우 1마일 앞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내 가슴은 높이 뛰었다.

그러나 원수가 거의 손에 잡힐 듯하던 바로 그때, 내 희망은 갑자기 꺼져 버렸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완전히 그의 자취를 놓치고 말았다. 바다 밑에서 너울이 이는 소리가 들렸다. 발아래에서 물이 굽이치며 부풀어 오를수록 그 우레 같은 소리는 시시각각 더 불길하고 무시무시해졌다. 나는 계속 나아갔지만 헛일이었다. 바람이 일고 바다가 울부짖더니, 거대한 지진이 덮친 것처럼 얼음이 엄청나게 귀를 찢는 소리를 내며 쩍쩍 갈라졌다. 일은 금세 끝났다. 몇 분 사이에 사납게 일렁이는 바다가 나와 적 사이를 가로질렀고, 나는 쉬지 않고 줄어들며 내게 끔찍한 죽음을 마련하는 흩어진 얼음 조각 위에 남겨져 떠돌았다.

이렇게 소름 끼치는 몇 시간이 흘렀다. 개 몇 마리가 죽었고, 나 자신도 쌓이고 쌓인 고난에 짓눌려 쓰러지려던 참이었다. 그때 닻을 내린 채 내게 구조와 삶의 희망을 내밀고 있는 당신의 배가 보였다. 배가

그렇게 먼 북쪽까지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기에 나는 그 광경에 넋을 잃었다. 나는 서둘러 썰매 일부를 부숴 노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한없이 지쳐 가며 얼음 뗏목을 당신의 배 쪽으로 저어 갈 수 있었다. 당신이 남쪽으로 가는 길이라면, 나는 내 목적을 버리느니 차라리 바다의 자비에 몸을 맡기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적을 뒤쫓을 보트 한 척을 내주도록 당신을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당신의 뱃길은 북쪽이었다. 당신이 기력이 다한 나를 배에 태워 주지 않았다면 나는 거듭된 고난에 짓눌려 곧 죽음 속으로 가라앉았을 것이다. 나는 아직도 그 죽음이 두렵다. 내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 나를 이끄는 혼령은 언제쯤 나를 그 악령에게 데려다주고, 내가 그토록 바라는 안식을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죽고 그놈은 살아남아야 한단 말인가? 내가 죽거든, 월턴, 그놈이 달아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라. 그놈을 찾아내어 그놈의 죽음으로 내 복수를 채워 주겠다고 맹세하라. 아니, 내가 감히 당신에게 내 순례를 떠맡아 내가 겪은 고난을 견뎌 달라고 청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렇게까지 이기적이지 않다. 그러나 내가 죽은 뒤에 그놈이 나타나거든, 복수의 사자들이 그놈을 당신 앞으로 데려오거든, 그놈을 살려 두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놈이 쌓이고 쌓인 내 비탄을 딛고 개가를 올리며 살아남아, 그 검은 죄의 목록에 또 하나를 보태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라. 그놈은 말을 잘하고 남을 설득하는 재주가 있다. 한때는 그놈의 말이 내 마음까지 움직였다. 그러나 그놈을 믿지 말라. 그놈의 영혼은 그 생김새만큼이나 지옥 같아서, 배신과 악귀 같은 악의로 가득하다. 그놈의 말을 듣지 말라. 윌리엄과 저스틴과 클레르발과 엘리자베스와 내 아버지, 그리고 이 비참한 빅터의 혼령을 불러내어, 당신의 칼을 그놈의 심장에 꽂으라. 나는 곁을 맴돌며 칼끝이 바로 가도록 이끌겠다.

월턴의 편지 (이어서)

17○○년 8월 26일.

누님, 이 기이하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읽으셨습니다. 지금도 제 피를 얼어붙게 하는 그 공포로 누님의 피도 얼어붙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는 갑자기 극심한 고통에 사로잡혀 이야기를 잇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갈라지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고뇌에 찬 말들을 힘겹게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름답고 고운 두 눈은 분노로 타오르다가도 어느새 고개 숙인 슬픔으로 가라앉아 끝없는 비참 속에 꺼져 들었습니다. 때로는 얼굴빛과 목소리를 다스려, 동요의 기색을 모두 누른 채 더없이 끔찍한 사건들을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다가도, 화산이 터지듯 얼굴이 갑자기 더없이 사나운 분노의 표정으로 바뀌었고, 그는 자기를 박해하는 자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뒤가 이어져 있고, 더없이 꾸밈없는 진실처럼 들립니다. 그래도 털어놓자면, 그가 보여 준 펠릭스와 사피의 편지, 그리고 우리 배에서 본 괴물의 모습이, 아무리 간절하고 조리 있는 그의 단언보다도 그 이야기가 참이라는 것을 더 굳게 믿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괴물이 정말로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움과 경탄에 넋을 잃고 맙니다. 저는 이따금 프랑켄슈타인에게서 그의 피조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내려 했지만, 이 점에서만은 그는 조금도 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벗이여, 당신 미쳤소?"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그 분별없는 호기심이 당신을 어디로 이끄는 것이오? 당신도 자신과 세상을 위해 악마 같은 적을 만들어 내려는 것이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내 불행에서 배우고, 당신의 불행을 늘리려 하지 마시오."

프랑켄슈타인은 제가 그의 이야기를 받아 적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것을 보여 달라고 하더니, 몸소 여러 군데를 고치고 보탰는데, 주로 자기 적과 나눈 대화에 생기와 숨결을 불어넣는 데 손을 댔습니다. "당신이 내 이야기를 간직해 두었으니," 그가 말했습니다. "잘려 나간 이야기가 후세에 전해지기를 나는 바라지 않소."

이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찍이 상상력이 지어낸 어떤 이야기보다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와 그의 고결하고 온화한 태도 때문에 저는 손님에게 깊은 관심을 품게 되었고, 그 관심이 제 생각과 영혼의 모든 감정을 송두리째 빨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를 달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한없이 비참하고 위로받을 희망을 모조리 잃은 사람에게 살라고 권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럴 수 없습니다! 그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산산이 부서진 정신을 평화와 죽음으로 가라앉힐 때 찾아오는 기쁨뿐일 것입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고독과 헛소리가 낳은 위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벗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교감에서 자기 불행을 달랠 위안이나 복수를 부추기는 힘을 얻을 때, 그 벗들이 자기 공상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머나먼 세계에서 자기를 찾아온 바로 그들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의 몽상에 엄숙함을 더해 주어, 제게는 그 몽상이 진실만큼이나 위엄 있고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우리 대화가 늘 그의 내력과 불행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문학 전반 어느 분야에서든 그는 끝없는 지식과 빠르고 날카로운 이해력을 보여 줍니다. 그의 웅변은 힘차고 가슴을 울려서, 그가 애처로운 사건을

이야기하거나 연민이나 사랑의 감정을 자아내려 할 때면, 저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몰락한 지금도 이토록 고귀하고 신과 같으니, 번창하던 시절에는 얼마나 눈부신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값어치와, 자기가 얼마나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지를 아는 것 같습니다.

"더 젊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언가 큰일을 하도록 운명 지어졌다고 믿었소. 나는 감정이 깊소. 그러나 빛나는 업적을 이루기에 알맞은 냉철한 판단력도 지니고 있었소. 같은 인간들에게 쓸모 있을지도 모르는 재능을 쓸데없는 슬픔 속에 내버리는 것은 죄라고 여겼기에, 내 본성의 값어치를 믿는 이 마음이 다른 사람이라면 짓눌렸을 때에도 나를 버티게 해 주었소. 내가 이룬 일, 다름 아닌 감각과 이성을 지닌 동물을 창조한 일을 돌이켜 볼 때면, 나는 나 자신을 흔해 빠진 궁리꾼들의 무리와 한데 놓을 수 없었소. 그러나 내가 처음 길을 나설 때 나를 버티게 해 준 이 생각이, 이제는 나를 더 깊은 먼지 속으로 처박을 뿐이오. 내 모든 궁리와 희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고, 전능을 넘보았던 그 대천사처럼 나는 영원한 지옥에 사슬로 묶여 있소. 내 상상력은 생생했고 분석하고 실행하는 힘도 강렬했는데, 이 두 자질이 하나로 합쳐진 덕분에 나는 사람을 창조한다는 생각을 품었고, 그것을 해냈소. 지금도 그 일이 끝나지 않았던 무렵의 몽상을 떠올리면 가슴이 끓어오르오. 나는 생각 속에서 하늘을 거닐었소. 어떤 때는 내 힘에 우쭐했고, 어떤 때는 그 힘이 낳을 결과를 생각하며 불타올랐소. 나는 어려서부터 높은 희망과 드높은 야망을 품고 자랐소. 그런데 얼마나 깊이 가라앉았는지! 오, 벗이여, 예전의 나를 알았더라면 당신은 이렇게 타락한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오. 낙담이 내 마음을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고, 높은 운명이 나를 실어 가는 것만 같았소. 내가 떨어져서, 다시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될 때까지는."

그렇다면 저는 이 훌륭한 존재를 잃어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벗을 그리워했습니다. 저와 공감하고 저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보십시오, 이 황량한 바다에서 저는 그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값어치를 알자마자 그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저는 그가 삶과 화해하게 하고 싶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물리칩니다.

"고맙소, 월턴." 그가 말했습니다. "이토록 비참한 인간에게 친절한 뜻을 품어 주어서. 하지만 당신이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애정을 이야기할 때, 그 무엇이 떠나간 이들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오? 어떤 남자가 내게 클레르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소? 어떤 여자가 또 하나의 엘리자베스가 될 수 있겠소? 남다른 장점 때문에 애정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도, 어린 시절의 길동무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어떤 힘을 지니고 있어서, 나중에 사귄 벗은 그런 힘을 거의 얻지 못하오. 그들은 우리의 어린 시절 기질을 알고, 그 기질은 나중에 아무리 바뀌어도 결코 뿌리 뽑히지 않는 법이니, 그들은 우리 동기가 올곧은지 더 확실하게 가늠하며 우리 행동을 판단할 수 있소. 누이나 형제는, 일찍부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은 한, 서로를 속임수나 협잡으로 의심하는 일이 없지만, 다른 벗은 아무리 굳게 정이 들었더라도 저도 모르게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될 수 있소. 그런데 나는 습관과 어울림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람됨 때문에 소중했던 벗들을 누렸소.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 내 엘리자베스의 달래는 목소리와 클레르발의 이야기가 언제까지나 귓가에 속삭일 것이오. 그들은 죽었소. 그리고 이런 고독 속에서 내게 목숨을 이어 가라고 설득할 수 있는 감정은 단 하나뿐이오. 내가 같은 인간들에게 널리 쓸모 있을 어떤 고귀한 일이나 계획에 매달려 있다면,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내 운명은 그렇지 않소. 나는

내가 생명을 준 그 존재를 뒤쫓아 없애야 하오. 그러면 이 땅에서 내 몫은 다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죽어도 되오."

◆

9월 2일.

사랑하는 누님께

저는 위험에 둘러싸인 채, 그리운 영국과 그곳에 사는 더 그리운 벗들을 다시 볼 운명이 제게 남아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빠져나갈 틈이라고는 없는 얼음산들에 에워싸여 있고, 그 얼음산들은 언제라도 배를 짓부술 듯 위협합니다. 제가 설득해서 길동무로 삼은 용감한 사람들이 도움을 바라며 저를 쳐다보지만, 제게는 내줄 도움이 없습니다. 우리 처지에는 무언가 몸서리쳐지도록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 용기와 희망은 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의 목숨이 저 때문에 위태로워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그 까닭은 제 미친 계획입니다.

그러면 누님, 누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누님께서는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신 채 애타게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것이고, 여러 해가 흐르는 동안 때때로 절망에 사로잡히시면서도 희망에 시달리실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누님, 진심으로 품으신 기대가 맥없이 꺾여 가는 것을 생각하면, 제게는 그것이 제 죽음보다 더 끔찍합니다. 그래도 누님께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으니, 누님은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이 누님께 복을 내려 행복하게 해 주기를!

불운한 제 손님은 더없이 따뜻한 연민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는 제게 희망을 불어넣으려 애쓰고,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는 이 바다에 도전했던 다른 항해자들에게도 같은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일깨워 주고, 저도 모르게 저를 밝은 예감으로 채웁니다. 선원들조차 그의 웅변의 힘을 느낍니다. 그가 말을 하면 그들은 더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기운을 북돋우고, 그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는 동안에는 이 거대한 얼음산들이 사람의 결심 앞에서 사라져 버릴 두더지 흙두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분은 오래가지 않아서, 기대가 미뤄지는 날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저는 이 절망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9월 5일.

방금 참으로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글이 누님께 끝내 닿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록해 두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얼음산들에 에워싸여 있고, 얼음산들이 서로 부딪치는 틈에 짓부서질 위험이 여전히 코앞에 있습니다. 추위가 혹독해서, 불운한 동료들 가운데 여럿이 벌써 이 황량한 곳에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의 건강은 날마다 나빠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 열띤 불길이 깜박이지만 그는 기진맥진하여, 갑자기 무슨 일로 기운을 끌어내고 나면 곧 다시 죽은 듯 가라앉고 맙니다.

지난 편지에서 저는 반란이 일어날까 봐 두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반쯤 감긴 눈에 팔다리를 힘없이 늘어뜨린 벗의 창백한 얼굴을 제가 앉아서 지켜보고 있을 때, 선원 여섯 사람이 선실에 들여보내 달라고 하는 바람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이 들어왔고, 그 우두머리가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자기와 동료들이 다른 선원들에게 뽑혀 대표로 왔으며, 제가 정의에 비추어 거절할 수 없는 요구를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음에 갇혀 있으니 아마 영영 빠져나가지 못하겠지만, 혹시라도 얼음이 흩어져 길이 트이면 이번 위험을 다행히 넘기고 나서도 제가 무모하게 항해를 이어 가 그들을

새로운 위험으로 끌고 갈까 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가 풀려나면 곧바로 남쪽으로 뱃머리를 돌리겠다고 제가 엄숙히 약속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이 말에 저는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절망하지 않았고, 풀려나면 돌아가겠다는 생각도 아직 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로 보나, 아니 할 수 있느냐로 보나, 제가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답하기를 망설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잠자코 있었고 사실 귀 기울일 기운조차 거의 없어 보이던 프랑켄슈타인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고, 뺨은 잠깐 되살아난 기운으로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선원들 쪽으로 몸을 돌리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오? 여러분은 선장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오? 여러분은 그렇게 쉽게 뜻을 꺾는단 말이오? 여러분은 이 탐험을 영광스러운 탐험이라고 부르지 않았소? 그런데 어째서 영광스러웠소? 길이 남쪽 바다처럼 평탄하고 잔잔해서가 아니라, 위험과 공포로 가득했기 때문이오. 새로운 일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의 꿋꿋함을 불러내고 용기를 드러내야 했고, 위험과 죽음이 이 일을 에워싸고 있어서 여러분이 그것들에 맞서 이겨 내야 했기 때문이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그래서 명예로운 일이었소. 여러분은 훗날 인류의 은인으로 칭송받고, 여러분의 이름은 명예와 인류의 이익을 위해 죽음에 맞선 용감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우러름을 받을 터였소. 그런데 이제 보시오, 위험을 처음 상상하자마자, 아니 굳이 말하자면 여러분의 용기를 처음으로 크고 무섭게 시험하자마자, 여러분은 움츠러들어 물러서고, 추위와 위험을 견딜 힘이 없던 사람들로 후세에 전해져도 좋다고 하는구려. '가엾게도 그 사람들은 추위를 타서 따뜻한 난롯가로 돌아갔다'고 말이오. 아니, 그러려면 이런 채비도 필요 없었소. 그저 겁쟁이임을 보여 주려고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선장을 패배의 수치로 끌고 갈 까닭은 없었소. 오!

사나이가 되시오. 아니, 사나이 이상이 되시오. 목적을 굳게 지키고 바위처럼 단단하시오. 이 얼음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럴 수 있는 만큼 단단한 재료로 빚어지지 않았소. 얼음은 변하는 것이어서, 여러분이 그러지 못하게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을 당해 내지 못하오. 이마에 치욕의 낙인을 찍은 채 가족에게 돌아가지 말고, 싸워서 이기고 적에게 등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영웅으로 돌아가시오."

그는 말에 담긴 갖가지 감정에 맞추어 목소리를 바꾸어 가며, 드높은 뜻과 영웅다운 기상이 가득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선원들이 마음이 움직였다고 해서 놀라실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러가서 방금 들은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그들이 한사코 바란다면 더 북쪽으로 데려가지는 않겠지만 생각해 보면 용기가 되살아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물러가자 저는 벗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운이 다해 가라앉아 있었고, 거의 숨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부끄럽게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래도 영광과 명예라는 생각에 떠받쳐지지 않는 선원들이 지금의 고난을 기꺼이 계속 견뎌 낼 리는 없으니, 그것이 제 운명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9월 7일.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돌아가기로 저는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제 희망은 비겁함과 우유부단함에 꺾이고, 저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실망만 안고 돌아갑니다. 이 부당함을 참을성 있게 견디려면 제가 지닌 것보다 더 많은 철학이 필요합니다.

9월 12일.

다 끝났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쓸모 있는 일을 하고 영광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벗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누님, 이 쓰라린 일들을 누님께 자세히 말씀드리려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누님께로 실려 가는 동안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9월 9일, 얼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섬들이 사방에서 쪼개지고 갈라지면서 멀리서 우레 같은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더없이 위급한 처지에 있었지만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제 관심은 주로 불운한 손님에게 쏠려 있었는데, 병세가 어찌나 깊어졌는지 그는 아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얼음이 우리 뒤에서 갈라져 북쪽으로 세차게 밀려갔고, 서쪽에서 산들바람이 일더니 11일에는 남쪽으로 가는 뱃길이 완전히 트였습니다. 선원들은 이것을 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확실해진 것 같자, 시끌벅적한 기쁨의 함성을 크게, 오래도록 질렀습니다. 졸고 있던 프랑켄슈타인이 깨어나 웬 소란이냐고 물었습니다. "곧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돌아가는 것이오?"

"아아, 그렇습니다. 저는 그들의 요구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싫다는 사람들을 위험 속으로 끌고 갈 수는 없으니,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나는 돌아가지 않겠소. 당신은 목적을 버려도 되지만, 내 목적은 하늘이 내게 맡긴 것이니 감히 버릴 수 없소. 나는 약하오. 그러나 내 복수를 돕는 혼령들이 틀림없이 넉넉한 힘을 내려 줄 것이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그러기에는 힘이 너무 부쳤습니다. 그는 뒤로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는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렸고, 저는 숨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눈을 떴지만, 숨쉬기를 힘겨워했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의 의사는 그에게 진정제를 먹이고, 그를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우리에게 이르면서, 제 벗이 몇 시간 살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선고는 내려졌고, 저는 그저 슬퍼하며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침대 곁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고, 저는 그가 잠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가 힘없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니, 가까이 오라고 하고는 말했습니다. "아아, 내가 믿던 힘은 사라졌소. 나는 곧 죽을 것이오. 그런데 그자, 나의 적이자 박해자는 아직 살아 있을지도 모르오. 월턴, 숨이 다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전에 드러냈던 그 불타는 증오와 뜨거운 복수욕을 느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다만 나는 내 원수의 죽음을 바라는 것이 옳다고 느끼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지난날 내 행동을 되짚어 보았소. 그리고 탓할 데가 없다고 여기오. 열광의 광기에 사로잡혀 나는 이성을 지닌 피조물을 창조했고, 내 힘이 닿는 한 그의 행복과 안녕을 지켜 줄 책임을 그에게 졌소. 그것은 내 의무였소. 그러나 그보다 더 무거운 의무가 또 하나 있었소. 나와 같은 종의 존재들에 대한 내 의무가 더 큰 관심을 요구했소. 거기에 더 큰 몫의 행복이나 불행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오. 이런 생각에 떠밀려 나는 첫 피조물에게 짝을 만들어 주기를 거절했고, 거절한 것은 옳았소. 그는 악행에서 유례없는 사악함과 이기심을 드러냈소. 그는 내 벗들을 죽였고, 섬세한 감수성과 행복과 지혜를 지닌 존재들을 파멸에 바쳤소. 그리고 이 복수의 갈증이 어디서 끝날지 나는 모르오. 그 자신이 비참하니, 다른 이를 비참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그는 죽어야 하오. 그를 없애는 일은 내 몫이었으나 나는 실패했소. 이기적이고 사악한 동기에 휘둘리던 때에 나는 내가 끝내지 못한 일을

떠맡아 달라고 당신에게 청했는데, 이제 이성과 덕에만 이끌려 그 부탁을 다시 하오."

"그렇다고 이 일을 이루려고 고국과 벗들을 버려 달라고 당신에게 청할 수는 없고, 게다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이니 그와 마주칠 기회도 거의 없을 것이오. 그러나 이런 점들을 헤아리고, 당신이 의무라고 여기는 것들을 잘 저울질하는 일은 당신에게 맡기겠소. 죽음이 가까워 오니 내 판단과 생각은 벌써 흐려졌소.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해 달라고 감히 청할 수 없소. 나는 아직도 정념에 눈이 멀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오."

"그가 살아남아 해악의 도구가 되리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오. 그 밖에는, 이제나저제나 풀려나기를 기다리는 지금 이 시간이 지난 여러 해 동안 내가 누린 단 하나의 행복한 시간이오. 사랑하는 죽은 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나는 서둘러 그들의 품으로 가오. 잘 있으시오, 월턴! 고요함 속에서 행복을 찾고, 야망을 피하시오. 과학과 발견으로 이름을 떨치려는, 겉보기에는 죄 없어 보이는 야망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오? 나 자신은 이 희망에 꺾였지만, 다른 누군가는 성공할지도 모르는데."

말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마침내 애쓰다 기진한 그는 입을 다물었는데, 30분쯤 뒤에 다시 말을 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힘없이 제 손을 쥐었고, 부드러운 미소의 빛이 입술에서 스러지는 사이 그의 눈은 영원히 감겼습니다.

누님, 이 영광스러운 정신이 때 이르게 꺼져 버린 일에 제가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제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누님께서 헤아리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모자라고 힘없을 것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제 마음은 실망의 구름에 어둡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영국을 향해 가고 있으니, 그곳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글을 쓰는데 무언가가 방해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리는 소리입니까? 지금은 한밤중입니다. 바람은 순하게 불고, 갑판의 당직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들립니다. 사람의 목소리 같지만 더 쉰 소리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유해가 아직 누워 있는 선실에서 들려옵니다. 일어나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누님.

오, 하느님! 방금 얼마나 엄청난 광경이 벌어졌는지! 그 기억에 저는 아직도 어질어질합니다. 그 일을 자세히 적을 힘이 제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의 경이로운 파국이 빠진다면 제가 기록해 온 이야기는 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불운하고도 훌륭한 제 벗의 유해가 누워 있는 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위로 어떤 형체가 몸을 굽히고 있었는데, 무어라 묘사할 말조차 찾을 수 없는 그 형체는 키가 거인처럼 컸으나 몸의 균형은 볼품없고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관 위로 몸을 굽히고 있는 그의 얼굴은 길게 늘어진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가려 있었지만, 뻗어 나온 거대한 손 하나는 빛깔도 겉보기 살결도 미라의 손 같았습니다. 제가 다가가는 소리를 듣자 그는 비탄과 공포의 외침을 멈추고 창문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처럼 끔찍한 광경을, 그토록 역겹고도 소름 끼치게 흉측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이 파괴자를 두고 제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이었는지 떠올리려 애쓰다가, 그에게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자기 창조자의 숨 없는 몸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제가 있다는 것을 잊은 듯했고, 그의 이목구비와 몸짓 하나하나가 억누를 수 없는 어떤 정념의 더없이 사나운 분노에 휘둘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도 내 희생자요!" 그가 외쳤습니다. "그를 죽임으로써 내 죄는 완성되었소. 내 존재의 비참한 연쇄가 끝에 이르렀소! 오, 프랑켄슈타인! 너그럽고 자기를 바친 존재여! 이제 와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당신에게 비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소? 당신이 사랑한 모든 것을 없앰으로써 당신을 돌이킬 수 없이 파멸시킨 내가 말이오. 아아! 그는 차갑게 식었소. 내게 대답할 수 없소."

그의 목소리는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죽어 가는 벗의 부탁을 따라 그의 적을 없애는 것이 제 의무라고 일깨우던 처음의 충동은, 이제 호기심과 연민이 뒤섞인 마음에 밀려 멈칫했습니다. 저는 이 무시무시한 존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흉측함에는 무언가 섬뜩하고 이 세상 것이 아닌 데가 있어서, 저는 감히 그의 얼굴로 다시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말은 입술에서 사라져 버렸고, 괴물은 거칠고 앞뒤가 맞지 않는 자책을 계속 쏟아 냈습니다. 마침내 저는 마음을 다잡고, 폭풍 같은 그의 격정이 잠시 잦아든 틈에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뉘우침은 이제 쓸데없소."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악마 같은 복수를 이 지경까지 몰아붙이기 전에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책의 쓰라림에 마음을 썼더라면, 프랑켄슈타인은 아직 살아 있을 것이오."

"꿈이라도 꾸는 것이오?" 악령이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고뇌와 가책에 무감각했다고 생각하오? 그는," 그가 주검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이 끝나는 순간에도 괴로워하지 않았소. 아! 그 일을 하나하나 질질 끌며 해 나가는 동안 내가 겪은 고뇌의 만분의 일도 겪지 않았소. 무서운 이기심이 나를 몰아붙였고, 그동안 내 마음은 가책의 독에 물들어 있었소. 클레르발의 신음이 내 귀에 음악으로 들렸으리라 생각하오? 내 마음은 사랑과 공감을 느끼도록 빚어졌소.

그런데 불행에 비틀려 악덕과 증오로 돌아섰을 때, 내 마음은 당신이 상상도 못 할 고문을 겪지 않고는 그 거센 변화를 견디지 못했소."

"클레르발을 죽인 뒤 나는 가슴이 찢어지고 기진한 채 스위스로 돌아왔소. 나는 프랑켄슈타인을 가엾게 여겼소. 그 연민은 공포에 이를 만큼 컸소. 나는 나 자신을 혐오했소. 그러나 내 존재와 그 존재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한꺼번에 지어낸 그가 감히 행복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내게는 비참과 절망을 쌓아 올리면서 자기는 내가 영영 누리지 못할 감정과 정념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무력한 시기와 쓰라린 분노가 채울 수 없는 복수의 갈증으로 나를 가득 채웠소. 나는 내가 한 위협을 떠올렸고, 그것을 이루기로 마음먹었소. 나 자신에게 죽을 만큼의 고문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소. 그러나 나는 내가 혐오하면서도 거역할 수 없는 충동의 노예였지, 주인이 아니었소. 그런데 그 여자가 죽었을 때! 아니, 그때 나는 비참하지 않았소. 나는 모든 감정을 내던지고 모든 고뇌를 억눌러, 넘치는 절망 속에서 날뛰었소. 그때부터 악이 나의 선이 되었소. 여기까지 떠밀려 오자, 내가 스스로 골라 들어선 그 세계에 내 본성을 맞추는 수밖에 없었소. 악마 같은 내 계획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채울 수 없는 열망이 되었소.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났소. 저기 나의 마지막 희생자가 있소!"

처음에는 그가 비참함을 토로하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켄슈타인이 그의 웅변과 설득의 힘을 두고 한 말을 떠올리고, 다시 벗의 숨 없는 몸에 눈길을 주자, 제 안에서 분노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흉물 같으니!"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참화를 두고 여기 와서 징징거리다니, 참 잘하는 짓이오. 당신은 늘어선 집들에 횃불을 던져 놓고, 집들이 다 타 버리면 폐허 가운데 앉아 무너진 것을 슬퍼하는구려. 위선에 찬 악귀 같으니! 당신이 애도하는 그가 아직 살아 있다면 그는

여전히 당신의 저주받은 복수의 표적일 것이고, 또다시 그 복수의 먹이가 될 것이오. 당신이 느끼는 것은 연민이 아니오. 당신의 악의에 희생될 자가 당신 손아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한탄할 뿐이오."

"아, 그렇지 않소. 그렇지 않소." 그 존재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행동의 뜻이 그렇게 보이는 만큼, 당신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오. 그래도 나는 내 비참함을 함께 느껴 줄 이를 찾지 않소. 나는 결코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오. 처음 공감을 찾았을 때 내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덕을 사랑하는 마음, 내 온 존재에 넘쳐흐르던 행복과 애정의 감정이었소. 그러나 이제 덕은 내게 그림자가 되었고 행복과 애정은 쓰라리고 역겨운 절망으로 바뀌었으니, 무엇에서 공감을 찾겠소? 내 고통이 이어지는 동안 나는 혼자 고통받는 것으로 족하오. 내가 죽으면 내 기억에 혐오와 치욕이 쏟아져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소. 한때 내 공상은 덕과 명성과 즐거움의 꿈으로 위로를 받았고, 한때 나는 내 겉모습을 용서하고 내가 펼쳐 보일 수 있는 훌륭한 자질 때문에 나를 사랑해 줄 존재들을 만나리라고 헛되이 바랐소. 나는 명예와 헌신이라는 높은 생각을 먹고 자랐소. 그러나 이제 죄는 나를 가장 비천한 짐승보다 더 낮게 끌어내렸소. 그 어떤 죄도, 해악도, 악의도, 비참도 내 것에 견줄 수 없소. 내 죄의 끔찍한 목록을 훑어볼 때면, 한때 선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그리는 숭고하고 초월적인 환상으로 생각이 가득했던 그 피조물이 바로 나라는 것을 믿을 수 없소. 그러나 그렇소. 타락한 천사는 사악한 악마가 되는 법이오. 그래도 신과 인간의 그 원수에게는 황량한 처지에서도 벗과 동료들이 있었소. 나는 혼자요."

"프랑켄슈타인을 벗이라 부르는 당신은 내 죄와 그의 불행을 아는 것 같소. 그러나 그가 당신에게 낱낱이 들려준 이야기 속에서도, 무력한 정념 속에 시들어 가며 내가 견딘 그 비참한 시간과 달들을 그는 다 헤아리지 못했을 것이오. 나는 그의 희망을 부수면서도 내 소망은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오. 내 소망은 언제나 뜨겁고 굶주려 있었소. 나는 여전히 사랑과 벗을 바랐고, 여전히 걷어차였소. 여기에 부당함이 없단 말이오? 온 인류가 내게 죄를 지었는데 나만이 죄인으로 여겨져야 하오? 어째서 당신은 자기 벗을 모욕하며 문밖으로 내쫓은 펠릭스를 미워하지 않소? 어째서 자기 아이를 구해 준 은인을 죽이려 한 그 시골 사람을 저주하지 않소? 아니지, 그들은 덕스럽고 티 없는 존재들이오! 비참하고 버림받은 나는 제대로 태어나지 못한 것, 걷어차이고 짓밟혀야 할 것이오. 지금도 이 부당함을 떠올리면 피가 끓소."

"그러나 내가 비참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오. 나는 사랑스럽고 힘없는 이들을 죽였소. 잠든 죄 없는 이를 목 졸라 죽였고, 나에게도 다른 어떤 생명에게도 해를 끼친 적 없는 사람의 목을 움켜쥐어 죽음에 이르게 했소. 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모든 것의 가장 빼어난 본보기인 나의 창조자를 불행에 바쳤소. 나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이를 때까지 그를 뒤쫓았소. 저기 그가 누워 있소. 죽음 속에 하얗고 차갑게. 당신은 나를 미워하오. 그러나 당신의 혐오는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오. 나는 그 짓을 저지른 이 두 손을 보고, 그 짓을 처음 그려 낸 이 마음을 생각하며, 이 두 손이 더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상상이 더는 내 생각을 괴롭히지 않을 순간을 애타게 기다리오."

"내가 앞으로 해악의 도구가 되리라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 일은 거의 끝났소. 내 존재의 연쇄를 완성하고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루는 데에는 당신의 죽음도, 다른 어느 사람의 죽음도 필요하지 않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의 죽음이오. 내가 이 희생을 머뭇거리리라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나를 이리로 데려온 얼음 뗏목을 타고 당신 배를 떠나, 지구의 가장 북쪽 끝을 찾아가, 거기서 화장 장작더미를 모아 이 비참한 몸을 태워 재로 만들 것이오. 그 남은 것이 호기심 많고 불경한 어떤 인간에게 실마리가

되어, 그가 나 같은 것을 또 하나 만들어 내는 일이 없도록 말이오. 나는 죽을 것이오. 지금 나를 태우는 고통을 더는 느끼지 않을 것이고, 채워지지도 꺼지지도 않는 감정의 먹이가 되지도 않을 것이오. 나를 존재하게 한 그는 죽었소. 내가 없어지면 우리 둘에 대한 기억마저 곧 사라질 것이오. 나는 더는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뺨을 스치는 바람도 느끼지 못할 것이오. 빛도, 느낌도, 감각도 사라질 것이오. 그런 상태에서 나는 행복을 찾아야 하오. 몇 해 전, 이 세상이 보여 주는 모습들이 처음 내게 열렸을 때, 여름의 반가운 온기를 느끼고 나뭇잎이 사각대는 소리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들이 내게 전부였을 때라면 나는 죽게 된다고 울었을 것이오. 이제는 죽음이 나의 단 하나의 위안이오. 죄로 더럽혀지고 더없이 쓰라린 가책에 찢긴 내가 죽음 말고 어디서 안식을 찾을 수 있겠소?"

"잘 있으시오! 나는 당신을, 그리고 당신 안에서 이 눈이 보게 될 마지막 인간을 떠나오. 잘 가시오, 프랑켄슈타인! 당신이 아직 살아 있고 아직 내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복수는 내가 죽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것으로 더 잘 채워질 것이오. 그러나 그렇지 않았소. 당신은 내가 더 큰 비참을 낳지 못하도록 나를 없애려 했소. 그리고 내가 모르는 어떤 길로 당신이 아직 생각하고 느끼기를 그치지 않았다 해도, 당신은 내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더 큰 복수를 내게 바라지는 않을 것이오. 당신이 아무리 망가졌다 해도 내 고뇌는 여전히 당신의 고뇌보다 컸소. 가책의 쓰라린 침은 죽음이 내 상처를 영원히 닫을 때까지 그 상처 속에서 쑤시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오."

"하지만 곧," 그는 슬프고도 엄숙한 열정에 차서 외쳤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오. 그러면 지금 느끼는 이것도 더는 느끼지 않게 되겠소. 곧 이 타오르는 괴로움도 꺼질 터이오. 나는 의기양양하게 화장 장작더미에 올라, 나를 태우는 불길의 고통 속에서 기뻐 날뛸 것이오. 그 큰불의

빛도 스러지고, 내 재는 바람에 쓸려 바다로 흩어질 것이오. 내 영혼은 평화로이 잠들 것이오. 아니, 생각이란 것을 한다 해도 결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오. 잘 있으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선실 창문에서 배 바로 곁에 떠 있던 얼음 뗏목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곧 물결에 실려 멀어져 갔고, 어둠과 아득한 거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판권면

프랑켄슈타인

원제 ·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

지은이 · 메리 셸리 (Mary Wollstonecraft Shelley, 1797~1851)

초판 · 1818년, 런던 래킹턴·휴스·하딩·메이버·존스, 세 권(지은이 이름 없이).

저본 · 1831년 개정판(런던 헨리 콜번·리처드 벤틀리, 한 권. 지은이가 문장을 고치고 새 서문을 붙임)을 옮겨 적은 퍼블릭 도메인 영어 전자 텍스트. 삽화는 싣지 않았다.

분량 · 원문 77,911단어 · 서문 2편, 편지 4통, 24장, 월턴의 편지(이어서) · 789문단 · 원주 3개, 옮긴이 주 15개

저작권 · 지은이가 1851년에 사망했고 원저작물은 1818년과 1831년에 나왔으므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퍼블릭 도메인이다.

한국어 번역 · 에테르 라이브러리가 옮겼고 번역문의 저작권도 에테르 라이브러리에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CC BY-NC 4.0) 조건으로 누구나 읽고 공유할 수 있다.

판 · 1.0판 · 2026년 10월 · 표지 그림과 판짜기 에테르 라이브러리

◆

원저 퍼블릭 도메인 · 한국어 번역 **CC BY-NC 4.0**

에테르 라이브러리 · Ether Library · 총서 0020